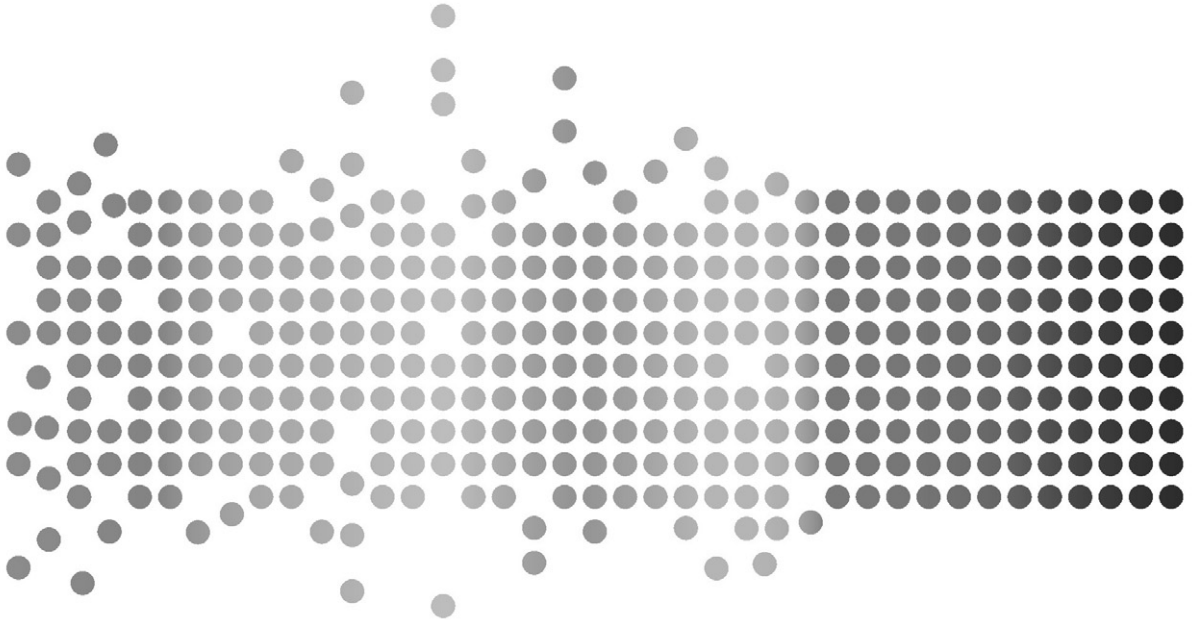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정경희 · 이소정 · 이윤경 · 김수봉 · 선우덕 · 오영희 · 김경래 · 박보미 · 유혜영 · 이은진



연구보고서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발행일	2010년 12월
저자	정경희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16-3 93330



머리말

1955년부터 1963년 기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만이가 2010년이면 55세가 되어 고령자가 되기 시작하며 2020년이면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정책 이후인 1955년부터 9년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 2010년 현재 약 712만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베이비붐 세대에 비하여 규모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에 비해서 그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제특성은 그들의 욕구의 내용 및 서비스 기대수준 등에 변화를 가져와 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의 가족관계, 여가활용실태, 노동에 대한 태도 및 행태, 노후소득의 구성과 규모, 건강상태, 가치관 등은 현노인세대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이들의 특성과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 더불어 정책적 대응 방안 또한 이들의 현재의 삶의 질 향상과 노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이 발생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이 준비된

활기찬 노후를 향유하고,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과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양적·질적 특성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제특성과 욕구를 정책수립의 맥락에서 체계적·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정경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원내의 이소정 부연구위원, 오영희 부연구위원, 선우덕 연구위원, 김수봉 연구위원, 이윤경 부연구위원, 김경래 선임연구원, 박보미 연구원, 유혜영 연구원, 이은진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 해주신 본원의 강혜규 연구위원과 조애저 초빙연구위원, 소중한 검토의견을 주신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의 한경혜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진은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도와주신 본원 통계개발팀의 손창균 부연구위원, 조사패널팀의 이연희 팀장 및 팀원 일동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선행연구 검토	23
제1절 베이비 부머의 정의	23
제2절 한국 베이비 부머의 성장배경 및 특징	26
제3절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 검토	27
제3장 조사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	41
제1절 베이비 부머의 일반특성	41
제2절 베이비 부머 가구의 가구주 특성	50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종교 및 종교활동 실태	51
제4절 베이비 부머의 삶의 만족도	54
제4장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59
제1절 가족 현황	59
제2절 부모와의 관계 및 부양의 교환실태	64
제3절 부부관계	86
제4절 자녀와의 관계 및 부양의 교환	87
제5절 사회관계	101

제5장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109
제1절 건강실천행위	109
제2절 건강상태	130
제6장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139
제1절 경제수준	139
제2절 소비스타일	171
제7장 경제활동	195
제1절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	195
제2절 40대 이후 현업에서의 퇴직 경험	212
제3절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219
제8장 사회참여 실태	231
제1절 여가활동	231
제2절 단체활동	240
제3절 노후교육 및 노후설계 컨설팅	254
제9장 노후 가치관 및 정책인지도	271
제1절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 관련 가치관	271
제2절 죽음 및 상제례에 대한 가치관	293
제3절 정책 인지도 및 욕구	304

제10장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331
제1절 주요 조사결과	331
제2절 정책제언	336
 참고문헌	 347
 부 록	 357

표 목차

〈표 1- 1〉 베이비 부머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주요 내용	18
〈표 2- 1〉 관련 선행조사의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비교	32
〈표 3- 1〉 베이비 부머의 일반특성	43
〈표 3- 2〉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 제특성	45
〈표 3- 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별 제특성	47
〈표 3- 4〉 베이비 부머의 성별 제특성	49
〈표 3- 5〉 가구주의 일반특성	50
〈표 3- 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종교	51
〈표 3- 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종교활동 빈도	53
〈표 3- 8〉 베이비 부머의 삶의 만족도 항목별 평균점수	55
〈표 3- 9〉 베이비 부머의 일반적 특성별 삶의 만족도	56
〈표 4- 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녀 및 손자녀 현황	62
〈표 4- 2〉 베이비 부머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	63
〈표 4- 3〉 베이비 부머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생존 및 건강상태, 접촉 실태	66
〈표 4- 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접촉 실태	67
〈표 4- 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 실태	68
〈표 4- 6〉 베이비 부머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71
〈표 4- 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72
〈표 4- 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73
〈표 4- 9〉 베이비 부머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77

〈표 4-1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	78
〈표 4-1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 실태	79
〈표 4-1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제공에 느끼는 부담감	80
〈표 4-1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교환 실태	82
〈표 4-1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친밀감 정도	83
〈표 4-1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 친밀감 비교	85
〈표 4-1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86
〈표 4-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별거자녀와의 접촉 실태	88
〈표 4-18〉 자주 접촉하는 별거자녀의 특성	89
〈표 4-19〉 베이비 부머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90
〈표 4-2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녀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92
〈표 4-21〉 베이비 부머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 수혜 실태	93
〈표 4-22〉 부양 내용별 주 제공자·수혜자의 비율	94
〈표 4-2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경제적 도움 제공하는 성인자녀수	96
〈표 4-24〉 베이비 부머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성인자녀의 특성 및 지원내용	97
〈표 4-25〉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가 느끼는 부담감 정도	98
〈표 4-26〉 베이비 부머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00
〈표 4-2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수	102
〈표 4-2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구와의 접촉 빈도	103

〈표 4-2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주 접촉하는 지인	104
〈표 4-30〉 베이비 부머가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106
〈표 5- 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흡연습관	111
〈표 5- 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음주습관	113
〈표 5- 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운동실태	115
〈표 5- 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당 운동 횟수	117
〈표 5- 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운동시설의 유형	118
〈표 5- 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운동하지 않는 이유	120
〈표 5- 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다양한 식품섭취의 유지경향 ..	121
〈표 5- 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식품(종합비타민, 칼슘제, 보약 등)의 섭취여부	122
〈표 5- 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검진 수진여부	124
〈표 5-1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검진 후 증상(질병) 발견 및 치료(관리)여부	125
〈표 5-1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검진후 증상(질병)의 치료(관리)하지 않는 이유	126
〈표 5-1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검진의 미수진 이유	128
〈표 5-1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129
〈표 5-1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만성질환 진단여부	131
〈표 5-1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우울증상의 여부	132
〈표 5-1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갱년기증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여부	134
〈표 5-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 ..	135
〈표 6- 1〉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141
〈표 6- 2〉 조사대상 가구의 자산규모	143

〈표 6- 3〉 조사가구의 부채규모	145
〈표 6- 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관적 소속계층	147
〈표 6- 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과거 경제생활수준	149
〈표 6- 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10년 후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전망 ..	151
〈표 6- 7〉 조사가구의 소비지출 실태	153
〈표 6- 8〉 조사가구의 여행비 지출 실태	155
〈표 6- 9〉 조사가구의 교육비 지출 실태	157
〈표 6-10〉 조사가구의 외식비 지출 실태	159
〈표 6-11〉 조사가구의 저축 및 보험료 지출 실태	161
〈표 6-1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영양위험에 대한 저축, 민간보험 가입 여부	163
〈표 6-1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위험에 대한 저축, 민간보험 가입 여부	166
〈표 6-1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저축, 민간보험 가입 여부	168
〈표 6-1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목돈마련에 대한 저축, 민간보험 가입 여부	170
〈표 6-1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정보이용 소비행태	173
〈표 6-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근접성 소비행태	175
〈표 6-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감성적 소비행태	177
〈표 6-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독립적 소비행태	179
〈표 6-2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모바일기기 이용한 금융서비스, 상품 구매의 소비경향	181
〈표 6-2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소비경향	183
〈표 6-2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환경제품 우선구매경향	185

〈표 6-2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인터넷동호회나 카페활동을 통한 취미활동 경향	187
〈표 6-2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40대 이후 새로 시작한 취미·문화활동 여부	189
〈표 6-2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다른 나라의 음식, 예술·문화상품, 여행상품에 대한 관심여부	191
〈표 7- 1〉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경제활동 경험률	196
〈표 7- 2〉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경제활동 경험률	196
〈표 7- 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최장기 종사 직종	197
〈표 7- 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최장기 종사 직종	198
〈표 7- 5〉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최종 종사상의 지위	199
〈표 7- 6〉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최종 종사상의 지위	199
〈표 7- 7〉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최장 종사직종의 종사기간	200
〈표 7- 8〉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최장 종사직종의 종사기간	201
〈표 7- 9〉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재 취업상태	201
〈표 7-10〉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재 취업상태	202
〈표 7-11〉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의 유형	203
〈표 7-12〉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업의 유형	203
〈표 7-1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의 종사상 지위	204
〈표 7-1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업의 종사상 지위	204
〈표 7-15〉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의 종사기간	205
〈표 7-16〉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업의 종사기간	206
〈표 7-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업의 만족도	207
〈표 7-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업의 지속의지	208
〈표 7-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업에 대한 불안 정도	210

〈표 7-20〉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한 준비	·211
〈표 7-21〉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한 준비	·212
〈표 7-22〉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한 준비	212
〈표 7-2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40대 이후 퇴직 경험	213
〈표 7-2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40대 이후 퇴직 경험	·213
〈표 7-25〉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40대 이후 퇴직 경험	213
〈표 7-2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퇴직 후 배우자 관계의 변화	·214
〈표 7-2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퇴직 후 자녀관계 변화	215
〈표 7-2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퇴직 후 부모 관계의 변화	217
〈표 7-2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퇴직 후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화	·218
〈표 7-30〉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일자리 희망여부	219
〈표 7-31〉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일자리 희망여부	·219
〈표 7-32〉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일자리 희망 여부	220
〈표 7-3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일자리 희망사유	220
〈표 7-3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일자리 희망 사유	221
〈표 7-35〉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일자리 희망 사유	221
〈표 7-36〉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근무조건	222
〈표 7-37〉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근무 조건	222
〈표 7-38〉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근무 조건	223
〈표 7-39〉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희망 일자리 유형	·224
〈표 7-40〉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희망 일자리 유형	224
〈표 7-41〉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희망 일자리 유형	224
〈표 7-42〉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일자리 원치 않는 사유	·225
〈표 7-43〉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일자리 원치 않는 사유	·226
〈표 7-44〉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일자리 원치 않는 사유	226

〈표 7-4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일의 중요도	227
〈표 8- 1〉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성별 선호하는 여가활동(1순위)	…232
〈표 8- 2〉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여가활동(1순위)	…233
〈표 8- 3〉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성별 선호하는 여가활동(2순위)	…234
〈표 8- 4〉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여가활동(2순위)	…235
〈표 8- 5〉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성별 선호하는 여가활동(3순위)	…236
〈표 8- 6〉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여가활동(3순위)	…237
〈표 8- 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재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	……238
〈표 8- 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239
〈표 8- 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여부	…………241
〈표 8-1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활동기간	…………242
〈표 8-1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빈도	…………243
〈표 8-1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경로	…………244
〈표 8-13〉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245
〈표 8-1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245
〈표 8-15〉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246
〈표 8-16〉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성별 향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의향	…246
〈표 8-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정치단체 참여여부 및 활동기간	248
〈표 8-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정치단체 참여 빈도	…………249
〈표 8-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정치단체 참여 경로	…………249
〈표 8-20〉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성별 정치단체 참여 이유	……250
〈표 8-21〉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정치단체 참여 이유	……250
〈표 8-2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참여의향	…………251
〈표 8-2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재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251

〈표 8-2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253
〈표 8-25〉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1순위)	255
〈표 8-26〉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1순위)	255
〈표 8-27〉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1순위) ..	256
〈표 8-28〉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2순위) ..	256
〈표 8-29〉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2순위)	257
〈표 8-30〉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2순위) ..	257
〈표 8-31〉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3순위) ..	258
〈표 8-32〉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 (3순위)	258
〈표 8-33〉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3순위) ..	259
〈표 8-34〉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	259
〈표 8-35〉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	260
〈표 8-36〉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	260
〈표 8-37〉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비용 지불 의향	260
〈표 8-38〉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비용 지불 의향	261

〈표 8-39〉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비용 지불 의향	261
〈표 8-4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평생교육 기관 접근성의 중요성 ...	262
〈표 8-4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평생교육 기관 비용의 중요성 ...	263
〈표 8-4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평생교육기관 강사 질의 중요성 ..	264
〈표 8-4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평생교육기관 기관수준 및 질의 중요성	265
〈표 8-44〉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가능 정도	266
〈표 8-45〉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가능 정도	266
〈표 8-46〉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가능 정도 ...	267
〈표 9- 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	272
〈표 9- 2〉 베이비 부머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경제적 교환 정도에 따른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	274
〈표 9- 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태도	275
〈표 9- 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	277
〈표 9- 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조건 ..	279
〈표 9- 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자	280
〈표 9- 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시기에 대한 태도	282
〈표 9- 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희망하는 노후 생활	284
〈표 9- 9〉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286
〈표 9-10〉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가구유형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	287

〈표 9-11〉 베이비 부머의 결혼상태·취업 상태·가구소득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287
〈표 9-12〉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	288
〈표 9-13〉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가구유형별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	289
〈표 9-14〉 베이비 부머의 결혼상태·취업상태·가구소득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	290
〈표 9-15〉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291
〈표 9-16〉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가구유형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292
〈표 9-17〉 베이비 부머의 결혼상태·취업상태·가구소득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292
〈표 9-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제사의 필요성	294
〈표 9-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바람직한 장례 방법	297
〈표 9-2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존엄사에 대한 인식	299
〈표 9-2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생전/생후 장기기증 의향	301
〈표 9-2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죽음 준비교육을 받을 의향	303
〈표 9-2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택연금 인지도	305
〈표 9-2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택연금 활용 의사	307
〈표 9-2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309
〈표 9-2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311
〈표 9-2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가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313

〈표 9-2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배우자 부모의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314
〈표 9-2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배우자)부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316
〈표 9-30〉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	317
〈표 9-31〉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결혼상태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	318
〈표 9-32〉 베이비 부머의 가구유형·취업상태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319
〈표 9-33〉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320
〈표 9-3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보험 보장성의 노후 충분성에 대한 기대	321
〈표 9-3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공적연금 가입여부	323
〈표 9-3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연금수령액에 대한 인지도	324
〈표 9-37〉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	326
〈표 9-38〉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결혼상태별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	326
〈표 9-39〉 베이비 부머의 가구유형·취업상태별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	327
〈표 9-40〉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 ..	327

부표 목차

〈부표 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손자녀 수	377
〈부표 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가구원 손자녀 수	378
〈부표 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비가구원 손자녀 수	379
〈부표 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비가구원 총 손자녀 수	380
〈부표 5〉 베이비 부머가 친밀감을 느끼는 자녀의 특성	381
〈부표 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여가활동 빈도(1순위)	382
〈부표 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여가활동 동행인(1순위)	383
〈부표 8〉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활동(1순위)	384
〈부표 9〉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활동(1순위)	385

A dark, irregular, ink-blot-like shape with a lighter center, serving as a background for the word 'Abstract'.

Abstract

Baby Boomers' Demographic Profiles and Welfare Needs

Baby boomers, who account for 14.6%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as they lived through rapid socio-economic changes in their early years. A clear picture of the baby boom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s critical in discussing and implementing effective policy options. However, there hasn't been a single national survey conducted on this population group yet.

This study analyzes a national survey of 3,027 baby boomers, conducted from July 5 to August 15, 2010. The first part of the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baby boomer and previous studies on baby boomers in Korea. Also related national surveys were examin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questionnaire. The second part illustrates basic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The third part reviews baby boomers' social networks, focusing on their family relations and exchanges of various suppor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e fourth part illustrates their health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related policy demands. The fifth part reviews baby boomers'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The sixth part

illustrates their attitudes to later life and policies related to it. In the seventh and the last part, the survey's main findings are illustrated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illustrated.

요약

1. 연구의 목적

- 베이비 부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조사를 통하여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 모색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2010년 7월 5~8월 15일 기간 중 200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중 베이비 부머 3,02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음.

2. 주요 연구 내용

- 베이비 부머의 일반특성
 - 읍면부(17.7%)보다는 동부(82.3%)에 더 많이 거주하며,
 - 교육수준이 높아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이며(초등학교 이하 10.5%, 중학교 20.7%, 고등학교 44.0%, 전문대학교 이상 24.8%)
 - 대다수(85.6%)가 배우자가 있고, 74.1%가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으며, 부부만 사는 가구 9.4%, 1인 가구 5.5%임.
 - 확대가족은 10.9%에 불과함. 평균 총가구원 수는 3.5명임.

□ 베이비 부모의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 방위가족과 생식가족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으며, 콩깍지 가족으로의 경향성이 발견됨.
 - － 총 자녀수는 1.9명이나 자신의 형제·자매수는 5.1명이고, 약 61.2%는 부모가 생존해있고, 11.8%가 손자녀를 두고 있음.
- 양계제로의 변화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직 남자 부모 중심의 세대 관계와 부양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약 1/3이 주 2회 이상 부모와 접촉하고 있으며,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은 이보다 낮은 수준임.
 - －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정도가 낮음.
 - － 경제적 지원이 여자의 부모보다는 남자의 부모에게 활발히 제공 되는 경향을 보임.
- 베이비 부모의 대다수가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주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음.
 - － 제공률보다 낮기는 하지만 일정 규모의 베이비 부모는 부모로부터 도구적 도움과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음.
- 부모에 대한 친근감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특히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음.
 - －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음.
- 50.2%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 비율이 높음.
 - －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베이비 부모의 46.5%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 자주 접촉하는 지인은 지역주민(31.5%), 직장동료(28.1%), 동창(25.9%)의 순이며, 도시거주자,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직장동료 중심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의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78.4%가 배우자가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응답하고 있음.

□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흡연율은 23.8% 음주율은 62.8%이며, 고학력 및 취업중인 베이비 부머에게서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높음.
- 68.5%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집주변의 운동시설과 민간/상업 스포츠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체의 80.8%로 매우 높은 편임.
 -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이 발견된 경우 89.1%가 치료하고 있음.
 - 치료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판단으로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도 경제적 비용이 들거나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한 경우가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
 - 건강검진의 미수진 이유도 경제적 이유보다는 비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임.
-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27.1%로 비교적 낮으며, 우울증상의 유병률은 10.2%임.
 - 취약계층에게서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음.
- 베이비 부머는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행위(식이·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선호하고 하고 있음.

□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4만 원이며, 동부의 거주지는 444.9만 원으로 읍면부의 320.7만 원보다 약 124만 원정도 높음.
-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규모는 평균 3.3억 원이며,
 - 지역별로는 동부 4.5억 원, 읍면부 3.2억 원 수준으로 조사됨.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큼.
- 조사가구의 79.7%가 저축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저축 또는 보험 지출액은 월평균 74.9천 원, 가입가구 기준으로는 94만 원임.
- 전체 조사가구 중 55.9%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천 3백만 원임.
- 소비행태에 교육수준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남.
 - 가격에 대한 정보 수집 후 구입 여부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경향을 보임.
 -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격에 상관없이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드는 경우 구입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향을 보임.
- 소비 트렌드는 교육수준별, 가구유형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남.
 - 학력 및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경제활동

- 남자의 경우 99.9%, 여성의 경우에도 91.4%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등 남녀 간의 차이가 적은 편임.
 -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전문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 숙련기능직과 단순노무직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음.
- 58.2%는 현업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있는 반면, 28.3%는 현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고 혼자 사는 가구인 경우에 현업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83.4%는 현업이 중단 된 이후에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음.
- 30.3%는 40대 이후 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3 정도가 이미 직업 이동의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퇴직 및 직업이동의 경험은 소득수준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경험된 것으로 보임.
 - 49.1%는 퇴직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력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악화된 경우가 빈번함.
- 63.9%는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남성(81.4%)이 여성(48.1%)보다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베이비 부머의 35.3%는 노후 일자리로서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34.7%는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을 희망함으로써 해 본 경험이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70.0%임.
 - 한편 여전히 약 1/3인 30%는 이전에 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음.
- 70.9%는 노후 삶에 있어서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일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함.

□ 사회참여

-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임.
 -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 경우 더욱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거의 없음.

- 베이비 부모의 7.3%는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
 -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음.
 - 43.9%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그리고 여성의 경우 노후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가 높음.
- 베이비 부모의 약 40%는 현재 삶과 노후의 삶에 있어 모두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노년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내용으로, 64.1%는 ‘건강관리교육’을 1순위로 응답했으며 15.5%는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이라고 응답함.
 -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가와 취미관련 교육’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아지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관리교육’의 응답비율이 높아짐
-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유료화 된 노후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인식수준이 높지는 않음.
 - 43.9%가 향후 노후에 대비해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의 다차원적인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의 이용의향을 갖고 있음.
 -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설계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
 - 64.1%가 무료라면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의향이 있고, 24.7%가 5만 원 미만의 비용이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
- 베이비 부모들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기관을 선택할 때 비용, 강사의 질, 교육기관의 수준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남.

- 현재 베이비 부머 가운데 13.6%만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며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25.3%에 달하고 있음.

□ 가치관

- 베이비 부머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 － 자녀나 가족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아직까지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
 - － 그러나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연금 등 사회보험(28.7%)으로 나타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음.
 - － 노후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형태에서도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베이비 부머의 자녀에 대한 의존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 － 결혼할 때까지(41.5%)가 가장 많았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29.6%), 직장이 생길 때까지(23.9%)의 순으로 나타남.
 - －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베이비 부머의 희망 노후 생활 및 최근 관심사
 - －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42.3%),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18.8%),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16.8%), 종교활동을 하면서(9.1%),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7.5%)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싶어 함.
 - － 자녀의 취업 및 결혼(33.8%), 자녀 교육(25.6%), 본인의 건강(18.7%)이 최근 관심사로 아직까지 자녀 부양에 대한 많은 관심

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 노후 예상되는 어려운 점 및 성공적 노후를 위한 중요 요인
 - － 노후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건강 및 기능약화(54.7%)와 경제적 어려움(31.8%)이며,
 - － 건강(45.1%),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0.6%), 자녀의 성공(6.3%), 가족의 화목과 평안(4.6%) 등이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됨.

□ 노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 주택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임.
- 50%가 건강보험이 노후 건강보장을 위해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 51.5%는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되어있으나,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12.3%, 미가입이 35.8%임.
 - － 베이비 부머가 본인의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 형태는 가족에 의한 수발을 희망하는 비율이 32.7%, 외부 서비스는 67.2%로 나타남.
- 베이비 부머는 노후에 노후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건강보호와 장기요양보장이 43.5%로 가장 높으며, 소득보장 32.9%, 노년기 고용연장 및 기회확대 17.3%로 나타남.

□ 죽음 및 상제례에 대한 가치관

-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41.8%, 부정적 의견이 42.1%로서 백중지세를 보이고 있음.
 - － 성별로는 남자는 긍정(50.3%)이 부정(35.4%)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는 부정(48.2%)이 긍정(34.3%)보다 높게 나타남.
- 바람직한 장례방법에 대하여 매장은 14.4%에 그치고 있는 반면, 화장 후 봉안 34.5%, 화장 후 자연장 25.3%, 화장 후 산골 25.7%임.
- 존엄사(72.5%), 장기기증(41.3%)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

나 죽음준비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36.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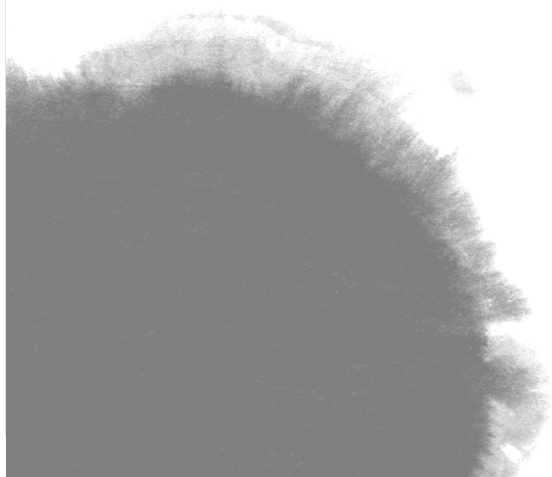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미가입자의 가입확대와 미불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등 의 정책 개선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금 인상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국민적 논의의 공론화 및 구체화
- 장기요양 비용증가의 억제를 위한 체계 구축
 - 고비용의 시설 입소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 개발 및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지역사회서비스 체계의 구축
 -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 특성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직장내에서의 사전적인 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활동이나 문화강좌의 수강을 통한 스트레스해소를 위해서 지역내 스포츠클럽 및 문화강좌의 수강비용을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활성화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관리 대책 강화
 - 베이비 부머와 같은 중년층을 대상으로하는 만성질환 예방대책을 통한 의료비 절감
- 효과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
 -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할 베이비 부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 확립

- 맞춤형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
 -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 베이비 부머의 은퇴 이후 제2의 커리어에 대한 정책 개발시 계층적 특성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프로그램 개발
-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베이비 부머중 일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장기간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년기 이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는 사회적 시스템 및 분위기 형성
- 여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의 다양화
 - 교육수준의 향상, 청장년기에 누린 다양한 활동참여 경험,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선호 하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내용의 고급화
-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 체계화된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 및 향후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와 사회적 공론 형성
-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실시
 -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베이비 부머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시장 활성화
 - 주거형태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개발 및 제고
- 장례 서비스의 다양화
 - 화장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비
 - 인식의 확산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연장 조성
-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존엄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 마련과 장기기증의사가 구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마련

01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말이 2010년이면 처음으로 평균적인 은퇴연령으로 여겨지는 55세가 되고, 2020년이면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베이비 부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9년에 걸쳐 태어난 세대로 2010년 현재 약 712만 명으로 총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베이비붐 세대에 비하여 규모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에 비해서 그 규모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압축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세대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세대이며, 20~30대에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한 문화적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며, 30~40대에 생활인으로서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다. 아날로그 시대에 교육을 받았지만 중장년 시기에는 디지털 시대를 살았던 세대로, 이들은 노후에 활발한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등 활동적 노후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손양민, 2010; 정경희, 2009). 한편, 베이비 부머는 부모부양, 자녀교육, 결혼과 동시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3중고를 경험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제특성은 그들의 욕구의 내용 및 서비스 기대수준 등에 변화를 가져와 정책적 대응의 범위와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의 가족관계, 여가활용실태, 노동에 대한 태도 및 행태, 노후소득의 구성과 규모, 건강상태, 가치관 등은 현노인세대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베이비 부머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이들의 특성과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 더불어 정책적 대응 방안 또한 이들의 현재 삶의 질 향상과 노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방안의 모색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의 발생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이 준비된 활기찬 노후를 향유하고, 새로운 사회적 불안정과 부담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즉, 베이비붐 세대가 갖고 있는 양적·질적 특성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제특성과 욕구를 정책수립의 맥락에서 체계적·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고령화 대응정책 마련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이러한 베이비 부머가 갖고 있는 양적·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책적인 관심대상이 되고 있음. 베이비 부머의 크기가 크고 이미 노년기에 들어선 미국의 경우 2005년 고령화에 관한 백악관 회의(2005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의 주제가 베이비붐 세대였음. 주제: The Booming Dynamics of Aging: From Awareness to Action, focused on the aging of today and tomorrow, including 78 million baby boomers who began to turn 60 in January 2006.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분석대상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집단에 대하여 200개 조사구를 조사지역으로 하여 2010년 7월 5일 ~ 2010년 8월 15일까지의 6주의 기간 중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가 실시되었다(부록 2 참조). 표본은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을 3개 층(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층화하고, 인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 및 연령대를 고려하여 추출되었다²⁾.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조사대상은 46~59세의 중년층 4,070명으로 만 46~59세 연령층은 195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인구로 전후 출생한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출생)를 포함한 50대 중년층이다. 조사가 완료된 4,070명중 베이비 부머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 조사내용³⁾

본 조사 내용은 크게 가구원 및 일반사항,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경제활동, 사회참여, 노후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2) 구체적인 표본설계 개요는 정경희 외(2010), 『신노년층의 특성과 정책과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 또한 조사대상인 46~59세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 또한 상기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음.

3) 조사내용은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진회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음. 조사내용 구성에 기초가 된 선행연구 검토는 제2장에 제시되어 있음.

〈표 1-1〉 베이비 부머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주요 내용

항목분류	조사 내용
가족·사회 관계 및 부양의 교환	- 부모 및 자녀와의 접촉 빈도 - 부모 및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신체적, 경제적) - 부모 및 자녀와의 관계 친밀도/만족도 - 부부관계 만족도 - 양가(친가/배우자)가족과의 접촉빈도 및 친밀도 - 친구와 접촉/연락 빈도 - 최다빈도 사적 네트워킹 대상 - 기대되는 노후의 중요한 관계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 흡연, 음주 행위 - 운동 여부 및 이용하는 운동시설 - 건강식품 섭취 여부 -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주관적 건강상태 - 만성질환, 우울증 경험여부 - 갱년기 증상 경험 여부 및 정도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 가구 소득, 자산, 부채, 월평균 소비지출 - 주요 항목(여행, 교육, 외식) 지출 수준 - 저축, 민간보험 가입여부 - 소비행태 및 소비경향(지표 조사)
경제활동	- 경제활동 여부 및 최장종사직종, 직위, 근무기간 - 현재 하는 일의 직종, 지위, 기간, 만족도 - 은퇴 준비 여부 및 방법 - 은퇴 경험 여부 및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족관계 변화 여부 - 노후(65세 이후) 경제활동 희망 여부, 이유, 근로조건 및 유형
사회참여	- 여가활동 빈도 및 함께 즐기는 사람 - 노후 희망하는 여가 활동 및 여가활동의 중요도 - 자원봉사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및 빈도, 참여 이유 - 노후 자원봉사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 현재/노후의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비용 수준 - 노후 생활을 위한 교육내용, 교육 참여시 고려하는 조건 - 인터넷 사용 정도
노후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 노부모의 부양자 및 노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 노후 주거지역, 주거지 선택 시 우선 사항 -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정도 - 성공적 노후를 위한 조건 - 역모기지/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 및 이용여부 - 공적연금 가입 여부 - 제사 및 바람직한 장례 방법 - 존엄사/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삶의 만족도	- Tobin에 의하여 개발된 Life Satisfaction Index(LSI) - 12개 문항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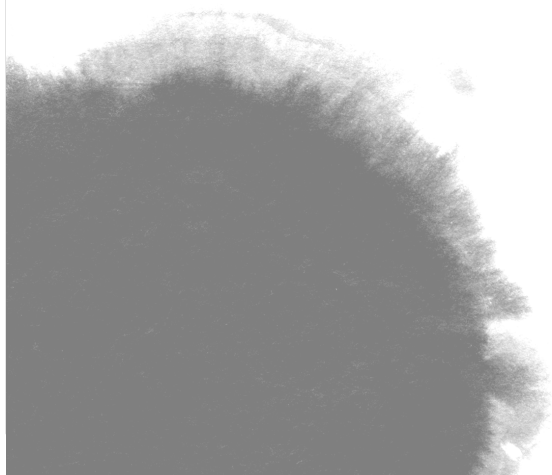
3.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서는 각 실사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조사구에 따라 다르고, 각 조사구의 조사완료율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조사구별 승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표본통계치를 사용하였다. 전체 ‘계’의 수치가 ‘소계’의 합과 차이를 보이거나, 각 행(column)의 ‘계’의 수치가 각 행의 개별 수치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구별 승수의 소수점 관계에 기인한 것이다.

문항분석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의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과 반올림 관계로 백분율의 합계가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제시하였다.

02

산행연구 검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기초가 되었던 베이비 부머의 성장배경 및 제특성, 베이비 부머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조사의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베이비 부머의 정의

본 연구의 대상자인 베이비 부머(Baby Boomer)는 한국에서 1955년과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집단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용어로서의 베이비 부머 기원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베이비붐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정한 시기에 출산이 집중적으로 늘어 출생아수가 폭등하는 상황을 의미한다(통계청 인구대사전, 2006).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베이비 부머 용어의 기원은 제2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인구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당시 합계출산율이 3.0이상이었던 코호트 세대를 일컫는다(김영민, 2006). 이들의 인구수는 약 7,600만 명에서 7,7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인구 집단이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출산율이 급증하여 생긴 인구를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하였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경우는 단카이 세대가 존재한다. 단카이 세대는 일본의 베이비 부머로,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인구집단이며, 그 규모는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인구로 통용된다. 6·25 전쟁 직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1955년생만 73만 8천명으로 1954년생보다 11만 명이 많으며, 1957년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1941년 신생아수의 2배에 달하였다(김영민, 2006). 기간으로 살펴보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1947년부터 1954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자수보다 180여만 명이 많았다(함인회, 2002). 1958년 이후에는 한 해에 81만~87만 명이라는 많은 수의 인구가 태어났다. 이렇듯 출산율은 195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59년 정점을 찍고 1963년여까지 높은 출산율(86만 8천명)을 유지하였다(이경숙, 2006). 1955년 전쟁직후부터 1963년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의 높은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의 베이비 부머가 정의 내려졌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 부머인 1955년부터 1963년생 출생자수는 약 712만 명에서 715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통계청, 2006). 베이비 부머는 말 그대로 수적 우세함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단카이’의 경우 ‘덩어리(團塊)’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는 ‘거대한 도마뱀 속 돼지(pig in a python)’라고 불렸는데, 이는 돼지부대가 생애주기를 지나갈 때면 사회는 이들 다수집단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함인회, 2002). 이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베이비, 스포크 베이비, 스푸트니크 세대, 펄시 세대, Rock 세대, love 세대, me 세대, 히피 세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는 그만큼 그들의 수적 우세함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시간적 범위는 아주 좁았고(방하남·신동균·이성균, 2010),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의 18여년에 비해서는 약 8년여 정도로 길지 않았으나, 그 영향력은 미국과 같이 다양한 각종 세대로 불림에 따라, 베이비 부머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처럼 베이비 부머가 정의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토대로 형성되면(각각 18년, 8년), 그 안에서도 출생 시기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머는 전기, 1950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는 후기로 분류된다(방하남·신동균·이성균, 2010).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이지만, 태어난 시기의 차이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을 조금씩 달리 받기 때문에 그 차이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기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대~1960년대의 번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에 ‘이상주의자’의 성향을 띠는 반면, 1955년 이후 출생한 후기 베이비 부머는 구직, 결혼 시장, 주택구입시 경쟁, 스태그플레이션의 최초 희생자여야만 했다(함인회, 2002).

한편 한국의 경우는 베이비 부머가 분리된 두 시기에 나타났다.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955년~1963년생을 1차 베이비 부머로 보고, 1969년~1975년생(김영민, 2006) 혹은 1968~1976년생을 2차 베이비 부머로 본다(김부성, 2009). 이 두 베이비 부머 그룹을 합치면 1,650만 명으로, 매우 거대한 집단이 된다. 그리고 1차 베이비 부머만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적 우세함과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베이비 부머는 사회적으로는 ‘탐색되지 않은 소수집단’으로 남아있었다(방하남 외, 2010; 함인회, 2002, 인용). 그러나 보았듯이 베이비 부머의 경험, 가치 등은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 부머에 대한 깊은 탐색은 중요한 일이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저출산·고령화-의 해법과도 무관하지 않다(김혜영, 2010).

제2절 한국 베이비 부머의 성장배경 및 특장⁴⁾

방하남·신동균·이성균 외(2010)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다음과 같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유년기(1950년대)에 절대 빈곤의 시대를 지내야 했고, 10대와 20대에는(1960년대~1970년대)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지내야 했다. 청년 시절에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충분치 못했기에 내부에서 격심한 경쟁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시기(1980년대)에는 일명 넥타이부대로써 민주화에 참여하였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나, IMF를 겪고 경제활동에 있어 큰 타격을 직접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을 통해 베이비 부머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보인다.

정호성·강성원·문외술 외(2010)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만큼 일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무, 초과근무도 당연히 할 만큼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였다. 세대 간 교환에 있어서는 소비지출 내역 중 부모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아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자녀의 경우 결혼비용까지 본인들이 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덜 의지하고 있었다.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다른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육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위기 등의 시기를 보내면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높은 편이다.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는 본인은 중간층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비율 대비 높았다. 노후준비와 관련해서는 연금 이외의 마땅한 노후준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은퇴 후 보유총자산 중

4) 본 장은 ‘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한준, 김지경, 신인철(2010). 한국베이비붐세대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및 ‘정호성, 강성원, 문외술, 박준, 손민중, 이찬영, 이은미, 이민훈, 박변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를 참고·인용하여 작성되었음.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다. 이 맥락에서 노후에 현 거주지를 처분하기보다는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문화활동 면에서는 문화 관련 공급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노후에 문화충족욕구와 축소된 자원 간 괴리로 인한 갈등 경험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제3절 선행연구 및 선행조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베이비 부머에 대한 관심은 이들이 2010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베이비 부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관련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 베이비 부머가 은퇴함에 따라 바뀌는 사회·경제적인 모습 - 노동시장의 변화, 국가의 재정 문제, 은퇴와 재취업, 노후 준비, 베이비 부머가 노동시장에서 가정으로 돌아감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 관련 문제 - 을 중심으로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큰 생산성을 담당하던 주역들이 은퇴를 함에 따라, 생산에서 필요로 하는 주역들로 바뀌고, 이것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및 준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가 산업화시기를 겪으며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산업화의 중심축이었고 그러한 산업화의 성과를 향유한 계층임과 동시에 IMF등의 영향을 직접 겪으면서 경제적인 부흥과 어려움을 다 겪어본 세대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1980년대 고도성장의 덕으로 다른 세대보다 커리어직장에 안착한 비율이 높았으나, 1997년에 IMF를 겪으면서 커리어 직장에서 나가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베이비 부머들이 IMF시대에 일차적 타격을 받은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동시에 베

이비 부머들 중에는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는 높아 열악한 근로 생애사를 겪어왔음을 보였다(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외, 2010). 연구들을 통해 이들은 열악한 근로생애사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와 일터로부터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연, 신동균, 신경아 외, 2009).

이들의 근로생애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퇴직에 관련된 것이다. 이들의 은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들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시점이 빨라 최종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재취업해야 하며, 조건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외, 2010).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본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연구되었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본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있으나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대신 기술 및 기능 전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일본의 생산성의 큰 축이었던 만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명중, 2006: 정호성, 김경원, 2007). 한국 역시 이와 비슷하게, 노동시장에서의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제조인력의 양적·질적 수준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숙련자들의 단절에 의한 질적인 수준 저하 뿐 아니라, 2020년 이후에는 양적인 수준에서도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호성, 강성원, 문외솔 외, 2010).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자산 현상을 측정한 연구들은 베이비 부머의 자산 구성은 부동산 자산에 치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주식에 대한 영향력은 적고, 오히려 다양한 금융 상품 출현 및 새로운 금융 수요계층 출현의 기회로 보고 있다(정호성, 강성원, 문외솔 외, 2010). 부동산 시장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전에는 가격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은퇴 이후에는 주택가격급락의 가능성은 낮지만(정호성, 강성원, 문외솔 외,

2010)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가격 하락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었다(이철용, 윤상하, 2006).

베이비 부머 은퇴에 따른 국가재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의 은퇴로 인하여, 고령자가 수혜를 많이 받는 연금, 보건 및 복지 관련 부문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며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그리 큰 규모가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정호성, 강성원, 문외솔 외, 2010) .

한편,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따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적인 면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연구들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의 황혼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였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 역시 이와 비슷해서,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시기인 만큼, 부부갈등의 발생빈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처기술은 부족하고, 10년 후 부부관계 유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부부갈등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갈등으로, 은퇴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가 서로 얽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 부머의 남녀 간 사고 및 태도에도 격차가 있어 노년기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신연희, 2010).

베이비 부머의 행태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는데, 베이비 부머들이 해야 했던 부양과 이들이 받을 부양에 관한 가치적·경제적 접근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흔히 끼인 세대, 샌드위치 세대 등으로 불리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부양과 관련된 행태이다. 이 세대들은 전통적인 가족중심 태도와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자녀세대의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로 인하여(신연희, 2010), 위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여기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부양의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은 많고 자녀들로부터 부양은 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행태를 보였다.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는 부모 동거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가치관보다는 생활에 기초한 현실적인 경제적 조건을 우선시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부모에 대해서는

연소득 대비 14.6%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을 살펴보면, 이 세대는 부부보다는 자녀중심으로 살아온 세대임에 따라(신연희, 2010), 월 생활비의 14.5%(대학생 자녀 기준)에서 17.5%(고등학생 자녀 기준)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양부담은 특히 자녀에게서 더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방하남, 신동균, 이성균 외, 2010). 나아가, 한국의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은 성인일지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신연희, 2010), 노부모에 대한 돌봄과 자녀의 독립이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한경혜, 2010), 그 부담은 더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베이비 부머의 생활과 관련하여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현재 노인들과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권현정, 박화옥, 2008), 이는 은퇴 후 재정 악화와 문화활동 욕구 간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호성, 강성원, 문외술 외, 2010).

2. 선행 조사 검토

베이비 부머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검토들은 이루어졌지만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다. 다양한 연령층이나 근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사들을 통해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금의 베이비 부머의 현재와 과거를 알아볼 수도 있고, 현재 비슷한 연령대의 대상의 특성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라는 특정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과 그들이 현재 처해있는 생활주기를 반영한 특화된 질문이 유기적으로 조사된 내용은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의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는 고령화연구패널, 국민노후보장패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가 있다. 이 연구들은 최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베이비 부머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미래에 대상자가 될 예정이며, 과거에 진행되었던 조사결과들을 통해서도 베이비

부머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조사에 대해 더 살펴보면, 고령화연구패널(노동부, 노동연구원)은 45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격년에 한 번 진행되는 조사이다. 이 조사에는 일반특성, 가족관계, 직업 경제상태, 부양교환실태, 건강상태, 육체적 기능상태, 수발, 사회참여활동,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태도 등에 대한 내용이 조사되었다. 국민노후보장패널(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은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특성, 가족관계, 직업 및 경제상태, 건강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의 일반 특성, 가족관계, 가구형태, 직업 및 경제상태, 부양교환실태, 건강상태, 육체적 기능상태, 수발, 사회활동,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위 연구들은 각각 조사 초점이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일반특성부터 가족관계, 건강, 가치관, 사회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에 대해 넓은 영역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베이비 부머들은 수년 내에 이 조사들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결과들과 베이비 부머들을 비교해보면서 특성의 차이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역별로 경제활동, 건강, 주거실태, 복지욕구를 알아본 조사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통계청)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월 진행되는 조사로,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장 관련,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사항 등을 조사한다. 국민건강 영양조사(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1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해 실시되는 조사로, 가구 일반특성, 성인 및 아동의 건강내용(건강상태, 치료, 병, 병원이용 등), 보건의식행태(술, 담배, 신체 및 정신 건강)등을 살펴본 조사이다. 주거실태조사(국토개발연구원)는 모두를 대상으로 격년에 걸쳐 실시되는데, 가구의 일반특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에 대한 일반사항 및 역모기지제도, 건강상태, 여가활동 내용 등을 조사

한다. 전국가구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모두를 대상으로 약 격년에 걸쳐 조사되는데 그 내용은 일반사항, 사회보장제도 관련, 가구재정 관련, 주거관련, 건강, 문화, 자녀 및 노인관련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15~59세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복지관련(가족주기, 취업, 가족부양, 가치관, 가족관계), 가족생활의 질, 가족 정책 관련 등을 조사한다. 본 조사들은 대부분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베이비 부머들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조사들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각 영역에서의 베이비 부머의 특성을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파악해 볼 수 있다. 각 조사별 조사내용의 개요는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표 2-1> 관련 선행조사의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비교

(1)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고령화연구패널

구 분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고령화연구패널
주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과거: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주기 (개시년도)	1차 ('10년)	'94, '98, '04살시/08년부터 법적 근거하에 3년 주기로 실시('94-)	격년 ('06~)
최근자료	2010년	2008년	2008년 2차 자료조사 완료
지역특징	전국	전국	전국(제주 제외)
조사대상	46~59세	60세 이상	45세 이상 중고령자 가구
조사항목	*가구원 및 일반사항-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동거 *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형제자매 순위, 부모세대·자녀 세대와 접촉 및 교환	*노인 일반특성-교육, 결혼 *가족관계-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친구 관련 *가구형태-자녀동거, 별거 관련, 가구 형태 만족도	*노인 일반특성-교육, 결혼, 종교, 배우자연령 *가족관계-부모, 자녀, 손자녀, 친척, 형제자매 관련 *직업 경제상태-고용상태,

구 분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고령화연구패널
	(집안일·간병·손자녀·경제적 도움 교환, 동거, 친밀함), 네트워크, 부부관계만족도, 노후 관계 중요도 *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술·담배 여부, 영양·건강식품 섭취, 건강검진 관련, 건강관리서비스 종류, 만성질환·우울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갱년기 증상 *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가구총소득, 소비지출, 자산, 부채, 월평균가구지출액, 저축·민간보험가입여부, 과거·현재·미래 경제상태, 소비스타일 및 소비트렌드 * 경제활동-(현재·과거) 경제활동여부·일자리 유형·종사상지위·만족도, 퇴직관련(준비, 경험, 만족도) 노후 경제활동 희망여부, 노후경제활동 우선순위, 노후 일의 중요도 * 사회참여·여가활동 우선순위·빈도·활동대상·노후 여가활동 우선순위, 현재 및 노후 여가활동 중요도, 사회활동참여여부·기간·빈도·경로·만족도, 현재 및 노후 사회활동	*직업 경제상태-고용상태, 수입원, 일 없는 시기와 이유, 장기 종사 직종, 희망하는 정부 지원 사업, 주관적 경제상태, 월평균용돈 관련 *부양교환실태-경제적·도구적·정서적 부양 관련 *건강상태-만성질환, 의료, 기타 사고, 건강증진활동 관련 *기능상태 및 수발상태-육체상태, ADL/IADL, 수발자,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 관련 *사회활동-사회활동참여, 여가,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컴퓨터 관련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노인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인지 및 이용경험 및 향후이용여부, 경로당, 교통수당, 수발, 고령화 사회 관련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노인에 대한 인식, 노후 부양, 노후 대책 관련 *생활환경-주택 및 개인방 관련	수입원, 은퇴시기(회사 및 개인), 은퇴계획, 일자리 만족도, 부업 관련 *부양교환실태-ADL/IADL 어려운사람 및 수발 관련 *건강상태-만성질환, 의료, 기타 질병, 건강증진활동, 우울증, 의료보장, 의료시설 이용 관련 *기능상태 및 수발상태-육체 및 정신상태, ADL/IADL, 수발자, 비용, 미래에 가능한 간병수발자여부 관련 *사회활동-사회활동참여 관련 *복지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경제적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연령별 기대수명, 생활수준 및 정부에 대한 기대감 관련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삶의 만족도

구 분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고령화연구패널
	참여여부 및 중요도, 노후설계교육 희망여부 및 희망액수, 평생교육기관 선택요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가능여부 * 노후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노부모 경제적 부양여부, 노후생활비 마련대상, 노후거주지, 노후 자녀와의동거여부, 자녀부양의무기간, 노후희망활동, 최근관심사, 노후생활어려움, 성공적 노후의 조건, 역모기지·노인장기요양 보험·국민건강보험·공적 연금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여부, 국가-사회에 대한 기대, 제사의 필요성, 장례방법, 존엄사 허용, 장기기증, 죽음교육관련 * 삶의 만족도		

〈표 2-1〉 계속

(2) 국민노후보장패널, 전국가구 복지욕구조사, 주거실태조사

구 분	국민노후보장패널	전국가구 복지욕구조사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주거실태조사
주 관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조사주기 (개시년도)	격년 (’05~)	약 격년 (’04~’05, ’07~’08) (’04~)	격년 (’06~)
최근자료	2007년(2차) (2009년 3차 본조사시작)	2008년	2008년(2차)
지역특징	전국	전국	전국 (섬·특수사회시설조사구제외)
조사대상	50세 이상 가구원 가구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조사항목	*노인 일반특성-결혼 *가족관계-부모, 자녀관련 *직업 경제상태-가구지출 및 가구소득, 직장·자영업·비취업자 별 고용상태 및 일자리 관련 *건강상태-육체적·심리 적 건강상태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은퇴여부 및 은퇴태도, 노후준비 및 노후보장 상태	*가구 일반사항-성별, 연령, 장애, 보험 관련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 제도 인식여부, 수급 급여, 이용가능제도 *가구재정 여건-저축, 주관적 빈곤, 과거 빈곤경험 등 *금융소외-신용불량 경험 *기타 가구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교육수준, 직업, 별거 가족, 사회참여 *주거-주거환경, 이사 관련 *건강(의료)-만성질환, 간병서비스, 의료비, 보건소 이용여부 *평생교육-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문화-여가 및 문화생활, 관련	* 가구주용 - 가족 및 가구원 - 주거 및 경제상태 - 배경문항-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소득유무 * 노인 개인용 - 일반사항-가족관계 - 주택 및 주거환경-개인방, 만족도, 가정 내 안전사고 관련, 개조 욕구, 편의시설까지 시간 - 상황 변화에 따른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희망겨주환 경, 노인주택 적정충수, 노인주거단지 구성방식 - 역모기지 및 주택연금 관련-인지 여부 및 활용여부, 주택소유여부, 저소득 노인 정부지원 관련 -건강·여가활동 - 건강상태(ADL/IADL), 수발, 여가활동, 필요한

구 분	국민노후보장패널	전국가구 복지욕구조사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주거실태조사
		프로그램, 인식 및 태도 관련 * 자녀진로-자녀 진로, 교육비 관련, 대학 관련 * 노인가구원용 질문- ADL/IADL, 간병, 복지욕구, 운동여부, 경제활동, 자원봉사경험, 사회단체참여경험 관련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여부 - 배경문항-성별, 나이, 학력, 혼인상태

〈표 2-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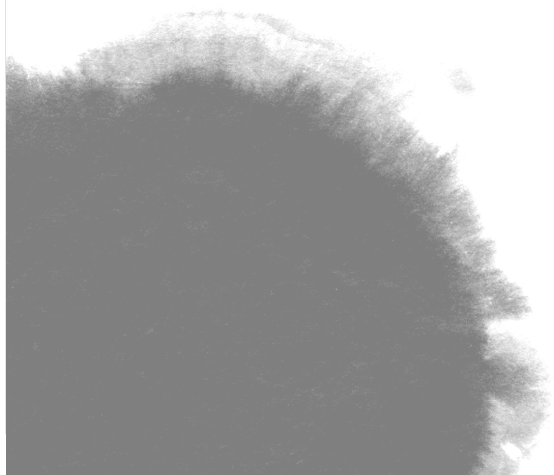
(3) 경제활동인구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구 분	경제활동 인구조사	국민건강 영양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주 관	통계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과거·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주기 (개시년도)	월 (’63~)	과거 3년 주기에서, ’07부터 매년 연중 조사로 바뀜 (’98~)	약 3년(’06, ’09) (’06~)
최근자료	2009.12월	2009 (제4기)	2006 (2009년 진행 중)
지역특징	전국	전국	전국
조사대상	15세 이상	1세 이상 가구원	15~59세 기혼가구
조사항목	*경제활동상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근무기간, 이직시기, 이직사유 *장래 근로에 대한희망-향후 취업의사, 일자리 선택기준,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희망임금수준	*가구조사-연령, 결혼상태, 직업, 의료보험 여부 등 *성인용 건강면접조사 - 주관적 건강상태 - 아픈 날과 치료받은 날, 질환, 완치여부 등 - 암,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질환, 결핵,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 활동제한 및 삶의 질 - 사고 및 중독 - 의료이용 관련 *아동 및 청소년 건강면접조사 - 주관적 건강상태 - 아픈 날과 치료받은 날, 질환, 완치여부 등 - 청력, 시력, 보향제약 여부 - 의료 이용 관련 - 사고 및 중독 경험 - 아동의 건강행태(만 12세 미만): 건강검진여부, 교통안전, 구강보건, 비만 *성인용 보건의식행태	* 가구조사-주택, 가구소득, 경제상태 관련 * 가족복지 관련 - 응답자 및 배우자의 일반특성과 혼인사항 - 가족주기: 자녀출생 관련, 자녀혼인 관련, 가족주기단계 - 응답자와 배우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혼인 전 취업 관련, 배우자 취업 관련 - 가족 부양-본인 및 배우자 부모관계(생존, 동거, 교환관계 등) - 가치관 및 가족관계: 혼인, 이혼, 재혼, 자녀가치관, 남아선호,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관련 - 가족생활의 질: 행복, 변화, 가족의 사회적 지위, 가족생활 만족도 등 - 가족정책: 가족문제의 책임, 우선순위 가족정책, 정부 우선정책 등

구 분	경제활동 인구조사	국민건강 영양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관련 - 흡연, 음주, 비만, 체중조절, 정신건강, 휴식, 신체활동, 운동, 구강건강, 건강검진, 안전의식, * 청소년용 보건 의식행태(12~19세) - 비만, 체중조절, 신체활동, 운동, 휴식, 정신건강, 안전의식, 음주, 흡연, 구강건강	

03

조사가극 및 응답자의 특성



제3장 조사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조사가구 및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거주지역, 연령⁵⁾,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특성은 생활과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기본 변수인 만큼 이를 통해 응답대상자의 기본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베이비 부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1 절 베이비 부머의 일반특성

조사대상인 베이비 부머의 일반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분포는 동부 82.3%, 읍면부 17.7%로 동부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41~50세⁶⁾의 지역분포가 동부 83.7%, 읍면부 16.3%였던 결과와 비슷한 분포이다.

베이비 부머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0.5세였으며, 연령군을 전기 베이비 부머인 1955~1959년생과 후기 베이비 부머인 1960~1963년생 두 연령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전기 베이비 부머(1955~1959년생) 53.9%, 후기 베이비 부머(1960년~1963년생) 46.1%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5) 베이비 부머를 출생년도에 따라 1955~1959년생은 전기 베이비 부머, 1960~1963년생까지는 후기 베이비 부머로 칭하고자 함. 이는 손양민(2010)의 분류에 기초하여 있음.

6) 본 연구의 대상자는 1955~1963년생이므로, 2005년도에는 41~50세에 해당함.

성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47.3%, 여성이 52.7%로 여성이 조금 더 높은 하지만 응답대상자의 성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41~50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인 50.3% 49.7%와 비슷한 분포이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이하 10.5%, 중학교 20.7%, 고등학교 44.0%, 전문대학교 이상 24.8%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41~50세 인구의 학력분포인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이하 7.9%, 중학교 15.7%, 고등학교 46.8%, 전문대학교 이상 13.9%와 비교해볼 때 비슷한 분포이지만 조금 더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유배우자 85.6%, 무배우자 14.4%로 나타나, 응답자의 다수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41~50세 응답자의 결혼분포인 유배우자 86.5%, 무배우자 13.5%와 비슷한 분포이다.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5%, 부부만 사는 가구 9.4%, 부부(부 또는 모 또는 부부 모두)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74.1%, 확대가족 10.9%, 기타가족 0.1%로 나타나, 대부분이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평균 총가구원수는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한 상태라는 응답자가 75.9%, 미취업 응답자가 24.1%로 취업자의 분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시점의 (2010년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인 취업 76.4%, 미취업 23.6%와 비슷한 분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의 가구 비율은 32.0%,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은 34.7%, 500만 원 이상 가구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표 3-1〉 베이비 부머의 일반특성

(단위: %, 명)		
특성	명	%
전체	(3,027)	100.0
지역		
동부	(2,491)	82.3
읍·면부	(537)	17.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633)	53.9
1960~1963년생	(1,395)	46.1
성		
남자	(1,433)	47.3
여자	(1,594)	52.7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319)	10.5
중학교	(627)	20.7
고등학교	(1,331)	44.0
전문대학 이상	(750)	24.8
결혼상태		
유배우	(2,593)	85.6
무배우	(435)	14.4
가구유형		
1인 가구	(166)	5.5
부부가족	(285)	9.4
부/모+미혼자녀	(2,243)	74.1
확대가족	(330)	10.9
기타가족 ¹⁾	(4)	0.1
현 취업상태		
취업중	(2,299)	75.9
미취업	(728)	24.1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968)	32.0
300~500만 원 미만	(1,050)	34.7
500만 원 이상	(1,007)	33.3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 제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에는 남성이 46.4%, 여성이 53.6% 거주하여, 여성이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읍면부의 경우 남성 51.5%, 여성 48.5%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이 더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72.6%인 반면, 읍면부의 경우 52.7%로 동부의 교육수준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동부나 읍면부 모두 부/모+미혼자녀 가구인 경우가 많았으나, 동부의 경우 78.1%, 읍면부의 경우 55.6%로 차이가 났다. 확대가족의 경우 동부는 9.7%인데 반해, 읍면부는 16.4%이며, 부부가족의 경우 동부 7.0%, 읍면부 20.5%, 1인 가구의 경우 동부 5.1%, 읍면부 7.5%로 나타나, 동부의 경우 대부분이 핵가족의 형태이며, 읍면부는 핵가족 외에도 부부가족, 확대가족, 1인 가구 등 가구형태가 동부에 비해 다양하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 36.7%로 가장 높았으나, 읍면부의 경우 300만 원 미만이 48.4%로 나타나, 동부의 가구소득이 읍면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출생연도, 결혼상태, 취업상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 제특성

(단위: %, 명)

특성	동부	읍·면부	계	(명)
전체	100.0	100.0	100.0	(3,02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3.4	56.4	100.0	(1,633)
1960~1963년생	46.6	43.6	100.0	(1,395)
성				
남자	46.4	51.5	100.0	(1,433)
여자	53.6	48.5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7	19.0	100.0	(319)
중학교	19.1	28.3	100.0	(627)
고등학교	44.6	41.0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27.6	11.7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86.0	84.0	100.0	(2,592)
무배우	14.0	16.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5.1	7.5	100.0	(166)
부부가족	7.0	20.5	100.0	(285)
부/모+미혼자녀	78.1	55.6	100.0	(2,243)
확대가족	9.7	16.4	100.0	(329)
기타가족	0.2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74.3	83.6	100.0	(2,300)
미취업	25.7	16.4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8.4	48.4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34.8	34.3	100.0	(1,050)
500만 원 이상	36.7	17.1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한편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별 제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생년도별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14.1%, 중학교 24.0%, 고등학교 42.8%, 전문대학교 이상 19.1%인 반면,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6.4%, 중학교 16.9%, 고등학교 45.3%, 전문대학 이상 31.4%로 나타나, 후기 베이비 부머의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별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와 후기 베이비 부머 모두 부/모+미혼자녀 가구 형태가 70%로 가장 많았으나, 부부가족의 비율의 경우 전기 베이비 부머 13.0%로 후기 베이비 부머의 5.2%로 나타나, 전기 베이비부머의 경우 부부가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300만 원 미만이 35.9%로 가장 높았으나,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이 3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기 베이비부머의 가구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 성, 결혼상태, 취업상태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별 제특성

(단위: %, 명)

특성	1955~1959년생 (전기 베이비 부머)	1960~1963년생 (후기 베이비 부머)	계	(명)
전체	100.0	100.0	100.0	(3,027)
지역				
동부	81.4	83.2	100.0	(2,491)
읍·면부	18.6	16.8	100.0	(537)
성				
남성	47.5	47.2	100.0	(1,434)
여성	52.5	52.8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4.1	6.4	100.0	(319)
중학교	24.0	16.9	100.0	(627)
고등학교	42.8	45.3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9.1	31.4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85.8	85.4	100.0	(2,592)
무배우	14.2	14.6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5.7	5.2	100.0	(166)
부부가족	13.0	5.2	100.0	(285)
부/모+미혼자녀	70.3	78.5	100.0	(2,243)
확대가족	10.8	11.0	100.0	(329)
기타가족	0.1	0.1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73.9	78.4	100.0	(2,300)
미취업	26.1	21.6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5.9	27.4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33.9	35.7	100.0	(1,050)
500만 원 이상	30.3	36.8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성별 제특성을 살펴보면, 지역, 출생년도, 결혼상태, 가구 소득 별 큰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수준, 가구유형, 취업상태 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8.5%, 중학교 16.0%, 고등학교 41.5%, 전문대학 이상 34.1%인 반면,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12.4%, 중학교 25.0%, 고등학교 46.3%, 전문대학 이상 16.4%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미혼자녀 유형이 7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가족의 경우 남성 6.6%, 여성 12.0%, 1인가구 남성 7.3%, 여성 3.8%로 나타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부부가족 및 1인가구인 형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의 경우 취업중이라는 응답이 남성은 93.6%인 반면, 여성은 60.0%로 나타나, 남성의 대부분은 취직한 반면, 여성은 절반 정도만이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베이비 부머의 성별 제특성

특성	남성	여성	계	(단위: %, 명)
				(명)
전체	47.3	52.7	100.0	(3,027)
지역				
동부	80.7	83.7	100.0	(2,491)
읍·면부	19.3	16.3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4.1	53.8	100.0	(1,633)
1960~1963년생	45.9	46.2	100.0	(1,3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8.5	12.4	100.0	(319)
중학교	16.0	25.0	100.0	(627)
고등학교	41.5	46.3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34.1	16.4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86.0	85.3	100.0	(2,592)
무배우	14.0	14.7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7.3	3.8	100.0	(166)
부부가족	6.6	12.0	100.0	(285)
부/모+미혼자녀	74.3	73.9	100.0	(2,243)
확대가족	11.6	10.2	100.0	(329)
기타가족	0.2	0.1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93.6	60.0	100.0	(2,300)
미취업	6.4	40.0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0.9	32.9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35.4	34.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33.5	33.0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2절 베이비 부머 가구의 가구주 특성

베이비 부머 가구의 가구주 특성을 살펴보고자,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참여여부를 살펴보았다. 베이비 부머 가구는 총 2,014가구이며, 위 가구의 가구주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 이하 34.5%, 50대 60.1%, 60대 이상 5.2%로 나타나, 5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평균 연령은 51.9세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88.5%, 여성이 11.5%로 나타나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및 그 이하 9.6%, 중학교 17.3%, 고등학교 41.2%, 전문대학 이상 31.9%로 나타나, 고등학교 이상이 73.1%를 차지해 교육수준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했다는 응답이 91.5%, 미취업이라는 응답이 8.5%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주는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가구주의 일반특성

특성	가구	(단위: 가구, %)
		%
전체	(2,014)	100.0
연령		
40대 이하	(694)	34.5
50대	(1,211)	60.1
60대 이상	(108)	5.2
성		
남자	(1,781)	88.5
여자	(232)	11.5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192)	9.6
중학교	(348)	17.3
고등학교	(831)	41.2
전문대학 이상	(643)	31.9
결혼상태		
유배우	(1,585)	78.7
무배우	(429)	21.2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42)	91.5
미취업	(171)	8.5

제3절 베이비 부머의 종교 및 종교활동 실태

베이비 부머의 종교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특성별 종교 분포 및 참여활동 빈도를 살펴보았다.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에 따른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제특성에 상관없이 무교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성, 결혼상태, 취업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그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무교의 분포를 살펴 보면 남성의 경우 51.0%, 여성의 경우 33.4%를 나타내, 남성이 여성보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배우자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무교분포가 더 높았다(각각 39.9%, 52.9%).

〈표 3-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종교

(단위: %, 명)									
특성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무교	계	(명)
전체	26.6	20.7	10.0	0.5	0.1	0.4	41.8	100.0	(3,027) ¹⁾
지역									
동부	25.8	20.9	11.2	0.3	0.0	0.4	41.5	100.0	(2,491)
읍·면·부	30.3	20.0	4.5	1.3	0.4	0.4	43.2	100.0	(535)
출생년도									
1955~1959년	28.1	20.0	11.3	0.8	0.1	0.4	39.2	100.0	(1,632)
1960~1963년	24.8	21.5	8.4	0.1	0.1	0.4	44.7	100.0	(1,393)
성별									
남성	21.9	18.4	7.7	0.8	0.1	0.1	51.0	100.0	(1,432)
여성	30.8	22.8	12.1	0.3	0.1	0.5	33.4	100.0	(1,5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5.6	12.2	2.8	0.6	0.3	1.3	47.2	100.0	(320)
중학교	37.3	18.2	5.6	0.5	0.2	0.5	37.8	100.0	(627)
고등학교	24.2	20.9	10.4	0.5	0.0	0.2	43.7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17.9	26.1	16.2	0.3	0.1	0.1	39.2	100.0	(747)
결혼상태									
유배우	27.1	21.7	10.5	0.3	0.1	0.4	39.3	100.0	(2,591)
무배우	23.4	14.9	6.7	1.6	0.2	0.2	52.9	100.0	(435)

〈표 3-6〉 계속

(단위: %, 명)

특성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무교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22.3	169.3	6.0	4.2	0.6	0.0	47.6	100.0	(166)
부부가족	31.3	19.7	3.5	0.0	0.4	0.4	44.7	100.0	(284)
부/모+미혼자녀	25.8	21.4	11.0	0.4	0.0	0.4	41.0	100.0	(2,243)
확대가족	30.3	18.2	10.9	0.0	0.0	0.0	40.6	100.0	(330)
기타가족	20.0	0.0	20.0	0.0	0.0	0.0	60.0	100.0	(5)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26.1	19.8	9.3	0.6	0.1	0.3	43.8	100.0	(2,299)
미취업	28.3	23.5	12.4	0.1	0.0	0.7	35.0	100.0	(72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8	18.6	5.2	1.0	0.2	1.0	48.2	100.0	(969)
300~500만원 미만	28.6	21.3	10.0	0.2	0.0	0.0	39.9	100.0	(1,048)
500만원 이상	25.2	22.2	14.6	0.3	0.1	0.1	37.4	100.0	(1,007)

주: 1) 무응답 1명을 제외한 3,02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취업상태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취업중인 그룹의 무교비율은 43.8%인데 비해, 미취업자중 무교는 35.0%로 취업자의 무교비율이 더 높았다. 끝으로 가구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인 그룹의 무교 응답은 48.2%,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그룹은 39.9%, 500만 원 이상인 그룹은 37.4%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은 그룹일수록 종교를 믿는다고 답한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를 믿는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제특성에 거의 상관없이 불교가 가장 높았으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은 불교를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초등학교 35.6%, 중학교 37.3%, 고등학교 24.2%), 전문대학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개신교가 가장 높았고(26.1%), 그 다음으로 많이 믿는 종교의 경우 불교(17.9%), 천주교(16.2%) 순이었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종교 활동 빈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 특성에 상관없이 월 1회 미만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단,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그 빈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수준에 따른 그룹의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전문대학교 이상이라고 답한 그룹은 주1회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40.5%), 다른 학력 그룹은 월1회 미만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과 차이를 나타냈다(각각 월1회 미만 초등학교 55.4%, 중학교 46.7%, 고등학교 33.7%). 가구소득별 그룹의 차이를 살펴보면, 500만 원 이상인 그룹의 경우 주1회 활동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34.3%), 다른 그룹은 월 1회 미만이라고 답한 것과 차이를 나타냈다(각각 월1회 미만 300만 원미만 39.9%, 300~500만 원 미만 36.0%).

〈표 3-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종교활동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4회 이상	주2~3회	주1회	2주 1회	월1회	월1회 미만	계	(명)
전체	6.6	12.4	29.9	2.8	12.5	35.8	100.0	(1,761) ¹⁾
지역								
동부	7.0	13.0	30.1	3.0	12.5	34.3	100.0	(1,456)
읍·면부	4.9	9.2	28.8	2.0	12.4	42.8	100.0	(306)
출생년도								
1955~1959년	6.4	13.7	28.0	1.9	12.7	37.3	100.0	(1,632)
1960~1963년	7.0	10.7	32.2	3.9	12.2	33.9	100.0	(1,393)
성								
남성	5.7	9.8	30.0	3.3	12.7	38.5	100.0	(1,432)
여성	7.3	14.0	29.8	2.5	12.3	34.1	100.0	(1,5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5	5.4	16.1	1.2	15.5	55.4	100.0	(320)
중학교	3.6	10.5	22.6	2.1	14.6	46.7	100.0	(627)
고등학교	7.9	12.6	30.1	3.2	12.4	33.7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7.0	16.4	40.5	3.5	9.8	22.8	100.0	(747)
결혼상태								
유배우	6.6	13.0	30.4	2.5	12.9	34.6	100.0	(2,591)
무배우	6.4	7.8	26.0	5.4	9.3	45.1	100.0	(435)

〈표 3-7〉 계속

(단위: %, 명)

특성	주4회 이상	주2~3회	주1회	2주 1회	월1회	월1회 미만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6.9	9.2	19.5	5.7	5.7	52.9	100.0	(166)
부부가족	12.0	8.2	23.4	0.6	15.2	40.5	100.0	(284)
부/모+미혼자녀	5.7	13.5	32.1	3.0	13.1	32.6	100.0	(2,243)
확대가족	8.2	9.2	25.1	2.1	8.7	46.7	100.0	(330)
기타가족	0.0	50.0	0.0	0.0	50.0	0.0	100.0	(5)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6.1	10.2	0.6	3.3	12.3	37.7	100.0	(2,299)
미취업	8.0	18.4	27.9	1.7	13.1	30.9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6	11.2	26.1	2.0	14.2	39.9	100.0	(969)
300~500만원미만	8.4	11.1	28.3	2.7	13.0	36.6	100.0	(1,048)
500만 원 이상	4.9	14.6	34.3	3.7	10.7	31.8	100.0	(1,007)

주: 1)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1,76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4절 베이비 부머의 삶의 만족도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Tobin에 의해 개발되어진 Life Satisfaction Index(LSI)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12개 항목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12점에서부터 최대 60점까지 점수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설문지에 제시된 응답에서 분석시 이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48로 높은 신뢰수준을 나타냈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12개 항목별 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문항 가운데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문항이 평균 3.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된다' 문항의 평균이 3.3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문항의 평균이 3.06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긍정적인 항목의 경우 중간점수인 3.0점을 대부분 넘기고 있었다. 과

거와 현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지만 미래에 대한 삶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에서 동일 척도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은 긍정적 문항의 점수가 모두 3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노인은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항목 평균 점수는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문항은 평균 2.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문항이 평균 2.55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문항에 있어서는 3.0점 이하로 나타나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응답 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은 부정적 항목에서 대부분 3.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는 문항이 3.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의 응답이 3.16점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각 문항의 응답이 2.36점과 2.47점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를 보였다.

〈표 3-8〉 베이비 부머의 삶의 만족도 항목별 평균점수

문 항	평균점수	표준편차
1.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2.55	.927
2.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3.06	.844
3.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2.90	1.072
4. 요즘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들이다.	3.07	.896
5.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2.47	.885
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흥미를 느낀다.	3.24	.895
7.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된다.	3.38	.925
8.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	2.36	.931
9. 남은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3.16	.922
10.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3.60	.835
11. 요즘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피로움을 느낀다.*	2.35	.928
12. 조그만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2.39	.945

주: 1) *는 부정적 항목, 역으로 계산함.

2) 본 조사 설문지 전체 균형을 위하여 응답지 순서를 ‘① 매우 그렇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정리한 부분을 분석시 역으로 반영하여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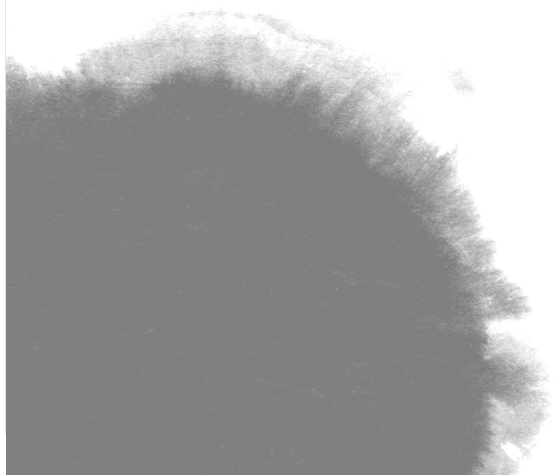
베이비 붐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평균은 34.53점으로 최소 12점에서 최대 60점을 고려해 볼 때 보통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평균 32.25점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높은 점수로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노인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보다 읍·면부 거주자의 삶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별로는 1960~1963년생이 1955~1959년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자보다 여성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와 부/모+미혼자녀 가족이 부부가족, 확대가족, 기타가족(기혼/미혼 형제·자매, 비혈연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을 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베이비 부머의 일반적 특성별 삶의 만족도

특성	평균점수	표준편차	특성	평균점수	표준편차
지역			가구유형		
동부	34.38	3.320	1인 가구	34.69	3.794
읍·면부	34.77	3.566	부부가족	34.52	3.357
출생년도			부/모+미혼자녀	34.55	3.366
1955~1959년생	34.49	3.415	확대가족	34.37	3.142
1960~1963년생	34.58	3.309	기타가족	33.58	4.282
성			현 취업상태		
남자	34.47	3.278	취업중	34.63	3.362
여자	34.59	3.443	미취업	34.24	3.36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5.01	3.655			
중학교	34.63	3.408			
고등학교	34.37	3.387			
전문대학 이상	34.54	3.142			
결혼상태					
유배우	34.52	3.340			
무배우	34.65	3.517	전체	34.53(3,027)	

04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제4장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개인의 삶에 있어 가족 및 사회관계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사회적 연계망은 개인의 사회적 지지의 기능과 사회적 통합의 제고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장에서는 첫째 베이비 부모의 가족현황을 자녀, 부모,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는 베이비 부모의 가족·사회관계의 작동 실태를 부모, 자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별거중인 부모와 자녀의 경우 접촉 빈도 및 도구적 도움, 경제적 도움의 교환, 정서적 유대 정도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친밀한 친구의 수 및 접촉빈도, 자주 접촉하는 지인,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베이비 부모의 삶에 있어 중요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1절 가족 현황

개인의 삶에 있어서 자녀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가 있어, 자녀가 전혀 없는 비율은 5.1%에 불과하다. 그러나 베이비 부모의 특성별로 무자녀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무자녀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에,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경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그 비율이 높다. 한편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비율이 21.8%에 달하고 있다. 한편 혼자 생활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의 경우 42.2%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비율이 14.5%이다. 이는 이들 독거 베이비 부머가 배우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없는 비율이 14.3%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다. 이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베이비 부머의 총 자녀수는 1.9명으로 이중 동거자녀는 1.4명이며 비동거 자녀는 0.5명으로, 자녀중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비중이 훨씬 높다. 한편 자녀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미혼자녀가 1.7명, 기혼자녀가 0.2명으로 자녀의 대부분이 미혼임을 볼 수 있다. 베이비 부머 중 82.7%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자녀가 있는 비율은 11.8%이며, 동거하고 있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손자녀가 있는 경우도 약 3/4이 1~2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부표 1~4 참조).

이러한 자녀 현황을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자녀수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비동거 자녀수가 농어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할 연령층으로 도시지역 등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일한 이유로 자녀 동거율은 74.9%로 도시지역의 86.5%에 비하여 낮다. 또한 기혼자녀수도 0.4명으로 도시지역의 0.2명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손자녀가 있는 비율도 19.7%로 도시지역의 10.1%에 비하여 높다.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자녀동거율이 낮으며, 자녀중 비동거자녀수가 많고 손자녀가 있는 비율이 19.1%로 후기 베이비 부머의 3.2%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즉 후기 베이비 부머들의 약 20% 정도가 조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자의 경우 손자녀가 있는 비중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총자녀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손자녀가 있는 비율도 월등히 높다. 이는 교육기간이 짧은 경우 결혼을 일찍 하기 때문에 가족주기의 진행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의 경우 총자녀수가 적지만 손자녀가 있는 비율은 높는데, 이는 무배우자에 사별과 이혼·별거, 미혼 등을 경험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별한 베이비 부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따라서 손자녀가 있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총 자녀수가 적지만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자녀 동거율이 매우 낮는데 이는 자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 가구의 규모가 작아서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표 4-1〉 베이비 부모의 제특성별 자녀 및 손자녀 현황

(단위: %, 명)

특성	무 자녀율 (%)	총 자녀수	동거여부		결혼여부		자녀 동거율 (%)	손자녀가 있는 비율 (%)
			동거 자녀수	비동거 자녀수	미혼 자녀수	기혼 자녀수		
전체	5.1	1.9	1.4	0.5	1.7	0.2	82.7	11.8
지역								
동부	3.9	1.9	1.5	0.4	1.7	0.2	86.5	10.1
읍·면부	10.7	2.0	1.1	0.9	1.6	0.4	74.9	19.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9	2.0	1.3	0.7	1.6	0.4	78.7	19.1
1960~1963년생	5.3	1.9	1.6	0.3	1.8	0.1	87.3	3.2
성								
남자	7.1	1.9	1.5	0.4	1.7	0.2	83.1	7.7
여자	3.3	2.0	1.4	0.6	1.7	0.3	82.3	15.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9	2.1	1.1	1.0	1.5	0.6	66.3	29.3
중학교	5.1	2.1	1.3	0.8	1.5	0.5	73.5	24.7
고등학교	5.4	1.9	1.4	0.4	1.7	0.1	84.9	7.2
전문대학 이상	2.1	1.9	1.7	0.2	1.9	0.0	93.5	1.8
결혼상태								
유배우	2.3	2.0	1.5	0.5	1.8	0.2	87.5	11.5
무배우	21.8	1.5	0.8	0.6	1.2	0.3	54.3	13.4
가구유형 ¹⁾								
1인 가구	42.2	1.0	0.0	1.0	0.7	0.3	0.0	16.3
부부가족	14.5	1.7	0.0	1.7	0.9	0.8	3.2	36.9
부/모+미혼자녀	1.1 ¹⁾	2.0	1.7	0.3	1.9	0.1	98.7 ¹⁾	7.3
확대가족	5.6	2.1	1.5	0.6	1.7	0.4	84.9	17.9
기타가족	13.8	1.7	0.4	1.3	1.0	0.7	29.5	16.7
현 취업상태								
취업중	5.4	1.9	1.4	0.5	1.7	0.2	82.7	11.0
미취업	4.3	2.0	1.4	0.6	1.7	0.3	82.8	14.2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4.3	1.7	0.9	0.8	1.3	0.4	59.1	21.2
300~500만 원 미만	0.8	2.1	1.6	0.5	1.9	0.2	90.9	10.7
500만 원 이상	0.7	2.0	1.8	0.3	1.9	0.1	96.4	3.8

주: 1) 가구형태는 베이비 부모 기준이 아니라 가구전체에 대한 분류임. 따라서 베이비 부모의 자녀 실태와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함.

베이비 부머의 형제·자매는 본인의 경우 5.1명, 배우자의 경우 5.0명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자녀는 1.9명인 것에 비하여 큰 차이이다. 이는 베이비 부머 성장 시의 가족(family of orientation)의 규모와 자신이 형성한 생식가족(family of procreation)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자신이 장남 또는 장녀 이하의 형제·자매 순위인 비율이 높다.

〈표 4-2〉 베이비 부머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수		
1명	1.1	1.5
2명	3.0	3.8
3명	9.4	9.9
4명	21.1	20.7
5명	24.7	25.5
6명	19.1	18.6
7명 이상	21.6	20.0
(평균)	5.1	5.0
형제·자매 순위		
1째	22.8	25.4
2째	20.1	20.3
3째	20.9	20.9
4째	14.4	13.8
5째	10.8	9.5
6째	6.2	5.0
7째 이상	4.9	5.2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19.1	22.0
차남이하	28.0	30.5
장녀/외동딸	19.2	18.7
차녀 이하	33.7	28.8
계	100.0	100.0
(명)	(3,027)	(2,592) ¹⁾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제2절 부모와의 관계 및 부양의 교환실태

베이비 부머의 약 2/3는 생존해있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는 17.8%, 아버지만 생존한 경우는 소수로 3.4%이며 어머니만 생존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 39.9%이다.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생존해 있는 부모의 연령은 평균 78세 내외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건강상태를 보면 생존해 있는 부모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본인의 부모는 55.6%, 배우자 부모의 경우 59.2%로 약 절반 정도는 부모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중 한명 이상 생존한 경우 본인 부모는 11.2%, 배우자 부모는 9.1%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가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베이비 부머의 부모 세대들이 단독가구 형성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베이비 부머가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접촉빈도와 다양한 자원의 교환실태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베이비 부머의 부모세대와의 접촉 정도를 살펴보면 약 1/3이 주2회 이상 접촉을 하고 있으며, 23.6%가 주1회 정도 34.2%가 월 1회 이상~주 1회 미만 접촉하고 있다. 월 1회 미만이라는 응답은 9.8%이다. 이에 비하여 배우자 부모와의 접촉 정도는 낮은 편이다. 각 빈도별 응답률은 20.6%, 17.6%, 38.4%, 23.3%이다. 주 2회 이상의 빈번한 접촉을 하는 비율은 본인의 부모의 경우 32.3%이지만 배우자 부모의 경우는 20.6%로 이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월 1회 미만의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각각 9.8%와 23.3%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모와의 접촉실태를 베이비 부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출생년도별로는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부모와의 접촉 정도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우 모두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모두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빈번

한 접촉을 하고 있다. 주 2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은 남자의 경우 28.5%, 여자의 경우 35.3%이며, 배우자 부모의 경우는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가 더 커서 14.6%와 29.5%로 거의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월 1회 미만의 접촉을 하는 비율은 본인 부모의 경우 남녀 간의 차이가 적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 30.4%로 여자의 13.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자의 약 1/3은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여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비교적 균형 있는 접촉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배우자의 부모에 비하여 본인의 부모의 경우 교육수준별 차이가 더 크다. 본인의 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자의 경우 24.7%만이 주 2회 이상의 접촉을 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이상 학력자의 경우 동 비율이 약 3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월 1회 미만 접촉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이하자의 경우 22.6%인 반면 전문대 이상 자의 경우는 6.3%이다. 한편 배우자의 부모와 접촉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에 거의 무관하게 20% 내외가 주 2회 이상의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월 1회 미만 접촉하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부모와의 접촉 정도가 낮은 편이며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본인 부모의 경우에 비하여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용한 시간자원 하에서 배우자의 부모보다 본인의 부모와의 접촉을 우선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맞벌이의 경우 주2회 이상 접촉하는 비율이 홀벌이나 부부가 모두 무직인 경우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부모와의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형제·자매 순위보다는 아들이나 딸 인가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모두 부모가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접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인 접촉 정도는 본인의 부모의 경우 더 높아서 본인 부모가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1/3 이상이 주 2회 이상 접촉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동비율이 1/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4-3〉 베이비 부머의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생존 및 건강상태, 접촉 실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³⁾	
부모의 생존			
부모 모두 생존	17.8	18.9	
아버지만 생존	3.4	3.1	
어머니만 생존	39.9	38.2	
부모 모두 사망	38.8	39.8	
부모의 평균 연령			
부	78.9	77.8	
모	77.7	77.0	
부모의 건강상태 ¹⁾			
(모두) 건강	55.6	59.2	
아버지(만) 비건강	6.2	6.0	
어머니(만) 비건강	31.8	28.5	
부모 모두 비건강	6.4	6.3	
부모와의 동거 실태			
부/모와 동거	11.2	9.1	
부/모와 비동거	88.8	90.9	
비동거 부모의 거주형태 ²⁾			
독거	32.7	31.1	
부부가구	22.6	24.6	
자녀동거	38.8	38.2	
기타	5.9	6.0	
접촉 빈도 ²⁾			
주 4회 이상	14.1	7.2	
주 2~3회	18.2	13.4	
주 1회	23.6	17.6	
2주에 1회	17.4	14.1	
월 1회	16.8	24.4	
3개월에 1회	6.1	14.2	
6개월에 1회	1.9	5.5	
연 1회 이하	0.8	2.3	
전혀 연락이나 접촉 없음	1.0	1.4	
계	100.0	100.0	
(명)	(3,027)	(2,592)	

주: 1)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외

2) 부모와 비동거중인 경우만 질문. 부모가 모두 사형하거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제외

3)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접촉 실태

(단위: %, 명)

특성	주 2회 이상	주 1회	주 1회 미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32.3	23.6	34.3	9.8	100.0	(1,656) ¹⁾
지역						
동부	32.7	23.8	33.9	9.5	100.0	(1,401)
읍·면부	30.3	22.6	36.1	11.1	100.0	(255)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9.4	24.2	35.7	10.7	100.0	(72)
1960~1963년생	34.9	23.1	33.0	9.0	100.0	(885)
성						
남자	28.5	25.6	36.9	9.0	100.0	(729)
여자	35.3	22.1	32.2	10.4	100.0	(92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4.7	16.1	36.4	22.6	100.0	(125)
중학교	30.5	19.7	38.5	11.4	100.0	(293)
고등학교	33.6	25.4	31.8	9.2	100.0	(757)
전문대학 이상	33.5	25.1	35.1	6.3	100.0	(481)
결혼상태						
유배우	33.0	23.8	34.1	9.1	100.0	(1,486)
무배우	26.5	22.3	35.7	15.4	100.0	(171)
현 취업상태						
취업중	31.6	24.0	34.4	10.0	100.0	(1239)
미취업	34.5	22.4	34.0	9.1	100.0	(4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0	22.6	32.7	9.7	100.0	(801)
홀벌이	31.9	25.0	35.0	8.1	100.0	(632)
모두 무직	17.0	25.8	43.4	13.7	100.0	(53)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7.8	18.2	37.6	16.4	100.0	(442)
300~500만 원 미만	30.5	26.5	33.7	9.3	100.0	(580)
500만 원 이상	37.1	24.7	32.6	5.6	100.0	(633)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27.8	29.6	35.8	6.8	100.0	(337)
차남이하	28.7	22.7	37.7	10.8	100.0	(392)
장녀/외동딸	37.7	22.2	31.8	8.3	100.0	(420)
차녀 이하	33.7	21.5	32.6	12.2	100.0	(508)
부모의 거주형태						
독거	37.5	24.3	31.3	6.8	100.0	(542)
부부가구	35.4	25.7	30.5	8.4	100.0	(374)
자녀동거	28.4	23.4	39.1	9.2	100.0	(643)
기타	18.5	13.3	32.9	35.3	100.0	(98)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 실태

(단위: %, 명)

특성	주 2회 이상	주 1회	월 1회~ 주 1회 미만	연1회 이하 ~월1회 미만	계	(명)
전체	20.6	17.6	38.4	23.3	100.0	(1,444) ¹⁾
지역						
동부	20.7	17.6	38.6	23.2	100.0	(1,227)
읍·면부	20.4	17.9	37.7	24.0	100.0	(21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8.7	18.8	38.4	24.1	100.0	(700)
1960~1963년생	22.4	16.5	38.5	22.6	100.0	(743)
성						
남자	14.6	15.2	39.8	30.4	100.0	(857)
여자	29.5	21.2	36.4	13.0	100.0	(59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1.8	10.6	34.4	33.2	100.0	(91)
중학교	18.2	19.6	33.4	28.8	100.0	(201)
고등학교	21.7	16.1	38.7	23.5	100.0	(657)
전문대학 이상	20.0	20.1	40.9	19.1	100.0	(3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9.5	15.8	39.1	25.9	100.0	(1,132)
미취업	25.8	24.2	35.8	14.1	100.0	(3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0	16.0	39.1	22.9	100.0	(789)
홀벌이	19.0	20.0	37.1	24.0	100.0	(618)
모두 무직	19.0	11.7	46.2	23.2	100.0	(3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7.6	15.5	32.5	34.4	100.0	(280)
300~500만 원 미만	19.2	17.7	39.7	23.5	100.0	(558)
500만 원 이상	23.4	18.6	40.0	18.1	100.0	(605)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31.6	21.8	38.2	8.4	100.0	(289)
차남이하	27.1	20.8	34.9	17.3	100.0	(298)
장녀/외동딸	14.6	17.0	39.7	28.7	100.0	(389)
차녀 이하	14.7	13.6	39.7	32.0	100.0	(467)
부모의 거주형태						
독거	25.0	18.8	36.8	19.4	100.0	(449)
부부가구	25.3	16.3	31.1	27.3	100.0	(356)
자녀동거	15.3	17.4	44.7	22.7	100.0	(552)
기타	12.4	18.8	37.0	31.8	100.0	(87)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비동거 부모와의 부양 교환실태는 집안일, 간병이나 수발과 같은 도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본인의 비동거 부모에게 약 72.4%가 배우자의 비동거 부모에게는 65.5%가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집안일 도움을 비동거 부모로부터 받는 비율은 26.7%, 배우자 부모의 경우는 27.2%이다. 또한 간병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비율은 본인의 부모는 34.2%, 배우자의 경우는 23.5%이다. 반면 간병이나 수발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1% 미만인데 이는 베이비 부머들이 아직 간병이나 수발은 필요로 하는 신체적 기능약화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구적 부양의 교환실태에서 나타난 특징은, 배우자의 부모보다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부양 제공률이 높지만, 부모로부터의 도구적 도움 수혜에 있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도구적 교환실태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모든 도구적 도움의 교환이 도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는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주고받고 있으며 간병이나 수발의 도움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면 도구적 도움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견된다. 즉, 후기 베이비 부머들이 더 활발하게 본인의 부모와 집안일 도움을 주고 있으나 간병이나 수발도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집안일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는 비율도 후기 베이비 부머가 31.5%로 전기 베이비 부머의 21.3%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러한 도구적 도움의 교환 형태는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조금 상이하다.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집안일 도움의 제공률이나 수혜율이 높지만 그 차이는 본인의 부모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간병이나 수발의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오히려 전기 베이비 부머에게서 조금 높은 편이다.

도구적 도움의 교환에 있어서 다른 특성에 비하여 성별차이가 매우 분명한데, 여자의 경우 80.5%가 집안일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어 남자의 62.2%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수혜율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간병이나 수발과 관련된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은 여자가 37.3%로 남자의 30.2%에 비하여 높다. 이러한 도구적 도움의 교환에 있어서의 남녀 간의 차이는 유형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더욱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배우자의 부모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은 여자의 경우 81.7%로 남자의 54.4%에 비하여 약 25%포인트가 높고, 간병이나 수발의 도움 제공률도 여자가 35.2%로 남자의 15.5%에 비하여 약 두 배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모두에 있어 집안일 제공률에 일정한 유형이 없으나 수혜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집안일 도움을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는 비율이 높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다양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부모의 적극적인 도움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형태별로는 베이비 부머가 미혼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다. 한편 취업자에 비하여 미취업자의 경우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거나 간병 및 수발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데, 특히 본인의 부모에 비하여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취업상태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움을 제공해야 할 상황에서 취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보다는 본인 부모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때문이 아닌가 추측케 하는 측면이다.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꼭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적으로 부모가 단독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집안일 도움을 받는 비율도 부모가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세대 간의 도구적 도움의 제공에 있어 제공하는 사람의 제공의지와 시간적 여유가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6〉 베이비 부머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부모와의 도구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집안일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1.2	0.4
주 2~3회	2.0	1.7
주 1회	5.5	3.3
2주에 1회	5.7	5.7
월 1회	15.1	13.9
3개월에 1회	23.1	20.5
6개월에 1회	13.5	13.6
연 1회 이하	6.3	6.4
미제공	27.6	34.5
집안일 도움 수여		
주 4회 이상	0.2	0.2
주 2~3회	0.4	0.1
주 1회	0.5	0.7
2주에 1회	1.0	0.6
월 1회	2.4	2.9
3개월에 1회	6.7	6.9
6개월에 1회	6.9	7.4
연 1회 이하	8.6	8.4
미제공	73.3	72.8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		
주 4회 이상	0.6	0.2
주 2~3회	1.2	0.6
주 1회	1.5	0.9
2주에 1회	2.3	1.6
월 1회	5.2	4.0
3개월에 1회	8.5	5.2
6개월에 1회	5.8	5.0
연 1회 이하	9.1	5.9
미제공	65.8	76.5
간병이나 수발 도움 수혜		
수혜	1.0	0.6
미수혜	99.0	99.4
계	100.0	100.0
(명)	(1,656) ¹⁾	(1,444) ²⁾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함.

2)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7〉 베이비 부모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집안일 도움 ¹⁾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률
	제공률	수혜율	
전체	72.4	26.7	34.2
지역			
동부	73.5	28.6	35.3
읍·면부	66.4	16.5	27.8
출생년도			
1955~1959년생	69.1	21.3	34.1
1960~1963년생	75.3	31.5	34.3
성			
남자	62.2	26.1	30.2
여자	80.5	27.2	37.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3.9	20.9	31.4
중학교	71.6	23.9	33.1
고등학교	74.5	27.9	33.8
전문대학 이상	69.2	28.1	36.1
가구형태			
1인 가구	64.8	12.5	29.3
부부가족	63.1	15.9	34.2
부/모+미혼자녀	73.9	28.8	34.6
확대가족	68.8	22.2	30.6
기타가족 ²⁾	100.0	0.0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71.4	27.5	32.3
미취업	75.4	24.6	3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4.8	28.5	31.6
홀벌이	72.0	25.7	37.4
모두 무직	62.3	33.0	39.2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9.1	18.0	33.4
300~500만 원 미만	74.3	25.9	32.5
500만 원 이상	73.0	33.6	36.1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65.9	31.9	30.8
차남이하	58.8	21.3	30.4
장녀/외동딸	82.8	32.1	32.6
차녀 이하	78.7	23.1	40.6
부모의 거주형태			
독거	78.0	30.2	35.9
부부가구	80.9	29.7	37.1
자녀동거	67.1	25.2	28.5
기타	43.8	6.3	50.9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배우자 부모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특성	집안일 도움		간병이나 수발 도움
	제공률	수혜율	제공률
전체	65.5	27.2	23.5
지역			
동부	66.3	28.6	24.7
읍·면부	60.6	19.4	16.8
출생년도			
1955~1959년생	64.6	24.6	26.3
1960~1963년생	66.3	29.7	20.8
성			
남자	54.4	28.1	15.5
여자	81.7	26.0	35.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5.5	24.6	21.3
중학교	59.5	24.1	22.4
고등학교	67.9	26.8	24.1
전문대학 이상	64.8	29.5	23.4
가구형태			
1인 가구	-	-	-
부부가족	63.9	23.8	26.3
부/모+미혼자녀	66.5	28.1	23.5
확대가족	55.6	20.4	20.5
기타가족 ²⁾	0.0	0.0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61.7	27.7	19.8
미취업	79.1	25.6	3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0	28.3	21.0
홀벌이	65.1	25.7	26.5
모두 무직	81.2	29.4	27.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8.6	18.4	20.3
300~500만 원 미만	66.1	25.3	22.6
500만 원 이상	68.2	33.0	25.8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83.0	28.4	37.2
차남이하	80.5	22.9	33.3
장녀/외동딸	55.3	30.6	16.1
차녀 이하	53.5	26.4	14.8
부모의 거주형태			
독거	73.1	31.9	27.1
부부가구	71.5	32.8	22.2
자녀동거	59.6	23.2	18.4
기타	38.6	5.3	42.2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한편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 부머의 대부분은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 2/3가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태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커 대체적으로 도시지역이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의 경우 모두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 행태에 있어서의 지역별 유형에는 차이가 있다.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의 경우 도시지역이 본인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각각 27.5%와 26.3%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본인 부모의 경우는 18.6%와 10.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본인 부모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본인 부모에 대한 현금지원율이 37.6%이며 여자의 경우 17.1%로 남자의 경우 그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배우자 부모의 경우는 반대의 현상이 발견된다. 즉 여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율이 39.4%에 달하고 있다. 또한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경우 높은 수준을(각각 56.3%와 74.5%) 보이지만, 배우자 부모의 경우는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경우 높은 수준(각각 77.6%와 55.1%)을 보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남자의 경우는 본인의 부모에게는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배우자의 부모에게는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유형을 보이는 반면, 여자의 경우는 본인의 부모에게는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배우자의 부모 즉 시부모에게는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정반대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태를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율이 높고 전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배우자의 부모보다는 본인의 부모에게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도 발견된다.

가구형태별로는 미혼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전형적인 핵가족의 경우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확대가족의 경우는 동거하지 않고 있는 부모에게는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편이다.

취업 유무에 따른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를 비교해보면 본인의 부모의 경우는 취업자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지원은 미취업자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자에게서 취업률이 높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 대한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조금 높다.

또한 경제수준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동일하다.

형제·자매 순위별로 비교해보면, 딸의 경우는 순위별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이들의 경우는 장남의 경우가 차남 이하에 비하여 부모에게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다. 배우자 부모의 경우 또한 배우자가 장남/외이들인 경우에 차남이하인 경우에 비하여 정기적인 현금지원율이 높다. 또한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정기적인 현금지원율이 높는데 이러한 현상은 본인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베이비 부머의 대부분이 어떠한 형태이던 간에 부모에게 경제적 인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베이비 부머의 약 15% 정도만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내용도 대부분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나 현물 지원이며 이러한 경향은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모두 동일하다. 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전기 베이비 부머와 후기 베이비 부머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낮아 각각 11.2%와 19.4%이다. 반면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는 15.7%와 12.8%로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전기 베이비 부머는 본인의 부모에게, 후기 베이비 부머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다.

성별로는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본인 부모의 경우는 여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외의 제 특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데, 이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 세대의 특징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가치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응답자가 장녀 또는 외동딸일 경우 다른 응답자에 비하여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현물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고 부모가 부부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경제적 도움을 부모에게 주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제적 부양이 주는 부담감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본인의 부모인 경우 16.0%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24.4%가 보통이다. 59.7%가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 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베이비 부머의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후기 베이비 부머가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본인 부모의 경우는 남녀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모두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율이 높다.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공이 주는 부담감이 배우자가 장남이나 외아들일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20%를 넘고 있다.

〈표 4-9〉 베이비 부머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본인 ¹⁾	배우자 ²⁾
경제적 도움 제공 내용		
전혀 제공 없음	5.8	6.7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26.1	23.9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66.5	68.5
주택 등 부동산 구매 시 지원	0.0	0.1
생활물품 구매 지원	1.6	0.8
경제적 도움제공의 부담감		
매우 부담스럽다	1.0	1.3
부담스럽다	14.9	13.4
보통이다	24.3	26.8
부담스럽지 않다	52.5	51.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7.2	6.9
경제적 도움 수혜 내용		
전혀 받지 않음	84.3	85.8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0.1	0.3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7.3	5.9
주택 등 부동산 구매시 지원	0.6	0.4
생활물품 구매 지원	7.7	7.7
경제적 도움 제공 유형		
전혀 도움 주고 받지 않음	5.1	6.0
도움을 주는편	87.1	87.4
도움을 받는편	3.1	2.4
비슷한 정도의 도움 주고 받음	4.8	4.2
계	100.0	100.0
(명)	(1,656) ¹⁾	(1,444) ²⁾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함.

2)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1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경제적 도움 제공 실태

(단위: %, 명)

특성	본인 부모 ¹⁾				배우자 부모 ²⁾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전체	26.1	66.5	1.6	5.8	23.9	68.5	0.9	6.7
지역								
동부	27.5	65.0	1.8	5.7	26.3	66.3	0.9	6.6
읍·면부	18.6	74.3	0.7	6.4	10.8	81.1	0.8	7.4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3.2	69.0	1.9	6.0	24.2	67.6	0.9	7.3
1960~1963년생	28.7	64.3	1.4	5.6	23.8	69.3	0.8	6.1
성								
남자	37.6	56.3	1.0	5.2	13.4	77.6	1.2	7.8
여자	17.1	74.5	2.1	6.3	39.4	55.1	0.4	5.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9.1	73.3	3.0	14.7	11.4	75.2	3.3	10.2
중학교	19.2	72.3	1.2	7.4	18.3	71.5	1.7	8.5
고등학교	20.7	71.3	2.1	5.8	20.8	71.5	0.3	7.5
전문대학 이상	43.3	53.5	0.8	2.4	32.8	62.1	0.9	4.3
가구형태								
1인 가구	10.0	62.4	11.0	16.7	-	-	-	-
부부가족	17.0	76.1	2.0	4.9	22.2	65.8	0.0	12.0
부/모+미혼자녀	28.5	65.1	1.3	5.2	24.7	68.3	1.0	6.1
확대가족	16.0	76.1	0.0	7.9	16.6	75.0	0.7	7.7
기타가족	0.0	0.0	0.0	100.0	100.0	0.0	0.0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28.8	64.7	1.3	5.1	19.3	72.9	0.8	7.1
미취업	18.1	71.7	2.6	7.7	40.9	52.7	1.1	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0	68.5	0.5	4.0	21.5	70.9	0.8	6.9
홀벌이	28.8	64.9	2.0	4.4	27.4	65.6	1.0	6.1
모두 무직	30.1	61.1	0.0	8.8	19.5	66.7	0.0	13.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9.9	72.4	3.4	14.3	7.1	76.8	0.3	15.8
300~500만 원 미만	24.3	70.0	1.4	4.3	17.8	75.1	0.7	6.4
500만 원 이상	39.1	59.0	0.6	1.3	37.4	58.6	1.2	2.7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42.6	52.1	0.4	4.9	44.6	49.2	0.7	5.5
차남이하	33.0	60.5	1.5	5.0	34.5	61.0	0.0	4.5
장녀/외동딸	16.7	74.8	3.3	5.2	13.2	79.7	1.4	5.8
차녀 이하	17.6	73.7	1.2	7.5	13.4	75.9	1.1	9.7
부모의 거주형태								
독거	29.4	62.7	2.3	5.7	29.1	64.1	1.1	5.7
부부가구	28.9	65.3	1.3	4.5	22.1	68.8	1.8	7.4
자녀동거	18.8	74.1	1.6	5.5	17.4	76.0	0.2	6.5
기타 ³⁾	45.9	41.4	0.0	12.8	46.9	42.6	0.4	10.1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항목별 무응답을 제외함.

2)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1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수혜 실태

(단위: %, 명)

특성	본인 부모 ¹⁾				배우자 부모 ²⁾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비정기적인 현금지원	현물 지원	미지원
전체	0.1	7.3	8.3	84.3	0.3	5.9	8.1	85.8
지역								
동부	0.1	7.5	8.5	84.0	0.3	5.7	8.8	85.1
읍·면부	0.1	6.2	7.6	86.2	0.0	6.7	3.9	89.5
출생년도								
1955~1959년생	0.3	5.6	5.4	88.8	0.4	5.5	9.8	84.3
1960~1963년생	0.0	8.7	10.9	80.4	0.2	6.2	6.4	87.2
성								
남자	0.2	6.5	6.9	86.4	0.4	6.5	8.7	84.4
여자	0.0	7.8	9.5	82.7	0.1	4.9	7.2	87.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1	8.8	4.1	86.0	0.5	3.6	8.3	87.7
중학교	0.0	5.8	8.9	85.3	0.0	9.5	9.5	81.0
고등학교	0.0	7.4	10.1	82.5	0.0	5.0	8.4	86.6
전문대학 이상	0.1	7.5	6.4	86.1	0.7	6.0	7.0	86.3
가구형태								
1인 가구	2.2	3.7	14.8	79.3	-	-	-	-
부부가족	0.2	6.6	5.7	87.4	0.0	4.4	3.8	91.8
부/모+미혼자녀	0.0	6.7	8.4	84.8	0.3	6.0	8.7	85.0
확대가족	0.0	18.4	6.8	74.8	0.0	6.3	5.8	87.9
기타가족	0.0	0.0	0.0	100.0	0.0	0.0	0.0	10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0.1	7.0	8.4	84.5	0.4	6.1	8.1	85.5
미취업	0.1	8.1	8.3	83.6	0.0	5.1	8.0	87.0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7.5	8.2	84.3	0.5	6.7	8.6	84.2
홀벌이	0.1	6.5	8.7	84.8	0.1	4.7	6.9	88.4
모두 무직	0.0	9.3	3.2	87.7	0.0	8.2	15.9	75.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0.4	7.1	9.3	83.3	0.0	5.3	5.9	88.8
300~500만 원 미만	0.1	7.9	8.1	83.9	0.4	6.8	10.2	82.7
500만 원 이상	0.0	6.8	7.9	85.3	0.4	5.3	7.2	87.2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0.1	7.3	8.2	84.4	0.2	5.7	7.6	86.6
차남이하	0.4	6.0	5.4	88.3	0.5	4.6	6.7	88.2
장녀/외동딸	0.1	8.3	11.5	80.1	0.5	7.7	11.0	80.8
차녀 이하	0.0	7.3	8.1	84.6	0.0	5.3	6.8	87.9
부모의 거주형태								
독거	0.1	6.3	10.5	83.1	0.6	5.9	10.3	83.2
부부가구	0.0	11.2	11.0	77.8	0.4	7.4	11.5	80.7
자녀동거	0.0	6.8	6.2	87.0	0.0	5.6	5.3	89.0
기타 ³⁾	1.4	0.5	0.0	98.1	0.0	1.0	0.0	99.0

주: 1)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응답자 1,6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한 항목별 문항답을 제외함.

2) 별거중인 부/모가 있는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1,4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4-12〉 베이비 부모의 제특성별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움제공에 느끼는 부담감 (단위: %, 명)

특성	본인 부모 ¹⁾			배우자 부모 ¹⁾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전체	16.0	24.4	59.7	14.7	26.8	58.5
지역						
동부	15.8	25.9	58.3	15.2	28.0	56.8
읍·면부	16.8	15.8	67.4	12.0	19.3	68.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8.1	24.8	57.0	16.9	27.9	55.2
1960~1963년생	14.1	24.0	62.0	12.7	25.7	61.6
성						
남자	15.7	25.1	59.3	10.7	24.3	65.0
여자	16.2	23.8	60.0	20.4	30.2	4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3.4	20.7	50.9	18.0	34.6	47.5
중학교	23.7	21.1	55.3	28.4	24.7	46.9
고등학교	13.5	23.8	62.7	14.1	27.1	58.9
전문대학 이상	12.4	28.0	59.7	9.7	25.8	64.5
가구형태						
1인 가구	27.8	29.1	43.0	-	-	-
부부가족	17.4	20.9	61.6	17.6	29.1	53.3
부/모+미혼자녀	15.4	24.8	59.8	14.9	27.1	58.0
확대가족	15.4	19.5	65.1	9.6	19.4	71.1
기타가족 ²⁾	-	-	-	0.0	0.0	10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7	24.9	58.4	13.6	25.2	61.2
미취업	13.8	22.7	63.5	18.8	32.3	4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0	22.6	60.4	15.8	23.7	60.6
홀벌이	11.4	24.8	63.9	12.9	29.8	57.3
모두 무직	17.0	29.6	53.4	25.9	41.6	32.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7.0	24.2	48.8	27.9	29.7	42.5
300~500만 원 미만	16.9	27.2	55.9	14.3	26.4	59.2
500만 원 이상	8.5	21.9	69.6	9.8	25.8	64.3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15.7	27.9	56.4	22.6	32.2	45.3
차남이하	15.3	22.6	62.2	18.5	30.0	52.6
장녀/외동딸	14.9	24.5	60.7	10.1	22.7	67.2
차녀 이하	17.5	23.4	59.1	11.2	25.2	63.6
부모의 거주형태						
독거	15.1	24.4	60.5	15.3	24.6	60.1
부부가구	15.0	25.6	59.4	10.8	32.2	57.1
자녀동거	13.8	24.3	61.9	13.7	25.1	61.2
기타	40.4	18.9	40.6	35.1	26.8	38.1
지원 형태						
정기적인 현금지원	20.4	23.5	56.1	23.2	28.2	48.6
비정기적 현금지원	14.1	25.1	60.8	11.8	26.2	62.0
현물지원	19.4	9.9	70.7	12.6	27.1	60.4

주: 1)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본인부모 1,561명, 배우자 부모 1,347명.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모두 약 87%의 응답자가 도움을 주는 편이며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비율은 약 4%대이며 전혀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지 않은 비율은 5~6%에 불과하다.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가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무교환형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남편의 부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한편 부모가 부부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도움을 받는 편이라는 응답이 다른 가구형태에 비하여 높다.

한편 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을 살펴보면 26.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면 55.5%가 그렇다. 16.0%가 보통이다. 1.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80% 이상이 부모와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제특성별로 부모와의 친밀감을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친밀감의 정도가 높고 가구소득 수준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친밀감의 정도가 정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친밀감 정도에 있어 특성별 차이가 적은 편이다.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역시 친밀감은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14.1%와 13.4%로 높다. 한편, 본인 부모의 경우와는 달리 성별 차이가 발견되는데, 여자의 경우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7.0%로 남자의 4.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본인 부모 ¹⁾				배우자 부모 ²⁾			
	무교환	도움 주는 편	받는 편	비슷한 정도	무교환	도움 주는 편	받는 편	비슷한 정도
전체	5.1	87.1	3.1	4.8	6.0	87.4	2.4	4.2
지역								
동부	5.1	87.1	3.1	4.7	5.8	87.6	2.5	4.1
읍·면부	5.3	86.7	3.1	5.0	7.1	86.3	2.0	4.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6.0	88.9	2.0	3.2	6.0	87.3	2.8	4.0
1960~1963년생	4.3	85.5	4.1	6.2	6.1	87.5	2.0	4.4
성								
남자	5.0	89.1	2.7	3.3	7.0	84.1	3.1	5.8
여자	5.2	85.5	3.5	5.9	4.6	92.1	1.4	1.9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3.1	75.8	6.3	4.8	8.7	82.0	5.3	4.0
중학교	7.6	87.4	1.2	3.9	8.2	85.0	3.0	6.5
고등학교	4.9	86.7	2.8	5.7	6.4	87.6	3.0	2.9
전문대학 이상	1.8	90.4	3.9	3.9	4.0	89.0	1.9	5.0
가구형태								
1인 가구	16.7	71.1	0.0	12.1	-	-	-	-
부부가족	4.4	91.8	1.3	2.5	10.2	85.4	1.8	2.6
부/모+미혼자녀	4.6	87.6	2.9	5.0	5.5	87.4	2.5	4.6
확대가족	4.6	83.8	11.3	0.4	7.7	89.3	1.9	1.2
기타가족	100.0	0.0	0.0	0.0	100.0	0.0	0.0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4.9	87.7	2.5	5.0	6.2	86.6	2.6	4.6
미취업	5.8	85.3	4.8	4.2	5.2	90.4	1.8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	88.5	2.7	5.2	5.7	86.6	2.5	5.2
홀벌이	3.3	90.5	3.1	3.2	6.0	89.0	2.0	2.9
모두 무직	8.8	80.0	5.8	5.4	12.1	76.6	6.4	4.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2.8	77.5	3.7	6.1	14.9	81.1	1.2	2.8
300~500만 원 미만	3.8	88.3	3.1	4.7	5.1	85.5	4.4	5.0
500만 원 이상	0.9	92.5	2.7	3.9	2.7	92.1	1.1	4.1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4.9	87.1	3.4	4.6	4.6	90.7	2.6	2.2
차남이하	4.6	91.1	2.0	2.4	4.6	92.7	1.1	1.7
장녀/외동딸	4.3	85.4	4.2	6.1	5.0	84.0	3.1	7.8
차녀 이하	6.3	85.3	2.8	5.6	8.6	84.8	2.6	4.1
부모의 거주형태								
독거	5.2	86.7	2.7	5.3	5.3	86.8	2.1	5.8
부부가구	2.5	84.6	6.6	6.3	6.6	83.3	4.1	6.1
자녀동거	5.3	88.8	1.8	4.1	5.6	90.2	1.9	2.4
기타	12.8	86.7	0.5	0.0	10.1	89.3	0.6	0.0

주: 1)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만 분석대상으로 함. 본인부모 1,561명, 배우자 부모 1,347명.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1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와의 친밀감 정도

(단위: %, 명)

특성	본인 부모 ¹⁾				배우자 부모 ²⁾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	26.7	55.5	16.0	1.8	24.7	56.6	12.9	5.8
지역								
동부	26.8	55.2	16.3	1.7	24.5	56.8	13.3	5.4
읍·면부	26.2	57.0	14.7	2.2	26.1	55.4	11.0	7.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3.7	56.6	18.0	1.6	22.1	58.4	14.3	5.0
1960~1963년생	29.4	54.5	14.2	1.9	26.5	55.2	11.9	5.5
성								
남자	26.0	55.6	16.6	1.8	25.8	55.6	13.8	4.8
여자	27.4	55.4	15.5	1.7	23.4	57.9	11.8	7.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1.6	57.1	26.4	5.0	8.5	61.2	13.2	14.1
중학교	23.7	54.9	19.0	2.5	19.7	49.9	17.0	13.4
고등학교	25.0	58.6	15.4	1.1	20.8	61.1	14.3	3.8
전문대학 이상	35.4	50.7	12.4	1.6	33.7	52.6	9.9	3.8
가구형태								
1인 가구	15.9	57.1	22.8	4.3	-	-	-	-
부부가족	24.4	57.7	15.4	2.5	21.1	47.5	14.3	17.1
부/모+미혼자녀	27.9	54.4	16.1	1.7	25.5	56.5	12.6	5.3
확대가족	24.5	59.9	14.5	1.1	22.0	60.1	13.8	4.1
기타가족	0.0	100.0	0.0	0.0	0.0	100.0	0.0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26.1	56.1	15.8	1.9	24.7	56.6	13.1	5.6
미취업	28.7	53.4	16.6	1.3	24.9	56.5	12.2	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0	57.6	15.5	1.5	23.2	58.0	12.9	6.0
홀벌이	30.2	53.5	15.2	1.1	27.5	54.0	13.2	5.3
모두 무직	23.3	59.9	11.9	4.8	8.6	71.6	9.7	10.2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2.1	56.9	18.0	3.0	19.5	54.4	13.2	13.0
300~500만 원 미만	23.4	56.9	18.5	1.3	18.7	61.3	15.3	4.7
500만 원 이상	33.4	53.3	12.2	1.2	31.8	53.8	10.9	3.6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23.2	56.5	16.3	2.1	23.7	57.4	11.0	7.9
차남이하	28.3	53.6	16.5	1.5	23.7	57.4	13.2	5.6
장녀/외동딸	28.7	55.3	13.7	2.3	25.9	56.2	14.9	3.0
차녀 이하	26.7	54.9	17.3	1.2	25.9	55.8	12.4	6.6

주: 1) 본인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있는 1,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배우자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는 배우자 응답자 1,562명을 분석대상으로함.

이러한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수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제특성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하여 친근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관련성은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더 강하다. 또한 본인의 부모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차이는 적으나 배우자 부모의 경우 여성에게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아, 이들 세대의 일정 부분의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시대와 의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를 비교해보면 약 절반 정도가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하고 있으며 약 1/4은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하고 있고 약 1/4은 비슷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가족에게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의 경우 58.1%가 친가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고 배우자 가족과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12.1%, 비슷하다는 응답은 29.8%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친가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접촉 정도에 비하여 친밀감에 있어 좀 더 친가 중심적인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접촉 빈도에 있어서 특성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하여 친가와 접촉 빈도가 높고, 중학교 학력을 가진 경우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하는 비율이나 친가와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비율이 높다. 또한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자에 비하여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이 낮다. 가구소득의 경우 그리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표 4-1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가와 배우자 가족과의 접촉 빈도·친밀감 비교

(단위: %, 명)

특성	접촉 빈도			친밀감		
	친가와 더 자주 접촉	배우자 가족과 더 자주 접촉	비슷	친가와 더 친밀감	배우자 가족과 더 친밀감	비슷
전체	47.9	23.9	28.1	58.1	12.1	29.8
지역						
동부	47.8	23.3	28.8	57.4	12.3	30.3
읍·면부	48.5	26.8	24.8	61.5	10.8	27.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9.9	23.6	26.5	58.9	12.7	28.4
1960~1963년생	45.7	24.3	30.0	57.2	11.3	31.5
성						
남자	53.3	17.7	28.9	56.1	12.0	31.9
여자	43.0	29.6	27.4	59.9	12.1	28.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2.7	24.4	32.9	53.3	12.3	34.4
중학교	51.9	22.2	25.9	61.3	12.1	26.6
고등학교	46.9	24.2	28.9	58.1	12.5	29.4
전문대학 이상	48.0	24.5	26.7	57.5	11.3	31.2
가구형태						
1인 가구	-	-	-	-	-	-
부부가족	52.0	21.0	27.0	61.9	11.4	26.7
부·모·미혼자녀	47.2	24.1	28.7	56.9	12.6	30.6
확대가족	49.1	25.8	25.0	62.7	9.3	28.1
기타가족	70.7	0.0	29.3	100.0	0.0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8	21.6	57.6	57.6	12.9	29.5
미취업	39.5	30.7	29.8	59.5	9.7	3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8	22.6	27.6	57.0	12.9	30.2
홀벌이	46.0	25.8	28.2	59.4	11.4	29.2
모두 무직	42.0	22.1	35.9	60.4	8.1	31.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0.2	20.9	28.9	60.8	12.0	27.2
300~500만 원 미만	48.6	24.1	27.3	57.1	12.0	30.9
500만 원 이상	46.0	25.8	28.3	57.4	12.2	30.4
형제·자매 순위						
장남/외아들	54.4	15.9	29.7	60.9	14.1	25.0
차남이하	52.5	19.2	28.3	59.0	10.7	30.3
장녀/외동딸	43.2	32.3	24.6	54.6	14.3	31.0
차녀 이하	43.0	28.0	29.1	57.3	10.6	32.1

주: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제3절 부부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9.1%가 매우 만족한다. 62.0%가 만족한다. 26.3%가 보통이다. 2.5%가 만족하지 않는다. 0.2%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불만족자는 2.7%로 낮은 수준이다.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자에 비하여 남자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중인 경우 만족도가 높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9.1	62.0	26.3	2.5	0.2	100.0 (2,592) ¹⁾
지역						
동부	8.9	61.3	27.2	2.5	0.1	100.0 (2,142)
읍·면·부	9.8	64.8	22.2	2.4	0.8	100.0 (451)
출생년도						
1955~1959년생	7.6	60.2	28.8	3.2	0.3	100.0 (1,402)
1960~1963년생	10.8	64.1	23.4	1.6	0.1	100.0 (1,192)
성						
남자	10.6	66.9	20.7	1.6	0.2	100.0 (1,233)
여자	7.7	57.5	31.4	3.3	0.2	100.0 (1,36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4	54.5	33.8	5.2	1.1	100.0 (244)
중학교	4.1	57.0	34.1	4.7	0.1	100.0 (500)
고등학교	8.6	64.6	25.0	1.8	0.1	100.0 (1,152)
전문대학 이상	14.8	63.7	20.3	1.1	0.1	100.0 (696)
가구형태						
1인 가구	-	-	-	-	-	-
부부가족	6.6	58.3	31.4	3.5	0.2	100.0 (285)
부/모+미혼자녀	9.4	62.0	25.8	2.6	0.2	100.0 (2,015)
확대가족	9.1	64.7	25.2	0.7	0.2	100.0 (291)
기타가족	0.0	100.0	0.0	0.0	0.0	100.0 (2)

〈표 4-16〉 계속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9.7	63.4	24.4	2.3	0.3	100.0	(1,935)
미취업	7.4	57.7	31.9	3.1	0.0	100.0	(65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4.5	60.6	29.7	4.6	0.6	100.0	(629)
300~500만 원 미만	7.0	61.8	28.7	2.4	0.1	100.0	(974)
500만 원 이상	14.0	63.0	21.8	1.2	0.1	100.0	(988)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59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제4절 자녀와의 관계 및 부양의 교환

1. 자녀와의 접촉 상태

현재 베이비 부머의 약 1/3인 35.2%만이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있으며, 별거자녀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28.2%가 주 4회 이상의 빈번한 접촉을 하고 있으며, 23.4%가 주 2~3회, 20.6%가 주1회 접촉을 하는 등 약 70%대가 주 1회 이상의 접촉을 하고 있어, 부모와의 접촉 빈도에 비하여 훨씬 빈번한 접촉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의 접촉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경우 접촉빈도가 높으며 중학교 학력의 베이비 부머가 다른 응답자에 비하여 접촉빈도가 높고 부부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 다른 가구형태에 비하여 접촉 빈도가 높다. 또한 취업자에 비하여 비취업자의 경우 접촉 빈도가 높은데, 이는 비취업자의 경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자주 접촉하는 자녀는 대부분이 장남 또는 장녀인데, 이는 베이비 부머의 평균자녀수가 1.9명이라는 사실에 기초해볼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표 4-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별거자녀와의 접촉 실태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주 1회 미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28.2	23.4	20.6	12.1	15.7	100.0 (1,066) ¹⁾
지역						
동부	28.1	22.7	18.5	11.9	18.9	100.0 (800)
읍·면부	28.6	25.3	26.9	13.0	6.3	100.0 (26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9.8	24.2	20.0	11.9	14.1	100.0 (746)
1960~1963년생	24.7	21.3	21.9	12.6	19.4	100.0 (321)
성						
남자	19.0	21.6	23.1	12.1	24.3	100.0 (414)
여자	34.1	24.5	19.0	12.2	10.3	100.0 (65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9.9	24.6	19.5	11.7	14.3	100.0 (176)
중학교	33.4	25.3	17.3	10.3	13.7	100.0 (318)
고등학교	25.9	22.9	21.0	13.5	16.7	100.0 (431)
전문대학 이상	21.6	18.7	28.0	12.8	19.0	100.0 (141)
가구유형						
1인 가구	11.7	19.4	13.1	12.4	43.5	100.0 (96)
부부가족	35.3	28.5	18.4	8.8	9.1	100.0 (241)
부/모+미혼자녀	28.4	22.9	21.8	11.6	15.3	100.0 (605)
확대가족	27.1	19.2	24.7	21.0	8.0	100.0 (122)
기타가족	0.0	0.0	0.0	28.6	71.5	100.0 (2)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2	23.7	21.1	12.6	17.5	100.0 (789)
미취업	36.9	22.4	19.1	10.9	10.7	100.0 (27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7.6	23.0	18.4	13.8	17.2	100.0 (469)
300~500만원미만	30.2	25.5	21.2	9.0	14.1	100.0 (376)
500만 원 이상	26.3	20.5	24.1	13.9	15.3	100.0 (222)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1,06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18〉 자주 접촉하는 별거자녀의 특성

(단위: %, 명)

구분	장남	기타 아들	장녀	기타 딸	계	(명)
전체	42.6	6.6	44.1	6.8	100.0	(1,043)

주: 별거자녀가 있는 1,066명중 무응답 23명을 제외함.

2.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지난 1년간 비동거 자녀와 어떠한 도움을 주고받았는가를 살펴보면 약 절반 정도가 집안일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했고 또한 52.8%가 그러한 도움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고 있어 가사와 관련된 도움을 빈번히 주고받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경우에 비하여 집안일 도움을 주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고 받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즉 베이비 부머는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모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경우는 받기보다는 주는 편이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비슷하게 주고받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손자녀 돌보기의 경우 베이비 부머의 약 3/4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주4회 이상 제공한다는 응답도 10.8%에 이른다. 이는 베이비 부머중 현재 손자녀가 있는 비율이 낮지만, 손자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조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들에게 있어 조부모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베이비 부머의 자녀세대의 시각에서 보면, 자녀 양육에 있어 부모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31.4%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 6.7%는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약 60%는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생활물품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2.2%이다. 즉 베이비 부머는 비동거 자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거나 비정기적인 용돈을 받는 수준의 경미한 수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9〉 베이비 부머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집안일 도움 제공 ¹⁾		손자녀 돌보기 도움 제공 ²⁾	
주 4회 이상	1.8	주 4회 이상	10.8
주 2~3회	3.5	주 2~3회	8.4
주 1회	7.0	주 1회	11.2
2주에 1회	6.9	2주에 1회	7.5
월 1회	15.6	월 1회	16.7
3개월에 1회	10.2	3개월에 1회	12.3
6개월에 1회	8.4	6개월에 1회	6.5
연 1회 이하	4.4	연 1회 이하	3.0
미제공	42.3	미제공	23.5
집안일 도움 수여 ¹⁾		경제적 도움 수혜 내용 ¹⁾	
주 4회 이상	1.4	전혀 도움 받지 않음	31.4
주 2~3회	3.0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6.7
주 1회	5.5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59.6
2주에 1회	5.6	주택 등 부동산 구매 시 지원	-
월 1회	17.0	생활물품 구매 지원	2.2
3개월에 1회	12.1		
6개월에 1회	5.4		
연 1회 이하	2.9		
미수혜	47.2		
계	100.0	계	100.0
(명)	(1,066)	(명)	(1,066)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1,06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항목별 무응답 제외

2) 별거 손자녀가 있는 345명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함.

이러한 도구적 교환실태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어촌에서 집안일 도움을 주는 비율과 받는다는 응답률이 높다. 그러나 동부의 경우 받는다든 응답보다는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어촌에서는 동비율이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자녀 돌보기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좀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집안일 도움을 주는 비율과 받는다든 경우가 비슷하지만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준다는 비율이 받는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손자녀 돌보기 도움을 더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삶의

단계에 따라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단계에서 서서히 주고받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도구적 지원에 있어 성별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73.8%가 자녀에게 집안일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자의 경우는 32.4%에 불과하다. 반면 집안일 도움 수혜율과 손자녀 돌보기 도움의 제공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이보다는 적다. 이는 손자녀 돌보기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지만 아직 도 집안일에 있어서는 성별 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집안일 도움을 더 주고받고 있지만 손자녀 돌보기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특히 딸이 맞벌이 일 가능성이 높아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기 때문은 아닐까 추측케 한다.

취업상태별로 비교해보면 미취업자의 경우가 취업자에 비하여 집안일 도움이나 손자녀 돌보기 도움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이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구소득별 집안일의 도움 제공과 수혜와의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으나 손자녀 돌보기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양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받는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집안을 도움을 제공하는 자녀로는 기혼 장녀가 가장 많고 다음이 미혼 장남이다. 또한 집안일 도움을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자녀로는 기혼자녀가 월등히 높다. 다음은 미혼 장녀와 기혼 장남, 미혼 장남의 순이다. 또한 손자녀 돌보기 도움의 경우도 기혼 장녀에게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63.0%에 이르며 그 다음은 기혼 장남으로 24.8%를 차지한다. 즉 베이비 부머는 결혼한 딸과 가장 자주 도구적 도움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녀와의 도구적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집안일 도움 ¹⁾		손자녀 돌보기 제공률 ²⁾
	제공률	수혜율	
전체	57.7	52.8	76.5
지역			
동부	56.3	49.6	82.8
읍·면부	62.1	62.2	60.9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7.6	57.5	77.0
1960~1963년생	57.9	41.8	73.0
성			
남자	32.4	46.7	69.6
여자	73.8	56.6	79.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8.5	65.3	75.5
중학교	62.6	64.9	78.7
고등학교	53.9	47.5	73.8
전문대학 이상	44.8	26.1	76.9
가구형태			
1인 가구	22.1	31.6	54.9
부부가족	64.6	63.8	80.8
부/모+미혼자녀	60.6	51.0	80.6
확대가족	58.9	56.2	63.8
기타가족 ³⁾	0.0	55.3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3	50.3	73.4
미취업	70.2	59.9	84.4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7.1	53.5	76.3
300~500만 원 미만	61.7	55.6	77.2
500만 원 이상	52.4	46.3	74.5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1,06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항목별 무응답 제외

2) 별거 손자녀가 있는 345명중 무응답 5명을 제외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21〉 베이비 부머의 지난 1년간의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부양 수혜 실태

(단위: %, 명)

특성	받지 않음	정기적인 용돈·생활 비 지원	비정기적인 용돈·생활 비 지원	생활물품 구매 지원	계	(명)
전체	31.4	6.7	59.6	2.2	100.0	(1,066) ¹⁾
지역						
동부	34.3	7.1	56.0	2.7	100.0	(800)
읍·면부	22.8	5.7	70.6	0.9	100.0	(26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3.1	8.2	66.1	2.5	100.0	(745)
1960~1963년생	50.7	3.2	44.6	1.5	100.0	(321)
성						
남자	42.4	5.7	49.1	2.9	100.0	(414)
여자	24.4	7.4	66.4	1.8	100.0	(65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5.8	8.3	75.6	0.3	100.0	(176)
중학교	20.8	8.9	69.0	1.3	100.0	(317)
고등학교	36.7	5.9	53.8	3.5	100.0	(431)
전문대학 이상	58.2	2.3	36.6	2.8	100.0	(141)
가구형태						
1인 가구	56.3	6.7	32.7	4.3	100.0	(96)
부부가족	16.6	10.8	70.8	1.9	100.0	(240)
부/모+미혼자녀	34.0	5.3	59.0	1.7	100.0	(605)
확대가족	29.0	5.8	62.3	3.9	100.0	(122)
기타가족	44.8	0.0	55.3	0.0	100.0	(2)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5	3.9	59.5	2.1	100.0	(788)
미취업	22.5	14.7	60.1	2.7	100.0	(27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6.1	9.7	61.7	2.6	100.0	(469)
300~500만원 미만	32.1	3.6	62.9	1.5	100.0	(375)
500만 원 이상	41.5	5.9	49.9	2.8	100.0	(222)

주: 1) 별거자녀가 있는 1,06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한편 경제적 부양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률이 높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비정기적인 용돈,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가 수혜율이 훨씬 높고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비율이 낮다. 특히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는다는 비율이 높아 14.7%에 달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기혼 장남과 기혼 장녀가 가장 많아 각각 29.2%와 28.7%를 차지한다. 비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기혼 장녀가 가장 많아 31.9%에 이른다. 이는 아들보다는 딸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2〉 부양 내용별 주 제공자·수혜자의 비율

(단위: %, 명)

구분	집안일 도움 제공	집안일 도움 수혜	손자녀 돌보기 제공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경제적 도움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생활용품 구매지원
기혼 장남	13.9	16.8	24.8	29.2	17.8	3.2
미혼 장남	27.9	13.8	-	19.1	19.1	21.8
기타 기혼 아들	1.5	2.1	2.7	4.0	1.4	0.0
기타 미혼 아들	4.1	1.7	-	9.3	3.3	4.1
기혼 장녀	31.4	37.2	63.0	28.7	31.9	14.4
미혼 장녀	14.8	18.7	-	4.3	18.3	38.1
기타 기혼 딸	4.8	7.2	9.6	5.3	5.9	0.0
기타 미혼 딸	1.7	2.5	-	0.0	2.3	1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¹⁾	(615)	(560)	(218)	(70)	(635)	(24)

주: 1) 항목별 도움을 주거나 받은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는 가족주기상 경제적 도움보다는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이 많은 상태이다. 따라서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자녀가 있는 베이비 부머의 약 절반이 성인자녀에 대하여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2명 이상에게 제공한다는 경우도 14.3%에 달하고 있다. 도움의 내용을 보면 정기적인 용돈·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64.7%,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이 34.5%, 현물지원이 0.6%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비하여 경제적 지원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보다는 도시지역의 베이비 부머의 경우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고 2명 이상에게 제공한다는 응답도 15.4%로 농어촌지역의 9.3%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출생년도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제공률이 약간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도움 제공률이 높고 2명 이상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도 높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도움 제공률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베이비 부머일수록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미혼자녀와 생활하거나 확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 경제적 도움 제공률이 높다. 반면 1인가구나 부부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낮은데 이들 가구는 이미 자녀의 교육과 결혼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들이 딸보다 많아 63.8%이며, 73.7%가 24세 미만으로 대부분이 학업중임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이 미혼이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미취업 상태이다. 그러나 취업중임에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11.1%라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는 자녀의 65.9%는 동거가구원이며, 21.3%는 비동거 가구원, 12.7%는 비가구원이다. 이는 경제적 도움을 받는 자녀가 학생으로, 학업을 위하여 타지에서 생활하거나 주중에는 학업을 위해 가족을 떠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2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경제적 도움 제공하는 성인자녀수

(단위: %, 명)

특성	없음	1명	2명 이상	계	(명)
전체	49.2	36.3	14.5	100.0	(2,867) ¹⁾
지역					
동부	48.1	36.5	15.4	100.0	(2,388)
읍·면부	54.4	35.8	9.8	100.0	(479)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7.5	37.5	15.0	100.0	(1,554)
1960~1963년생	51.2	35.0	13.8	100.0	(1,313)
성					
남자	50.4	36.8	12.8	100.0	(1,327)
여자	48.1	36.0	15.9	100.0	(1,54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1.8	31.3	6.9	100.0	(284)
중학교	51.0	36.8	12.3	100.0	(594)
고등학교	47.4	36.9	15.7	100.0	(1,257)
전문대학 이상	45.8	37.0	17.2	100.0	(732)
가구형태					
1인 가구	83.6	15.2	1.2	100.0	(96)
부부가족	79.6	18.7	1.8	100.0	(243)
부/모+미혼자녀	44.5	39.3	16.2	100.0	(2,217)
확대가족	47.9	36.0	16.1	100.0	(308)
기타가족	82.7	0.0	17.3	100.0	(3)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49.6	36.5	13.9	100.0	(2,201)
미취업	48.1	35.7	16.3	100.0	(69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2.8	29.6	7.6	100.0	(829)
300~500만원 미만	45.8	37.9	16.3	100.0	(1,039)
500만 원 이상	41.3	40.4	18.2	100.0	(998)

주: 1) 자녀가 있는 응답자 2,873명중 무응답 7명을 제외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4-24〉 베이비 부머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성인자녀의 특성 및 지원내용

		(단위: %, 명)	
특성	비율	특성	비율
성		동거 여부	
남자	63.8	동거 가구원	65.9
여자	36.2	비동거 가구원	21.3
연령		비가구원	12.7
20~24세	73.7	형제·자매순위	
25~29세	24.6	장남	49.4
30세 이상	1.6	그 외 아들	13.9
결혼상태		장녀	27.7
미혼	98.8	그 외 딸	8.8
그 외	1.2	경제적 지원 내용	
교육수준		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64.7
전문대 미만	6.0	비정기적인 용돈·생활비 지원	34.5
전문대학 이상	94.0	현물지원	0.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1		
미취업	88.9		
계	100.0	계	100.0
(명)	(1,878)	(명)	(1,878)

주: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성인자녀 모두의 특성임.

성인자녀에 대하여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베이비 부머의 28.5%만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고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46.5%에 달하고 있어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이 이들 집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부양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15% 내외인 것에 비교할 때 이러한 부담의 정도는 매우 높은 것이다.

성인자녀에 대하여 경제적 도움제공이 주는 부담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지역거주자가,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후기 베이비 부머가,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낮아지고 있다. 한편, 확대가족의 경우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2.3%로 매우 높은데, 이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성인자녀에 대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압박감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4-25〉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가 느끼는 부담감 정도

(단위: %, 명)

특성	부담스럽다	보통이다	부담스럽지 않다	계 (명)
전체	46.5	25.0	28.5	100.0 (1,458) ¹⁾
지역				
동부	45.4	25.9	28.7	100.0 (1,240)
읍·면부	53.0	19.8	27.2	100.0 (218)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4.8	26.4	28.8	100.0 (816)
1960~1963년생	48.7	23.2	28.1	100.0 (642)
성				
남자	44.5	25.4	30.1	100.0 (660)
여자	48.2	24.6	27.2	100.0 (799)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3.8	20.7	25.5	100.0 (109)
중학교	51.6	28.0	20.4	100.0 (291)
고등학교	48.9	21.4	29.7	100.0 (662)
전문대학 이상	37.0	29.8	33.2	100.0 (397)
가구형태				
1인 가구	33.5	38.2	28.3	100.0 (16)
부부가족	24.8	35.2	40.0	100.0 (50)
부/모+미혼자녀	45.6	25.3	29.1	(1,232)
확대가족	62.3	17.7	20.1	100.0 (161)
기타가족	0.0	100.0	0.0	100.0 (1)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47.7	23.6	28.8	100.0 (1,096)
미취업	43.0	29.3	27.7	100.0 (362)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6.0	24.8	19.3	100.0 (309)
300~500만 원 미만	49.8	24.0	26.2	100.0 (563)
500만 원 이상	38.5	26.0	35.5	100.0 (586)

주: 1)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응답자 1,45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앞서 살펴본 도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또한 자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베이비 부머의 3.0%만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체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21.5%, 만족한다고 62.3%로 80%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제특성별 자녀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도시거주자보다는 농어촌거주자의 경우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전기 보다는 후기 베이비 부머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이 보인다.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은 경우 만족도가 높으며, 동거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베이비 부머가 친밀감을 느끼는 자녀를 살펴보면 장남이나 장녀인데 이는 이들의 자녀수가 1.9명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친밀감을 느끼는 자녀가 없다는 응답이 0.6%, 모두 동일하다는 응답도 10.3%이다. 이러한 응답에 있어 제특성별 차이는 크지 않다.

〈표 4-26〉 베이비 부머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계	(명)
전체	21.5	62.3	13.1	3.0	100.0	(2,873) ¹⁾
지역						
동부	21.3	61.6	14.0	3.1	100.0	(2,392)
읍·면부	23.0	65.9	8.7	2.4	100.0	(482)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8.7	62.1	15.4	3.8	100.0	(1,554)
1960~1963년생	24.9	62.6	10.4	2.1	100.0	(1,319)
성						
남자	19.9	62.6	13.7	3.8	100.0	(1,333)
여자	22.9	62.1	12.6	2.3	100.0	(1,54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7.1	60.6	15.3	6.9	100.0	(284)
중학교	16.4	63.8	15.9	3.9	100.0	(593)
고등학교	22.8	63.4	12.0	1.8	100.0	(1,261)
전문대학 이상	25.2	60.0	12.0	2.8	100.0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1.2	62.8	12.7	3.3	100.0	(2,176)
미취업	22.5	60.8	14.6	2.2	100.0	(69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7.6	60.0	16.5	5.9	100.0	(828)
300~500만 원 미만	21.2	66.1	10.9	1.8	100.0	(1,042)
500만 원 이상	25.1	60.3	12.7	1.9	100.0	(1,001)
동거자녀						
유	21.2	62.8	12.7	3.3	100.0	(2,176)
무	22.5	60.8	14.6	2.2	100.0	(697)
비동거자녀와의 접촉 정도						
주 4회 이상	28.9	60.8	8.4	1.8	100.0	(301)
주 2~3회	23.3	59.6	15.8	1.3	100.0	(249)
주 1회	19.5	65.7	12.1	2.7	100.0	(219)
주 1회 미만~월 1회	11.8	64.8	19.2	4.2	100.0	(129)
월 1회 미만	13.3	52.0	15.3	19.4	100.0	(165)

주: 1) 자녀가 있는 응답자 2,873명을 분석대상으로함.

제5절 사회관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친족이라는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로 대표되는 이차적 비공식적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수를 조사하였다. 베이비 부머의 7.6%는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반면 6명 이상이라는 응답도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명이라는 응답이 10.9%, 2명이라는 응답은 30.7%, 3명은 25.1%, 4-5명은 19.8%로 평균적으로 2.6명의 친한 친구를 갖고 있다.

이들 베이비 부머의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친한 친구가 없거나 1명이라는 응답이 많고,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친한 친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유자에 비하여 무배우자가 친한 친구가 적은 비율이 높아 이들이 사회적 고립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친한 친구가 적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면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친한 친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많다고 해서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친밀한 친구와의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60% 이상이 주1회 이상 접촉하고 있으며 주 4회 이상 접촉을 하는 경우도 17.5%에 달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특성별로 이러한 접촉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취업자에 비하여 비취업자가 좀 더 자주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더 관계 지향적이며, 취업자는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친구와 접촉할 기회가 제약된다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차이일 것이다.

베이비 부머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수와 더불어 자주 접촉하는 지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다. 자주 접촉하는 지인으로는 31.5%가 지역주민을, 28.1%가 직장동료, 25.9%가 동창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종교관련 교류라는 응답도 9.7%이다.

〈표 4-2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 수

(단위: %, 명)

특성	없음	1명	2명	3명	4~5명	6명 이상	(평균)	계	(명)
전체	7.6	10.9	30.7	25.1	19.8	6.0	2.6	100.0	(3,027)
지역									
동부	7.1	10.3	31.1	25.5	20.3	5.8	2.6	100.0	(2,491)
읍·면부	10.2	13.7	28.8	23.1	17.5	6.7	2.5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5	12.1	30.7	23.1	19.4	6.3	2.6	100.0	(1,633)
1960~1963년생	6.7	9.5	30.8	27.3	20.2	5.6	2.7	100.0	(1,395)
성									
남자	8.1	10.1	26.9	26.2	22.3	6.5	2.7	100.0	(1,433)
여자	7.3	11.6	34.1	24.1	17.5	5.5	2.6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7.4	15.2	34.0	15.2	12.5	5.8	2.1	100.0	(319)
중학교	11.5	12.4	27.6	25.7	16.9	5.9	2.5	100.0	(627)
고등학교	5.3	11.5	33.5	22.9	20.9	5.9	2.7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4.4	6.7	27.0	32.6	23.3	6.1	2.9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7.0	9.9	30.8	25.4	20.7	6.2	2.7	100.0	(2,592)
무배우	11.2	16.7	30.3	23.0	14.0	4.7	2.3	100.0	(4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6	20.7	23.3	18.2	16.7	5.5	2.6	100.0	(2,299)
미취업	9.8	17.4	30.5	20.2	17.5	4.6	2.0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6	9.8	30.5	26.8	20.2	6.3	2.3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8.5	7.9	36.4	21.5	20.4	5.4	2.7	100.0	(1,050)
500만 원 이상	30.0	16.0	25.6	0.0	28.5	0.0	2.9	100.0	(1,007)

〈표 4-2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구와의 접촉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3개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17.5	24.9	19.6	12.6	19.1	6.3	100.0	(2,796) ¹⁾
지역								
동부	17.9	25.0	18.9	13.0	19.8	5.4	100.0	(2,315)
읍·면부	15.3	24.5	23.2	10.5	16.2	10.4	100.0	(482)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6.7	26.6	19.3	13.0	19.0	5.5	100.0	(1,495)
1960~1963년생	18.4	23.0	20.0	12.1	19.3	7.2	100.0	(1,302)
성								
남자	13.8	20.0	19.5	13.5	24.9	8.3	100.0	(1,318)
여자	20.7	29.2	19.8	11.8	14.0	4.5	100.0	(1,479)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5.8	31.7	18.0	14.8	18.3	1.5	100.0	(264)
중학교	19.3	28.0	19.9	12.3	14.6	6.0	100.0	(555)
고등학교	19.8	25.1	18.1	11.8	18.0	7.3	100.0	(1,260)
전문대학 이상	12.7	19.7	22.8	13.4	24.9	6.5	100.0	(717)
결혼상태								
유배우	17.1	25.0	19.8	12.5	19.3	6.1	100.0	(2,410)
무배우	19.8	24.0	18.3	12.9	17.9	7.2	100.0	(38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9	23.1	19.6	12.5	21.2	6.6	100.0	(2,121)
미취업	19.3	30.4	19.7	12.7	12.7	5.3	100.0	(676)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7.9	25.1	17.4	12.7	18.1	8.9	100.0	(848)
300~500만 원 미만	17.4	24.2	20.5	11.8	20.3	5.8	100.0	(981)
500만 원 이상	17.3	25.5	20.7	13.2	18.9	4.5	100.0	(965)
친구 수								
1명	19.7	21.2	17.7	9.8	21.4	10.3	100.0	(329)
2명	14.3	26.0	19.7	13.8	19.5	6.7	100.0	(929)
3명	14.3	26.0	20.6	13.4	19.4	6.4	100.0	(758)
4-5명	21.6	24.4	19.6	11.6	18.1	4.8	100.0	(599)
6명 이상	29.7	23.1	19.1	11.5	15.3	1.4	100.0	(180)

주: 1) 친밀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2,7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2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주 접촉하는 지인

(단위: %, 명)

특성	동창	직장동료	종교관련 교우	지역주민	기타 ¹⁾	계 (명)
전체	25.7	27.9	9.6	31.2	5.6	100.0 (3,027)
지역						
동부	26.6	28.9	10.3	28.1	6.2	100.0 (2,491)
읍·면부	21.9	22.9	6.7	45.7	2.8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6.3	22.7	10.5	35.0	5.6	100.0 (1,633)
1960~1963년생	25.0	34.0	8.7	26.8	5.5	100.0 (1,394)
성						
남자	32.6	39.8	4.6	18.0	5.1	100.0 (1,433)
여자	19.6	17.2	14.2	43.1	6.0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6.0	21.5	7.7	51.1	3.7	100.0 (319)
중학교	19.8	22.1	5.8	48.4	3.9	100.0 (627)
고등학교	26.8	28.6	10.3	29.3	5.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32.9	34.2	12.5	11.7	8.7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25.8	26.9	10.1	31.3	6.0	100.0 (2,593)
무배우	25.4	33.9	6.9	30.9	3.0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22.2	31.6	7.5	36.7	2.0	100.0 (165)
부부가족	20.3	23.4	12.0	40.8	3.5	100.0 (285)
부/모+미혼자녀	26.3	28.5	9.7	29.3	6.2	100.0 (2,243)
확대가족	28.2	25.8	8.3	33.2	4.5	100.0 (330)
기타가족	41.8	28.5	0.0	29.7	0.0	100.0 (4)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26.5	35.9	7.1	25.7	4.8	100.0 (2,299)
미취업	23.3	2.5	17.8	48.6	7.9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5.8	26.1	8.8	36.4	2.9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23.7	28.2	9.9	32.9	5.3	100.0 (1,050)
500만 원 이상	27.7	29.3	10.2	24.5	8.3	100.0 (1,007)

주: 1) 자녀관련 학부형(1.6%), 동호회관련 지인(3.2%)을 포함한 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주 접촉하는 지인을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적 차이가 크다. 도시 지역의 경우 직장 동료라는 응답이 29.2%로 가장 높고 지역주민이 28.3%, 동창이 26.8%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45.8%로 압도적으로 많고 직장동료가 23.0%, 동창이 21.9%이다.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면 전기 베이비 부모의 경우 지역주민이라는 응답이 35.2%로 후기 베이비 부모의 27.0%에 비하여 높다. 반면 직장동료라는 응답은 후기 베이비 부모가 34.2%로 전기 베이비 부모의 22.9%에 비하여 높다. 이는 후기 베이비 부모가 좀 더 직장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별로 남자는 직장동료, 여자는 지역주민 중심의 접촉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주 접촉하는 지인이 동창이라는 응답이 높아지고 지역주민이라는 응답은 낮아지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창의 종류와 규모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베이비 부모가 노후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절대다수인 78.4%가 배우자로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이 자녀 10.4%, 친구 7.2%, 형제·자매가 3.7%의 순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5.8%는 배우자라고 응답하고 있어 재혼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친구, 형제·자매의 중요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특성별 큰 차이 없이 배우자라는 응답이 많은 편인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와 소득수준의 낮은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녀라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와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베이비 부모의 다수가 자녀를 노후 삶의 질을 담보해줄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지 않으며 배우자를 중요한 노후생활의 동반자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는 안전한 노후생활을 담보해줄 수 있는 존재를 자녀로 보고 있는 전통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다.

〈표 4-30〉 베이비 부머가 노후생활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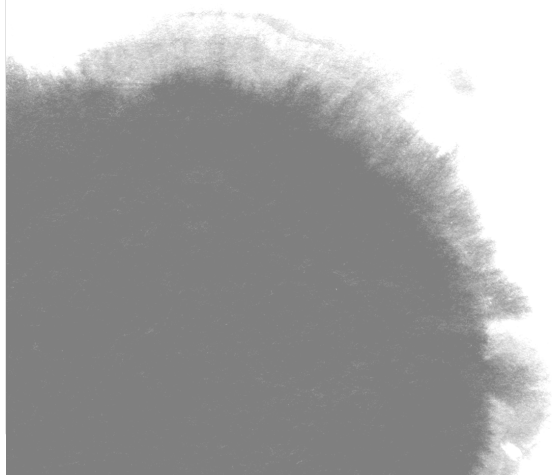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구	기타	계 (명)
전체	78.4	10.4	3.7	7.2	0.3	100.0 (3,027)
지역						
동부	78.1	10.8	3.4	7.5	0.3	100.0 (2,491)
읍·면부	80.0	8.8	5.3	5.6	0.2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78.9	10.4	3.1	7.3	0.3	100.0 (1,633)
1960~1963년생	77.9	10.5	4.4	7.1	0.2	100.0 (1,394)
성						
남자	82.8	6.4	4.3	6.4	0.1	100.0 (1,433)
여자	74.5	14.1	3.1	7.9	0.4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0.4	15.0	7.9	6.7	0.0	100.0 (319)
중학교	72.8	14.6	3.3	8.9	0.3	100.0 (627)
고등학교	78.8	10.5	3.5	6.8	0.4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85.8	4.9	2.6	6.7	0.0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90.6	3.5	1.0	4.7	0.2	100.0 (2,593)
무배우	5.8	51.7	19.8	22.1	0.6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11.6	26.2	33.7	28.1	0.4	100.0 (165)
부부가족	93.0	3.2	0.7	3.1	0.0	100.0 (285)
부/모+미혼자녀	81.1	10.2	2.2	6.4	0.1	100.0 (2,243)
확대가족	81.7	10.1	1.3	5.4	1.6	100.0 (330)
기타가족	32.2	31.3	27.1	9.4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78.4	10.4	3.7	7.4	0.1	100.0 (2,299)
미취업	78.5	10.7	3.6	6.7	0.6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1.1	19.5	9.0	10.0	0.4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84.1	8.6	1.0	5.9	0.3	100.0 (1,050)
500만 원 이상	89.2	3.6	1.4	5.8	0.0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05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제5장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본장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의식수준을 조사하였다. 즉, 흡연, 음주, 운동 및 식습관에 대한 행태를 분석·정리하였고, 건강검진행위 및 만성질환의 이환정도를 분석·정리하였다.

제1 절 건강실천행위

베이비 부머의 건강실천행위 중에서 흡연습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59.5%이고,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에는 피우지 않는 경우가 16.7%, 그리고 현재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는 23.8%로 나타나고 있다. 약 1/4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에도 흡연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약 절반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에도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의 흡연비율을 비롯한 흡연습관에 동부와 읍면부의 거주자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금연을 단행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전문대학이상의 경우, 현재의 흡연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을 통하여 업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볼 때, 고학력의 베이비 부머의 정신적 건강수준이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취업중인 베이비 부머가 흡연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볼 때, 직장에서의 건강실천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유배우자의 경우가 무배우자에 비해서 금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에서 흡연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흡연비율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흡연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베이비 부머 사이에서도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및 가구소득수준별로 흡연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학력 및 취업중인 세대에서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직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5-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흡연습관

(단위: %, 명)

특성	피운 적 없음	과거 피웠으나 현재 안 피움	현재도 피움	계 (명)
전체	59.5	16.7	23.8	100.0 (3,027)
지역				
동부	59.9	17.3	22.8	100.0 (2,491)
읍·면부	57.5	14.2	28.3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8.5	18.2	23.3	100.0 (1,633)
1960~1963년생	60.6	14.9	24.4	100.0 (1,395)
성				
남자	20.7	32.9	46.4	100.0 (1,433)
여자	94.3	2.2	3.5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3.3	10.3	26.3	100.0 (319)
중학교	64.0	12.3	23.8	100.0 (627)
고등학교	62.5	16.2	21.2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48.7	23.9	27.4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60.4	17.2	22.4	100.0 (2,593)
무배우	53.7	13.6	32.7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41.3	17.4	41.3	100.0 (167)
부부가족	66.0	8.8	25.3	100.0 (285)
부/모+미혼자녀	60.9	17.2	21.9	100.0 (2,243)
확대가족	54.1	19.5	26.4	100.0 (329)
기타가족	0.0	50.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9	20.1	29.0	100.0 (2,299)
미취업	86.7	5.9	7.4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6.4	13.9	29.6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60.9	17.4	21.7	100.0 (1,050)
500만 원 이상	61.0	18.7	20.3	100.0 (1,008)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27.8%가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에는 마시지 않는 경우가 9.4%, 그리고 현재에도 술을 마시고 있는 경우는 62.8%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약 63%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재에도 음주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흡연습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담배는 끊을지라도 술은 조금이라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약 3/4에 해당하는 자가 현재에도 음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의 음주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거주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음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전문대학이상의 경우, 약 2/3가 현재에도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흡연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역시 베이비 부머가 취업 등 생활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건강실천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유배우자나 무배우자나 큰 차이가 없지만, 혼자 사는 1인가구나 부부가구보다도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나 확대가족의 경우가 현재의 음주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흡연비율의 변화를 보면, 역시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서 현재의 음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베이비 부머 사이에서도 교육수준, 가구형태 및 가구소득수준별로 음주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고학력 및 취업중인 베이비 부머에게서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 세대들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과 아울러 생각해 볼 때, 직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5-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음주습관

(단위: %, 명)

특성	마신 적 없음	과거 마셨으나 현재 안 마심	현재도 마심	계 (명)
전체	27.8	9.4	62.8	100.0 (3,027)
지역				
동부	27.1	9.2	63.7	100.0 (2,491)
읍·면부	31.1	10.8	58.1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0.0	10.8	59.2	100.0 (1,633)
1960~1963년생	25.2	7.9	67.0	100.0 (1,395)
성				
남자	11.2	12.0	76.8	100.0 (1,433)
여자	42.7	7.2	50.2	100.0 (1,5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2	10.3	56.4	100.0 (319)
중학교	31.4	9.3	59.3	100.0 (627)
고등학교	27.4	9.2	63.3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23.0	9.6	67.4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27.8	9.1	63.1	100.0 (2,592)
무배우	27.8	11.3	60.9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25.3	15.1	59.6	100.0 (166)
부부가족	33.7	10.9	55.4	100.0 (285)
부/모+미혼자녀	27.3	9.1	63.7	100.0 (2,243)
확대가족	27.6	8.5	63.9	100.0 (330)
기타가족		25.0	7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7	9.0	67.3	100.0 (2,299)
미취업	40.7	11.0	48.4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9.6	11.2	59.1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26.5	9.6	63.9	100.0 (1,050)
500만 원 이상	27.4	7.6	64.9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68.5%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운동실천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읍면부지역 거주자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고, 남녀 간의 격차는 의외로 작은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 베이비 부머인 경우에는 자녀의 등교 후, 또는 하교 후에도 저녁시간대를 이용하여 자발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보다도 운동실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운동실천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고학력자인 경우에는 저학력의 초졸 이하에 비해서 약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71.9%로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인이 된 자녀와 같이 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취업상태별로 보면, 미취업자의 경우가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가정한다면, 운동비율(77.6%)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중인 자의 운동비율(65.6%)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베이비 부머의 경우 비록 음주율(62.8%)은 높으나, 현재 흡연율(23.8%)은 낮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유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음주가 흡연에 비해 건강수준을 해치는데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음주습관은 내부장기나 인지기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음주행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표 5-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운동실태

특성	(단위: %, 명)		
	운동함	운동하지 않음	계 (명)
전체	68.5	31.5	100.0 (3,027)
지역			
동부	70.3	29.7	100.0 (2,490)
읍·면부	60.0	40.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67.5	32.5	100.0 (1,633)
1960~1963년생	69.6	30.4	100.0 (1,394)
성			
남자	67.9	32.1	100.0 (1,433)
여자	69.0	31.0	100.0 (1,5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3.0	47.0	100.0 (319)
중학교	60.0	40.0	100.0 (627)
고등학교	69.0	31.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81.3	18.7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70.5	29.5	100.0 (2,593)
무배우	56.3	43.7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56.6	43.4	100.0 (166)
부부가족	58.2	41.8	100.0 (285)
부/모+미혼자녀	71.9	28.1	100.0 (2,243)
확대가족	60.0	40.0	100.0 (330)
기타가족	25.0	7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65.6	34.4	100.0 (2,300)
미취업	77.6	22.4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6.2	43.8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69.0	31.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79.7	20.3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구체적인 운동실태를 주당 운동 횟수와 운동시설의 유형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운동 횟수와 관련하여 보면, 1주일에 1일이 14.4%, 2~3일이 45%, 4~5일이 28.5%, 6~7일이 12.1%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 2, 3일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거의 매일 운동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12%나 차지하고 있어 운동을 실천하는 베이비 부머라면 최소한 1주일에 2, 3일 이상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유형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운동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이 6.3%, 학교체육시설이 3.4%, 민간·상업스포츠 시설이 17.3%, 민간 비영리/복지시설이 1.8%, 집주변이 67.9%, 집안이 2.9%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주변에서의 운동형태가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거주지 인근이 운동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익숙한 거주환경 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사고가 적을 것이라는 기대의식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간·상업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19.3%),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이 있는 경우(33.0%),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인 경우(31.5%)가 각각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베이비 부머의 경우, 운동시설의 유형으로 일단 집주변의 운동시설환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민간·상업스포츠 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민간·상업스포츠 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은 실내에서의 운동 및 일정공간에서의 운동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기간, 또는 특정시간 내에서의 집중적인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감량이나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고강도의 운동과 같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당 운동 횟수

(단위: %, 명)					
특성	1일	2~3일	4~5일	6~7일	계 (명)
전체	14.4	45.0	28.5	12.1	100.0 (2,073) ¹⁾
지역					
동부	14.3	45.4	28.4	11.9	100.0 (1,751)
읍·면부	14.6	43.0	29.3	13.1	100.0 (321)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3.9	45.2	29.3	11.6	100.0 (1,102)
1960~1963년생	14.9	44.9	27.6	12.6	100.0 (971)
성					
남자	18.4	46.2	22.3	13.1	100.0 (974)
여자	10.8	43.9	34.1	11.1	100.0 (1,099)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9.5	44.0	34.5	11.9	100.0 (168)
중학교	14.6	49.7	23.1	12.5	100.0 (376)
고등학교	15.1	42.0	29.7	13.1	100.0 (918)
전문대학 이상	14.4	46.9	28.4	10.3	100.0 (610)
결혼상태					
유배우	13.9	44.3	29.5	12.2	100.0 (1,829)
무배우	17.6	50.6	21.2	10.6	100.0 (245)
가구유형					
1인 가구	17.9	50.5	18.9	12.6	100.0 (94)
부부가족	9.0	48.5	29.3	13.2	100.0 (167)
부/모+미혼자녀	15.0	43.4	29.3	12.3	100.0 (1,613)
확대가족	12.1	52.5	26.3	9.1	100.0 (198)
기타가족	0.0	50.0	50.0	0.0	100.0 (2)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9	47.0	24.8	11.4	100.0 (1,507)
미취업	7.8	39.9	38.5	13.8	100.0 (566)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5.3	47.4	24.8	12.5	100.0 (544)
300~500만 원 미만	13.5	45.7	29.7	11.2	100.0 (725)
500만 원 이상	14.5	42.9	30.2	12.5	100.0 (802)

주: 1) 운동한다고 응답한 2,07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5-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운동시설의 유형

(단위: %, 명)

특성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민간·상업스포츠시설	민간비영리/복지시설	집주변	집안	기타	계 (명)
전체	6.3	3.4	17.3	1.8	67.9	2.9	0.5	100.0 (2,073) ¹⁾
지역								
동부	6.7	3.5	19.3	1.1	66.1	2.6	0.6	100.0 (1,751)
읍·면부	4.0	2.5	5.9	5.3	77.6	4.7	0.0	100.0 (321)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4	3.2	15.0	2.4	70.2	3.3	0.5	100.0 (1,103)
1960~1963년생	7.2	3.6	19.8	1.0	65.4	2.5	0.5	100.0 (970)
성								
남자	7.8	4.3	20.4	1.8	62.2	2.7	0.8	100.0 (975)
여자	4.9	2.5	14.5	1.7	72.9	3.2	0.3	100.0 (1,1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4	1.8	2.9	6.5	80.6	5.9	0.0	100.0 (170)
중학교	4.0	2.7	4.8	1.6	84.0	2.4	0.5	100.0 (375)
고등학교	6.9	4.2	14.5	1.5	69.2	3.0	0.7	100.0 (919)
전문대학 이상	7.9	3.0	33.0	0.8	52.5	2.3	0.5	100.0 (609)
결혼상태								
유배우	6.6	3.5	18.9	2.0	65.5	3.1	0.4	100.0 (1,828)
무배우	3.7	2.4	4.9	0.4	85.3	1.6	1.6	100.0 (245)
가구유형								
1인 가구	5.3	0.0	7.4	0.0	86.2	1.1	0.0	100.0 (94)
부부가족	7.2	1.8	12.6	1.8	70.7	6.0	0.0	100.0 (167)
부/모+미혼자녀	6.2	3.9	18.2	1.5	66.6	3.0	0.5	100.0 (1,613)
확대가족	7.1	2.0	18.2	4.0	66.2	1.0	1.5	100.0 (198)
기타가족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6.6	3.9	16.9	1.8	66.7	3.4	0.7	100.0 (1,509)
미취업	5.5	1.9	18.2	1.8	71.0	1.6	0.0	100.0 (56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9	1.3	5.5	1.7	85.3	2.8	0.6	100.0 (544)
300~500만원미만	7.6	5.4	10.4	2.1	71.0	3.0	0.6	100.0 (724)
500만 원 이상	7.3	3.0	31.5	1.5	53.2	3.0	0.5	100.0 (803)

주: 1) 운동한다고 응답한 2,07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가 운동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5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게을러서가 16.1%, 관심이 없어서가 10.4%, 몸이 약해서가 7.7%,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3.9%,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가 1.6%, 주위의 운동여건이 안되어서가 0.4%, 기타가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1/4은 게으르거나 운동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경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이 바쁘고 시간대기가 어렵다고 한 사람들이 전체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운동의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의 식품섭취에 대해 살펴보면, 다양한 식품섭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가 17.3%, 그렇다가 58.9%, 보통이다가 16.8%, 그렇지 않다가 6.6%, 전혀 그렇지 않다가 0.3%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체적으로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한 경우가 76.2%로 나타나, 음식을 통한 건강유지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82.7%), 유배우자의 경우(80%), 동거자가 있는 경우(부부가족, 자녀동거 및 확대가족), 고소득자의 경우(500만 원 이상인 경우, 85.2%)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다양한 식품섭취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식품섭취를 다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거자가 있거나 다양한 식품구매가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베이비 부머의 59.7%가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읍면부지역 거주자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건강보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비율이 높고, 유배우자(62.5%), 부부나 자녀와의 동거자가 1인 가구에 비해 섭취비율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의 섭취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5-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운동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바깥 시간 없음	경제적 여유 없음	주위 운동 여건 안되 어서	같이할 사람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관심이 없어서	게을 러서	기타	계 (명)
전체	59.7	3.9	0.4	1.6	7.7	10.4	16.1	0.2	100.0 (955) ¹⁾
지역									
동부	59.7	3.4	0.4	2.0	9.1	8.1	17.2	0.2	100.0 (740)
읍·면부	59.5	5.1	0.5	0.0	3.7	18.1	12.6	0.0	100.0 (215)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7.8	3.6	0.4	1.9	10.2	10.2	15.5	0.4	100.0 (529)
1960~1963년생	62.1	4.2	0.2	0.9	4.9	10.6	16.9	0.0	100.0 (425)
성									
남자	61.0	5.0	0.2	1.3	5.9	11.7	14.8	0.2	100.0 (461)
여자	58.5	2.6	0.6	1.8	9.7	9.1	17.4	0.2	100.0 (4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2.3	3.3	0.0	5.3	9.9	7.3	11.3	0.7	100.0 (151)
중학교	59.3	3.2	0.4	0.8	11.9	13.0	11.1	0.4	100.0 (253)
고등학교	60.2	4.6	0.5	0.5	5.8	9.2	19.2	0.0	100.0 (412)
전문대학 이상	55.7	3.6	0.7	1.4	4.3	12.1	21.4	0.7	100.0 (140)
결혼상태									
유배우	61.5	2.9	0.4	1.4	5.4	10.6	17.6	0.3	100.0 (766)
무배우	52.7	8.0	0.0	1.6	18.1	9.6	10.1	0.0	100.0 (188)
가구유형									
1인 가구	47.2	9.7	0.0	4.2	18.1	5.6	15.3	0.0	100.0 (72)
부부가족	57.1	0.8	0.0	1.7	7.6	15.1	17.6	0.0	100.0 (119)
부/모+미혼자녀	60.1	3.8	0.3	1.6	7.6	11.0	15.4	0.2	100.0 (629)
확대가족	67.4	3.8	0.8	0.0	3.0	5.3	18.9	0.8	100.0 (132)
기타가족	25.0	0.0	0.0	0.0	25.0	25.0	25.0	0.0	100.0 (4)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68.4	3.9	0.3	0.8	3.7	9.0	14.0	0.0	100.0 (792)
미취업	17.2	3.7	1.2	4.9	27.6	17.2	27.0	1.2	100.0 (163)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4.6	6.6	0.0	1.6	12.7	9.6	14.6	0.2	100.0 (425)
300~500만원 미만	65.1	1.9	0.9	2.2	4.6	12.7	12.7	0.0	100.0 (324)
500만 원 이상	62.1	1.0	0.0	0.5	2.5	8.4	25.1	0.5	100.0 (203)

주: 1)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9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다양한 식품섭취의 유지경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7.3	58.9	16.8	6.6	0.3	100.0 (3,027)
지역						
동부	17.0	59.6	17.3	5.9	0.2	100.0 (2,491)
읍·면부	18.8	56.0	14.7	9.9	0.6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7.0	58.0	16.6	8.0	0.3	100.0 (1,634)
1960~1963년생	17.6	60.0	17.1	5.0	0.3	100.0 (1,395)
성						
남자	18.8	57.8	16.1	7.1	0.2	100.0 (1,433)
여자	15.9	60.1	17.5	6.2	0.4	100.0 (1,5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2.2	53.9	19.1	14.4	0.3	100.0 (319)
중학교	13.9	56.2	21.0	8.8	0.2	100.0 (628)
고등학교	18.0	60.0	16.8	4.9	0.3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21.1	61.6	12.3	4.7	0.4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18.1	61.9	15.4	4.4	0.2	100.0 (2,593)
무배우	12.4	41.4	25.5	19.5	1.1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7.9	38.8	20.6	31.5	1.2	100.0 (165)
부부가족	15.8	55.8	20.7	7.4	0.4	100.0 (285)
부/모+미혼자녀	18.3	61.0	16.0	4.5	0.3	100.0 (2,242)
확대가족	16.4	58.8	17.0	7.9	0.0	100.0 (330)
기타가족	0.0	25.0	50.0	25.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0	59.3	16.0	6.4	0.3	100.0 (2,299)
미취업	15.1	57.9	19.5	7.3	0.3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1.9	51.0	24.8	12.1	0.3	100.0 (969)
300~500만원 미만	18.8	61.3	15.3	4.2	0.5	100.0 (1,049)
500만 원 이상	21.1	64.1	10.7	4.0	0.1	100.0 (1,00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식품(종합비타민, 칼슘제, 보약 등)의 섭취여부

(단위: %, 명)

특성	섭취함	섭취안함	계	(명)
전체	59.7	40.3	100.0	(3,027)
지역				
동부	60.7	39.3	100.0	(2,491)
읍·면부	55.5	44.5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60.0	40.0	100.0	(1,633)
1960~1963년생	59.5	40.5	100.0	(1,394)
성				
남자	54.0	46.0	100.0	(1,433)
여자	64.9	35.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9.2	50.8	100.0	(319)
중학교	56.6	43.4	100.0	(627)
고등학교	59.0	41.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68.3	31.7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62.5	37.5	100.0	(2,593)
무배우	43.4	56.6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38.0	62.0	100.0	(166)
부부가족	61.4	38.6	100.0	(285)
부/모+미혼자녀	61.6	38.4	100.0	(2,243)
확대가족	57.0	43.0	100.0	(330)
기타가족	25.0	7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59.0	41.0	100.0	(2,300)
미취업	62.1	37.9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1.1	48.9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55.4	44.6	100.0	(1,050)
500만 원 이상	72.6	27.4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80.8%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 부계층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 장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질병치료 시에 부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을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 는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자(81.9%)가 상대적으로 수검률이 높으며,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수검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그렇다고 볼 때,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학 력자, 무배우자, 1인가구자, 저소득자의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고 있어, 베이비 부머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낮은 수검률자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이상의 고학력자(85.7%)나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88.7%)에게서 유난히 수검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자 간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고 건강의식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검진이후 증상이나 질병의 발견여부 및 치료여부를 조사한 결 과를 살펴보면 증상이나 질병이 발견된 경우는 19% 정도이고, 일단 발견된 경우 치료하는 경우는 89.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성별로 볼 때, 동 부지역의 거주자(19.5%), 전문대학이상의 고학력자(21.2%), 유배우자 (19.3%), 고소득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증상이나 질병의 발견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강수준이 더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건강검 진을 세밀하게 수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검진은 검진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건강검진이후 증상이나 질병의 치료방치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59.6%가 건강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17.3%,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13.5%, 관심이 없거나 귀찮아서가 7.7%, 정보가 부족해서가 1.9%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증상이나 질병이 건강에 이상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고 싶

어도 경제적 비용이 들거나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한 경우가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건강은 향후 노년기에 접어들 경우 건강수준의 악화가 현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검진 수진여부

(단위: %, 명)				
특성	받은 적 있음	받은 적 없음	계	(명)
전체	80.8	19.2	100.0	(3,027)
지역				
동부	81.9	18.1	100.0	(2,491)
읍·면부	76.0	24.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1.1	18.9	100.0	(1,633)
1960~1963년생	80.5	19.5	100.0	(1,394)
성				
남자	79.4	20.6	100.0	(1,434)
여자	82.1	17.9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1.8	28.2	100.0	(319)
중학교	79.6	20.4	100.0	(627)
고등학교	80.8	19.2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85.7	14.3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82.1	17.9	100.0	(2,592)
무배우	73.3	26.7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68.1	31.9	100.0	(166)
부부가족	76.8	23.2	100.0	(285)
부/모+미혼자녀	83.4	16.6	100.0	(2,242)
확대가족	73.3	26.7	100.0	(330)
기타가족	50.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80.5	19.5	100.0	(2,299)
미취업	81.8	18.2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1.9	28.1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81.5	18.5	100.0	(1,050)
500만 원 이상	88.7	11.3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1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검진 후 증상(질병) 발견 및 치료(관리)여부

(단위: %, 명)

특성	발견여부			치료(관리)여부			
	됨	안됨	계(명)	함	안함	계	(명)
전체	19.0	81.0	100.0 (2,447) ¹⁾	89.1	10.9	100.0	(466) ²⁾
지역							
동부	19.5	80.5	100.0 (2,039)	89.7	10.3	100.0	(398)
읍·면·부	16.7	83.3	100.0 (408)	85.3	14.7	100.0	(68)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0.8	79.2	100.0 (1,325)	88.4	11.6	100.0	(275)
1960~1963년생	17.1	82.9	100.0 (1,122)	89.6	10.4	100.0	(192)
성							
남자	18.4	81.6	100.0 (1,139)	90.5	9.5	100.0	(210)
여자	19.6	80.4	100.0 (1,309)	87.9	12.1	100.0	(25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6.2	83.8	100.0 (229)	94.6	5.4	100.0	(37)
중학교	21.2	78.8	100.0 (499)	84.0	16.0	100.0	(106)
고등학교	17.3	82.7	100.0 (1,076)	87.2	12.8	100.0	(187)
전문대학 이상	21.2	78.8	100.0 (642)	94.2	5.8	100.0	(137)
결혼상태							
유배우	19.3	80.7	100.0 (2,128)	88.5	11.5	100.0	(410)
무배우	17.6	82.4	100.0 (319)	92.9	7.1	100.0	(56)
가구유형							
1인 가구	12.4	87.6	100.0 (113)	92.9	7.1	100.0	(14)
부부가족	18.6	81.4	100.0 (220)	92.7	7.3	100.0	(41)
부/모+미혼자녀	19.2	80.8	100.0 (1,871)	88.0	12.0	100.0	(359)
확대가족	21.2	78.8	100.0 (241)	92.2	7.8	100.0	(51)
기타가족	33.3	66.7	100.0 (3) ³⁾	100.0	0.0	100.0	(1) ³⁾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9	82.1	100.0 (1,851)	90.3	9.7	100.0	(331)
미취업	22.7	77.3	100.0 (596)	85.9	14.1	100.0	(13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8.7	81.3	100.0 (696)	87.7	12.3	100.0	(130)
300~500만원 미만	19.4	80.6	100.0 (857)	87.9	12.1	100.0	(165)
500만 원 이상	19.1	80.9	100.0 (893)	91.2	8.8	100.0	(171)

주: 1) 건강검진을 받은 2,44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상(질병)을 발견 한 46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1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검진후 증상(질병)의 치료(관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바쁘고 시간이 없음	관심이 없거나 귀찮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건강 이상 못 느낌	정보 부족	기타	계 (명)
전체	13.5	7.7	17.3	59.6	1.9	0.0	100.0 (52) ¹⁾
지역							
동부	14.6	9.8	19.5	53.7	2.4	0.0	100.0 (41)
읍·면부	9.1	0.0	9.1	81.8	0.0	0.0	100.0 (11) ²⁾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9.4	9.7	16.1	51.6	3.2	0.0	100.0 (31)
1960~1963년생	5.0	0.0	20.0	75.0	0.0	0.0	100.0 (20)
성							
남자	10.5	5.3	10.5	73.7	0.0	0.0	100.0 (19)
여자	15.6	6.3	21.9	53.1	3.1	0.0	100.0 (3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3	0.0	33.3	33.3	0.0	0.0	100.0 (3) ²⁾
중학교	17.6	5.9	0.0	76.5	0.0	0.0	100.0 (17)
고등학교	12.5	8.3	29.2	45.8	4.2	0.0	100.0 (24)
전문대학 이상	0.0	12.5	12.5	75.0	0.0	0.0	100.0 (8) ²⁾
결혼상태							
유배우	10.9	4.3	17.4	65.2	2.2	0.0	100.0 (46)
무배우	50.0	25.0	25.0	0.0	0.0	0.0	100.0 (4) ²⁾
가구유형							
1인 가구	0.0	0.0	100.0	0.0	0.0	0.0	100.0 (1) ²⁾
부부가족	0.0	0.0	0.0	100.0	0.0	0.0	100.0 (2) ²⁾
부/모+미혼자녀	16.3	7.0	11.6	62.8	2.3	0.0	100.0 (43)
확대가족	0.0	0.0	75.0	25.0	0.0	0.0	100.0 (4) ²⁾
기타가족	0.0	0.0	0.0		0.0	0.0	10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22.6	9.7	9.7	58.1	0.0	0.0	100.0 (31)
미취업	0.0	5.0	25.0	65.0	5.0	0.0	100.0 (20)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2.5	6.3	31.3	43.8	6.3	0.0	100.0 (16)
300~500만원 미만	15.0	10.0	10.0	65.0	0.0	0.0	100.0 (20)
500만 원이상	6.7	6.7	13.3	73.3	0.0	0.0	100.0 (15)

주: 1) 건강검진을 통해 증상(질병)을 발견하였으나 치료(관리)를 하지 않은 5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소수이지만 건강검진을 미수진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40.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건강하기 때문인가 25.1%,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가 15.3%, 질병발견이 두려워서가 11.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5.7%, 정보가 부족해서가 2.2%를 차지하고 있다. 즉, 경제적 이유로 수진을 포기하는 경우보다는 비경제적인 이유로 건강검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건강검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홍보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특성별로 살펴볼 때,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수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읍면부지역 거주자, 남자, 초졸 이하자, 유배우자, 가족과의 동거자, 취업중인 자, 고소득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들 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관적인 측면에서 베이비 부머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동년배와 비교하여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3.9%, 좋은 편이다가 50.4%, 보통이다가 34.7%, 나쁜 편이다가 9.9%, 매우 나쁘다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54.3%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각 특성별로 살펴볼 때 여자, 저학력자, 무배우자, 1인 가구, 미취업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인 독거자의 경우가 건강수준이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 년기 부터의 독거상태의 습관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도 바꾸기가 힘든 상태로 빠져들게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보건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5-1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검진의 미수진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간 없음	건강 관심 없음	경제적 여유 없음	건강해 서	정보부 족	질병 발견 두려움	계	(명)
전체	40.5	15.3	5.7	25.1	2.2	11.2	100.0	(582) ¹⁾
지역								
동부	39.2	16.0	6.2	23.9	2.7	12.0	100.0	(451)
읍·면부	45.7	12.4	3.1	29.5	0.8	8.5	100.0	(129)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0.9	14.3	5.2	24.0	3.6	12.0	100.0	(308)
1960~1963년생	40.3	16.1	5.9	26.4	0.7	10.6	100.0	(273)
성								
남자	47.8	15.6	4.4	19.3	2.0	10.8	100.0	(295)
여자	33.0	14.7	6.7	31.2	2.5	11.9	100.0	(28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1.1	10.0	10.0	11.1	3.3	14.4	100.0	(90)
중학교	41.4	17.2	7.0	22.7	1.6	10.2	100.0	(128)
고등학교	35.7	16.9	3.9	30.2	2.7	10.6	100.0	(255)
전문대학 이상	41.3	13.8	4.6	28.4	0.9	11.0	100.0	(109)
결혼상태								
유배우	42.5	13.2	4.3	26.3	1.5	12.1	100.0	(463)
무배우	32.8	23.3	10.3	20.7	5.2	7.8	100.0	(116)
가구유형								
1인 가구	26.4	34.0	9.4	15.1	5.7	9.4	100.0	(53)
부부가족	46.2	12.3	4.6	30.8	1.5	4.6	100.0	(65)
부/모+미혼자녀	40.1	13.7	5.6	24.5	2.4	13.7	100.0	(372)
확대가족	46.6	11.4	3.4	30.7	1.1	6.8	100.0	(88)
기타가족	0.0	100.0	0.0	0.0	0.0	0.0	100.0	(1)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49.4	11.9	4.3	23.7	1.3	9.4	100.0	(447)
미취업	10.6	26.5	9.8	30.3	5.3	17.4	100.0	(132)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5.3	18.0	7.4	22.4	4.0	12.9	100.0	(272)
300~500만원 미만	44.3	12.4	5.7	29.9	1.0	6.7	100.0	(194)
500만 원이상	46.5	13.2	1.8	23.7	0.0	14.9	100.0	(114)

주: 1)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58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1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 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3.9	50.4	34.7	9.9	1.1	100.0	(3,027)
지역							
동부	3.5	50.7	34.8	9.8	1.1	100.0	(2,491)
읍·면부	6.0	48.9	34.0	10.1	1.1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0	48.8	35.0	11.9	1.2	100.0	(1,632)
1960~1963년생	5.0	52.3	34.2	7.5	1.0	100.0	(1,395)
성							
남자	5.5	55.3	31.0	7.4	0.8	100.0	(1,434)
여자	2.5	46.1	38.0	12.1	1.3	100.0	(1,5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9	36.1	42.0	17.6	3.4	100.0	(319)
중학교	3.7	45.4	35.8	13.9	1.3	100.0	(628)
고등학교	4.6	52.6	33.4	8.4	1.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4.3	56.9	32.8	5.9	0.3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4.1	51.9	34.7	8.5	0.8	100.0	(2,592)
무배우	3.2	41.8	34.3	17.9	2.8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6.0	38.0	33.1	18.7	4.2	100.0	(166)
부부가족	3.8	49.3	36.4	9.8	0.7	100.0	(286)
부/모+미혼자녀	3.8	51.7	34.3	9.5	0.8	100.0	(2,243)
확대가족	3.6	49.4	36.1	8.5	2.4	100.0	(330)
기타가족	0.0	33.3	33.3	0.0	33.3	100.0	(3)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	54.9	33.4	6.5	0.6	100.0	(2,299)
미취업	2.1	36.2	38.4	20.4	2.9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1	42.8	35.8	15.9	2.4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3.5	53.3	34.4	8.3	0.5	100.0	(1,050)
500만 원 이상	5.2	54.8	33.8	5.8	0.5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2절 건강상태

베이비 부머의 만성질환율을 살펴보면, 비교적 낮은 수준인 27.1%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특성별로 보면, 동부지역의 거주자(27.5%)가 높고, 여자(28.4%)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만성질환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무배우자(31.7%)나 1인 가구(30.1%)가 더 높고 미취업자(36.3%)나 저소득계층에게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시 취약계층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10.2%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만성질환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를 다시 특성별로 보면, 동부지역의 거주자(10.3%)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보다도 도시지역의 거주자가 외부와의 접촉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여성(13.2%),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이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무배우자(20.0%)나 1인 가구(19.3%)가 더 높고 미취업자(17.8%)나 저소득계층에게서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만성질환의 유병상태와 특징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외부와의 접촉도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또는 방문순회형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만성질환 진단여부

(단위: %, 명)				
특성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27.1	72.9	100.0	(3,027)
지역				
동부	27.5	72.5	100.0	(2,491)
읍·면부	24.8	75.2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0.6	69.4	100.0	(1,633)
1960~1963년생	22.9	77.1	100.0	(1,394)
성				
남자	25.5	74.5	100.0	(1,433)
여자	28.4	71.6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2.9	67.1	100.0	(319)
중학교	30.1	69.9	100.0	(627)
고등학교	24.8	75.2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26.0	74.0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26.3	73.7	100.0	(2,592)
무배우	31.7	68.3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30.1	69.9	100.0	(166)
부부가족	25.3	74.7	100.0	(285)
부/모+미혼자녀	27.0	73.0	100.0	(2,243)
확대가족	27.1	72.9	100.0	(329)
기타가족	50.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24.1	75.9	100.0	(2,299)
미취업	36.3	63.7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9.5	70.5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25.6	74.4	100.0	(1,050)
500만 원 이상	26.2	73.8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1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우울증상의 여부

(단위: %, 명)

특성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10.2	89.8	100.0	(3,027)
지역				
동부	10.3	89.7	100.0	(2,491)
읍·면부	9.7	90.3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2.3	87.7	100.0	(1,633)
1960~1963년생	7.7	92.3	100.0	(1,395)
성				
남자	6.8	93.2	100.0	(1,433)
여자	13.2	86.8	100.0	(1,5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5.0	85.0	100.0	(319)
중학교	12.7	87.3	100.0	(628)
고등학교	8.7	91.3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8.7	91.3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8.6	91.4	100.0	(2,593)
무배우	20.0	80.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19.3	80.7	100.0	(166)
부부가족	8.4	91.6	100.0	(285)
부/모+미혼자녀	9.8	90.2	100.0	(2,243)
확대가족	9.7	90.3	100.0	(330)
기타가족	50.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7.8	92.2	100.0	(2,299)
미취업	17.8	82.2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5.9	84.1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8.7	91.3	100.0	(1,050)
500만 원 이상	6.4	93.6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가 신체적으로 갱년기 증상을 경험할 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갱년기증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가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편을 겪은 적이 없다’가 66.5%, ‘과거에는 불편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불편하지 않다’가 10.2%, ‘가끔 불편하다’가 20.9%, ‘매우 불편하다’가 2.4%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생활상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 특성별로 현재 불편하지 않다고 한 경우를 살펴보면 여자(17.2%), 저학력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는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의 이유로 생활상의 불편함을 항상 겪고 있기 때문에 갱년기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참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기적 건강검진이 38.4%, 식이 또는 운동처방이 17.4%, 건강 및 질병상담이 13.3%, 건강교육이 8.8%, 스트레스와 우울증관리가 5.9%, u-헬스가 4.8%, 질병관리서비스가 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희망서비스가 없는 경우도 5.2%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건강검진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증진행위(식이·운동, 스트레스관리,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한 경우도 45.4%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질병예방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하겠다.

이를 다시 각 특성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여자, 무배우자, 1인 가구, 미취업자, 저소득자)이 상대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계층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표 5-1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갱년기증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여부

(단위: %, 명)

특성	불편을 겪은 적 없음	과거 그랬으나, 현재 불편하지 않음	가끔 불편함	매우 불편함	계	(명)
전체	66.5	10.2	20.9	2.4	100.0	(3,027)
지역						
동부	67.0	9.7	20.9	2.3	100.0	(2,490)
읍·면부	63.9	12.5	21.0	2.6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60.2	13.0	23.5	3.2	100.0	(1,632)
1960~1963년생	73.7	7.0	17.9	1.4	100.0	(1,395)
성						
남자	88.2	2.5	8.7	0.6	100.0	(1,434)
여자	46.9	17.2	31.9	4.0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3.3	12.9	29.2	4.7	100.0	(319)
중학교	58.4	15.0	23.7	2.9	100.0	(628)
고등학교	68.3	10.5	18.5	2.7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75.4	4.5	19.5	0.5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67.1	10.2	20.4	2.3	100.0	(2,592)
무배우	62.6	10.6	24.1	2.8	100.0	(436)
가구유형						
1인 가구	69.9	6.6	20.5	3.0	100.0	(166)
부부가족	53.3	14.7	28.1	3.9	100.0	(285)
부/모+미혼자녀	67.8	9.9	20.2	2.2	100.0	(2,242)
확대가족	67.5	10.6	19.8	2.1	100.0	(329)
기타가족	75.0	0.0	25.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72.5	8.6	17.2	1.7	100.0	(2,300)
미취업	47.2	15.5	32.8	4.5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0.8	11.5	24.0	3.7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67.2	11.2	20.0	1.6	100.0	(1,049)
500만 원 이상	71.1	8.1	18.9	1.9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5-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관리를 위한 희망서비스의 내용

(단위: %, 명)

특성	없음	건강 및 질병상담	건강교육	식이 또는 운동처방	스트레스및 우울증관리	약물오용관 련교육상담
전체	5.2	13.3	8.8	17.4	5.9	0.5
지역						
동부	5.2	12.9	8.4	18.1	5.7	0.5
읍·면부	5.6	15.5	11.0	14.2	6.7	0.2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0	14.3	8.9	16.7	5.6	0.4
1960~1963년생	5.5	12.1	8.7	18.2	6.2	0.6
성						
남자	6.6	13.0	9.1	16.1	2.9	0.5
여자	4.0	13.6	8.6	18.6	8.7	0.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4	18.1	8.4	11.9	7.8	0.3
중학교	4.8	14.5	7.8	13.1	7.3	0.5
고등학교	6.3	13.9	9.6	17.4	5.4	0.4
전문대학 이상	4.1	9.2	8.5	23.4	4.8	0.7
결혼상태						
유배우	5.0	13.2	9.1	17.6	5.1	0.5
무배우	6.7	14.0	6.9	16.6	11.0	0.0
가구유형						
1인 가구	4.8	14.5	5.4	13.9	12.7	0.0
부부가족	4.6	13.0	13.7	15.8	5.6	0.4
부/모+미혼자녀	5.3	13.6	8.4	17.9	5.4	0.5
확대가족	6.0	11.2	9.4	17.2	6.3	0.0
기타가족	0.0	20.0	0.0	20.0	0.0	2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	12.6	9.5	17.1	5.1	0.4
미취업	5.2	15.5	6.6	18.2	8.5	0.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6	15.7	9.2	14.7	7.8	0.3
300~500만원 미만	6.4	13.6	9.4	16.7	5.7	0.3
500만 원이상	3.7	10.7	7.8	20.9	4.4	0.7

〈표 5-17〉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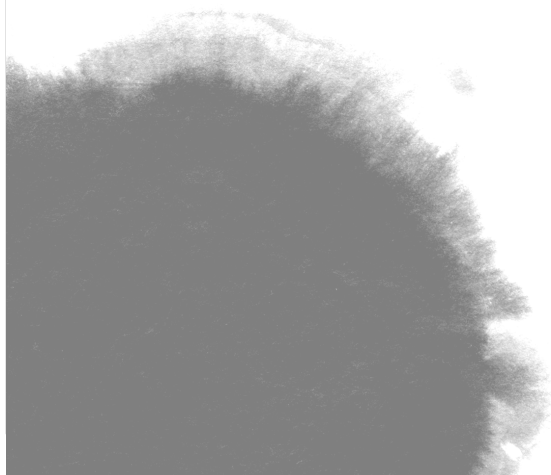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정기적 건강검진	질병관리 서비스	u-헬스 (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기타	계	(명)
전체	38.4	4.0	4.8	1.6	0.0	100.0	(3,027)
지역							
동부	38.2	4.1	5.3	1.7	0.0	100.0	(2,490)
읍·면부	39.2	3.7	3.0	0.9	0.0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8.8	4.4	4.0	1.7	0.1	100.0	(1,632)
1960~1963년생	37.9	3.6	5.7	1.4	0.0	100.0	(1,394)
성							
남자	41.7	3.3	5.9	1.0	0.0	100.0	(1,432)
여자	35.4	4.6	4.0	2.0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0.6	3.8	2.5	2.2	0.0	100.0	(320)
중학교	40.7	5.3	3.7	2.4	0.0	100.0	(627)
고등학교	36.9	3.8	5.0	1.3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38.2	3.3	6.5	1.1	0.1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39.0	3.9	5.1	1.4	0.0	100.0	(2,591)
무배우	34.9	4.4	3.2	2.3	0.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36.7	5.4	3.6	3.0	0.0	100.0	(166)
부부가족	36.8	5.3	2.5	2.1	0.4	100.0	(285)
부/모+미혼자녀	38.2	3.9	5.5	1.3	0.0	100.0	(2,242)
확대가족	41.7	3.0	3.0	2.1	0.0	100.0	(331)
기타가족	40.0	0.0	0.0	0.0	0.0	100.0	(5)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40.0	3.7	4.9	1.3	0.0	100.0	(2,298)
미취업	33.3	5.2	4.5	2.3	0.0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6.6	4.3	3.3	2.5	0.0	100.0	(969)
300~500만원 미만	37.4	3.5	6.1	0.8	0.1	100.0	(1,050)
500만 원 이상	41.0	4.3	5.1	1.5	0.0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06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제6장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일반적으로 소비는 소득에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소비스타일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장에서는 전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인 베이비 부머의 경제상태와 소비스타일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1 절 경제수준

1. 가구의 경제상태

가. 소득

베이비 부머가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총 2014가구로 그 중 무응답가구를 제외한 2011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4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동부 82.7%, 읍면부 17.3%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월 소득은 각각 445만원, 321만원으로 동부가 124만원 정도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60.2%로 가장 많고, 40대 이하 34.5%, 60대이상 5.3%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소득수준은 40대 이하가 43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426만원, 60대 이상은 3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가구주가 88.5%, 여자가 1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은 남자가 450만원으로 여자 가구주 소득 219만원보다 약 231만 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은 여자 가구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수준을 보면, 고학력인 전문대학이상의 경우 623만원으로 초등학교졸업의 214만원보다 409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간 소득수준차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 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가 78.7%, 배우자가 없는 무배우자가 11.5%로 조사되었으며, 소득은 유배우 가구 482만원, 무배우자 가구 208만원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의 맞벌이가구의 증가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유형을 보면, 1인 가구가 8.2%, 부부가족 7.2%, 부/모+미혼자녀가구가 74.1%, 확대가족 10.3%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구유형별 월평균 소득은 부/모와 미혼자녀가 동거하는 가구가 467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는 확대가족 431만원, 부부가족 272만원 순이었으며 1인 가구는 15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가구주의 취업상태별 소득수준을 보면 가구주가 취업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은 월 440만 원이었으나,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구주의 소득은 약 244만 원으로 나타나 취업 중인 경우 207만 원정도 가구 소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6가구를 제외한 월평균소득은 424.7만원이었다.

〈표 6-1〉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가구, 만 원)

가구소득	전체가구		해당가구	
	계 (명)	월평균소득	계 (명)	월평균소득
전체	100.0(2,011) ¹⁾	423.4	100.0(2,005) ²⁾	424.7
지역				
동부	82.7	444.9	82.7	446.5
읍·면부	17.3	320.7	17.3	320.7
연령				
40대 이하	34.5	436.0	34.5	437.1
50대	60.2	426.2	60.1	427.8
60대 이상	5.3	309.9	5.3	309.9
성				
남자	88.5	450.1	88.6	450.9
여자	11.5	218.7	11.4	221.8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9.6	214.3	9.5	216.0
중학교	17.3	289.1	17.3	289.1
고등학교	41.2	373.6	41.2	375.1
전문대학 이상	31.9	623.2	31.9	624.5
결혼상태				
유배우	78.7	481.7	78.8	482.6
무배우	21.3	207.6	21.2	209.2
가구유형				
1인가구	8.2	153.5	8.1	156.6
부부가족	7.2	271.9	7.2	271.9
부/모+미혼자녀	74.1	467.3	74.2	468.2
확대가족	10.3	431.3	10.3	431.3
기타가족 ³⁾	0.2	263.5	0.2	26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440.1	91.7	440.5
미취업	8.5	243.7	8.3	250.5

주: 1) 전체 2,014 가구 중 무응답을 제외한 2,011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2,005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나. 자산 및 부채

조사가구의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규모는 평균 3.3억 원이었으며, 인구 사회적 특성별로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 자산규모는 동부 4.5억 원, 읍면부 3.2억 원으로 동부의 자산규모가 약 1.3억 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약 3.45억 원으로 가장 많고, 40대 이하에서 3.2억 원, 60대 이상에서 2.7억 원으로 나타나 전체가구의 60.2%에 달하는 50대의 자산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는 3.6억 원, 여자는 1.1억 원으로 2.5억 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산 또한 고연령·여성가구주가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도 자산규모의 수준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학 교이상의 경우 5.9억 원, 고등학교 2.5억 원, 중학교 1.8억 원 및 초등학교 졸 1.2억 원 순이었다. 결혼상태 별로는 배우가 있는 경우 4.0억 원이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9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 가구의 자산이 6천3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확대 가족의 경우 3.87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차이는 확대가족의 경우 보다 연령이 높은 가구원들의 주택소유 욕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가구주가 취업중인 경우에는 3.4억 원이었으며,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구주의 경우에는 2.4억 원으로 나타나 1억 원 이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39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 조사대상 가구의 자산규모

(단위: 가구, 백만원)

구 분	전체가구		해당가구	
	계 (명)	평균자산	계 (명)	평균자산
전체	100.0(2,010) ¹⁾	333.83	100.0(1,975) ²⁾	339.77
지역				
동부	82.7	444.9	82.7	446.5
읍·면부	17.3	320.7	17.3	320.7
연령				
40대 이하	34.5	323.29	33.7	336.68
50대	60.2	345.15	60.8	347.32
60대 이상	5.3	274.34	5.4	274.34
성				
남자	88.5	363.52	88.9	368.32
여자	11.5	105.67	11.1	111.44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9.6	122.17	9.3	128.69
중학교	17.3	184.99	17.2	189.59
고등학교	41.2	247.38	41.3	251.15
전문대학 이상	31.9	589.84	32.2	594.00
결혼상태				
유배우	78.7	399.37	79.9	400.53
무배우	21.3	91.06	20.1	98.07
가구유형				
1인가구	8.3	63.2	7.7	69.3
부부가족	7.2	186.4	7.3	186.4
부/모+미혼자녀	74.1	371.5	74.6	375.8
확대가족	10.3	386.1	10.3	392.5
기타가족 ³⁾	0.2	110.2	0.2	110.2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342.99	91.7	348.38
미취업	8.5	235.58	8.3	245.15

주: 1) 전체 2,014 가구 중 무응답을 제외한 2,010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1,975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한편 전체 조사가구의 평균 부채수준은 약 4천6백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4,579만 원, 읍면부 4,908만원으로 읍면부의 부채가 약 329만 원 정도 많았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50대가 4천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5천만 원으로 여자 1천7백만 원보다 4천3백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 별로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7천5만 원, 고등학교 졸업 3천6백만 원, 중학교 졸업 3천1백만 원, 초등학교 및 이하 졸업에서 2천2백만 원순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부채 또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상태 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천4백만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천9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유형별로는 기타가족을 제외하면 부모와 미혼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의 부채가 약 5천1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구주 취업상태에 따른 부채수준은 취업중인 경우 4천7백만 원, 미취업의 경우 4천3백만 원으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44.2%인 888가구로 이 들을 제외한 평균부채 규모는 8천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특징을 보면, 50대 가구주의 부채수준이 8천6백만 원으로 타연령층 보다 약 1천만원 정도 많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고학력인 50대 가구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대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3〉 조사가구의 부채규모

(단위: 가구, 백만원)

구 분	전체가구		해당가구	
	계 (명)	평균부채	계 (명)	평균부채
전체	100.0(2,008) ¹⁾	46.36	100.0(1,125) ²⁾	82.71
지역				
동부	82.7	45.8	83.3	81.0
읍·면부	17.3	49.1	16.7	91.0
연령				
40대 이하	34.5	44.26	35.3	77.24
50대	60.2	47.65	59.3	86.30
60대 이상	5.3	45.35	5.5	79.10
성				
남자	88.4	50.15	89.7	88.16
여자	11.6	17.41	10.3	35.04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9.6	22.49	9.1	42.36
중학교	17.3	31.35	16.9	57.14
고등학교	41.3	36.01	41.0	64.71
전문대학 이상	31.8	75.13	33.0	129.32
결혼상태				
유배우	78.7	53.71	83.1	90.77
무배우	21.3	19.26	16.9	43.22
가구유형				
1인가구	8.2	20.1	6.1	48.4
부부가족	7.2	26.2	5.6	59.6
부/모+미혼자녀	74.1	51.4	76.6	88.7
확대가족	10.3	44.8	11.4	72.1
기타가족 ³⁾	0.2	81.8	0.2	99.8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46.69	91.5	83.26
미취업	8.5	42.78	8.5	76.83

주: 1) 전체 2,014 가구 중 무응답을 제외한 2,008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부채가 있는 1,125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계층의식

가. 현재의 주관적 계층의식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소속 계층의식에 관하여 상, 중, 하를 상하로 구분하여 총 6단계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의 하로 응답한 비율은 31.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하의 상 23.6%, 중의 상 23.5%, 하의 하 1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우선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중의 하 31.9%, 중의 상 24.9%, 하의 상 22.4% 순이었으나 읍·면부에서는 중의 하 32.0%, 하의 상 29.3%, 중의 상 17.2% 순으로 대조를 이루었다. 출생년도 별로는 50년대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중의 하 31.1%, 하의 상 25.2%, 중의 상 21.4% 순이었으며, 60년대 베이비붐세대의 경우에는 중의 하 32.8%, 중의 상 26.0%, 하의 상 2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중의 하, 하의 상, 중의 상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으면 계층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학교 이상의 경우 중의 상이 42.3%로 가장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중의 하 34.0%, 중학교의 경우 하의 상 31.6%, 초등학교 이하인 경우에는 하의 하가 41.7%로 가장 높았다.

결혼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의 하가 34.1%로 가장 많았으며, 중의 상 26.7%, 하의 상 23.4% 순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하의 하가 52.0%로 가장 많으며, 하의 상 24.8%, 중의 하 18.4%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의 경우 62.0%가 하의 하에, 부부가족의 경우 37.1%가 하의 상,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중의 하 3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관적 소속계층

(단위: %, 명)

특성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계	(명)
전체	0.8	2.2	23.5	31.9	23.6	17.9	100.0	(3,027)
지역								
동부	0.9	2.6	24.9	31.9	22.4	17.2	100.0	(2,491)
읍·면부	0.4	0.0	17.2	32.0	29.3	21.1	100.0	(535)
출생년도								
1955~1959년생	0.6	1.7	21.4	31.1	25.2	19.9	100.0	(1,632)
1960~1963년생	1.1	2.7	26.0	32.8	21.8	15.6	100.0	(1,395)
성								
남자	0.6	2.6	24.0	30.8	24.1	18.1	100.0	(1,434)
여자	1.1	1.8	23.1	32.9	23.3	17.8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3	0.3	6.3	23.8	27.6	41.7	100.0	(319)
중학교	0.3	1.0	12.9	30.8	31.6	23.4	100.0	(627)
고등학교	0.6	0.7	22.2	34.0	26.2	16.4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7	6.5	42.3	32.7	10.8	5.9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1.0	2.5	26.7	34.1	23.4	12.2	100.0	(2,593)
무배우	0.0	0.0	4.8	18.4	24.8	52.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0.0	0.0	3.6	15.7	18.7	62.0	100.0	(166)
부부가족	0.3	1.0	10.8	33.9	37.1	16.8	100.0	(286)
부/모+미혼자녀	1.1	2.5	26.9	32.5	22.5	14.5	100.0	(2,243)
확대가족	0.3	2.1	22.1	33.8	23.0	18.7	100.0	(331)
기타가족	0.0	0.0	0.0	25.0	0.0	7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0.4	2.0	22.5	32.0	25.1	17.9	100.0	(2,300)
미취업	2.1	2.5	26.8	31.6	19.0	18.1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0.1	0.0	3.2	19.6	36.0	41.1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0.2	0.7	17.6	43.8	26.5	11.3	100.0	(1,051)
500만 원 이상	2.2	5.9	49.4	31.2	8.9	2.5	100.0	(1,005)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현 취업상태에 따른 계층의식을 보면, 취업중인 경우 중의 하가 32.0%, 하의 상이 25.1%이며, 미취업인 경우 중의 하가 31.6%, 중의 상이 26.8%로 나타나 미취업인 경우가 더 높은 계층인식을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 소득 군에서는 하의 하가 41.1%, 하의 상이 36.0%로 많았으며, 300~500만 원 소득 군에서는 중의 하가 43.8%, 500만 원 이상 소득 군에서는 중의 상이 49.4%로 높게 나타났다.

나. 과거의 경제생활 수준

청소년 시절(중·고등학교시절)의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평균 수준이었다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고, 조금 나빴다 31.2%, 아주 나빴다 16.2%, 조금 좋았다 13.6%, 아주 좋았다 4.0% 순이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평균수준 이상이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4.0%이었으며, 읍·면부 지역은 45.8%로 나타났다. 출생년도 별로는 5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60년대 생보다 과거 생활수준이 다소 나빴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는 53.2%, 여자는 42.2%가 나쁘다고 느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 80.2%가 나쁘다고 응답했고, 중학교 61.1%, 고등학교 41.7%, 전문대학 이상 32.1%가 나쁘다고 응답하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과거의 경제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결혼상태 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52.7%, 배우자가 없는 경우 52.0%가 평균수준 이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유형별로는 부모와 미혼녀가 동거하는 가구와 1인 가구 각각 54.5%, 53.3%가 경제생활수준을 평균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부가족과 확대가족은 상대적으로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확대가족의 경우 52.0%가 나빴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평균수준이상이 51.3%이었으며,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56.7%로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과거의

경제수준 또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인 경우 45.4%가 평균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61.8%이다.

〈표 6-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과거 경제생활수준

(단위: %, 명)

특성	아주 좋았다	조금 좋았다	평균 수준	조금 나빴다	아주 나빴다	계	(명)
전체	4.0	13.6	35.0	31.2	16.2	100.0	(3,027)
지역							
동부	4.0	13.6	36.4	31.0	15.0	100.0	(2,491)
읍·면부	3.9	13.2	28.7	32.6	21.6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2	13.4	33.3	32.0	17.2	100.0	(1,632)
1960~1963년생	3.8	13.8	37.1	30.3	15.0	100.0	(1,395)
성							
남자	3.1	12.2	31.5	34.3	18.9	100.0	(1,433)
여자	4.8	14.7	38.2	28.5	13.7	100.0	(1,5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9	4.7	14.1	38.2	42.0	100.0	(319)
중학교	1.6	8.8	28.5	40.4	20.7	100.0	(627)
고등학교	3.9	15.6	38.8	29.2	12.5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7.6	17.7	42.6	24.1	8.0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3.9	13.7	35.1	31.7	15.6	100.0	(2,593)
무배우	5.0	12.4	34.6	28.4	19.5	100.0	(436)
가구유형							
1인 가구	5.4	12.6	35.3	32.3	14.4	100.0	(167)
부부가족	5.6	14.8	29.9	29.6	20.1	100.0	(284)
부/모+미혼자녀	3.9	13.7	35.9	31.0	15.4	100.0	(2,242)
확대가족	2.4	11.6	34.0	33.7	18.2	100.0	(329)
기타가족	0.0	0.0	25.0	25.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	13.0	34.4	31.8	16.9	100.0	(2,299)
미취업	4.5	15.1	37.0	29.4	13.9	100.0	(72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4.4	11.9	29.1	33.0	21.6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2.5	13.4	34.8	31.3	18.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5.3	15.3	41.2	29.2	9.0	100.0	(1,00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다. 미래의 경제생활수준

10년 후 예상되는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와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고, 다소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37.9%, 다소 나빠질 것이라 16.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는데, 동부의 경우 40.0%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38.9%가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읍·면부에서도 41.6%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33.6%가 다소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는 36.4%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후기 베이비 부머는 46.3%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남자가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문학교 이상의 경우 44.1%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42.6%, 중학교 40.0%, 초등학교 이하 28.7%로 응답했다.

한편 결혼 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41.6%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37.1%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6.7%로 있는 경우보다 9.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 별로는 확대가족과 부/모+미혼자녀가구의 경우가 각각 47.9%, 45.7%로 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부부가족 및 1인가구의 경우에는 각각 30.9%, 23.4%만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큰 대조를 보여준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35.7%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42.6%,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 36.2%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인 경우 49.5%, 300~500만 원 40.8%, 300만 원 미만의 경우 32.4%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6-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10년 후 주관적 경제생활수준 전망

(단위: %, 명)

특성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계	(명)
전체	3.1	37.9	40.3	16.6	2.1	100.0	(3,027)
지역							
동부	3.0	38.9	40.0	16.1	2.0	100.0	(2,491)
읍·면부	3.5	33.6	41.6	18.8	2.4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8	34.6	42.8	18.5	2.3	100.0	(1,632)
1960~1963년생	4.4	41.9	37.3	14.4	1.9	100.0	(1,394)
성							
남자	3.6	37.4	39.7	16.3	3.0	100.0	(1,433)
여자	2.6	38.4	40.8	16.9	1.4	100.0	(1,5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9	27.8	44.7	20.6	5.9	100.0	(320)
중학교	1.9	38.1	40.5	16.7	2.7	100.0	(627)
고등학교	3.6	39.0	39.2	16.5	1.7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3.9	40.2	40.1	15.1	0.8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3.3	38.3	41.0	16.1	1.3	100.0	(2,593)
무배우	1.6	35.5	36.2	19.8	6.9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1.2	21.2	41.8	23.0	12.7	100.0	(165)
부부가족	2.5	28.4	44.6	21.4	3.2	100.0	(285)
부/모+미혼자녀	3.6	39.1	39.9	16.1	1.2	100.0	(2,243)
확대가족	1.2	46.7	37.9	12.4	1.8	100.0	(330)
기타가족	0.0	20.0	40.0	20.0	20.0	100.0	(5)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3.3	39.3	40.3	15.3	1.9	100.0	(2,300)
미취업	2.5	33.7	40.1	20.9	2.9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3	31.1	41.3	21.6	4.7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2.0	38.8	44.1	14.3	0.8	100.0	(1,049)
500만 원 이상	5.8	43.7	35.2	14.3	1.1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소비지출

가. 가구지출

조사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6만 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298만 원, 50대에서 294만 원, 60대 이상에서 208만 원 이상을 지출에 사용하고 있어 좀 더 젊은 층에서 소비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구주 307만 원, 여자가구주 162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414만 원 이상, 고등학교 졸업은 261만 원, 중학교 졸업 208만 원, 초등학교 및 이하의 교육수준에서 157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고학력의 경우 저학력의 경우보다 지출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328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54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 중인 경우 300만 원, 미취업의 경우 189만 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가구가 약 111만 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7〉 조사가구의 소비지출 실태

(단위: 가구, 만 원)

구 분	전체가구	평균지출
전체	100.0 ¹⁾	290.6
지역		
동부	82.7	304.4
읍·면부	17.3	224.4
연령		
40대 이하	34.5	298.2
50대	60.2	293.5
60대 이상	5.3	208.1
성		
남자	88.5	307.3
여자	11.5	162.0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9.6	157.1
중학교	17.3	207.7
고등학교	41.2	261.1
전문대학 이상	31.9	413.5
결혼상태		
유배우	78.7	327.6
무배우	21.3	153.6
가구유형		
1인가구	8.2	108.5
부부가족	7.2	172.0
부/모+미혼자녀	74.1	320.6
확대가족	10.3	304.1
기타가족 ²⁾	0.2	193.3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300.0
미취업	8.5	189.1

주: 1) 전체 2,014 가구 중 무응답을 제외한 2,012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나. 주요 개인지출

1) 여행비

조사가구 전체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여행비지출은 월평균 8.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여행비 지출을 보면, 동부의 경우 8.8만원, 읍면부 5.6만원으로 동부가 약 3.2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40대 이하는 8.9만원, 50대는 8.2만원, 60대 이상은 4.3만원을 여행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9.0만원, 여자가 2.3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보다 약 6.7만원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학 이상의 여행비가 15.2만원, 고등학교 6.2만원, 중학교 4.2만원, 초등학교 및 이하에서 1.3만원 순으로 고학력일수록 여행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 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9.8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2.3만원보다 약 7.5만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가족규모가 큰 확대가족이 월 9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으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2.1만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취업상태 별로는 취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8.7만원, 미취업 가구는 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가 여가를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행비를 지출하고 있는 1,110가구의 평균 여행비지출은 14.9만원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40대의 경우 15.8만원, 고학력인 전문대 이상의 경우 20.4만원으로 나타나 최근의 여행 등 여가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6-8〉 조사가구의 여행비 지출 실태

(단위: 가구, 만원, %)

구 분	전체가구		해당가구	
	계 (명)	평균지출	계 (명)	평균지출
전체	100.0(2,014) ¹⁾	8.2	100.0(1,110) ²⁾	14.9
지역				
동부	82.7	8.8	83.6	15.8
읍·면부	17.3	5.6	16.4	10.8
연령				
40대 이하	34.5	8.9	35.3	15.8
50대	60.2	8.2	60.6	14.8
60대 이상	5.3	4.3	4.0	10.2
성				
남자	88.5	9.0	94.3	15.3
여자	11.5	2.3	5.7	8.7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9.6	1.3	3.9	5.9
중학교	17.3	4.1	12.0	10.6
고등학교	41.2	6.2	40.9	11.3
전문대학 이상	31.9	15.2	43.2	20.4
결혼상태				
유배우	78.7	9.8	89.1	15.8
무배우	21.3	2.3	10.9	8.1
가구유형				
1인가구	8.2	2.1	4.1	7.9
부부가족	7.2	7.1	6.3	14.6
부/모+미혼자녀	74.1	8.9	79.5	15.1
확대가족	10.3	9.0	9.9	16.9
기타가족 ³⁾	0.2	2.8	0.2	5.2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8.7	95.1	15.2
미취업	8.5	3.4	4.9	10.6

주: 1) 전체 2,014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여행비를 지출하고 있는 1,110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교육비지출

조사가구의 월평균 성인교육비 지출은 2.0만 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2.2만원, 읍면부 1.2만원으로 동부가 약 1만원 정도 더 지출하고 있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2.7만원, 50대에서 1.8만원, 60대 이상에서 5천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2.3만원, 여자 3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 2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교육비지출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5만원 이상, 고등학교 졸업은 9천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지출수준이 높았다. 결혼상태 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2.5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4천원 이었으며, 가구유형별로는 부/모와 미혼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성인 교육비 지출이 월 2.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 중인 경우 2.1만원, 미취업의 경우 1.3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성인을 위한 교육비 지출이 있었다고 응답한 268가구의 월평균지출은 15.4만원이었으며,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의 경우 17.6만원, 50대 1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5.7만원, 여자 7.3만원이다. 또한 교육수준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18.8만원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9.3만원)보다는 중학교 졸업의 경우 11.2만원으로 성인교육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중학교 졸업자가 5.8%에 불과하여 대표적인 통계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6-9〉 조사가구의 교육비 지출 실태

(단위: 가구, 만원, %)

구 분	전체가구		해당가구	
	계 (명)	평균지출	계 (명)	평균지출
전체	100.0(2,014) ¹⁾	2.0	100.0(268) ²⁾	15.4
지역				
동부	82.7	2.2	90.1	15.3
읍·면부	17.3	1.2	9.9	16.4
연령				
40대 이하	34.5	2.7	39.1	17.6
50대	60.2	1.8	57.8	14.3
60대 이상	5.3	0.5	3.1	7.0
성				
남자	88.5	2.3	95.9	15.7
여자	11.5	0.3	4.1	7.3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9.6	0.1	1.7	3.8
중학교	17.3	0.5	5.8	11.2
고등학교	41.2	0.9	28.7	9.3
전문대학 이상	31.9	5.0	63.8	18.8
결혼상태				
유배우	78.7	2.5	95.0	15.6
무배우	21.3	0.4	5.0	11.3
가구유형				
1인가구	8.2	0.3	2.1	8.4
부부가족	7.2	1.0	5.6	9.2
부/모+미혼자녀	74.1	2.4	81.1	16.3
확대가족	10.3	1.9	11.1	13.4
기타가족 ³⁾	0.2	0.0	-	-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2.1	94.6	15.4
미취업	8.5	1.3	5.4	14.9

주: 1) 전체 2,014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성인을 위한 교육비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268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가족외식비 지출

조사가구의 월평균 외식비지출은 13.4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14만원, 읍면부 10.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14.5만 원, 50대에서 13.1만 원, 60대 이상에서 10만 원을 외식비에 사용하고 있어 좀 더 젊은 층에서 외식비지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구주 14.5만 원, 여자 가구주 5.1만 원을 차지해 9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가족외식비 지출의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21.7만원, 고등학교 졸업은 11.2만원, 중학교 졸업 7.9만원, 초등학교 및 이하의 교육수준에서 5.1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고학력의 경우 저학력의 경우보다 외식비지출수준이 높았다.

결혼상태 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5.5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6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가구유형별로는 부/모와 미혼자녀가 동거하는 가구의 외식비지출이 14.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1인 가구의 경우 5.5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 중인 경우 13.9만 원, 미취업의 경우 7.8만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6.1만 원 정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식비지출이 없다고 응답한 309가구를 제외한 가족외식비 지출은 월평균 15.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10〉 조사가구의 외식비 지출 실태

(단위: 가구, 만원, %)

구 분	전체가구		해당가구	
	계 (명)	평균지출	계 (명)	평균지출
전체	100.0(2,014) ¹⁾	13.4	100.0(1,704) ²⁾	15.8
지역				
동부	82.7	14.0	83.5	16.4
읍·면부	17.3	10.4	16.5	13.0
연령				
40대 이하	34.5	14.5	35.3	16.8
50대	60.2	13.1	59.8	15.5
60대 이상	5.3	10.0	4.9	12.7
성				
남자	88.5	14.5	91.1	16.6
여자	11.5	5.1	8.9	7.8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9.6	5.1	7.5	7.8
중학교	17.3	7.9	16.2	9.9
고등학교	41.2	11.2	41.1	13.3
전문대학 이상	31.9	21.7	35.2	23.2
결혼상태				
유배우	78.7	15.5	84.3	17.1
무배우	21.3	5.6	15.7	9.0
가구유형				
1인가구	8.2	5.5	4.7	11.5
부부가족	7.2	10.7	7.1	12.8
부/모+미혼자녀	74.1	14.6	77.5	16.5
확대가족	10.3	13.2	10.6	15.2
기타가족 ³⁾	0.2	2.6	0.1	4.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13.9	93.6	16.1
미취업	8.5	7.8	6.4	12.2

주: 1) 전체 2,014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외식비 지출이 있다고 응답한 1,70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저축수준

조사가구가 저축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지출은 평균 74.9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79.1만원, 읍면부 54.8만원으로 동부가 약 20만원 정도 더 저축하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경우 56.2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40대와 50대는 76만원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가가구주 80.4만원, 여자가가구주 32.5만원을 저축하고 있어 48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 별로는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122만원, 고등학교 졸업은 64만원, 중학교 졸업 41만원, 초등학교 및 이하의 교육수준에서 27만원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고학력의 저축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87.7만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27.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저축이 60만원 정도 많았다. 가구주유형별로는 부/모와 미혼자녀가구의 저축수준이 83.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의 경우에는 19.4만원에 불과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 중인 경우 75.6만원, 미취업의 경우 34.9만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40만원 정도 더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을 하지 않는 가구는 전체의 20.3%인 409가구로 이들을 제외한 1,604가구의 평균저축액은 월 93.9만원이었으며,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월 저축액이 135.3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경우보다 무려 80만원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소득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1〉 조사가구의 저축 및 보험료 지출 실태

(단위: 가구, 만원, %)

구 분	전체가구		해당가구	
	계 (명)	평균저축	계 (명)	평균저축
전 체	100.0(2,012) ¹⁾	74.9	100.0(1,604) ²⁾	93.9
지역				
동부	82.7	79.1	83.4	98.3
읍·면부	17.3	54.8	16.6	71.7
연령				
40대 이하	34.5	76.1	34.6	95.1
50대	60.2	75.8	60.4	94.8
60대 이상	5.3	56.2	5.0	75.6
성				
남자	88.5	80.4	91.3	97.7
여자	11.5	32.5	8.7	54.2
교육수준				
초등학교 및 이하	9.6	27.2	7.3	44.9
중학교	17.3	41.1	14.9	59.7
고등학교	41.2	63.9	41.8	79.1
전문대학 이상	31.9	121.7	36.0	135.3
결혼상태				
유배우	78.7	87.7	85.3	101.4
무배우	21.3	27.7	14.7	50.5
가구유형				
1인가구	8.2	19.4	5.3	38.0
부부가족	7.2	61.6	7.3	76.4
부/모+미혼자녀	74.1	83.1	76.9	100.5
확대가족	10.3	69.8	10.4	86.3
기타가족 ³⁾	0.2	51.2	0.1	83.1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5	78.6	93.9	96.1
미취업	8.5	34.9	6.1	60.8

주: 1) 전체 2,014 가구 중 무응답을 제외한 2,012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저축을 한다고 응답한 1,60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다. 미래의 불확실성 준비상황

1) 건강·요양 위험 대비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암 등의 질병, 진료비 본인부담 등의 실손보험, 교통상해 사고대비, 장기요양, 실버보험 등의 건강·요양 관련 위험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보면, 우선 본인의 경우 84.1%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83.8%, 읍·면부 지역의 경우 85.3%가 가입하고 있다. 출생년도 별 가입여부에서는 전기 베이비 부모들은 82.0%가 가입하고 있었으며, 후기 베이비 부모들은 86.4%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81.9%, 여자는 86.0%가 가입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 69.9%, 중학교 81.3%, 고등학교 86.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88.7%로 학력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87.0%, 배우자가 없는 경우 66.2%로 나타났으며, 가구유형별 가입률을 보면 1인 가구는 60.2%, 부부가족의 경우 87.7%,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85.6%, 확대가족의 경우 82.1%가 가입하고 있다.

현 취업상태에 따른 가입 여부를 보면 취업중인 경우 85.9%가 가입하고 있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가입률은 78.3%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 70.7%,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88.5%,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의 경우 92.3%가 가입하고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경우에도 85.2%가 가입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의 경우 85.5%, 읍·면부 지역의 경우 83.6%가 가입하고 있었다. 출생년도 별 가입여부에서는 전기 베이비 부모의 경우 82.6%, 후기 베이비 부모의 경우 88.2%가 가입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87.1%, 여자는 83.5%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 70.6%, 중학교의 경우 84.4%, 고등학교 85.6%, 전문대

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90.3%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취업상태에 따른 가입률은 취업중의 상태에 있는 경우 86.2%, 미취업자가 82.2%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 70.1%,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87.5%, 500만 원 이상의 경우 92.4%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요양위험에 대한 저축, 민간 보험 가입 여부

특성	본인				배우자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84.1	16.0	100.0	(3,027)	85.2	14.8	100.0	(2,602) ¹⁾
지역								
동부	83.8	16.2	100.0	(2,491)	85.5	14.5	100.0	(2,148)
읍·면부	85.3	14.7	100.0	(536)	83.6	16.4	100.0	(452)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2.0	18.0	100.0	(1,633)	82.6	17.4	100.0	(1,406)
1960~1963년생	86.4	13.6	100.0	(1,394)	88.2	11.8	100.0	(1,196)
성								
남자	84.4	15.6	100.0	(2,791)	87.1	12.9	100.0	(1,240)
여자	79.7	20.3	100.0	(236)	83.5	16.5	100.0	(1,36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9.9	30.1	100.0	(319)	70.6	29.4	100.0	(245)
중학교	81.3	18.7	100.0	(627)	84.4	15.6	100.0	(505)
고등학교	86.1	13.9	100.0	(1,331)	85.6	14.4	100.0	(1,153)
전문대학 이상	88.7	11.3	100.0	(750)	90.3	9.7	100.0	(699)
결혼상태								
유배우	87.0	13.0	100.0	(2,593)	-	-	-	-
무배우	66.2	33.8	100.0	(435)	-	-	-	-

(단위: 명)

〈표 6-12〉 계속

(단위: 명)

특성	본인				배우자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60.2	39.8	100.0	(166)	42.9	57.1	100.0	(7) ²⁾
부부가족	87.7	12.3	100.0	(85)	82.5	17.5	100.0	(286)
부/모+미혼자녀	85.6	14.4	100.0	(2,243)	86.0	14.0	100.0	(2,016)
확대가족	82.1	17.9	100.0	(330)	83.5	16.5	100.0	(291)
기타가족	75.0	25.0	100.0	(4) ²⁾	50.0	50.0	100.0	(2)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85.9	14.1	100.0	(2,299)	86.2	13.8	100.0	(1,944)
미취업	78.3	21.7	100.0	(728)	82.2	17.8	100.0	(65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0.7	29.3	100.0	(969)	70.1	29.9	100.0	(633)
300~500만 원 미만	88.5	11.5	100.0	(1,050)	87.5	12.5	100.0	(976)
500만 원 이상	92.3	7.7	100.0	(1,007)	92.4	7.6	100.0	(991)

주: 1)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2,60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사망위험 대비

‘중신보험이나 상호회사 등의 저축,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사망위험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우 35.9%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35.2%, 읍·면부 지역에서는 39.1%가 가입하고 있었으며,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31.8%, 후기 베이비 부머는 40.6%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39.6%가, 여자는 32.5%가 가입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 18.2%, 중학교 28.7%, 고등학교 37.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47.2%가 가입하고 있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37.8%, 배우자가 없는 경우 24.4%가 가입하고 있다. 가구유형별 가입률을 보면 1인 가구는 21.7% , 부부가족의 경우 29.1%, 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38.1%, 확대가족의 경우 34.2%로 나타났다.

현 취업상태에 따른 가입 여부를 보면, 취업중인 경우 38.2%, 미취업자가 28.4%가 가입하고 있었다. 끝으로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버는 경우 20.0%,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33.3%, 500만 원 이상의 경우 53.8%가 가입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36.5%가 가입하고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36.3%, 읍·면부 지역의 경우 37.5%가 가입하고 있었다. 출생년도 별 가입여부를 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는 33.2%가 가입하고 있었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는 40.4%가 가입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34.3%가, 여자는 38.6%가 가입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 17.1%, 중학교 31.9%, 고등학교 37.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45.6%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 가구는 42.9%, 부부가족의 경우 26.3%,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38.4%, 확대가족의 경우 33.7%가 가입하고 있었다. 또한 현 취업상태에 따른 가입률은 취업중인 경우 36.5%, 미취업자가 36.6%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별 구성으로 300만 원 미만의 경우 18.6%,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32.5%, 500만 원 이상의 소득에서는 51.9%가 가입하고 있다.

〈표 6-1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위험에 대한 저축, 민간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명)

특성	본인				배우자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35.9	64.1	100.0	(3,027)	36.5	63.5	100.0	(2,602) ¹⁾
지역								
동부	35.2	64.8	100.0	(2,491)	36.3	63.7	100.0	(2,149)
읍·면부	39.1	60.9	100.0	(537)	37.5	62.5	100.0	(453)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1.8	68.2	100.0	(1,633)	33.2	66.8	100.0	(1,405)
1960~1963년생	40.6	59.4	100.0	(1,394)	40.4	59.6	100.0	(1,196)
성								
남자	39.6	60.4	100.0	(1,433)	34.3	65.7	100.0	(1,241)
여자	32.5	67.5	100.0	(1,594)	38.6	61.4	100.0	(1,36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8.2	81.8	100.0	(319)	17.1	82.9	100.0	(245)
중학교	28.7	71.3	100.0	(627)	31.9	68.1	100.0	(505)
고등학교	37.1	62.9	100.0	(1,331)	37.2	62.8	100.0	(1,153)
전문대학 이상	47.2	52.8	100.0	(750)	45.6	54.4	100.0	(699)
결혼상태								
유배우	37.8	62.2	100.0	(2,593)	-	-	-	-
무배우	24.4	75.6	100.0	(434)	-	-	-	-
가구유형								
1인 가구	21.7	78.3	100.0	(166)	42.9	57.1	100.0	(7) ²⁾
부부가족	29.1	70.9	100.0	(285)	26.3	73.7	100.0	(285)
부/모+미혼자녀	38.1	61.9	100.0	(2,243)	38.4	61.6	100.0	(2,016)
확대가족	34.2	65.8	100.0	(330)	33.7	66.3	100.0	(291)
기타가족	0.0	100.0	100.0	(4) ²⁾	0.0	100.0	100.0	(2)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38.2	61.8	100.0	(2,299)	36.5	63.5	100.0	(1,943)
미취업	28.4	71.6	100.0	(728)	36.6	63.4	100.0	(65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0.0	80.0	100.0	(969)	18.6	81.4	100.0	(633)
300~500만 원 미만	33.3	66.7	100.0	(1,050)	32.5	67.5	100.0	(975)
500만 원 이상	53.8	46.2	100.0	(1,007)	51.9	48.1	100.0	(991)

주: 1)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2,60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노후소득 대비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저축, 민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경우 24.0%가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의 경우 25.6%, 읍면부 지역의 경우 16.2%가 가입하고 있다.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20.2%가 가입하고 있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는 28.3%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25.7%, 여자는 22.4%가 가입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 10.3%, 중학교 12.9%, 고등학교 22.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41.6%가 가입하고 있다.

결혼 상태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26.2%,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6%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14.5%, 부부가족의 경우 17.2%,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25.6%, 확대가족의 경우 23.3%가 가입하고 있다.

현 취업상태에 따른 가입률은 취업중인 경우 25.5%, 미취업자인 경우 19.1%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 5.9%,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20.6%, 500만 원 이상 소득의 경우에는 44.9%가 가입하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경우에는 24.6%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26.4%, 읍·면부 지역의 경우 15.7%가 가입하고 있다.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21.8%가 가입하고 있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 경우에는 다소 높은 27.8%가 가입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21.8%, 여자 27.0%가 가입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가 13.1%, 중학교 14.3%, 고등학교 23.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37.6%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 가구는 거의 가입하지 않았으며, 부부가족의 경우 17.5%,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25.6%, 확대가족의 경우

24.7%가 가입하고 있다.

현 취업상태에 따른 가입률은 취업중인 경우 23.5%, 미취업인 경우 27.7%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 6.0%,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18.9%,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에는 42.0%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저축, 민간 보험 가입 여부

특성	본인				배우자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24.0	76.0	100.0	(3,027)	24.6	75.4	100.0	(2,602) ¹⁾
지역								
동부	25.6	74.4	100.0	(2,491)	26.4	73.6	100.0	(2,149)
읍·면부	16.2	83.8	100.0	(536)	15.7	84.3	100.0	(453)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0.2	79.8	100.0	(1,633)	21.8	78.2	100.0	(1,406)
1960~1963년생	28.3	71.7	100.0	(1,394)	27.8	72.2	100.0	(1,196)
성								
남자	25.7	74.3	100.0	(1,433)	21.8	78.2	100.0	(1,241)
여자	22.4	77.6	100.0	(1,594)	27.0	73.0	100.0	(1,36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3	89.7	100.0	(319)	13.1	86.9	100.0	(244)
중학교	12.9	87.1	100.0	(627)	14.3	85.7	100.0	(504)
고등학교	22.5	77.5	100.0	(1,331)	23.5	76.5	100.0	(1,153)
전문대학 이상	41.6	58.4	100.0	(750)	37.6	62.4	100.0	(699)
결혼상태								
유배우	26.2	73.8	100.0	(2,593)	-	-	-	-
무배우	10.6	89.4	100.0	(435)	-	-	-	-
가구유형								
1인 가구	14.5	85.5	100.0	(166)	0.0	100.0	100.0	(7) ²⁾
부부가족	17.2	82.8	100.0	(285)	17.5	82.5	100.0	(286)
부/모+미혼자녀	25.6	74.4	100.0	(2,242)	25.6	74.4	100.0	(2,016)
확대가족	23.3	76.7	100.0	(330)	24.7	75.3	100.0	(291)
기타가족	25.0	75.0	100.0	(4) ²⁾	0.0	100.0	100.0	(2) ²⁾

(단위: %, 명)

〈표 6-14〉 계속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5	74.5	100.0	(2,300)	23.5	76.5	100.0	(1,943)
미취업	19.1	80.9	100.0	(728)	27.7	72.3	100.0	(65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9	94.1	100.0	(968)	6.0	94.0	100.0	(633)
300~500만 원 미만	20.6	79.4	100.0	(1,050)	18.9	81.1	100.0	(976)
500만 원 이상	44.9	55.1	100.0	(1,007)	42.0	58.0	100.0	(991)

주: 1)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2,60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목돈마련 저축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금, 갯돈 등의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본인의 경우 44.1%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44.5%, 읍·면부 지역에는 42.6%가 가입하고 있었다. 출생년도 별로는 전 기 베이비 부머는 43.8%, 후기 베이비 부머는 44.5%가 가입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36.1%, 여자는 51.4%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 33.9%, 중학교 39.3%, 고등학교 44.9%,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51.2%가 가입하고 있었다.

결혼 상태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45.0%, 배우자가 없는 경우 39.1%가 가입하고 있었으며, 가구유형별로는 1인 가구 41.8%, 부부가족의 경우 44.2%,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44.3%, 확대가족의 경우 44.8%가 가입하고 있었다.

현 취업상태에 따른 가입률을 보면, 취업중인 경우 42.8%, 미취업자 48.5%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 28.5%,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40.6%, 500만 원 이상의 경우 63.0%가 가입하고 있었다.

〈표 6-1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본인 및 배우자의 목돈마련에 대한 저축, 민간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특성	본인				배우자			
	예	아니오	계	(명)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44.1	55.9	100.0	(3,027)	40.3	59.7	100.0	(2,602) ¹⁾
지역								
동부	44.5	55.5	100.0	(2,490)	41.2	58.8	100.0	(2,149)
읍·면부	42.6	57.4	100.0	(537)	36.0	64.0	100.0	(453)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3.8	56.2	100.0	(1,633)	39.1	60.9	100.0	(1,405)
1960~1963년생	44.5	55.5	100.0	(1,394)	41.6	58.4	100.0	(1,196)
성								
남자	36.1	63.9	100.0	(1,433)	52.2	47.8	100.0	(1,241)
여자	51.4	48.6	100.0	(1,594)	29.5	70.5	100.0	(1,361)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9	66.1	100.0	(319)	20.1	79.9	100.0	(244)
중학교	39.3	60.7	100.0	(628)	33.1	66.9	100.0	(504)
고등학교	44.9	55.1	100.0	(1,331)	39.3	60.7	100.0	(1,153)
전문대학 이상	51.2	48.8	100.0	(750)	54.2	45.8	100.0	(699)
결혼상태								
유배우	45.0	55.0	100.0	(2,592)	-	-	-	-
무배우	39.1	60.9	100.0	(435)	-	-	-	-
가구유형								
1인 가구	41.8	58.2	100.0	(165)	0.0	100.0	100.0	(7) ²⁾
부부가족	44.2	55.8	100.0	(285)	32.3	67.7	100.0	(285)
부/모+미혼자녀	44.3	55.7	100.0	(2,243)	41.9	58.1	100.0	(2,017)
확대가족	44.8	55.2	100.0	(330)	38.1	61.9	100.0	(291)
기타가족	0.0	100.0	100.0	(4) ²⁾	50.0	50.0	100.0	(2)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42.8	57.2	100.0	(2,299)	44.2	55.8	100.0	(1,943)
미취업	48.5	51.5	100.0	(728)	28.9	71.1	100.0	(65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8.5	71.5	100.0	(968)	18.0	82.0	100.0	(634)
300~500만 원 미만	40.6	59.4	100.0	(1,050)	38.6	61.4	100.0	(976)
500만 원 이상	63.0	37.0	100.0	(1,007)	56.1	43.9	100.0	(992)

주: 1)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2,60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한편 배우자의 경우 40.3%가 가입하고 있었는데,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경우 41.2%, 읍·면부 지역 36.0%가 가입하고 있다.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39.1%가 가입하고 있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에는 41.6%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52.2%, 여자 29.5%가 가입하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경우 20.1%, 중학교의 경우 33.1%,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39.3%,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54.2%가 가입하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의 경우 거의 가입하지 않았으며, 부부가족의 경우 32.3%,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 41.9%, 확대가족의 경우 38.1%가 가입하고 있다.

현 취업상태에 따른 가입률은 취업중인 경우 44.2%, 미취업자가 28.9%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 18.0%,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38.6%, 5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56.1%가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소비스타일

1. 소비행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베이비 부머들이 가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45.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9%, ‘매우 그렇다’ 7.0%,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53.2%, 읍·면부에서는 47.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가 49.3%, 후기 베이비 부머가 5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보다 젊은 층의 소비정보수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48.3%, 여자는 55.8%로 나타나 여자가 좀 더 계획적인 소비

를 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3.0%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오히려 63.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육수준에 따라 소비를 위한 정보수집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와 가구유형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소비형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우선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53.5%, 배우자가 없는 경우 4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와 부부가족의 경우 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소비하는 정도가 각각 60.9%, 55.6%를 차지한 반면에,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와 확대가족은 정보수집 후 소비하는 경우가 각각 54.2%, 51.8%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구성원이 많을수록 정보수집 후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취업상태에 따른 정보수집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취업중인 경우 51.1%, 미취업인 경우는 55.8%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른 소비행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55.3%가 정보수집을 하지 않고 소비하고 있으며,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53.5%, 500만 원 이상의 소득군에서는 58.0%가 정보수집 후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정보이용 소비행태

(단위 :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7.0	45.2	40.9	6.9	100.0	(3,027)
지역						
동부	6.9	46.3	40.4	6.4	100.0	(2,491)
읍·면부	7.6	40.2	42.8	9.3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7.4	41.9	43.7	7.0	100.0	(1,632)
1960~1963년생	6.5	49.1	37.6	6.7	100.0	(1,394)
성						
남자	5.9	42.4	42.7	9.0	100.0	(1,433)
여자	8.1	47.7	39.2	5.0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0	31.0	44.5	18.5	100.0	(319)
중학교	5.9	40.6	45.9	7.6	100.0	(628)
고등학교	6.2	46.7	41.0	6.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9.9	52.3	34.8	3.1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6.9	46.6	40.3	6.2	100.0	(2,593)
무배우	7.6	36.6	44.5	11.3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6.0	33.1	48.2	12.7	100.0	(166)
부부가족	4.5	39.9	48.3	7.3	100.0	(286)
부/모+미혼자녀	7.3	46.9	39.4	6.3	100.0	(2,242)
확대가족	7.9	43.9	40.3	7.9	100.0	(330)
기타가족	0.0	50.0	5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6.8	44.3	41.6	7.4	100.0	(2,299)
미취업	7.7	48.1	38.7	5.5	100.0	(72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7	39.0	42.9	12.4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6.4	47.1	41.1	5.3	100.0	(1,050)
500만 원 이상	8.9	49.1	38.6	3.4	100.0	(1,00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모들의 소비가 어느 정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소비행위 시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69.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부의 경우 69.5%, 읍·면부의 경우 70.2%가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출생년도 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데 전기 베이비 부모의 68.5%, 후기 베이비 부모의 71.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근거리에서 빠른 구매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는 71.0%, 여자는 68.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욱 근거리에서 소비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 교육수준의 경우는 73.0%, 73.4%가,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각각 69.4%, 6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근거리의 소비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덜 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시간을 좀 더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으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각각 69.1%, 72.4%가 근거리의 소비를 지향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조금은 더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는 경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1인 가구와 확대가족이 각각 75.2%, 76.7%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부부가족과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경우가 65.6%, 68.7%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근거리의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취업상태에 따라서, 취업중인 경우 71.5%가 근거리의 소비행태를 지향하였고 미취업인 경우 63.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근거리의 소비행태를 지향하는 비율은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이 각각 70.8%, 69.0%, 69.3%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소비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표 6-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근접성 소비행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3.7	65.9	26.5	3.9	100.0	(3,027)
지역						
동부	3.7	65.8	26.9	3.7	100.0	(2,491)
읍·면부	4.1	66.1	24.6	5.2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8	64.7	27.2	4.3	100.0	(1,633)
1960~1963년생	3.7	67.3	25.6	3.4	100.0	(1,395)
성						
남자	3.4	67.6	24.7	4.3	100.0	(1,434)
여자	4.0	64.3	28.1	3.6	100.0	(1,5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9	66.0	20.8	6.3	100.0	(318)
중학교	4.9	68.5	22.6	4.0	100.0	(628)
고등학교	3.1	66.3	26.8	3.8	100.0	(1,330)
전문대학 이상	2.4	63.2	31.6	2.8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3.7	65.4	27.5	3.3	100.0	(2,593)
무배우	3.7	68.7	20.2	7.4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2.4	72.7	18.2	6.7	100.0	(165)
부부가족	7.0	58.6	32.6	1.8	100.0	(285)
부/모+미혼자녀	3.3	65.4	27.0	4.4	100.0	(2,243)
확대가족	4.2	72.4	21.8	1.5	100.0	(330)
기타가족	25.0	50.0	25.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3.7	67.8	24.9	3.6	100.0	(2,299)
미취업	3.7	60.0	31.3	4.9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1	64.7	23.8	5.5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3.0	66.0	27.6	3.4	100.0	(1,050)
500만 원 이상	2.3	67.0	27.8	2.9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감성적 소비행태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가격이 비싸도 디자인이나 색상이 마음에 들면 구매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63.4%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36.6%가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에서 63.2%, 읍·면부 64.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64.2%가,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62.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 76.9%, 중학교의 경우 72.4%, 고등학교의 경우 63.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50.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디자인과 색상을 우선하는 구매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38.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2.7%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배우자가 없는 경우 23.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유형별로는 1인가구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18.7%로 가장 낮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2.9%로 가장 높았다. 특히 부부가족의 경우 디자인이나 색상을 고려하는 구매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취업중인 경우 63.5%, 미취업인 경우 63.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분석으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색상·디자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인 경우 53.1%가 색상·디자인을 우선하였고, 300~500만 원 미만의 소득의 경우는 33.8%, 300만 원 미만의 소득에서는 22.4%가 가격이 비싸도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감성적 소비행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2.1	34.5	49.8	13.6	100.0	(3,027)
지역						
동부	2.3	34.5	49.8	13.4	100.0	(2,491)
읍·면부	1.3	34.3	50.1	14.3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7	34.1	50.9	13.3	100.0	(1,633)
1960~1963년생	2.7	34.8	48.7	13.8	100.0	(1,394)
성						
남자	2.0	34.9	49.7	13.4	100.0	(1,434)
여자	2.3	34.0	50.1	13.7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6	22.5	48.4	28.4	100.0	(320)
중학교	1.4	26.2	53.7	18.7	100.0	(627)
고등학교	1.7	34.6	51.5	12.2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4.1	46.3	44.3	5.3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2.1	36.8	49.2	11.9	100.0	(2,593)
무배우	2.5	20.2	53.8	23.4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3.6	15.1	58.4	22.9	100.0	(166)
부부가족	1.7	39.5	45.5	13.3	100.0	(286)
부/모+미혼자녀	2.1	35.2	49.9	12.8	100.0	(2,243)
확대가족	2.1	34.7	48.9	14.2	100.0	(331)
기타가족	0.0	25.0	25.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2.2	34.3	50.2	13.4	100.0	(2,299)
미취업	1.9	34.9	49.0	14.2	100.0	(72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0.7	21.7	56.6	21.1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1.8	32.0	51.0	15.2	100.0	(1,049)
500만 원 이상	3.8	49.4	42.2	4.7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독립적인 소비행태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중 42.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57.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42.6%가, 읍·면부의 경우 41.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읍·면부의 경우 조금 더 보수적인 소비행태를 취하고 있었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 40.4%가, 후기 베이비 부머가 44.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45.6%, 여자가 39.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이 보다 독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이하의 경우 71.8%, 중학교 61.7%, 고등학교 57.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51.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타인을 덜 의식한 소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43.3%가 독립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5.3%가 독립적인 소비를 하고 있을 뿐, 64.7%는 타인을 의식하는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부부가족과 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42.3%, 43.8%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와 확대가족의 경우에는 각각 33.3%, 36.1%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상태에 따른 소비행태를 보면, 취업중인 경우 42.7%, 미취업인 경우 40.3%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독립적인 소비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30.7%,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39.2%, 500만 원 이상의 경우 56.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소득이 많을수록 독립적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독립적 소비행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2.5	39.7	43.7	14.2	100.0	(3,027)
지역						
동부	2.1	40.5	43.6	13.8	100.0	(2,490)
읍·면부	4.3	35.9	44.1	15.6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3	38.1	45.0	14.6	100.0	(1,633)
1960~1963년생	2.9	41.5	42.1	13.6	100.0	(1,394)
성						
남자	3.2	42.4	39.6	14.9	100.0	(1,434)
여자	1.9	37.2	47.3	13.5	100.0	(1,5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6	26.6	49.8	21.9	100.0	(319)
중학교	1.1	37.2	43.5	18.2	100.0	(627)
고등학교	2.9	39.2	43.9	13.9	100.0	(1,330)
전문대학 이상	3.3	48.1	40.8	7.7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2.4	40.9	43.8	12.8	100.0	(2,593)
무배우	3.2	32.1	42.7	22.0	100.0	(436)
가구유형						
1인 가구	1.8	31.5	42.4	24.2	100.0	(165)
부부가족	3.1	39.2	43.0	14.7	100.0	(286)
부/모+미혼자녀	2.5	41.3	43.9	12.3	100.0	(2,243)
확대가족	2.4	33.7	42.9	21.0	100.0	(329)
기타가족	20.0	20.0	40.0	20.0	100.0	(5)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2.9	39.8	42.6	14.6	100.0	(2,299)
미취업	1.2	39.1	47.0	12.7	100.0	(72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2.3	28.4	49.7	19.6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2.4	36.8	44.7	16.2	100.0	(1,050)
500만 원 이상	2.9	53.6	36.7	6.8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소비트렌드

핸드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경향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2%,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9.7%, ‘그렇다’는 응답이 16.4%,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19.5%, 읍·면부 13.0%로 나타나 동부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15.4%,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21.7%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한 소비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20.5%, 여자가 16.5%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 3.1%, 중학교 6.9%, 고등학교 17.6%, 전문대학 이상 35.7%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3%, 없는 경우 12.1%가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가구유형별로는 가족구성원이 많을수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 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20.0%, 확대 가족 17.0%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부부가족의 경우 12.6%, 1인 가구는 10.2%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20.0%, 미취업의 경우 13.0%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7.8%, 300~500만 원 미만의 소득의 경우 17.5%, 500만 원 이상은 29.3%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모바일기기 이용한 금융서비스, 상품 구매의 소비
경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9	16.4	42.2	39.7	100.0	(3,027)
지역						
동부	2.0	17.5	42.9	37.7	100.0	(2,491)
읍·면부	1.5	11.5	37.8	49.2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7	13.7	41.6	43.0	100.0	(1,633)
1960~1963년생	2.2	19.6	42.5	35.8	100.0	(1,394)
성						
남자	2.9	17.6	42.5	37.0	100.0	(1,434)
여자	1.1	15.4	41.5	42.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3	2.8	32.4	64.5	100.0	(318)
중학교	0.8	6.1	41.9	51.3	100.0	(628)
고등학교	1.7	15.9	44.2	38.2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4.0	31.7	42.3	22.0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1.9	17.4	43.1	37.6	100.0	(2,591)
무배우	1.8	10.3	35.6	52.2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3.0	7.2	36.7	53.0	100.0	(166)
부부가족	0.7	11.9	45.3	42.1	100.0	(285)
부/모+미혼자녀	2.1	17.9	42.0	38.1	100.0	(2,243)
확대가족	1.8	15.2	41.9	41.0	100.0	(329)
기타가족	0.0	0.0	25.0	7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2.4	17.6	41.8	38.1	100.0	(2,300)
미취업	0.3	12.8	42.4	44.5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0.6	7.2	38.1	54.1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2.4	15.1	43.0	39.5	100.0	(1,050)
500만 원 이상	2.7	26.6	44.8	25.8	100.0	(1,00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신보다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경향을 분석한 결과 68.2%가 ‘그렇다’, 12.6%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보여 총 80.8%가 가족과 자녀를 위해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6%,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동부는 82.3%, 읍·면부는 73.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동부지역이 조금 더 자녀와 가족을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출생년도 별로 구분해 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77.9%,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84.1%가 자신보다 자녀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베이비 부머들의 가족지향 소비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76.0%, 여자가 84.9% 가족을 위해 소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 73.1%, 중학교 77.8%, 고등학교 82.3%,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83.5%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 소비한다고 응답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가족을 위한 소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와 가족을 위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84.8%,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경우 가족과 자녀를 위한 소비 비율이 가장 높아 87.1%에 이르고, 그 다음으로는 확대가족에서 80.3%, 부부가족 64.0%, 1인 가구는 25.3%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84.4%, 미취업의 경우 81.9%가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 소비한다고 응답하여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이 68.5%, 300~500만 원 미만이 88.1%, 5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84.9%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가구소득 300~500만 원 미만인 중산층인 가구가 자신보다는 가족과 자녀를 위한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소비경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2.6	68.2	16.6	2.6	100.0	(3,027)
지역						
동부	12.7	69.6	15.5	2.3	100.0	(2,490)
읍·면부	11.9	61.9	21.8	4.3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2.6	65.3	19.4	2.8	100.0	(1,633)
1960~1963년생	12.6	71.5	13.4	2.5	100.0	(1,394)
성						
남자	10.1	65.9	20.4	3.6	100.0	(1,433)
여자	14.7	70.2	13.2	1.9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9.4	63.8	18.8	8.1	100.0	(320)
중학교	11.8	66.0	19.1	3.0	100.0	(627)
고등학교	13.0	69.3	15.5	2.2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3.7	69.7	15.6	0.9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13.2	71.6	14.3	0.9	100.0	(2,593)
무배우	8.7	47.6	30.6	13.1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0.6	24.7	47.0	27.7	100.0	(166)
부부가족	7.0	57.0	33.8	2.1	100.0	(284)
부/모+미혼자녀	13.8	73.3	12.1	0.8	100.0	(2,243)
확대가족	14.8	65.5	17.0	2.7	100.0	(0,330)
기타가족	25.0	25.0	5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4	68.0	17.1	2.5	100.0	(2,299)
미취업	13.2	68.7	15.1	3.0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9.4	59.1	24.7	6.8	100.0	(970)
300~500만 원 미만	15.2	72.9	11.0	1.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12.9	72.0	14.6	0.5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소비를 하는 경향을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53.0%로 가장 많고, ‘그렇다’는 비율이 32.5%,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1%,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2.4%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36.2%, 읍·면부의 27.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동부지역이 조금 더 친환경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31.4%,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38.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젊은 층의 친환경제품 소비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33.0%, 여자가 36.1%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성이 보다 친환경제품 소비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친환경제품을 지향하는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이하 14.7%, 중학교 28.5%, 고등학교 32.9%,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51.1%가 친환경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37.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9.1%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고, 가구유형별로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친환경제품 소비 비율이 37.7%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부가족에서 31.2%, 확대가족 24.0%, 1인 가구는 20.5%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33.1%, 미취업의 경우 39.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미취업인 여성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소비경향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데, 300만 원 미만의 경우 18.4%, 300~500만 원 미만의 소득의 경우 33.2%, 500만 원 이상의 경우 51.7%로 친환경제품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격보다 친환경제품을 우선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6-2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친환경제품 우선구매경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2.1	32.5	53.0	12.4	100.0	(3,027)
지역						
동부	2.3	33.9	52.1	11.6	100.0	(2,490)
읍·면부	1.5	25.7	56.8	16.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3	29.1	55.3	13.3	100.0	(1,633)
1960~1963년생	2.0	36.4	50.2	11.3	100.0	(1,394)
성						
남자	1.7	31.3	52.0	15.0	100.0	(1,433)
여자	2.6	33.5	53.8	1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3	14.4	56.7	28.5	100.0	(319)
중학교	1.4	27.1	55.0	16.4	100.0	(627)
고등학교	1.7	31.2	55.9	11.2	100.0	(1,330)
전문대학 이상	4.4	46.7	44.5	4.4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2.4	34.8	52.8	9.9	100.0	(2,593)
무배우	0.7	18.4	53.7	27.2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0.6	19.9	44.6	34.9	100.0	(166)
부부가족	0.7	30.5	53.3	15.4	100.0	(285)
부/모+미혼자녀	2.3	35.4	52.2	10.1	100.0	(2,243)
확대가족	3.0	21.0	62.0	14.0	100.0	(329)
기타가족	0.0	0.0	25.0	7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2.2	30.9	54.8	12.0	100.0	(2,298)
미취업	1.9	37.2	47.1	13.7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0.5	17.9	57.4	24.3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2.3	31.0	58.0	8.8	100.0	(1,050)
500만 원 이상	3.6	48.2	43.4	4.9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활동을 통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45.9%,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41.9%를 차지하여 총 87.8%가 인터넷이나 카페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0.8%,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13.2%, 읍·면부의 경우 7.8%가 취미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 10.6%, 후기 베이비 부머 14.1%로 나타나 보다 젊은 층에서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좀 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 17.3%가, 여자의 경우 7.6%가 인터넷과 카페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남자가 조금 더 인터넷활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더욱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이하 0.3%, 중학교 5.2%, 고등학교 11.4%,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24.6%가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활동을 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2.8%, 배우자가 없는 경우 8.1%만이 인터넷활용을 통하여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가구유형별로 취미활동 여부를 보면 확대가족의 경우 13.4%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미혼자녀 가족 12.6%, 1인 가구 10.8%, 부부가족 7.4%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에는 13.3%가 인터넷을 활용한 취미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미취업인 경우 8.5%에 불과했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경우 5.8%, 300~500만 원 미만의 경우 12.1%, 500만 원 이상의 경우 18.4%가 인터넷 활용을 통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IT를 이용한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인터넷동호회나 카페활동을 통한 취미활동 경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4	10.8	45.9	41.9	100.0	(3,027)
지역						
동부	1.6	11.6	46.9	40.0	100.0	(2,490)
읍·면부	0.7	7.1	41.4	50.7	100.0	(0,538)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3	9.3	45.2	44.2	100.0	(1,632)
1960~1963년생	1.6	12.5	46.7	39.2	100.0	(1,395)
성						
남자	2.7	14.6	45.2	37.6	100.0	(1,434)
여자	0.3	7.3	46.6	45.8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0.3	35.7	63.9	100.0	(319)
중학교	0.3	4.9	41.1	53.7	100.0	(628)
고등학교	0.5	10.9	47.6	41.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4.7	19.9	51.1	24.3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1.5	11.3	47.3	39.9	100.0	(2,592)
무배우	0.7	7.4	37.8	54.1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1.8	9.0	35.5	53.6	100.0	(166)
부부가족	0.7	6.7	42.1	50.5	100.0	(285)
부/모+미혼자녀	1.5	11.1	47.3	40.0	100.0	(2,243)
확대가족	0.9	12.5	45.0	41.6	100.0	(329)
기타가족	0.0	0.0	25.0	7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	11.6	47.0	39.7	100.0	(2,300)
미취업	0.3	8.2	42.6	48.9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0.1	5.7	40.2	54.0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1.3	10.8	46.6	41.3	100.0	(1,050)
500만 원 이상	2.7	15.7	50.8	30.8	100.0	(1,00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0대 이후 새로 시작한 취미나 문화활동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72.5%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동부의 29.5%, 읍·면부의 19.7%정도가 새롭게 시작한 취미, 문화활동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26.0%,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29.7%가 새로운 취미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31.2% 여자가 24.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새로운 취미와 문화에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가 12.2%, 중학교는 17.7%가 취미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25.4%,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은 47.0%가 새로운 취미와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년기에 새로운 문화활동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29.7%, 배우자가 없는 경우 15.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새로운 취미나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아 30.3%를 차지하였고, 확대가족, 부부가족, 1인 가구 순으로 각각 25.2%, 17.6%, 16.2% 정도로 40대 이후 새로운 취미와 문화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27.5%가, 미취업인 경우 28.3%정도로 새로운 취미나 문화활동에 참여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새로운 취미와 문화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00만 원 이상의 가구소득군에서는 43.9%가, 300~5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25.3%가 새로운 문화와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3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군에서는 13.5%정도만 40대 이후에 새로운 문화와 취미활동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40대 이후 새로 시작한 취미·문화활동 여부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2.1	25.6	50.3	22.2	100.0	(3,027)
지역						
동부	2.0	27.4	50.3	20.2	100.0	(2,491)
읍·면부	2.6	17.1	50.1	30.2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7	24.3	51.7	22.3	100.0	(1,632)
1960~1963년생	2.7	27.0	48.7	21.6	100.0	(1,395)
성						
남자	2.9	28.3	47.6	21.2	100.0	(1,434)
여자	1.4	23.1	52.8	22.6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3	11.9	46.9	40.9	100.0	(320)
중학교	1.0	16.7	53.8	28.5	100.0	(628)
고등학교	1.9	23.5	53.3	21.3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4.5	42.5	43.4	9.6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2.2	27.5	49.7	20.6	100.0	(2,593)
무배우	1.8	14.0	53.8	30.3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4.2	12.0	56.6	27.1	100.0	(166)
부부가족	1.8	15.8	52.8	29.6	100.0	(284)
부/모+미혼자녀	1.9	28.4	49.3	20.5	100.0	(2,243)
확대가족	3.3	21.9	52.0	22.8	100.0	(329)
기타가족	0.0	25.0	25.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	25.2	49.9	22.5	100.0	(2,300)
미취업	1.5	26.8	51.5	20.2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0.6	12.9	52.7	33.8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2.0	23.3	51.8	22.9	100.0	(1,050)
500만 원 이상	3.8	40.1	46.5	9.6	100.0	(1,00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음식, 예술·문화상품, 여행상품 등의 관심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3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35.6%, 읍·면부의 27.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관심을 보였다.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31.9%,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는 36.6%로 보다 젊은 층에서 타문화와 여행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34.5%, 여자가 33.7%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경우 54.3%가 타문화의 음식, 예술, 여행에 관심을 보였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순으로 각각 33.0%, 22.0%, 15.3% 비율로 관심을 보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타문화에 대한 여행, 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35.8%, 배우자가 없는 경우 23.9%의 관심을 보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좀 더 타문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가족구성원이 많아질수록 더욱 타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확대가족, 부/모와 미혼자녀구성가족, 부부가족, 1인 가구 순으로 각각 37.5%, 35.8%, 24.9%, 22.4% 비율로 타문화의 여행, 문화 등에 관심을 보였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중인 경우 33.6%, 미취업인 경우 35.8% 정도로 타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 21.9%, 300~500만 원 미만 31.9%,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48.4%가 타문화에 관심을 보여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타문화의 음식, 예술과 문화상품, 여행상품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다른 나라의 음식, 예술·문화상품, 여행상품에 대한 관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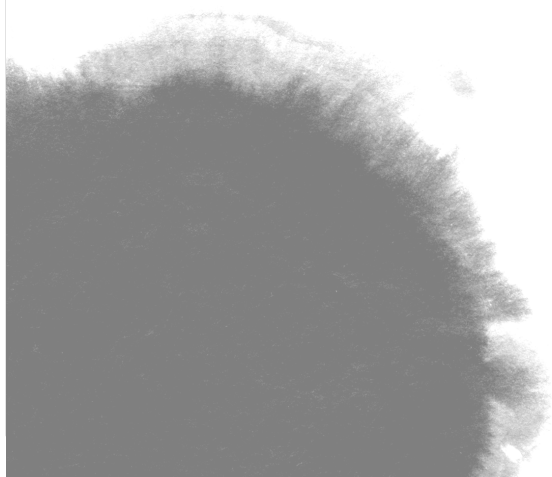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3.9	30.3	46.1	19.7	100.0	(3,027)
지역						
동부	4.2	31.4	46.6	17.8	100.0	(2,490)
읍·면부	2.2	24.8	44.0	28.9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4	28.5	47.0	21.1	100.0	(1,633)
1960~1963년생	4.3	32.3	45.1	18.3	100.0	(1,395)
성						
남자	4.3	30.2	45.4	20.0	100.0	(1,433)
여자	3.4	30.3	46.7	19.6	100.0	(1,5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9	14.4	50.3	34.4	100.0	(320)
중학교	1.1	20.9	49.4	28.6	100.0	(626)
고등학교	2.9	30.1	47.0	20.1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8.9	45.4	40.1	5.6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4.2	31.6	46.3	17.9	100.0	(2,593)
무배우	1.6	22.3	45.1	31.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3.0	19.4	49.1	28.5	100.0	(165)
부부가족	3.5	21.4	49.5	25.6	100.0	(285)
부/모+미혼자녀	4.1	31.7	45.7	18.6	100.0	(2,242)
확대가족	3.3	34.2	44.2	18.2	100.0	(330)
기타가족	0.0	0.0	50.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4.0	29.6	46.5	19.9	100.0	(2,298)
미취업	3.3	32.5	44.8	19.4	100.0	(72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8	20.1	45.8	32.3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3.1	28.8	50.0	18.2	100.0	(1,049)
500만 원 이상	6.7	41.7	42.2	9.4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07

경제활동



제7장 경제활동

본장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 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 실태 및 최장기종사직종과 종사상의 지위, 종사기간, 직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40대 이후에 현업에서 퇴직한 경험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1 절 현재의 경제활동 실태

베이비 부머의 95.4%는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99.9%, 여성의 경우에도 91.4%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의 95%가, 그리고 후기 베이비 부머의 95.9%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1〉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경제활동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1959년생	1960~1963년생	남자	여자
유경험	95.4	95.0	95.9	99.9	91.4
무경험	4.6	5.0	4.1	0.1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207)	(1,633)	(1,394)	(1,433)	(1,594)

지역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의 95.2%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으며 읍면부 중심의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96.5%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와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 간에 경제활동 경험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하지만 오히려 초졸 및 중졸 이하 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경제활동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유경험	95.4	95.2	96.5	95.6	96.2	95.3	95.1
무경험	4.6	4.8	3.5	4.4	3.8	4.7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207)	(2,491)	(537)	(319)	(627)	(1,331)	(750)

베이비 부머의 14%가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 전문직 종사, 14.8%가 사무직 종사자, 26.2%가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2.6%가 숙련직 및 기능직 종사자, 6.5%가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4%가 단순노무종사자, 1.2%가 군인으로 나타나 사무직을 비롯해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과 단순노무직 및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 블루칼라 직업계층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전문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

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 숙련기능직과 단순노무직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최장기 종사 직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60~	남자	여자
		1959년생	1963년생		
관리자	4.6	4.5	4.6	8.2	1.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4	6.8	12.4	10.5	8.4
사무종사자	14.8	13.0	17.0	14.0	15.5
서비스 종사자	12.1	13.6	10.5	5.1	19.1
판매종사자	14.1	14.6	13.5	10.5	17.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7.7	4.3	5.8	6.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6.4	16.7	25.3	8.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5	7.4	5.5	11.0	2.1
단순노무종사자	14.4	15.1	13.7	7.0	21.8
군인	1.2	0.6	1.9	2.4	0.0
기타	0.1	0.1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0) ¹⁾	(1,551)	(1,338)	(1,432)	(1,457)

주: 1)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8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교육수준별로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표 7-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최장기 종사 직종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관리자	4.6	5.1	2.1	0.3	0.2	2.9	13.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4	10.9	2.7	0.3		2.3	34.1
사무종사자	14.8	16.2	8.3		3.3	17.1	26.9
서비스 종사자	12.1	12.5	10.4	12.7	14.9	15.3	3.8
판매종사자	14.1	14.8	10.8	7.2	14.7	17.9	9.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2.7	22.0	20.3	10.4	3.4	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5	16.8	15.2	19.9	21.2	20.0	4.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5	6.0	9.1	6.9	8.9	7.6	2.5
단순노무종사자	14.4	14.4	14.6	32.4	26.1	11.8	1.5
군인	1.2	0.4	4.8	0.0	0.3	1.5	2.1
기타	0.1	0.1	0.0	0.0	0.0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0) ¹⁾	(2,371)	(519)	(306)	(605)	(1,268)	(713)

주: 1)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8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41.1%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며 자영업자의 비율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60년대 이후 출생한 후기 베이비 부머는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단독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50.5%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며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시직 임금근로자와 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표 7-5〉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최종 종사상의 지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41.1	36.9	45.9	50.5	31.8
임시직 임금근로자	10.5	9.3	11.7	3.9	16.9
일용직 임금근로자	11.7	13.2	10.0	9.8	13.6
고용주	8.2	8.6	7.7	11.0	5.5
단독자영업자	20.0	21.9	17.8	23.7	16.4
무급가족종사자	8.3	9.9	6.4	0.8	15.6
기타	0.2	0.1	0.4	0.4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0) ¹⁾	(1,551)	(1,338)	(1,432)	(1,457)

주: 1) 경제활동 경험 있다고 응답한 2,8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지역별로 보았을 때 도시지역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43.8%인 반면 읍면부 중심의 농어촌지역은 단독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6〉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최종 종사상의 지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상용직 임금근로자	41.1	43.8	28.8	18.1	26.1	40.2	65.4
임시직 임금근로자	10.5	11.1	7.7	14.1	13.3	11.6	4.3
일용직 임금근로자	11.7	12.0	10.6	23.7	20.6	10.2	2.0
고용주	8.2	8.6	6.4	2.6	4.2	8.0	14.3
단독자영업자	20.0	18.1	28.6	24.0	22.9	21.8	12.6
무급가족종사자	8.3	6.4	17.0	17.4	13.0	7.7	1.4
기타	0.2	0.0	1.0	0.0	0.0	0.5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0) ¹⁾	(2,371)	(519)	(306)	(605)	(1,268)	(713)

주: 1) 경제활동 경험 있다고 응답한 2,8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4.1%는 최장기종사직종에 30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년 이하로 단기 종사한 경우가 11.1%에 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의 1%가 5년 이하의 단기 근속을 한 반면 완전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20년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근속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5년 미만(22.2%), 5년~10년 이하(19.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7-7〉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최장 종사직종의 종사기간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5년 미만	11.7	11.0	12.5	1.0	22.2
5년~10년 이하	19.4	17.3	21.8	8.9	29.6
10년~20년 이하	36.9	34.1	40.2	41.9	32.1
20년~30년 이하	27.9	30.8	24.5	41.9	14.1
30년 이상	4.1	6.7	1.0	6.3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0) ¹⁾	(1,553)	(1,337)	(1,431)	(1,457)

주: 1)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8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읍면부에 비해 5년 이하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12.7%, 5년~10년 이하의 근속비율이 21%로 월등히 높으며, 반면 읍면부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41.7%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부분적으로 종사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또는 고졸의 중간 학력 계층에서 5년 이하의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10~20년 이하 근속의 비율이 42.5%로 가장 높다. 반면 학력수준이 초졸이하로 낮은 경우 30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7-8〉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최장 종사직종의 종사기간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5년 미만	11.7	12.7	7.1	7.2	11.9	14.8	7.9
5년~10년 이하	19.4	21.0	12.2	20.7	18.9	21.8	15.0
10년~20년 이하	36.9	36.5	39.0	31.8	37.9	34.6	42.5
20년~30년 이하	27.9	26.6	33.8	33.1	24.5	24.9	33.8
30년 이상	4.1	3.2	7.9	7.2	6.8	3.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89) ¹⁾	(2,371)	(518)	(308)	(604)	(1,269)	(713)

주: 1)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8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79.7%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베이비 부머의 비율은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79.7% 가운데 25.5%는 현재 최장기간 종사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2%는 최장종사직종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전기 베이비 부머 가운데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과, 최장 종사 직종에 여전히 종사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재 취업상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일을 하고 있음					
최장종사직종과 다른 일	20.2	21.1	19.2	25.4	15.2
최장종사직종과 유사한 일	5.3	5.0	5.6	4.7	5.9
최장종사직종과 같은 일	54.2	51.5	57.4	63.3	45.2
일을 하지 않음	20.3	22.4	17.8	6.6	3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0) ¹⁾	(1,551)	(1,338)	(1,432)	(1,457)

주: 1)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8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지역별로는 읍면부 지역에 비해 동부 지역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최장종사직종과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7-10〉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재 취업상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일을 하고 있음							
최장종사직종과 다른 일	20.2	20.3	20.0	17.4	19.2	19.5	23.6
최장종사직종과 유사한 일	5.3	5.6	3.9	3.0	6.3	5.2	5.6
최장종사직종과 같은 일	54.2	52.0	64.0	57.9	51.7	53.9	55.1
일을 하지 않음	20.3	22.1	12.1	21.7	22.7	21.4	1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90) ¹⁾	(2,371)	(519)	(306)	(605)	(1,268)	(713)

주: 1)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8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 가운데 사무직 이상의 화이트칼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 같은 고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4.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27.7%, 숙련 기능직 종사자가 29.3%,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17.5%로 직업계층 간에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출생년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부머가 사무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성별로 여성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남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와 같은 상위 직업군과 기능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7-11〉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관리자	8.0	6.4	9.8	12.4	2.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3	6.8	11.9	10.3	7.9
사무종사자	6.8	5.1	8.6	6.7	7.0
서비스 종사자	13.5	15.6	11.3	5.0	25.3
판매종사자	14.2	14.4	14.1	12.3	16.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6	8.1	4.9	5.5	8.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6	13.8	13.5	20.4	4.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1	10.3	7.8	14.1	2.3
단순노무종사자	17.5	18.6	16.3	11.4	26.0
군인	1.1	0.6	1.7	1.9	0.0
기타	0.2	0.3	0.1	0.0	0.5
계 (명)	100.0 (2,302) ¹⁾	100.0 (1,202)	100.0 (1,100)	100.0 (1,338)	100.0 (966)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12〉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업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관리자	8.0	9.2	3.5	0.4	0.9	5.0	2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3	10.9	2.4	0.4	0.2	2.7	30.7
사무종사자	6.8	7.7	3.1	0.0	0.9	8.4	11.5
서비스 종사자	13.5	14.1	11.2	12.1	17.0	17.0	5.5
판매종사자	14.2	15.3	10.1	6.3	14.4	16.9	12.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6	2.2	24.3	20.5	12.0	4.0	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3.6	14.1	11.8	13.4	14.4	18.3	5.5
장치·기계조작 및 조 립종사자	9.1	8.9	10.3	7.9	10.3	11.4	4.8
단순노무종사자	17.5	17.2	18.6	38.9	29.8	14.8	3.8
군인	1.1	0.3	4.6	0.0	0.2	1.2	2.0
기타	0.2	0.3	0.0	0.0	0.0	0.3	0.3
계 (명)	100.0 (2,302) ¹⁾	100.0 (1,849)	100.0 (456)	100.0 (239)	100.0 (466)	100.0 (996)	100.0 (600)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부머 가운데 31.9%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며 22.5%는 단독 자영업자, 그리고 8.8%는 고용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임시직 및 일용직과 같이 종사상의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도 28.4%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가 상용직 임금근로의 비율이 높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그러하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임시직 및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현업의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7-1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의 종사상 지위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1959	1960~1963	남자	여자
상용직 임금근로자	31.9	28.0	36.2	40.3	20.4
임시직 임금근로자	13.4	12.8	14.0	8.1	20.7
일용직 임금근로자	15.0	16.5	13.4	12.6	18.3
고용주	8.8	9.0	8.6	11.6	4.9
단독자영업자	22.5	24.0	20.9	26.3	17.3
무급가족종사자	8.3	9.6	6.8	1.0	18.3
기타	0.1	0.1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02) ¹⁾	(1,202)	(1,100)	(1,338)	(966)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1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업의 종사상 지위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상용직 임금근로자	31.9	34.5	21.3	13.9	17.3	30.4	52.8
임시직 임금근로자	13.4	13.2	14.3	16.5	14.8	15.6	7.5
일용직 임금근로자	15.0	15.6	12.3	26.6	23.8	14.4	4.5
고용주	8.8	9.7	5.1	2.5	4.9	6.7	17.7
단독자영업자	22.5	20.7	29.9	24.1	23.3	25.5	16.3
무급가족종사자	8.3	6.2	16.9	16.5	15.6	7.2	1.2
기타	0.1	0.1	0.2	0.0	0.2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02) ¹⁾	(1,849)	(456)	(239)	(466)	(996)	(600)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현업 종사기간을 분석한 결과, 22.9%는 현업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하의 짧은 기간인 반면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도 32.6%에 달해 여전히 생애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장기근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여성의 경우 54.9%가 10년 이하의 종사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의 종사기간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60~	남자	여자
		1959년생	1963년생		
5년 미만	22.9	21.4	24.6	16.0	32.5
5년~10년 이하	18.3	17.4	19.3	15.3	22.4
10년~20년 이하	26.2	24.0	28.6	26.2	26.3
20년~30년 이하	28.2	29.7	26.5	36.9	16.1
30년 이상	4.4	7.5	1.0	5.6	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02) ¹⁾	(1,204)	(1,098)	(1,377)	(996)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지역적으로는 동부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이 읍·면부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 지역에 비해 현업의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41.2%이다. 유사하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으며 고졸 또는 중졸 이하의 중간 학력 계층에서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짧은 근속기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6〉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5년 이하	22.9	24.0	18.4	20.4	23.3	25.2	19.8
5년~10년 이하	18.3	19.4	13.8	15.4	16.9	19.4	18.7
10년~20년 이하	26.2	26.1	26.5	22.5	27.8	25.8	27.2
20년~30년 이하	28.2	27.1	32.9	33.3	25.3	25.1	33.7
30년 이상	4.4	3.4	8.3	8.3	6.6	4.6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02) ¹⁾	(1,848)	(456)	(240)	(467)	(997)	(600)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전체적으로 베이비 부머의 55.7%는 현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1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현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만족도의 차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현업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앞의 종사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저학력층일수록 현업에 오래 종사한 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고학력층일수록 현업에 종사한 기간은 짧은 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현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7-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업의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계	(명)
전체	9.6	46.1	24.7	17.6	2.1	100.0	(2,300) ¹⁾
지역							
동부	9.5	46.5	24.9	17.0	2.1	100.0	(1,848)
읍·면부	9.9	44.5	23.7	19.7	2.2	100.0	(45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7.3	47.1	24.5	18.9	2.2	100.0	(1,203)
1960~1963년생	12.0	45.0	24.8	16.2	2.0	100.0	(1,100)
성							
남자	10.4	47.7	23.3	16.2	2.5	100.0	(1,336)
여자	8.4	43.9	26.6	19.6	1.6	100.0	(96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1	37.4	27.7	29.0	3.8	100.0	(238)
중학교	4.7	44.3	24.8	24.0	2.1	100.0	(467)
고등학교	8.0	45.5	27.3	17.0	2.2	100.0	(997)
전문대학 이상	18.7	52.0	19.0	9.3	1.0	100.0	(600)
결혼상태							
유배우	9.7	47.2	25.1	16.5	1.5	100.0	(1,937)
무배우	8.8	40.5	22.5	23.3	4.9	100.0	(365)
가구유형							
1인 가구	11.8	38.9	24.3	20.1	4.9	100.0	(144)
부부가족	5.9	43.6	26.7	21.8	2.0	100.0	(202)
부/모+미혼자녀	10.1	48.0	23.8	16.2	1.9	100.0	(1,696)
확대가족	7.7	39.8	29.0	22.0	1.5	100.0	(259)
기타가족	-	-	-	-	-	100.0	-
가구소득수준							
300만 원미만	5.2	35.6	29.9	24.7	4.5	100.0	(728)
300~500만원만	6.8	47.8	25.7	18.8	0.8	100.0	(834)
500만 원이상	16.8	54.6	18.4	9.1	1.1	100.0	(738)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실제 현업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베이비 부머의 77.8%가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3.4%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업 지속 의지는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강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이고 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현업 지속 의지가 강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양한 가구 형태 가운데서 독거 가구의 경우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업에 대한 의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도록 하는데, 먼저 현업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경제적 상황과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며 반면 두 번째는 현재 보상 수준이 높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현업을 중단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표 7-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업의 지속의지

특성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10.6	67.2	8.9	11.5	1.9	100.0	(2,300) ¹⁾
지역							
동부	10.8	67.6	9.2	10.6	1.8	100.0	(1,848)
읍·면부	9.5	65.3	7.9	15.2	2.2	100.0	(45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9.8	68.2	9.1	11.2	1.7	100.0	(1,203)
1960~1963년생	11.4	66.1	8.8	11.7	2.0	100.0	(1,100)
성							
남자	11.5	68.4	7.7	10.5	1.9	100.0	(1,336)
여자	9.1	65.4	10.7	12.8	2.0	100.0	(96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6	68.9	9.7	13.0	3.8	100.0	(238)
중학교	6.4	68.1	10.5	13.3	1.7	100.0	(467)
고등학교	9.6	67.7	9.4	11.0	2.2	100.0	(997)
전문대학 이상	17.5	65.0	6.7	10.2	0.7	100.0	(600)

〈표 7-18〉 계속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결혼상태							
유배우	10.9	67.5	9.4	10.8	1.5	100.0	(1,937)
무배우	8.7	65.3	6.6	15.3	4.1	100.0	(365)
가구유형							
1인 가구	10.6	72.5	4.2	9.2	3.5	100.0	(144)
부부가족	7.9	62.9	16.3	11.9	1.0	100.0	(202)
부/모+미혼자녀	11.1	67.3	8.6	11.1	1.8	100.0	(1,696)
확대가족	8.8	67.0	8.0	14.2	1.9	100.0	(259)
기타가족	-	-	-	-	-	100.0	-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7.1	62.9	11.3	14.7	4.0	100.0	(728)
300-500만원 미만	8.3	70.9	8.6	11.2	1.1	100.0	(834)
500만원 이상	16.4	67.3	6.9	8.7	0.7	100.0	(738)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과반수가 넘는 58.2%는 현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상당히 안정감 있는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28.3%로, 전체의 약 1/3 가까운 비율은 현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생년도별로 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 보다 오히려 젊은 세대인 후기 베이비 부머에서 현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독거가구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업에 대한 불안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성이면서 독거가구인 경우 현업 지속을 강력하게 희망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집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7-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업에 대한 불안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명)
전체	2.6	25.7	13.6	50.7	7.5	100.0	(2,300) ¹⁾
지역							
동부	2.7	26.1	13.3	50.4	7.6	100.0	(1,848)
읍·면부	2.2	24.2	14.7	51.6	7.3	100.0	(45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8	25.8	14.1	51.3	6.9	100.0	(1,203)
1960~1963년생	3.4	25.6	12.9	49.9	8.2	100.0	(1,100)
성							
남자	3.2	27.5	12.7	49.3	7.3	100.0	(1,336)
여자	1.7	23.2	14.7	52.6	7.9	100.0	(96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1	33.5	16.3	42.3	5.9	100.0	(238)
중학교	1.7	26.8	12.7	51.9	6.9	100.0	(467)
고등학교	2.5	25.2	13.5	52.1	6.7	100.0	(997)
전문대학 이상	3.5	22.7	13.0	50.8	10.0	100.0	(600)
결혼상태							
유배우	2.3	24.1	13.6	52.1	7.9	100.0	(1,937)
무배우	4.1	34.0	13.4	43.3	5.2	100.0	(365)
가구유형							
1인 가구	5.6	41.3	10.5	37.1	5.6	100.0	(144)
부부가족	0.5	26.9	17.4	48.3	7.0	100.0	(202)
부/모+미혼자녀	2.5	25.8	13.3	50.8	7.6	100.0	(1,696)
확대가족	3.1	15.3	13.8	59.0	8.8	100.0	(259)
기타가족	-	-	-	-	-	-	-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4	31.0	14.8	45.6	5.1	100.0	(728)
300~500만원 미만	2.8	28.9	12.6	48.7	7.1	100.0	(834)
500만원 이상	1.4	16.6	13.4	58.1	10.6	100.0	(738)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 중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베이비 부머의 83.4%는 현업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준비(6%) 비율과 취미 및 여가개발(5.7%)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전 세대에 비해 베이비 부머가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은퇴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덜하며 또한 은퇴이후에 일자리에 대한 욕구보다는 취미나 여가개발의 욕구 또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제3의 잠재적 욕구가 더 크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노하우나 정보에 대한 부재가 은퇴 후를 대비한 준비의 부재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베이비 부머 가운데 전기 베이비 부머, 여성, 농어촌지역 거주자, 저학력자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해 준비하는 비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이 상대적으로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수 있는 집단임을 고려할 때 상기에 제시한 가능성들 가운데 현 베이비 부머 역시 기존 노인 세대와 마찬가지로 노하우나 정보의 부재로 인해 은퇴 이후에 특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7-20〉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한 준비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60~	남자	여자
		1959년생	1963년생		
창업준비	6.0	4.5	7.7	7.7	3.8
직업교육 참여	2.3	2.2	2.5	1.8	3.1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2.0	1.8	2.1	2.5	1.3
취미·여가개발	5.7	5.6	5.9	4.9	6.9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	83.4	85.4	81.1	82.6	84.3
기타	0.5	0.5	0.6	0.5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02) ¹⁾	(1,204)	(1,098)	(1,337)	(967)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21〉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한 준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창업준비	6.0	6.7	3.5		2.1	6.1	11.3
직업교육 참여	2.3	2.2	3.1	3.3	2.6	2.2	2.2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2.0	2.2	1.1	1.7	0.4	1.7	3.7
취미·여가개발	5.7	6.1	4.2	2.1	5.6	4.2	10.0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	83.4	82.3	87.9	92.9	89.3	85.1	72.0
기타	0.5	0.6	0.2			0.7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302) ¹⁾	(1,846)	(455)	(240)	(466)	(998)	(600)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22〉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한 준비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창업준비	6.0	4.9	5.7	7.5
직업교육 참여	2.3	3.2	2.4	1.5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2.0	1.5	1.7	2.7
취미·여가개발	5.7	3.6	4.3	9.6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	83.4	86.7	85.6	77.4
기타	0.5	0.1	0.2	1.4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302) ¹⁾	(729)	(835)	(738)

주: 1)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3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제2절 40대 이후 현업에서의 퇴직 경험

현 베이비 부머 가운데 40대 이후 퇴직을 경험한 비율은 30.3%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69.7%는 아직 퇴직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일수록, 남성일수록,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40대 이후에 퇴직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40대 이후 퇴직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퇴직경험 유	30.3	34.8	25.1	28.4	32.2
퇴직경험 무	69.7	65.2	74.9	71.6	6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89) ¹⁾	(1,552)	(1,337)	(1,432)	(1,457)

주: 1) 경제활동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2,88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2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40대 이후 퇴직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퇴직경험 유	30.3	30.8	27.8	31.5	34.7	29.8	26.8
퇴직경험 무	69.7	69.2	72.2	68.5	65.3	70.2	7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889) ¹⁾	(2,371)	(518)	(305)	(603)	(1,268)	(712)

주: 1) 경제활동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2,88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25〉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40대 이후 퇴직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퇴직경험 유	30.3	39.5	26.9	24.5
퇴직경험 무	69.7	60.5	73.1	75.5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889) ¹⁾	(950)	(998)	(939)

주: 1) 경제활동 경험에 있다고 응답한 2,889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40대 이후 퇴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22.1%,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18.3%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으나 배우자 관계가 악화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기 베이비 부머일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관계 악화 경험 비율이 높다. 또한 배우자가 없을수록, 그리고 독거

가구일수록 관계 악화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 경험을 통해 배우자와의 혼인 상태 및 동거상태에 변화가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7-2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퇴직 후 배우자 관계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졌다	좋아졌다	변화없다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계	(명)
전체	1.3	17.0	59.6	20.2	1.9	100.0	(748) ¹⁾
지역							
동부	1.3	18.7	56.7	21.2	2.1	100.0	(631)
읍·면부	0.9	8.5	75.2	14.5	0.9	100.0	(11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1	18.6	59.6	18.6	2.1	100.0	(473)
1960~1963년생	1.8	14.2	59.5	23.0	1.5	100.0	(274)
성							
남자	2.3	17.7	48.7	29.0	2.3	100.0	(355)
여자	0.5	16.5	69.5	12.2	1.3	100.0	(3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11.8	59.2	27.6	1.3	100.0	(76)
중학교	0.0	19.6	60.3	15.6	4.5	100.0	(179)
고등학교	1.6	12.1	65.2	20.1	1.0	100.0	(313)
전문대학 이상	2.8	25.7	49.2	21.8	0.6	100.0	(179)
결혼상태							
유배우	1.3	18.2	60.7	19.4	0.4	100.0	(705)
무배우	2.3	0.0	40.9	31.8	25.0	100.0	(44)
가구유형							
1인 가구	0.0	0.0	47.1	23.5	29.4	100.0	(17)
부부가족	0.0	8.0	72.4	18.4	1.1	100.0	(87)
부/모+미혼자녀	1.8	19.6	56.5	20.9	1.2	100.0	(565)
확대가족	0.0	12.2	74.3	13.5	0.0	100.0	(74)
기타가족	-	-	-	-	-	-	-
가구소득수준							
300만 원 미만	0.4	7.5	62.3	24.9	4.9	100.0	(265)
300~500만원 미만	0.4	18.0	61.7	19.5	0.4	100.0	(256)
500만원 이상	3.5	27.0	54.0	15.5	0.0	100.0	(226)

주: 1) 40대 이후 퇴직 경험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74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퇴직 후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 관계에 비해 좋아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의 19.6%는 퇴직 후 자녀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응답했으며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이다. 전기 베이비 부모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부모일수록 자녀관계의 향상을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남성보다 여성, 읍면부의 농어촌지역 거주자, 교육수준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7〉 베이비 부모의 제특성별 퇴직 후 자녀관계 변화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졌다	좋아졌다	변화없다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계	(명)
전체	0.9	18.7	70.4	8.9	1.2	100.0	(820) ¹⁾
지역							
동부	0.9	18.3	70.4	9.1	1.3	100.0	(693)
읍·면부	0.8	20.5	70.1	7.9	0.8	100.0	(12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2	17.8	71.0	8.2	1.8	100.0	(510)
1960~1963년생	0.3	20.0	69.4	10.0	0.3	100.0	(310)
성							
남자	1.1	15.7	66.7	14.1	2.4	100.0	(369)
여자	0.9	21.1	72.9	4.8	0.2	100.0	(45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15.2	69.6	10.1	5.1	100.0	(79)
중학교	2.5	17.3	72.6	7.1	0.5	100.0	(197)
고등학교	0.6	18.1	71.6	8.6	1.1	100.0	(359)
전문대학 이상	0.5	22.8	65.8	10.9	0.0	100.0	(184)
결혼상태							
유배우	1.0	20.0	70.8	7.4	0.7	100.0	(689)
무배우	0.8	11.4	67.4	16.7	3.8	100.0	(132)
가구유형							
1인 가구	0.0	2.9	82.9	11.4	2.9	100.0	(35)
부부가족	0.0	9.3	82.7	6.7	1.3	100.0	(75)
부/모+미혼자녀	1.3	21.3	66.9	9.4	1.1	100.0	(628)
확대가족	0.0	13.8	80.0	6.3	0.0	100.0	(80)
기타가족	-	-	-	-	-	-	-
가구소득수준							
300만 원 미만	0.6	12.0	71.7	14.8	0.9	100.0	(325)
300~500만원 미만	0.4	19.8	73.5	4.1	2.2	100.0	(268)
500만원 이상	1.8	27.3	64.3	6.6	0.0	100.0	(227)

주: 1) 40대 이후 퇴직 경험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8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퇴직 후 부모관계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관계에 비해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기 베이비 부머는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부모 관계가 향상되는 경험과 악화되는 경험을 한 비율이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부모관계의 악화와 향상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관계의 향상을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고 독거가구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관계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배우자, 자녀, 부모와의 관계와 달리, 베이비 부머의 퇴직 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부머의 49.1%는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전기 베이비 부머, 여성,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없고 확대가족일수록 생활만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퇴직 후 부모 관계의 변화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졌다	좋아졌다	변화없다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계	(명)
전체	0.7	11.5	80.4	6.8	0.7	100.0	(733) ¹⁾
지역							
동부	0.8	10.8	80.8	6.9	0.7	100.0	(609)
읍·면부	0.0	13.8	78.9	6.5	0.8	100.0	(123)
출생년도							
1955~1959년생	0.9	9.9	82.7	5.7	0.9	100.0	(456)
1960~1963년생	0.4	14.1	76.5	8.7	0.4	100.0	(277)
성							
남자	1.1	12.6	75.1	10.9	0.3	100.0	(349)
여자	0.3	10.2	85.6	3.1	0.8	100.0	(38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5.5	89.0	4.1	1.4	100.0	(73)
중학교	2.5	8.9	82.3	5.1	1.3	100.0	(158)
고등학교	0.3	12.0	79.6	7.4	0.6	100.0	(324)
전문대학 이상	0.0	15.6	76.0	8.4	0.0	100.0	(179)
결혼상태							
유배우	0.5	12.2	81.1	5.9	0.3	100.0	(609)
무배우	0.8	8.2	77.9	11.5	1.6	100.0	(122)
가구유형							
1인 가구	0.0	19.0	81.0	0.0	0.0	100.0	(42)
부부가족	0.0	8.8	85.3	4.4	1.5	100.0	(68)
부/모+미혼자녀	0.7	11.4	79.6	7.6	0.7	100.0	(543)
확대가족	0.0	10.4	83.1	6.5	0.0	100.0	(77)
기타가족	-	-	-	-	-	-	-
가구소득수준							
300만 원미만	0.3	8.1	79.5	11.1	1.0	100.0	(298)
300~500만원 미만	0.0	10.4	85.5	4.1	0.0	100.0	(221)
500만원 이상	1.4	17.2	77.0	3.8	0.5	100.0	(209)

주: 1) 40대 이후 퇴직 경험이 있으며, 부모가 있는 73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2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퇴직 후 전반적 생활만족도 변화

(단위: %, 명)

특성	매우 좋아졌다	좋아졌다	변화없다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계	(명)
전체	0.8	14.5	35.6	39.2	9.9	100.0	(873) ¹⁾
지역							
동부	1.1	15.5	34.4	39.2	9.9	100.0	(730)
읍·면부	0.0	10.4	41.7	38.9	9.0	100.0	(144)
출생년도							
1955~1959년생	0.9	16.7	35.8	35.8	10.8	100.0	(539)
1960~1963년생	0.6	11.1	35.3	44.6	8.4	100.0	(334)
성							
남자	2.0	16.7	30.0	36.7	14.5	100.0	(406)
여자	0.0	12.8	40.4	41.2	5.6	100.0	(46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7.3	34.4	46.9	11.5	100.0	(96)
중학교	1.4	16.3	25.8	43.5	12.9	100.0	(209)
고등학교	0.5	11.1	44.7	36.8	6.9	100.0	(378)
전문대학 이상	1.0	23.6	29.3	35.1	11.0	100.0	(191)
결혼상태							
유배우	1.1	17.7	36.5	38.0	6.6	100.0	(707)
무배우	0.0	1.2	32.1	43.5	23.2	100.0	(168)
가구유형							
1인 가구	0.0	1.6	43.5	32.3	22.6	100.0	(62)
부부가족	0.0	9.2	36.8	40.2	13.8	100.0	(87)
부/모+미혼자녀	1.3	16.8	34.4	38.9	8.6	100.0	(637)
확대가족	0.0	12.9	38.8	44.7	3.5	100.0	(85)
기타가족	--	-	-	-	-	-	-
가구소득수준							
300만 원미만	0.0	5.1	29.8	50.3	14.9	100.0	(376)
300~500만원 미만	0.4	14.1	40.1	39.0	6.3	100.0	(269)
500만원 이상	3.0	30.9	39.6	20.9	5.7	100.0	(230)

주: 1) 40대 이후 퇴직 경험이 있는 87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제3절 노후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

베이비 부머의 63.9%는 노후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기 베이비 부머와 후기 베이비 부머 간에는 노후 일자리 희망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남성의 경우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81.4%로 압도적으로 높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일자리 희망비율이 높아,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경제적 측면에서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표 7-30〉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일자리 희망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희망	63.9	64.2	63.5	81.4	48.1
비희망	36.1	35.8	36.5	18.6	5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1,633)	(1,394)	(1,433)	(1,594)

〈표 7-31〉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일자리 희망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희망	63.9	62.9	68.1	70.5	64.0	61.5	65.3
비희망	36.1	37.1	31.9	29.5	36.0	38.5	3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1)	(537)	(319)	(627)	(1,331)	(750)

〈표 7-32〉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일자리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희망	63.9	71.7	66.0	54.2
비희망	36.1	28.3	34.0	45.8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968)	(1,050)	(1,007)

보다 구체적으로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욕구가 크게 존재함이 입증되었다. 베이비 부머의 58.5%는 소득을 위해 노후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건강을 위해’가 16.2%, ‘자기발전을 위해’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에 일을 하고자 하는 비율이 단연코 높지만, 그 외에도 건강, 자기발전, 여가활용, 사회공헌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도 41.5%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향후 노인 일자리 정책의 개발에 있어 단지 소득 보전이 목적이 아닌 보다 확장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 인력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아닌 자기발전, 여가선용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고소득 퇴직자들의 인력 활용 정책은 소득 보전의 측면과 다른 각도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7-3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일자리 희망사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1959년생	1960~1963년생	남자	여자
소득을 위해	58.5	59.1	57.7	60.0	56.2
건강을 위해	16.2	16.5	15.8	16.0	16.4
자기발전을 위해	14.4	14.5	14.2	14.4	14.3
여가시간활용을 위해	7.5	7.2	7.9	6.8	8.7
사회·다른 사람 돕기 위해	3.4	2.7	4.3	2.7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31) ¹⁾	(1,049)	(885)	(1,168)	(797)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한 1,93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3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일자리 희망 사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소득을 위해	58.5	57.9	61.3	82.2	68.6	58.8	39.1
건강을 위해	16.2	15.4	19.2	9.8	17.7	17.7	15.1
자기발전을 위해	14.4	15.5	9.3	1.3	9.2	12.6	27.6
여가시간활용을 위해	7.5	7.5	8.0	6.7	2.7	8.4	10.4
사회·다른 사람 돕기 위해	3.4	3.6	2.2	0.0	1.7	2.4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31) ¹⁾	(1,567)	(364)	(225)	(401)	(818)	(489)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한 1,93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35〉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일자리 희망 사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소득을 위해	58.5	73.5	58.0	39.9
건강을 위해	16.2	14.6	16.6	17.8
자기발전을 위해	14.4	7.3	14.4	23.3
여가시간활용을 위해	7.5	2.6	7.6	13.9
사회·다른 사람 돕기 위해	3.4	2.0	3.3	5.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931) ¹⁾	(694)	(693)	(546)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 중 무응답 3명을 제외한 1,93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31.1%는 노후에도 여전히 주 5일 풀타임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 5일 파트타임 근로 또는 주중 2~3일 풀타임 근로 등과 같이 보다 유연화 된 파트타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68.9%로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희망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표 7-36〉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근무조건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주5일 풀타임 근로	31.1	30.6	31.6	37.3	21.8
주5일 파트타임 근로	27.6	26.5	28.9	23.9	33.2
주중 2~3일 풀타임 근로	10.2	9.9	10.6	10.4	10.1
주중 2~3일 파트타임 근로	7.3	6.8	7.9	5.1	10.7
토요일, 일요일에만	0.6	0.6	0.6	0.8	0.3
근무일수 및 시간 구매 안 받음	23.2	25.6	20.3	22.6	2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34) ¹⁾	(1,048)	(885)	(1,167)	(766)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37〉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근무 조건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주5일 풀타임 근로	31.1	32.4	25.7	28.9	29.2	34.9	27.4
주5일 파트타임 근로	27.6	27.1	29.5	32.9	29.9	25.2	27.2
주중 2~3일 풀타임 근로	10.2	10.3	9.8	10.2	10.0	9.4	12.1
주중 2~3일 파트타임 근로	7.3	7.8	5.5	4.9	5.5	8.0	8.8
토요일, 일요일에만	0.6	0.6	0.3	0.4	0.2	0.4	1.0
근무일수 및 시간 구매 안 받음	23.2	21.7	29.2	22.7	25.2	22.2	2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34) ¹⁾	(1,568)	(366)	(225)	(401)	(817)	(489)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38〉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근무 조건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주5일 풀타임 근로	31.1	32.6	30.6	29.9
주5일 파트타임 근로	27.6	30.7	27.8	23.3
주중 2~3일 풀타임 근로	10.2	11.2	8.9	10.8
주중 2~3일 파트타임 근로	7.3	5.5	7.6	9.2
토요일, 일요일에만	0.6	0.3	0.1	1.3
근무일수 및 시간 구애 안받음	23.2	19.7	24.8	25.5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934) ¹⁾	(694)	(693)	(545)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베이비 부머의 70%는 노후 일자리로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 또는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 습득한 직업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에 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을 원하는 비율도 30%에 달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특히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부머가 새로운 직종의 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도시 거주자일수록 새로운 직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다소 이질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은 사람들은 이전의 직종과 유사하거나 같은 일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오히려 고졸, 중졸과 같은 중간 교육수준의 사람들은 새로운 직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39〉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희망 일자리 유형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	35.3	38.4	31.6	37.3	32.2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	34.7	34.0	35.5	36.5	31.9
이전에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	30.0	27.7	32.8	26.2	35.8
기타	0.1	0.0	0.1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34) ¹⁾	(1,048)	(885)	(1,167)	(766)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40〉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희망 일자리 유형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	35.3	35.1	36.2	44.0	37.3	34.1	31.6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	34.7	34.5	35.3	30.7	34.1	31.8	41.6
이전에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	30.0	30.3	28.5	25.3	28.6	33.9	26.7
기타	0.1	0.1	0.0	0.0	28.6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34) ¹⁾	(1,568)	(366)	(225)	(401)	(817)	(489)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41〉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희망 일자리 유형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	35.3	35.4	35.9	34.4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	34.7	34.7	33.7	35.7
이전에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	30.0	29.9	30.4	29.7
기타	0.1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934) ¹⁾	(694)	(693)	(545)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노후에 일을 원치 않는 경우의 대부분(69.3%)은 여가를 즐기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족 내 역할수행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17.1%에 해당된다.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일수록 여가를 즐기고 싶은 이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성일수록 동일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싶은 이유 보다는 ‘가족 내 역할수행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21.6%)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사유로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도시에 거주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내 역할수행으로 인해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42〉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 일자리 원치 않는 사유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60~	남자	여자
		1959년생	1963년생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1.0	1.2	0.8	1.1	1.0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4.1	4.1	4.1	3.0	4.6
체면손상 되므로	0.5	0.3	0.6	0.8	0.2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69.3	65.9	73.1	86.1	63.9
가족 내 역할 수행 때문	17.1	18.8	15.1	3.0	21.6
기타	8.0	9.6	6.3	6.0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94) ¹⁾	(584)	(510)	(266)	(829)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1,90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43〉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 일자리 원치 않는 사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1.0	1.1	0.6	1.1	0.0	1.0	1.5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4.1	4.6	2.3	3.2	1.8	2.9	9.2
체면손상 되므로	0.5	0.4	0.0	0.0	0.0	0.4	0.8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69.3	68.0	76.2	58.5	67.7	67.6	78.2
가족 내 역할 수행 때문	17.1	18.0	12.2	20.2	15.5	21.3	9.2
기타	8.0	7.9	8.7	17.0	15.0	6.8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94) ¹⁾	(922)	(172)	(94)	(226)	(512)	(261)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1,90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7-44〉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 일자리 원치 않는 사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1.0	0.4	0.0	2.2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4.1	2.2	1.7	7.2
체면손상 되므로	0.5	0.4	0.3	0.4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	69.3	54.7	73.4	74.8
가족 내 역할 수행 때문	17.1	22.3	18.8	12.8
기타	8.0	20.1	5.9	2.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094) ¹⁾	(274)	(357)	(461)

주: 1)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1,90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 가운데 70.9%는 노후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특히 남성일수록, 배우자가 없고 독거가구 이거나 미혼 자녀와 거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 일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중간수준인 경우보다 초졸 이하로 낮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일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하는 U자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4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일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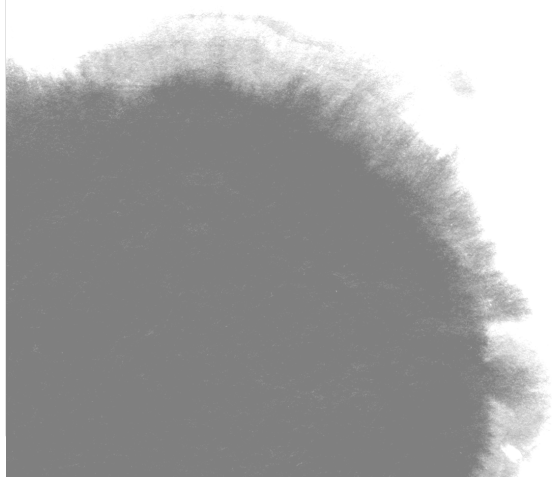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13.4	57.5	20.6	8.1	0.4	100.0	(3,027)
지역							
동부	13.4	57.1	21.3	7.7	0.5	100.0	(2,492)
읍·면부	13.2	59.5	17.2	9.7	0.4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2.3	57.8	20.8	8.5	0.6	100.0	(1,632)
1960~1963년생	14.6	57.1	20.3	7.7	0.3	100.0	(1,393)
성							
남자	18.1	63.1	13.7	5.0	0.1	100.0	(1,433)
여자	9.0	52.5	26.9	10.9	0.7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1.0	63.6	19.7	5.0	0.6	100.0	(319)
중학교	7.8	59.9	21.7	9.7	1.0	100.0	(628)
고등학교	13.8	55.9	21.7	8.3	0.3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8.2	55.8	18.0	7.7	0.3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12.8	57.4	21.2	8.3	0.4	100.0	(2,593)
무배우	16.8	58.2	17.2	7.1	0.7	100.0	(445)
가구유형							
1인 가구	11.4	60.2	15.7	11.4	1.2	100.0	(166)
부부가족	8.7	59.4	22.7	8.7	0.3	100.0	(286)
부/모+미혼자녀	14.4	57.4	20.4	7.5	0.3	100.0	(2,242)
확대가족	11.5	54.5	23.0	10.0	0.9	100.0	(330)
기타가족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 원 미만	14.6	60.1	17.6	7.3	0.4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13.9	56.8	21.2	8.0	0.1	100.0	(1,050)
500만원 이상	11.6	55.6	22.9	8.9	0.9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08

사회참여 실태



제8장 사회참여 실태

본장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사회참여실태를 여가활동과 단체활동 실태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와 노후생활에서의 여가활동과 단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일과 여가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노후교육과 노후설계 컨설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설계와 관련된 정책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1 절 여가활동

베이비 부머의 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 기준으로 베이비 부머에게 가장 선호되고 있는 여가활동은 운동(22.6%)이며 그밖에 산책(14.2%), 등산(13.2%), 독서(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베이비 부머는 정적인 여가활동보다 동적인 여가활동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베이비부머의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운동, 스포츠관람, 등산 등과 같이 보다 동적인 여가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책읽기, 각종 감상 및 관람, 라디오듣기, 화초가꾸기 및 산책과 같이 정적인 여가를 선호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교양강좌 수강 등과 같이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욕구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책읽기, 영화감상을 비롯한 공연 관람 및 감상, 운동, 교양강좌 수

강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산책, 화초가꾸기, 친목모임, 라디오 듣기, 음악듣기, 노래부르기 등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1〉 베이비 부모의 출생연도·성별 선호하는 여가활동(1순위)

구분	전체	출생연도		성	
		1955~	1960~	남자	여자
		1959년생	1963년생		
책읽기	10.0	10.0	10.0	5.7	13.9
글쓰기	0.3	0.2	0.4	0.2	0.3
영화감상	4.0	3.5	4.5	3.4	4.5
전시회관람	0.3	0.2	0.3	0.1	0.5
뮤지컬 및 연극감상	0.3	0.2	0.4	0.1	0.5
노래부르기	1.9	1.8	2.0	1.2	2.5
악기 연주	0.6	0.4	0.8	0.9	0.3
음악듣기	3.6	3.8	3.3	2.8	4.2
춤추기	0.3	0.1	0.5	0.2	0.4
바둑, 장기, 체스	1.5	2.1	0.7	3.1	0.0
화투, 카드	0.7	0.6	0.8	0.9	0.5
여행	1.5	1.2	1.9	1.6	1.4
낚시	2.9	2.7	3.1	5.9	0.3
운동(스포츠)	22.6	21.9	23.4	25.3	20.2
스포츠관람	1.5	1.2	1.9	3.0	0.2
등산	13.2	12.3	14.3	16.5	10.3
공예	0.2	0.3	0.1	0.1	0.4
다도	0.1	0.1	0.0	0.0	0.1
사진찍기	0.2	0.2	0.2	0.3	0.1
교양강좌수강	0.6	0.6	0.7	0.0	1.2
그림그리기	0.2	0.1	0.3	0.2	0.2
서예	0.4	0.3	0.4	0.2	0.5
라디오듣기	3.3	3.7	2.8	2.3	4.2
컴퓨터 및 인터넷	3.8	3.6	4.2	5.5	2.3
게임	0.2	0.1	0.3	0.1	0.3
친목모임	8.3	9.0	7.6	8.1	8.5
화초가꾸기	3.0	3.6	2.1	1.7	4.1
산책	14.2	15.9	12.3	10.3	17.7
기타	0.4	0.2	0.5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13)	(1,564)	(1,349)	(1,377)	(1,538)

주) 무응답 114명 제외

〈표 8-2〉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여가활동(1순위)

(단위: %, 명)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책읽기	10.0	10.8	6.1	4.0	6.7	10.9	13.4
글쓰기	0.3	0.2	0.2	0.3	0.2	0.3	0.3
영화감상	4.0	4.3	2.4	2.0	3.5	4.2	4.8
전시회관람	0.3	0.2	0.2	0.0	0.0	0.4	0.4
뮤지컬 및 연극감상	0.3	0.3	0.0	0.0	0.0	0.2	0.7
노래부르기	1.9	1.8	2.4	3.3	3.0	1.4	1.2
악기 연주	0.6	0.6	0.4	0.3	0.5	0.5	0.9
음악듣기	3.6	3.6	3.4	4.0	4.7	3.7	2.1
춤추기	0.3	0.3	0.2	0.3	0.7	0.3	0.0
바둑, 장기, 체스	1.5	1.7	0.6	0.7	0.8	1.6	2.1
화투, 카드	0.7	0.5	1.4	1.0	0.8	0.8	0.3
여행	1.5	1.4	1.8	0.7	1.0	1.4	2.4
낚시	2.9	2.8	3.6	3.0	3.7	3.2	1.7
운동(스포츠)	22.6	23.4	18.8	16.4	15.7	22.4	30.7
스포츠관람	1.5	1.5	1.4	0.3	1.9	1.1	2.6
등산	13.2	14.2	8.3	9.4	15.3	13.4	12.8
공예	0.2	0.3	0.2	0.3	0.0	0.4	0.1
다도	0.1	0.1	0.0	0.0	0.0	0.2	0.0
사진찍기	0.2	0.1	0.4	0.0	0.3	0.2	0.1
교양강좌수강	0.6	0.7	0.6	0.0	0.3	0.5	1.5
그림그리기	0.2	0.2	0.0	0.0	0.0	0.0	0.8
서예	0.4	0.3	0.8	0.0	0.2	0.5	0.4
라디오듣기	3.3	2.9	5.3	7.0	5.4	3.3	0.3
컴퓨터 및 인터넷	3.8	3.6	5.1	1.7	3.5	4.0	4.7
게임	0.2	0.2	0.2	0.3	0.0	0.3	0.3
친목모임	8.3	7.6	11.9	16.7	8.4	9.1	3.5
화초가꾸기	3.0	2.6	4.6	7.7	4.9	2.1	0.9
산책	14.2	13.2	19.2	20.1	18.0	13.4	10.1
기타	0.4	0.4	0.4	0.3	0.3	0.1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13)	(2,417)	(495)	(299)	(594)	(1,279)	(745)

주) 무응답 114명 제외

〈표 8-3〉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성별 선호하는 여가활동(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연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책읽기	5.7	5.4	6.0	4.5	6.7
글쓰기	1.0	0.9	1.0	0.5	1.4
영화감상	4.4	3.9	4.8	3.7	4.9
전시회관람	0.3	0.5	0.2	0.5	0.2
뮤지컬 및 연극감상	0.4	0.6	0.2	0.5	0.3
노래부르기	2.5	2.8	2.2	2.0	3.0
악기 연주	0.6	0.6	0.6	0.9	0.4
음악듣기	5.1	4.5	5.8	4.0	6.2
춤추기	0.4	0.4	0.3	0.2	0.5
바둑, 장기, 체스	2.0	2.3	1.6	4.1	0.1
화투, 카드	1.2	1.6	0.7	1.3	1.1
여행	3.8	3.6	4.0	3.6	4.0
낚시	2.1	2.5	1.7	4.1	0.3
운동(스포츠)	10.6	9.2	12.2	12.0	9.3
스포츠관람	2.3	2.0	2.7	4.5	0.4
등산	10.9	10.2	11.7	13.2	8.8
공예	0.3	0.4	0.2	0.1	0.6
다도	0.1	0.1	0.1	0.0	0.1
사진찍기	0.5	0.4	0.6	0.6	0.4
교양강좌수강	0.3	0.4	0.2	0.0	0.6
그림그리기	0.2	0.1	0.4	0.1	0.4
서예	0.3	0.3	0.2	0.2	0.3
라디오듣기	5.5	5.7	5.3	4.1	6.7
컴퓨터 및 인터넷	6.2	5.0	7.5	7.4	5.2
게임	1.1	1.2	0.9	1.7	0.5
친목모임	18.1	21.1	14.9	15.8	20.1
화초가꾸기	4.5	5.1	3.8	1.5	7.1
산책	9.5	9.1	9.9	8.6	10.2
기타	0.2	0.1	0.3	0.3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609) ¹⁾	(1,372)	(1,234)	(1,231)	(1,381)

주: 1) 무응답 418명 제외

〈표 8-4〉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여가활동(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책읽기	5.7	6.1	3.4	2.0	4.5	6.0	7.4
글쓰기	1.0	0.7	2.3	0.8	1.5	0.6	1.2
영화감상	4.4	4.7	2.7	2.0	4.3	4.1	5.7
전시회관람	0.3	0.4	0.2	0.0	0.2	0.4	0.6
뮤지컬 및 연극감상	0.4	0.4	0.2	0.0	0.2	0.2	1.0
노래부르기	2.5	2.4	3.2	4.7	4.1	1.4	2.3
악기 연주	0.6	0.6	0.9	0.0	0.0	0.3	1.9
음악듣기	5.1	5.3	4.1	7.1	7.3	5.1	2.6
춤추기	0.4	0.4	0.2	0.0	0.2	0.5	0.3
바둑, 장기, 체스	2.0	2.0	1.6	1.2	1.7	1.8	2.9
화투, 카드	1.2	0.9	2.5	2.4	0.9	1.2	1.0
여행	3.8	4.1	2.0	0.4	1.9	3.7	6.7
낚시	2.1	2.0	3.0	2.4	1.7	2.7	1.5
운동(스포츠)	10.6	11.7	4.8	3.1	7.5	10.3	16.2
스포츠관람	2.3	1.8	4.8	3.5	1.7	2.0	2.8
등산	10.9	11.0	10.5	5.5	8.4	12.4	12.1
공예	0.3	0.4	0.2	0.0	0.6	0.3	0.4
다도	0.1	0.0	0.2	0.0	0.0	0.1	0.1
사진찍기	0.5	0.4	0.9	0.0	0.2	0.6	0.7
교양강좌수강	0.3	0.3	0.2	0.0	0.2	0.4	0.4
그림그리기	0.2	0.3	0.0	0.0	0.0	0.2	0.4
서예	0.3	0.3	0.0	0.0	0.2	0.2	0.6
라디오듣기	5.5	5.1	7.5	18.4	6.9	4.7	0.9
컴퓨터 및 인터넷	6.2	6.4	5.7	2.4	3.7	7.3	7.9
게임	1.1	0.8	2.5	1.2	2.4	0.5	0.9
천목모임	18.1	17.7	20.0	20.4	21.7	19.2	12.5
화초가꾸기	4.5	3.9	7.3	8.2	6.4	4.2	1.9
산책	9.5	9.6	8.6	14.1	11.6	9.3	6.4
기타	0.2	0.2	0.5	0.4	0.2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609) ¹⁾	(2,171)	(440)	(255)	(535)	(1,133)	(686)

주: 1) 무응답 418명 제외

〈표 8-5〉 베이비 부머의 출생연도·성별 선호하는 여가활동(3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연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책읽기	4.2	4.4	4.0	3.3	4.9
글쓰기	0.5	0.2	0.8	0.2	0.7
영화감상	5.0	4.5	5.6	4.4	5.7
전시회관람	0.2	0.3	0.1	0.0	0.4
뮤지컬 및 연극감상	0.5	0.4	0.7	0.1	0.9
노래부르기	3.1	3.4	2.8	1.4	4.5
악기 연주	0.5	0.6	0.3	0.4	0.6
음악듣기	5.9	6.0	5.8	3.9	7.6
춤추기	0.5	0.7	0.2	0.4	0.6
바둑, 장기, 체스	1.3	1.8	0.7	2.8	0.0
화투, 카드	1.7	1.9	1.3	1.9	1.5
여행	3.8	3.7	4.0	3.2	4.3
낚시	1.7	1.3	2.0	3.1	0.4
운동(스포츠)	5.9	6.0	5.8	6.0	5.8
스포츠관람	1.7	1.6	1.8	3.7	0.1
등산	6.8	6.1	7.6	9.0	4.8
공예	0.2	0.1	0.3	0.0	0.3
다도	0.2	0.3	0.1	0.0	0.4
사진찍기	0.8	0.4	1.2	1.2	0.5
교양강좌수강	0.9	0.6	1.1	0.3	1.4
그림그리기	0.1	0.3	0.0	0.0	0.3
서예	0.2	0.1	0.2	0.2	0.1
라디오듣기	4.1	4.9	3.3	3.4	4.6
컴퓨터 및 인터넷	8.0	6.6	9.4	9.4	6.7
게임	0.9	0.9	0.9	1.0	0.9
친목모임	25.5	25.6	25.3	28.2	23.1
화초가꾸기	8.3	9.3	7.2	4.5	11.6
산책	7.6	7.9	7.2	8.2	7.1
기타	0.1	0.1	0.1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609) ¹⁾	(1,034)	(980)	(941)	(1,077)

주: 1) 무응답 1,011명 제외

〈표 8-6〉 베이비 부머의 지역별·교육수준별 선호하는 여가활동(3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책읽기	4.2	4.5	2.9	4.6	2.6	3.6	6.1
글쓰기	0.5	0.5	0.0	0.0	0.2	0.6	0.5
영화감상	5.0	5.4	3.4	5.7	1.9	5.1	7.2
전시회관람	0.2	0.2	0.0	0.0	0.0	0.2	0.4
뮤지컬 및 연극감상	0.5	0.7	0.0	0.0	0.7	0.5	0.7
노래부르기	3.1	3.2	2.9	3.4	4.0	4.1	0.7
악기 연주	0.5	0.5	0.3	0.6	0.2	0.6	0.5
음악듣기	5.9	6.3	4.0	5.1	5.9	5.9	6.1
춤추기	0.5	0.5	0.3	0.6	0.5	0.4	0.5
바둑, 장기, 체스	1.3	1.4	1.1	1.7	0.7	1.6	1.2
화투, 카드	1.7	1.2	4.0	4.0	1.9	1.2	1.6
여행	3.8	3.9	3.2	1.7	3.1	4.2	4.2
낚시	1.7	1.6	2.3	1.7	1.7	2.2	0.9
운동(스포츠)	5.9	6.5	3.2	5.7	3.8	6.8	6.1
스포츠관람	1.7	1.6	2.6	0.6	2.4	1.6	1.8
등산	6.8	6.7	7.4	4.0	3.8	6.4	10.5
공예	0.2	0.2	0.0	0.0	0.2	0.2	0.0
다도	0.2	0.2	0.3	0.6	0.0	0.2	0.2
사진찍기	0.8	0.8	0.9	1.1	0.2	1.2	0.5
교양강좌수강	0.9	0.7	1.4	0.6	0.5	0.8	1.2
그림그리기	0.1	0.2	0.0	0.0	0.0	0.1	0.2
서예	0.2	0.1	0.3	0.0	0.0	0.2	0.4
라디오듣기	4.1	4.3	3.2	7.4	7.3	3.6	1.2
컴퓨터 및 인터넷	8.0	7.9	8.0	1.7	3.8	9.6	10.5
게임	0.9	0.8	1.1	0.0	1.4	0.9	0.9
친목모임	25.5	25.0	27.8	24.0	29.1	23.9	25.4
화초가꾸기	8.3	7.8	10.6	14.3	14.0	7.3	3.9
산책	7.6	7.4	8.6	10.9	9.7	6.7	6.3
기타	0.1	0.1	0.3	0.0	0.2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609) ¹⁾	(1,666)	(349)	(175)	(422)	(850)	(570)

주: 1) 무응답 1,011명 제외

현 베이비 부머의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전기 베이비 부머일수록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소

폭 높을 뿐 성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적으로는 농어촌보다 도시에 거주할수록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재 삶에서 여가의 중요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8.8	60.6	22.6	7.3	0.7	100.0	(3,027)
지역							
동부	9.0	63.3	20.3	6.7	0.8	100.0	(2,492)
읍·면부	7.8	47.9	33.3	10.2	0.7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0	57.9	24.9	8.3	0.9	100.0	(1,632)
1960~1963년생	9.7	63.7	19.9	6.2	0.5	100.0	(1,393)
성							
남자	9.7	59.9	21.4	8.3	0.7	100.0	(1,433)
여자	7.9	61.1	23.7	6.5	0.8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	48.1	27.8	18.4	2.5	100.0	(319)
중학교	3.8	56.5	28.3	10.4	1.0	100.0	(628)
고등학교	8.7	62.6	22.8	5.6	0.4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5.5	65.6	15.2	3.2	0.5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9.4	61.7	22.1	6.2	0.5	100.0	(2,593)
무배우	4.8	53.3	25.3	14.3	2.3	100.0	(445)
가구유형							
1인 가구	3.0	52.1	26.1	13.9	4.8	100.0	(166)
부부가족	5.9	51.0	28.3	14.0	0.7	100.0	(286)
부/모+미혼자녀	9.5	63.2	20.6	6.1	0.5	100.0	(2,242)
확대가족	9.4	54.5	29.1	7.0	0.0	100.0	(330)
기타가족	0.0	66.7	33.3	0.0	0.0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9	51.2	29.7	14.0	1.2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8.9	61.1	23.0	6.5	0.6	100.0	(1,050)
500만원 이상	13.3	69.1	15.4	1.8	0.4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한편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의 83.7%는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노후 여가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후기 베이비 부머일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배우자가 있을수록 노후 여가 중요도에 대한 인식률이 높았다. 또한 미혼자녀와 거주하거나 확대가족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여가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표 8-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의 중요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16.4	67.3	14.1	2.2	0.0	100.0	(3,027)
지역							
동부	17.2	68.3	12.8	1.7	0.1	100.0	(2,492)
읍·면부	12.7	62.6	20.1	4.7	0.0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4.7	66.0	17.0	2.3	0.1	100.0	(1,632)
1960~1963년생	18.4	68.8	10.7	2.1	0.0	100.0	(1,393)
성							
남자	16.7	66.8	14.0	2.4	0.1	100.0	(1,433)
여자	16.2	67.7	14.1	1.9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0	52.2	27.8	10.0	0.0	100.0	(319)
중학교	9.9	68.1	19.0	3.0	0.0	100.0	(628)
고등학교	16.2	70.4	12.5	1.0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25.1	67.6	6.8	0.4	0.1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16.9	68.3	13.3	1.4	0.1	100.0	(2,593)
무배우	13.3	61.1	18.9	6.7	0.0	100.0	(445)

〈표 8-8〉 계속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9.1	62.4	24.2	4.2	0.0	100.0 (166)
부부가족	12.2	62.6	20.6	4.2	0.3	100.0 (286)
부/모+미혼자녀	17.7	67.9	12.3	2.0	0.0	100.0 (2,242)
확대가족	14.9	69.3	14.9	0.9	0.0	100.0 (330)
기타가족		50.0	50.0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2.5	61.8	20.7	5.1	0.0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14.2	69.6	15.0	1.1	0.0	100.0 (1,050)
500만원 이상	22.6	70.0	6.7	0.5	0.1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2절 단체활동

베이비 부머 가운데 현재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7.3%에 불과하다. 비율적으로 전기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이 높으며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 거주자의 자원봉사단체 참여율은 6.7%에 불과한 반면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참여율은 10.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단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가운데 10.8%가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여부

(단위: %, 명)

특성	참여여부			
	참여	비참여	계	(명)
전체	7.3	92.7	100.0	(3,02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6	91.4	100.0	(1,633)
1960~1963년생	5.9	94.1	100.0	(1,394)
성				
남자	8.2	91.8	100.0	(1,433)
여자	6.5	93.5	100.0	(1,594)
지역				
동부	6.7	93.3	100.0	(2,490)
읍·면부	10.1	89.9	100.0	(53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8	97.2	100.0	(319)
중학교	4.5	95.5	100.0	(627)
고등학교	8.4	91.6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9.7	90.3	100.0	(750)

한편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38.3%는 1년에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10년 사이의 기간 동안 참여한 비율이 23.9%,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간 참여해온 비율도 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베이비 부머 가운데 실제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지만, 일단 참여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패턴이 노후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여성에 비해 남성 가운데 최소 5년 이상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해 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의 장기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1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활동기간

(단위: %, 명)

특성	활동기간					계	(명)
	1년 이하	1년~5년	5년~10년	10년~15년	15년 이상		
전체	9.9	38.3	23.9	15.3	12.6	100.0	(222) ¹⁾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1.4	37.9	23.6	12.9	14.3	100.0	(140)
1960~1963년생	7.3	39.0	24.4	19.5	9.8	100.0	(82)
성							
남자	8.4	32.8	26.9	18.5	13.4	100.0	(119)
여자	11.5	44.2	20.2	11.5	12.5	100.0	(104)
지역							
동부	7.1	39.1	24.9	14.8	14.2	100.0	(169)
읍·면부	18.5	35.2	20.4	16.7	9.3	100.0	(5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50.0	12.5	12.5	25.0	100.0	(8) ²⁾
중학교	3.4	24.1	37.9	27.6	6.9	100.0	(29)
고등학교	11.6	42.0	25.0	11.6	9.8	100.0	(112)
전문대학 이상	11.0	37.0	17.8	16.4	17.8	100.0	(73)

주: 1)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한 2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원봉사활동 단체 참여 빈도는 월 1회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1회의 잦은 참여 비율도 2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도시지역 거주자, 고졸 학력에서 주 1회 이상 자주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8-1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3.1	6.7	22.4	16.1	36.8	14.8	100.0	(222) ¹⁾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8	7.8	19.9	15.6	36.9	17.0	100.0	(140)
1960~1963년생	3.7	4.9	26.8	17.1	36.6	11.0	100.0	(82)
성								
남자	0.8	5.9	16.9	20.3	35.6	20.3	100.0	(119)
여자	5.7	7.6	27.6	11.4	38.1	9.5	100.0	(104)
지역								
동부	3.6	7.8	22.8	17.4	39.5	9.0	100.0	(169)
읍·면부	0.0	3.7	20.4	13.0	29.6	33.3	100.0	(5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10.	0.0	10.0	10.0	70.0	100.0	(8) ²⁾
중학교	0.0	3.6	14.3	32.1	32.1	17.9	100.0	(29)
고등학교	4.5	6.3	30.4	12.5	35.7	10.7	100.0	(112)
전문대학 이상	2.7	8.1	16.2	17.6	44.6	10.8	100.0	(73)

주: 1)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한 2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한편 현재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52.3%는 스스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밝혔으며 45%는 주변인의 권유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경우 자기 동기 부여,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또는 인맥)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 베이비 부머는 스스로 참여하게 된 비율이 높으며(57.6%),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주변인의 권유’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참여하게 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54.2%). 남성의 경우 자발적 동기에 의한 참여율이 높은 반면(57.3%) 여성의 경우 인맥에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51.9%). 중졸 및 고졸과 같이 중간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발적 동기가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초졸 이하의 저학력층의 경우 인맥에 의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자발적 동기와 인맥에 의한 참여가 대략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오히려 대중매체 및 홍보와 같은 공식적인 루

트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경로

(단위: %, 명)

특성	스스로	주변의 권유	대중매체 및 홍보	기타	계	(명)
전체	52.3	45.0	1.8	0.9	100.0	(222) ¹⁾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7.6	39.6	2.2	0.7	100.0	(140)
1960~1963년생	43.4	54.2	1.2	1.2	100.0	(82)
성						
남자	57.3	38.5	2.6	1.7	100.0	(119)
여자	47.1	51.9	1.0	0.0	100.0	(104)
지역						
동부	52.4	44.6	1.8	1.2	100.0	(169)
읍·면부	50.9	45.5	3.6	0.0	100.0	(5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3.3	55.6	0.0	11.1	100.0	(8) ²⁾
중학교	57.1	39.3	3.6	0.0	100.0	(29)
고등학교	55.4	43.8	0.9	0.0	100.0	(112)
전문대학 이상	46.6	47.9	4.1	1.4	100.0	(73)

주: 1)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한 2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 가운데 28.6%는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위해 참여하는 비율이 19.2%, ‘나의 능력 활용’을 위해 참여하는 비율이 13.8%, ‘자신의 성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9%,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11.2%, ‘새로운 경험’이 10.3%로 나타나 비교적 단일한 이유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아니라 개인별로 다양한 동기에 의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도 그러하다. 또한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새로운 경험을 위해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자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싶거나 자신의 성숙 및 대인관계의 폭 확장과 같은 이유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력자들 가운데 다수는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도 학력수준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표 8-13〉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28.6	33.3	20.5	24.6	33.7
건강을 위해	4.0	6.4	0.0	5.9	1.9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	19.2	12.1	31.3	30.5	6.7
나의 능력 활용	13.8	16.3	9.6	9.3	19.2
새로운 경험	10.3	12.1	7.2	9.3	11.5
대인관계의 폭 넓히기 위해	11.2	9.2	14.5	11.9	9.6
자신의 성숙	12.9	10.6	16.9	8.5	17.3
기타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22) ¹⁾	(140)	(82)	(119)	(104)

주: 1)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한 2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8-14〉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28.6	31.1	21.8	30.0	48.3	26.8	23.0
건강을 위해	4.0	5.4	0.0	0.0	0.0	6.3	4.1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	19.2	21.0	14.5	0.0	13.8	16.1	29.7
나의 능력 활용	13.8	13.8	14.5	30.0	10.3	15.2	12.2
새로운 경험	10.3	6.0	23.6	0.0	13.8	13.4	4.1
대인관계 폭 넓히기 위해	11.2	10.2	12.7	20.0	6.9	10.7	12.2
자신의 성숙	12.9	12.6	12.7	20.0	6.9	11.6	14.9
기타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22) ¹⁾	(169)	(54)	(8) ²⁾	(29)	(112)	(73)

주: 1)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한 2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8-15〉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28.6	22.9	32.9	27.5
건강을 위해	4.0	2.9	8.9	1.8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감	19.2	14.3	17.7	22.0
나의 능력 활용	13.8	22.9	8.9	14.7
새로운 경험	10.3	20.0	7.6	9.2
대인관계의 폭 넓히기 위해	11.2	11.4	11.4	10.1
자신의 성숙	12.9	5.7	12.7	14.7
기타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22) ¹⁾	(35)	(78)	(109)

주: 1) 자원봉사를 한다고 응답한 2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베이비 부머의 56%는 향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참여 의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참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의 향후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8-16〉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향후 자원봉사단체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참여여부			(명)
	있음	없음	계	
전체	44.0	56.0	100.0	(3,02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3.3	56.7	100.0	(1,632)
1960~1963년생	44.7	55.3	100.0	(1,395)
성				
남자	39.0	61.0	100.0	(1,433)
여자	48.4	51.6	100.0	(1,594)
지역				
동부	44.8	55.2	100.0	(2,489)
읍·면부	40.0	60.0	100.0	(536)

〈표 8-16〉 계속

(단위: %, 명)

특성	참여여부			
	있음	없음	계	(명)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4.5	65.5	100.0	(320)
중학교	38.2	61.8	100.0	(627)
고등학교	43.5	56.5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53.5	46.5	100.0	(749)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6.2	63.8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44.0	56.0	100.0	(1,048)
500만원 이상	51.3	48.7	100.0	(1,007)

한편, 정치단체활동의 경우 베이비 부머의 극소수가 정치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의 1.8%만이 정치활동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약 8년 정도 정치단체 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전기베이비 부머의 참여 정도가 높았으며 남자, 농어촌지역 거주자,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정치단체 활동 참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치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월 1회 정도(35.1%)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68%는 주변의 권유로 인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다수는 주변의 권유로 인해 정치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사회적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1.4%)와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참여하는 경우(31%)가 정치단체 참여 이유의 다수를 차지해 정치단체 활동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후 정치단체 활동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로 현 1.8% 수준의 참여율보다 소

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95%는 정치단체에 대한 참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우 노인들의 정치활동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의 시민사회의 성숙도, 정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등의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표 8-1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정치단체 참여여부 및 활동기간

(단위: %, 명)

특성	참여여부				활동기간	
	참여	비참여	계	(명)	개월	(명)
전체	1.8	98.2	100.0	(3,027)	97.4	(55) ¹⁾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8	98.2	100.0	(1,632)	104.9	(30)
1960~1963년생	1.7	98.3	100.0	(1,394)	88.3	(24)
성						
남자	2.0	98.0	100.0	(1,433)	91.7	(29)
여자	1.6	98.4	100.0	(1,594)	104.1	(25)
지역						
동부	1.7	98.3	100.0	(2,490)	102.3	(42)
읍·면부	2.4	97.6	100.0	(537)	80.8	(1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3	99.7	100.0	(319)	72.0	(1) ²⁾
중학교	1.8	98.2	100.0	(627)	77.7	(11)
고등학교	1.5	98.5	100.0	(1,331)	135.4	(20)
전문대학 이상	2.9	97.1	100.0	(750)	74.5	(22)

주: 1) 정치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8-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정치단체 참여 빈도

(단위: %, 명)								
특성	주4회이상	주2~3회	주 1회	2주1회	월 1회	월1회미만	계	(명) ¹⁾
전체	5.0	8.8	20.7	8.5	35.1	22.2	100.0	(55) ¹⁾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2	9.7	32.3	6.5	22.6	25.8	100.0	(30)
1960~1963년생	8.0	8.0	8.0	12.0	48.0	16.0	100.0	(24)
성								
남자	3.4	10.3	13.8	6.9	37.9	27.6	100.0	(29)
여자	4.0	8.0	28.0	12.0	32.0	16.0	100.0	(25)
지역								
동부	2.4	11.9	21.4	7.1	33.3	23.8	100.0	(42)
읍·면부	8.3	0.0	25.0	8.3	41.7	16.7	100.0	(1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0.0	0.0	50.0	0.0	50.0	100.0	(1) ²⁾
중학교	0.0	8.3	50.0	8.3	33.3	0.0	100.0	(11)
고등학교	5.0	10.0	20.0	10.0	25.0	30.0	100.0	(20)
전문대학 이상	8.7	8.7	4.3	4.3	47.8	26.1	100.0	(22)

주: 1) 정치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8-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정치단체 참여 경로

(단위: %, 명)				
특성	스스로	주변의 권유	계	(명) ¹⁾
전체	32.0	68.0	100.0	(55) ¹⁾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5.5	64.5	100.0	(30)
1960~1963년생	29.2	70.8	100.0	(24)
성				
남자	34.5	65.5	100.0	(29)
여자	28.0	72.0	100.0	(25)
지역				
동부	31.0	69.0	100.0	(42)
읍·면부	33.3	66.7	100.0	(1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0.0	50.0	100.0	(1) ²⁾
중학교	45.5	54.5	100.0	(11)
고등학교	30.0	70.0	100.0	(20)
전문대학 이상	27.3	72.7	100.0	(22)

주: 1) 정치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8-20〉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정치단체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20.9	35.5	4.0	6.9	36.0
사회적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31.4	22.6	40.0	27.6	36.0
나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2.8	0.0	8.0	3.4	0.0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하여	8.7	12.9	4.0	6.9	12.0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31.0	29.0	32.0	48.3	12.0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5.1	0.0	12.0	6.9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5) ¹⁾	(30)	(24)	(29)	(25)

주: 1) 정치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8-21〉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정치단체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20.9	20.9	16.7	50.0	45.5	28.6	0.0
사회적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31.4	34.9	16.7	0.0	18.0	23.8	43.5
나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2.8	2.3	8.3	0.0	0.0	0.0	8.7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하여	8.7	7.0	16.7	0.0	9.1	14.3	4.3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31.0	30.2	33.3	50.0	18.2	28.6	34.8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5.1	4.7	8.3	0.0	9.1	4.8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55) ¹⁾	(42)	(13)	(1) ²⁾	(11)	(20)	(22)

주: 1) 정치단체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8-2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참여의향

(단위: %, 명)

특성	참여여부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5.0	95.0	100.0	(3,02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0	95.0	100.0	(1,632)
1960~1963년생	5.0	95.0	100.0	(1,395)
성				
남자	5.2	94.8	100.0	(1,433)
여자	4.8	95.2	100.0	(1,594)
지역				
동부	5.2	94.8	100.0	(2,489)
읍·면부	3.9	96.1	100.0	(53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4	96.6	100.0	(320)
중학교	4.6	95.4	100.0	(627)
고등학교	4.6	95.4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6.7	93.3	100.0	(749)

〈표 8-2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현재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3.4	37.8	34.0	22.0	2.7	100.0	(3,027)
지역							
동부	3.5	38.4	34.6	21.5	2.0	100.0	(2,492)
읍·면부	3.2	35.4	31.7	24.0	5.8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3	39.3	33.4	22.3	2.7	100.0	(1,632)
1960~1963년생	4.7	36.2	34.8	21.6	2.7	100.0	(1,393)
성							
남자	3.6	37.2	33.1	23.3	2.8	100.0	(1,433)
여자	3.3	38.4	35.0	20.8	2.6	100.0	(1,594)

〈표 8-23〉 계속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5	31.3	31.7	30.7	3.8	100.0	(319)
중학교	1.3	33.1	33.0	30.4	2.2	100.0	(628)
고등학교	3.6	37.2	36.1	19.7	3.5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5.3	45.7	32.4	15.3	1.2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3.4	39.8	35.0	19.5	2.3	100.0	(2,593)
무배우	3.4	26.4	28.7	36.5	5.0	100.0	(445)
가구유형							
1인 가구	3.0	22.9	34.3	36.1	3.6	100.0	(166)
부부가족	1.1	39.6	27.7	27.0	4.6	100.0	(286)
부/모+미혼자녀	3.9	38.7	35.2	19.4	2.8	100.0	(2,242)
확대가족	2.1	38.5	31.8	27.6		100.0	(330)
기타가족		25.0	25.0	50.0	0.0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2.6	29.6	33.0	30.7	4.1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2.9	38.3	33.7	22.2	3.0	100.0	(1,050)
500만원 이상	4.9	45.3	35.5	13.4	1.0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 가운데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1.2%로, 앞서 살펴본 현재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중요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 삶에 있어서는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서 노후에는 사회참여 활동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생년도, 성별, 거주 지역 등의 변수에 따라 현재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가 갖는 중요도에는 집단별로 확연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고학력자와 고소득자의 경우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미혼자녀와 함께 살거나 확대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표 8-2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4.8	44.7	30.6	18.2	1.7	100.0 (3,027)
지역						
동부	5.0	44.9	31.4	17.7	1.0	100.0 (2,492)
읍·면부	3.7	43.8	27.4	20.5	4.7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4	44.9	30.0	18.9	1.8	100.0 (1,632)
1960~1963년생	5.2	44.6	31.5	17.3	1.4	100.0 (1,393)
성						
남자	4.5	45.0	29.4	18.8	2.2	100.0 (1,433)
여자	5.0	44.5	31.7	17.6	1.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2	34.0	31.1	28.9	3.8	100.0 (319)
중학교	2.7	37.0	34.4	22.8	3.0	100.0 (628)
고등학교	5.0	46.2	30.1	17.6	1.2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7.2	53.3	28.3	10.8	0.4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4.9	45.9	31.2	16.7	1.3	100.0 (2,593)
무배우	4.1	37.7	27.4	26.9	3.9	100.0 (445)
가구유형						
1인 가구	4.8	39.2	28.3	24.1	3.6	100.0 (166)
부부가족	2.8	44.6	26.0	22.1	4.6	100.0 (286)
부/모+미혼자녀	5.2	45.5	31.3	16.9	1.1	100.0 (2,242)
확대가족	3.6	42.3	31.7	20.5	1.8	100.0 (330)
기타가족	25.0	25.0	25.0	25.0	0.0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4.1	39.2	30.2	23.4	3.0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4.6	43.2	31.0	20.2	1.0	100.0 (1,050)
500만원 이상	5.7	51.7	30.7	11.0	0.9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3절 노후교육 및 노후설계 컨설팅

현 베이비 부머는 향후 노후설계 희망 분야로서 64.1%가 1순위로 건강 관리교육을 꼽아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여가 및 취미와 관련된 교육을 1순위로 꼽은 비율도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노후 경제교육을 희망한 비율은 3.3%에 불과해 현 베이비 부머의 노후에 대한 관심이 경제 부문에서 삶의 기타영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추론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노후 자원봉사 교육,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 교육 및 일반적인 노후 준비교육과 노후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설계 희망 교육분야 2순위는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 교육(16.8%), 자원봉사교육(9.7%)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3순위에 가장 높은 빈도로 꼽힌 것은 ‘노후준비교육’(23.7%)이며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이 18.2%, 자원봉사 교육이 12.3%, 노후경제교육이 11%, 일반 교양교육이 10.6%, 정보화 교육이 10.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 보면 베이비 부머는 노후에 대한 관심 영역이 노후 경제준비에 대한 관심을 넘어 건강 및 여가와 취미와 같은 보다 광범한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노후준비교육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25〉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1959년생	1960~1963년생	남자	여자
건강관리교육	64.1	66.4	61.3	62.7	65.3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15.5	14.1	17.2	14.3	16.6
일반교양교육	1.9	1.5	2.2	1.6	2.1
정보화교육	2.6	2.9	2.2	3.0	2.2
자원봉사교육	4.1	3.7	4.6	2.9	5.2
취업 및 직업교육	3.7	3.7	3.6	5.5	2.0
노후준비교육	4.8	4.8	4.7	5.2	4.3
노후경제교육	3.3	2.5	4.2	4.7	1.9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2	0.2	0.1	0.1	0.3
기타	0.0	0.1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1,633)	(1,394)	(1,433)	(1,594)

〈표 8-26〉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건강관리교육	64.1	64.0	64.5	74.3	66.7	63.8	58.0
여가취미관련교육	15.5	15.9	13.8	8.8	15.6	16.3	16.8
일반교양교육	1.9	1.8	2.2	2.5	1.3	2.3	1.5
정보화교육	2.6	2.6	2.2	0.3	1.1	2.7	4.5
자원봉사교육	4.1	4.3	3.0	4.4	2.9	3.9	5.2
취업 및 직업교육	3.7	3.6	4.1	4.4	5.1	3.2	3.1
노후준비교육	4.8	4.8	4.9	2.5	5.1	4.7	5.6
노후경제교육	3.3	2.8	5.2	2.5	2.1	3.1	4.9
대학교육이상의 고등 교육	0.2	0.2	0.0	0.3	0.0	0.1	0.3
기타	0.0	0.0	0.0	0.0	0.2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1)	(537)	(319)	(627)	(1,331)	(750)

〈표 8-27〉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건강관리교육	64.1	65.3	64.9	62.1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15.5	12.7	16.5	17.3
일반교양교육	1.9	1.9	1.2	2.5
정보화교육	2.6	2.0	2.6	3.2
자원봉사교육	4.1	3.5	4.4	4.4
취업 및 직업교육	3.7	5.9	3.2	2.0
노후준비교육	4.8	5.0	4.1	5.4
노후경제교육	3.3	3.6	3.0	3.1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2	0.1	0.2	0.2
기타	0.0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968)	(1,048)	(1,007)

〈표 8-28〉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건강관리교육	15.9	16.4	15.4	16.5	15.5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32.3	33.1	31.5	27.7	36.6
일반교양교육	6.0	5.7	6.3	4.8	7.1
정보화교육	7.6	7.2	8.1	9.6	5.8
자원봉사교육	9.7	8.2	11.5	8.1	11.3
취업 및 직업교육	5.9	5.6	6.3	8.4	3.6
노후준비교육	16.8	18.4	15.0	18.9	14.9
노후경제교육	5.4	5.3	5.6	6.0	5.0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2	0.1	0.4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1,633)	(1,394)	(1,433)	(1,594)

〈표 8-29〉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건강관리교육	15.9	15.7	17.1	13.7	15.2	17.1	15.4
여가취미관련교육	32.3	32.6	31.0	31.4	31.2	31.4	35.6
일반교양교육	6.0	6.3	4.7	3.2	3.7	7.2	7.1
정보화교육	7.6	7.2	9.8	5.4	6.7	7.7	9.2
자원봉사교육	9.7	10.0	8.4	8.3	11.7	10.5	7.6
취업 및 직업교육	5.9	5.9	5.8	10.5	5.8	5.9	4.0
노후준비교육	16.8	16.2	19.9	23.8	20.0	14.9	14.6
노후경제교육	5.4	5.9	3.2	3.2	5.9	5.2	6.3
대학교육이상의 고등 교육	0.2	0.2	0.2	0.6	0.0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1)	(537)	(319)	(627)	(1,331)	(750)

〈표 8-30〉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건강관리교육	15.9	17.2	15.0	15.6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32.3	27.8	33.2	35.7
일반교양교육	6.0	3.6	6.6	7.8
정보화교육	7.6	7.6	8.2	7.1
자원봉사교육	9.7	10.2	9.7	9.3
취업 및 직업교육	5.9	10.5	4.8	2.8
노후준비교육	16.8	19.7	15.9	14.9
노후경제교육	5.4	3.3	6.1	6.8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2	0.1	0.5	0.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968)	(1,048)	(1,007)

〈표 8-31〉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3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1959년생	1960~1963년생	남자	여자
건강관리교육	8.6	7.1	10.3	8.6	8.6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18.2	18.8	17.4	17.9	18.4
일반교양교육	10.6	10.8	10.3	8.6	12.4
정보화교육	10.1	10.4	9.8	10.0	10.3
자원봉사교육	12.3	13.4	11.0	11.4	13.1
취업 및 직업교육	5.0	4.8	5.1	6.3	3.7
노후준비교육	23.7	23.1	24.4	23.2	24.2
노후경제교육	11.0	10.9	11.1	13.3	8.9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4	0.6	0.3	0.5	0.4
기타	0.1	0.0	0.2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97) ¹⁾	(1,616)	(1,383)	(1,421)	(1,577)

주: 1) 전체 응답자 중 무응답자 30명을 제외한 2,9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8-32〉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3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건강관리교육	8.6	8.9	7.3	8.1	8.9	7.7	10.1
여가취미관련교육	18.2	18.0	19.3	21.6	19.2	18.3	16.0
일반교양교육	10.6	10.7	10.1	10.6	9.7	10.9	10.7
정보화교육	10.1	10.1	10.3	10.3	9.3	9.5	11.9
자원봉사교육	12.3	12.3	12.2	9.4	11.0	12.4	14.6
취업 및 직업교육	5.0	4.7	6.3	6.8	4.1	4.8	5.2
노후준비교육	23.7	23.5	25.0	26.8	25.6	24.8	18.9
노후경제교육	11.0	11.4	9.2	6.1	11.5	11.0	12.3
대학교육이상의 고등 교육	0.4	0.4	0.4	0.3	0.6	0.5	0.3
기타	0.1	0.1	0.0	0.0	0.0	0.2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97) ¹⁾	(2,473)	(524)	(310)	(616)	(1,326)	(746)

주: 1) 전체 응답자 중 무응답자 30명을 제외한 2,9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8-33〉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설계 희망 교육 분야(3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건강관리교육	8.6	8.4	8.4	8.9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18.2	20.2	16.7	17.9
일반교양교육	10.6	7.9	11.6	12.2
정보화교육	10.1	8.0	11.1	11.1
자원봉사교육	12.3	10.4	11.8	14.7
취업 및 직업교육	5.0	7.3	4.1	3.8
노후준비교육	23.7	28.3	23.4	19.7
노후경제교육	11.0	8.8	12.4	11.5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0.4	0.4	0.6	0.4
기타	0.1	0.3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997) ¹⁾	(951)	(1,044)	(1,002)

주: 1) 전체 응답자 중 무응답자 30명을 제외한 2,9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실질적인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56.1%는 없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의향이 있는 비율은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연하게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거주자들이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이 낮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8-34〉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있다	43.9	42.6	45.5	44.5	43.4
없다	56.1	57.4	54.5	55.5	5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1,633)	(1,394)	(1,433)	(1,594)

〈표 8-35〉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 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있다	43.9	44.8	39.9	26.3	34.6	48.2	51.6
없다	56.1	55.2	60.1	73.7	65.4	51.8	4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1)	(537)	(319)	(627)	(1,331)	(750)

〈표 8-36〉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향후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있다	43.9	36.3	44.1	51.1
없다	56.1	63.7	55.9	48.9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968)	(1,048)	(1,007)

그러나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64.1%가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대답했으며 24.7%가 5만 원 미만의 낮은 비용이라면 이용할 것으로 응답해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의 시장화 가능성이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표 8-37〉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비용지불 의향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1959	1960~1963	남자	여자
무료라면 이용	64.1	67.3	60.7	57.8	70.0
5만 원 미만	24.7	23.5	26.2	26.5	22.9
5~10만 원 미만	7.6	6.8	8.5	11.3	4.3
10~15만 원 미만	1.2	0.7	1.7	1.1	1.3
15~20만 원 미만	1.1	0.6	1.6	1.3	0.9
20만 원 이상	1.3	1.2	1.3	2.0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28) ¹⁾	(694)	(634)	(637)	(693)

주: 1)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32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8-38〉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비용지불 의향

(단위: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무료라면 이용	64.1	63.2	69.2	84.5	74.8	65.4	51.7
5만 원 미만	24.7	25.4	21.5	10.7	21.1	26.5	26.9
5~10만 원 미만	7.6	7.8	6.5	3.6	2.3	5.9	14.2
10~15만 원 미만	1.2	1.4	0.0	0.0	0.5	1.1	2.1
15~20만 원 미만	1.1	0.9	1.9	0.0	0.9	0.6	2.1
20만 원 이상	1.3	1.3	0.9	1.2	0.5	0.5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28) ¹⁾	(1,114)	(214)	(84)	(218)	(641)	(387)

주: 1)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32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8-39〉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비용지불 의향

(단위: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무료라면 이용	64.1	76.8	67.8	51.8
5만 원 미만	24.7	18.7	25.3	28.2
5~10만 원 미만	7.6	3.4	5.0	13.0
10~15만 원 미만	1.2	0.6	0.4	2.5
15~20만 원 미만	1.1	0.3	1.1	1.7
20만 원 이상	1.3	0.3	0.4	2.7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328) ¹⁾	(353)	(463)	(515)

주: 1) 노후설계컨설팅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32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노후 평생교육 기관에 대해 전체의 76.9%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비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86.9%, 강사의 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3.6%, 평생교육기관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9.4%인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과 같은 용이성 보다 질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4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평생교육 기관 접근성의 중요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19.7	57.2	16.0	7.0	0.1	100.0 (3,027)
지역						
동부	20.5	57.7	15.9	5.8	0.1	100.0 (2,492)
읍·면부	15.8	54.6	16.8	12.5	0.4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8.5	57.7	16.7	7.0	0.2	100.0 (1,632)
1960~1963년생	21.1	56.5	15.3	7.0	0.1	100.0 (1,393)
성						
남자	16.7	54.2	19.3	9.8	0.1	100.0 (1,433)
여자	22.4	59.9	13.1	4.5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6.9	63.3	11.0	8.5	0.3	100.0 (319)
중학교	17.9	56.8	16.3	8.8	0.3	100.0 (628)
고등학교	19.6	57.1	16.4	6.8	0.1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22.4	55.2	17.3	5.1	0.0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19.7	57.5	15.9	6.7	0.2	100.0 (2,593)
무배우	19.4	55.3	16.8	8.5	0.0	100.0 (445)
가구유형						
1인 가구	16.4	59.4	18.2	6.1	0.0	100.0 (166)
부부가족	15.8	60.7	14.0	8.4	1.1	100.0 (286)
부/모+미혼자녀	20.4	57.2	15.5	6.9	0.0	100.0 (2,242)
확대가족	20.0	53.0	20.0	7.0	0.0	100.0 (330)
기타가족	25.0	50.0	25.0	0.0	0.0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17.1	55.9	18.0	8.8	0.2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19.1	58.0	16.6	6.1	0.2	100.0 (1,050)
500만원 이상	22.7	57.4	13.6	6.3	0.0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8-4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평생교육 기관 비용의 중요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32.4	54.5	11.4	1.5	0.1	100.0	(3,027)
지역							
동부	32.0	55.3	11.2	1.5	0.1	100.0	(2,492)
읍·면부	34.5	51.0	12.8	1.5	0.2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2.6	54.6	11.1	1.4	0.2	100.0	(1,632)
1960~1963년생	32.1	54.5	11.8	1.6	0.0	100.0	(1,393)
성							
남자	30.7	53.7	14.0	1.4	0.1	100.0	(1,433)
여자	33.9	55.3	9.1	1.6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1.6	52.2	5.3	0.3	0.6	100.0	(319)
중학교	35.6	54.2	8.8	1.4	0.0	100.0	(628)
고등학교	33.8	53.4	11.0	1.8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23.2	57.7	17.3	1.5	0.3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30.9	55.5	11.9	1.6	0.2	100.0	(2,593)
무배우	41.7	48.6	8.8	0.9	0.0	100.0	(445)
가구유형							
1인 가구	38.6	48.2	12.7	0.6	0.0	100.0	(166)
부부가족	33.7	55.4	8.4	2.5	0.0	100.0	(286)
부/모+미혼자녀	32.2	55.0	11.1	1.4	0.2	100.0	(2,242)
확대가족	29.1	53.6	15.8	1.5	0.0	100.0	(330)
기타가족	50.0	50.0	0.0	0.0	0.0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40.9	50.6	7.7	0.8	0.0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30.7	57.1	11.2	0.9	0.1	100.0	(1,050)
500만원 이상	26.1	55.7	15.1	2.8	0.3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8-4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평생교육기관 강사 질의 중요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37.0	56.6	5.8	0.5	0.1	100.0	(3,027)
지역							
동부	37.0	57.3	5.1	0.5	0.0	100.0	(2,492)
읍·면부	37.0	53.3	9.1	0.4	0.2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7.3	55.9	5.9	0.8	0.1	100.0	(1,632)
1960~1963년생	36.7	57.5	5.7	0.1	0.0	100.0	(1,393)
성							
남자	35.2	56.9	7.3	0.5	0.0	100.0	(1,433)
여자	38.6	56.4	4.5	0.4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9	55.9	11.3	0.3	0.6	100.0	(319)
중학교	30.1	62.2	7.3	0.3	0.0	100.0	(628)
고등학교	37.6	57.0	4.8	0.6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43.9	51.6	4.1	0.4	0.0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37.5	56.8	5.1	0.5	0.1	100.0	(2,593)
무배우	34.2	55.5	10.1	0.2	0.0	100.0	(445)
가구유형							
1인 가구	34.1	55.7	9.6	0.6	0.0	100.0	(166)
부부가족	32.9	63.3	3.8	0.0	0.0	100.0	(286)
부/모+미혼자녀	37.0	56.7	5.6	0.6	0.1	100.0	(2,242)
확대가족	42.1	50.9	7.0	0.0	0.0	100.0	(330)
기타가족	25.0	50.0	25.0	0.0	0.0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8	60.4	8.5	0.3	0.0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38.2	56.9	4.8	0.0	0.1	100.0	(1,050)
500만원 이상	41.7	52.6	4.4	1.2	0.1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8-4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평생교육기관 기관수준 및 질의 중요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29.6	59.8	9.6	1.0	0.1	100.0 (3,027)
지역						
동부	29.8	60.8	8.4	1.0	0.0	100.0 (2,492)
읍·면부	28.7	55.1	15.3	0.7	0.2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8.5	60.5	9.8	1.0	0.1	100.0 (1,632)
1960~1963년생	30.8	59.0	9.4	0.8	0.0	100.0 (1,393)
성						
남자	28.3	59.0	11.6	1.1	0.0	100.0 (1,433)
여자	30.7	60.5	7.8	0.8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4.1	58.0	16.3	0.9	0.6	100.0 (319)
중학교	21.7	64.2	13.2	1.0	0.0	100.0 (628)
고등학교	29.7	62.0	7.5	0.8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38.4	52.8	7.6	1.2	0.0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30.4	59.5	9.0	1.0	0.1	100.0 (2,593)
무배우	24.9	61.8	13.1	0.2	0.0	100.0 (445)
가구유형						
1인 가구	17.5	69.9	12.0	0.6	0.0	100.0 (166)
부부가족	24.2	63.9	11.2	0.7	0.0	100.0 (286)
부/모+미혼자녀	30.5	59.0	9.3	1.2	0.1	100.0 (2,242)
확대가족	34.0	57.1	8.8	0.0	0.0	100.0 (330)
기타가족	25.0	50.0	25.0	0.0	0.0	100.0 (4) ¹⁾
가구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22.9	63.4	13.1	0.6	0.0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31.1	59.9	8.4	0.5	0.1	100.0 (1,050)
500만원 이상	34.4	56.2	7.6	1.8	0.1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정보화 수준을 살펴보면 컴퓨터 및 인터넷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하는 비율이 13.6%,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활용하는 비율이 33.2%로서 약 46.8%는 일상생활에서 무리가 없는 정도의 정보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비율도 각각 28%, 25.3%에 달해 아직까지 과반수 이상은 정보화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정보화 수준이 낮은 편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러하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지역 거주자들과 학력수준이 낮은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들 가운데 71.1%가 전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가운데 42.7%가 정보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표적화 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표 8-44〉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가능정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매우 능숙하게 사용 한다	13.6	8.9	19.1	20.7	7.2
정보 찾는데 어려움 없음	33.2	30.4	36.4	36.2	30.5
정보 찾는데 어려움 있음	28.0	28.9	26.9	24.7	31.0
전혀 사용할 줄 모름	25.3	31.8	17.6	18.5	3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1,633)	(1,394)	(1,433)	(1,594)

〈표 8-45〉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가능정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교육수준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이상
매우 능숙하게 사용	13.6	14.7	8.4	0.3	0.8	9.9	36.4
정보 찾는데 어려움 없음	33.2	34.3	27.8	5.7	18.1	38.6	47.9
정보 찾는데 어려움 있음	28.0	28.1	27.2	23.0	32.7	35.2	13.2
전혀 사용할 줄 모름	25.3	22.8	36.6	71.1	48.4	16.2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1)	(537)	(319)	(627)	(1,331)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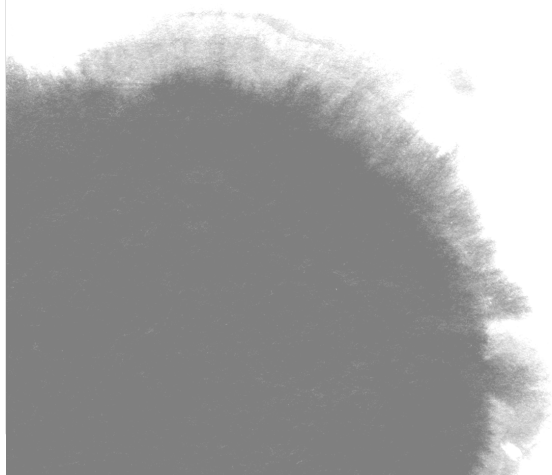
〈표 8-46〉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가능정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매우 능숙하게 사용 한다	13.6	4.4	12.8	23.2
정보 찾는데 어려움 없음	33.2	21.8	33.9	43.4
정보 찾는데 어려움 있음	28.0	31.1	29.7	23.2
전혀 사용할 줄 모름	25.3	42.7	23.6	10.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968)	(1,048)	(1,007)

09

노후가치관 및 정책인지도



제9장 노후 가치관 및 정책인지도

본장에서는 베이비 부머가 노후생활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가치관과 정책 인지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과 관련된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장례와 죽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로는 노후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에 대한 이들의 인지도와 제도 활용 욕구를 파악할 것이다.

제1절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 관련 가치관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과 노후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등 경제적 부양책임에 대해 자녀나 가족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많았고, 연금 등 사회보험이 19.1%, 본인이 15.6%, 국가가 11.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노부모의 부양에 대해서는 자녀나 가족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족이나 자녀 다음으로 연금 등 사회보험이 본인에 대한 응답보다 3.5% 많아 노후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타났다.

〈표 9-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본인	배우자	자녀·가족	연금 사회보험	국가	계 (명)
전체	15.6	1.7	51.7	19.1	11.8	100.0 (3,027)
지역						
동부	15.3	1.8	50.4	20.2	12.3	100.0 (2,491)
읍·면부	16.9	1.7	57.5	14.3	9.5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6.7	1.7	50.6	18.8	12.2	100.0 (1,633)
1960~1963년생	14.4	1.9	53.0	19.5	11.3	100.0 (1,395)
성						
남자	18.4	0.6	53.4	16.9	10.6	100.0 (1,434)
여자	13.1	2.8	50.1	21.1	12.9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3.1	1.3	56.6	11.9	17.2	100.0 (320)
중학교	11.6	1.0	61.9	12.8	12.8	100.0 (627)
고등학교	15.9	2.3	49.3	20.7	11.9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9.6	1.7	45.3	24.8	0.5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15.2	1.7	51.9	20.4	10.7	100.0 (2,593)
무배우	17.9	1.8	50.3	11.7	18.2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21.8	1.8	47.3	9.1	20.0	100.0 (165)
부부가족	11.6	0.7	55.4	17.9	14.4	100.0 (285)
부/모+미혼자녀	15.9	2.0	50.3	21.0	10.9	100.0 (2,243)
확대가족	14.2	0.9	60.3	13.0	11.5	100.0 (330)
기타가족	25.0	0.0	50.0	0.0	2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3	1.1	52.2	18.2	12.1	100.0 (2,300)
미취업	13.3	3.8	50.1	22.1	10.7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4.4	1.7	54.4	13.1	16.4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15.7	1.1	53.1	19.0	11.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16.7	2.5	47.6	25.2	8.0	100.0 (1,008)

주: 1) 실수가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지역별로는 동부(50.4%)에 비해 읍·면부(57.5%)에서 자녀·가족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나타났고, 출생 코호트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모와 후기 베이비 부모의 경우 연금 등 사회보험이나 국가에 부양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각각 31.0%, 30.8%로 나타나 전기 베이비 부모에서 사회나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53.4%)에 비해 여자(50.1%)이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연금 등 사회보험(21.1%)이나 국가(12.9%)에 대한 부양책임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역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험에 의한 부양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확대가족에서 자녀나 가족에 의한 부양책임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1인 가구나 기타 가족에서 국가에 의한 부양책임(각각 20.0%, 25.0%)을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자녀나 가족에 의한 부양책임을 높은 가운데 직업이 있는 경우 본인이 16.3%로 다소 높았고, 직업이 없는 경우 연금 등 사회보험(22.1%)을 선호하고 있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이나 연금 등 사회보험의 부양책임을 더 강하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자녀관계 만족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환정도에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책임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녀관계에서 만족하고 있는 경우 자녀 및 가족의 부양책임을 불만족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환 정도에 따라서는 도움을 주는 편의 경우 자녀 및 가족의 책임(53.4%)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도움을 받는 편의 경우 연금 등 사회보험에 의한 책임을 상당히 높게 33.3%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베이비 부머의 자녀관계 만족도 및 경제적 교환 정도에 따른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책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가족	연금 사회보험	국가	계 (명)
자녀관계 만족도						
만족	15.1	1.7	54.6	18.6	9.9	100.0 (2,410)
보통	18.5	1.1	36.0	22.2	22.2	100.0 (378)
불만족	16.1	5.7	46.0	24.1	8.0	100.0 (87)
부모와 경제적 교환						
경제적 교환 없음	17.6	0.0	48.2	18.8	15.3	100.0 (85)
도움을 주는 편	13.3	2.2	53.4	20.7	10.5	100.0 (1,441)
도움을 받는 편	19.6	0.0	35.3	33.3	11.8	100.0 (51)
주고받는 편	19.0	1.3	44.3	24.1	11.4	100.0 (79)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49.1%로 가장 많았고, 연금 등 사회보험이 28.7%, 배우자 9.5%, 국가 9.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일반적인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책임에 대해서 자녀 및 가족에 대한 부담책임이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나의 노후 생활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응답이 많은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에 비해 사회나 국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가족에게 의지하기 보다는 사회의 연대책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56.3%)에서 동부(47.6%)에 비해 본인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본인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1.4%로 여자(38.1%)에 비해 상당히 높았고, 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7.0%로 남자에 비해 15.8%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주도권을 남편이 갖고 있는 가족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경우 본인(52.5%), 연금 등 사회보험(34.3%)의 응답이 높은 반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에서는 자녀 및 가족(6.0%), 국가(17.2%)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본인의 응답률이 4.1% 높았다. 또한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19.3%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11.7%p 많은 반면 연금 등 사회보험이라는 응답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9.4%p 낮게 조사되었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나 부부가족에서 본인의 응답률이 각각 57.8%, 52.8%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에서는 국가의 응답률이 17.5%로 비교적 높았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에서는 연금 등 사회보험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8.0%)이 다른 가구소득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9-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바람직한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본인	배우자	자녀·가족	연금	사회보험	국가
전체	49.1	9.5	3.3	28.7	9.3	100.0 (3,027)
지역						
동부	47.6	9.2	3.3	30.2	9.7	100.0 (2,491)
읍·면부	56.3	10.8	3.4	22.0	7.5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7.4	10.0	3.9	28.5	10.2	100.0 (1,633)
1960~1963년생	51.2	9.0	2.7	29.0	8.2	100.0 (1,394)
성						
남자	61.4	1.2	2.4	27.6	7.5	100.0 (1,433)
여자	38.1	17.0	4.1	29.8	10.9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48.3	10.7	6.0	17.9	17.2	100.0 (319)
중학교	49.6	11.5	4.5	21.4	13.1	100.0 (627)
고등학교	47.3	9.7	2.9	31.7	8.5	100.0 (1,330)
전문대학 이상	52.5	6.9	2.0	34.3	4.3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48.5	11.1	2.7	30.1	7.6	100.0 (2,592)
무배우	52.6	0.2	7.1	20.7	19.3	100.0 (435)

〈표 9-3〉 계속

(단위: %, 명)

특성	본인	배우자	자녀·가족	연금	사회보험	국가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57.8	0.0	2.4	15.7	24.1	100.0	(166)	
부부가족	52.8	15.0	2.1	19.6	10.5	100.0	(286)	
부/모+미혼자녀	48.3	9.5	3.5	30.8	7.9	100.0	(2,242)	
확대가족	47.0	10.0	3.0	29.7	10.3	100.0	(330)	
기타가족	50.0	0.0	0.0	25.0	2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55.2	5.6	2.8	27.7	8.7	100.0	(2,299)	
미취업	30.0	21.8	4.9	32.0	11.2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1.9	6.7	5.3	18.6	17.5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49.8	10.6	3.0	29.2	7.4	100.0	(1,050)	
500만 원 이상	45.8	11.1	1.7	38.0	3.4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군지역)이 45.3%, 중소도시 24.7%, 대도시(7대 특별·광역시) 17.2%,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8.9%, 실버타운 등 노인전용 거주지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의 응답률이 각각 읍·면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동부의 경우 대도시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20.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현재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노후에도 도시에 살면서 의료, 문화 등의 도시 생활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농어촌에 살기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16.5%포인트 높았고,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각각 6.4%포인트, 1.2%포인트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이하의 경우 농어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62.4%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상에서는 대도시(25.5%)나 중소도시(28.0%)가 선호되고 있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비

율(10.3%)이 다소 높았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는 부부가족의 경우 농어촌(57.9%)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고, 확대가족에서는 대도시(18.2%), 중소도시(25.8%)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농어촌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9-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선호하는 노후 거주지

(단위: %, 명)						
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난지역	노인전문거주지	계 (명)
전체	17.2	24.7	45.3	8.9	3.8	100.0 (3,027)
지역						
동부	20.3	25.6	39.8	10.1	4.1	100.0 (2,491)
읍·면부	2.8	20.7	70.7	3.6	2.2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7.1	23.9	44.5	9.6	4.9	100.0 (1,633)
1960~1963년생	17.4	25.8	46.2	8.1	2.5	100.0 (1,394)
성						
남자	13.9	24.1	54.0	5.6	2.4	100.0 (1,434)
여자	20.3	25.3	37.5	11.9	5.0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0	15.7	62.4	9.7	2.2	100.0 (319)
중학교	12.8	21.7	50.6	11.3	3.5	100.0 (626)
고등학교	16.4	26.5	45.5	8.1	3.5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25.5	28.0	33.4	7.9	5.2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17.6	25.0	44.9	8.7	3.9	100.0 (2,593)
무배우	15.2	23.4	48.0	10.3	3.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11.4	24.1	54.8	6.0	3.6	(166)
부부가족	9.1	23.2	57.9	6.0	3.9	100.0 (285)
부/모+미혼자녀	18.6	24.8	42.7	9.9	3.9	(2,243)
확대가족	18.2	25.8	47.0	6.1	3.0	100.0 (330)
기타가족	0.0	25.0	50.0		2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9	24.0	49.5	7.5	3.1	100.0 (2,299)
미취업	21.3	27.2	31.9	13.5	6.2	100.0 (72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2.5	21.7	53.5	9.2	3.2	100.0 (969)
300~500만원 미만	14.0	25.0	48.3	9.2	3.4	100.0 (1,050)
500만원 이상	25.3	27.2	34.3	8.4	4.8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강, 호수 등의 자연환경이 47.3%로 가장 많았고, 친구집단, 사회참여 기반 등의 사회적 소통이 16.0%, 보건의료시설 15.9%, 문화여가시설 10.5%, 자녀와의 거리 10.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앞에 제시된 노후에 살고 싶은 지역 유형의 결과와 노후 주거지 고려시 우선 조건을 고려할 때 친자연, 친환경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노후에 경제, 정서적인 부양의 측면에서 자녀에 의존적이었던 모습이 많이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에서 읍·면부에 비해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응답이 11.2%로 비교적 높아 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읍·면부의 경우 자연환경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자녀와의 거리나 사회적 소통에 있어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각각 4.3%포인트, 2.6%포인트 높게 조사되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에는 문화여가시설, 보건의료시설에 대해 각각 3.7%포인트, 1.8%포인트 높게 응답하여 문화·의료적인 혜택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자연환경(12.5%포인트)을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자녀와의 거리(7.3%포인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자연환경이나 자녀와의 거리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대학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에서는 문화여가시설(17.7%), 사회적 소통(20.6%)을 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을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에서는 사회적 소통(21.8%)이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부부가족이나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자녀와의 거리(각각 10.8%, 11.1%)가 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자연환경과 사회적 소통에 대한 응답률이 미취업의 경우에 비해 각각 11.7%포인트, 3.7%포인트 높았고, 미취업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시설’이 취업중인 경우에 비해 8.0%포인트 높아 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경우 자연환경의 응답률이 높았고, 소득이 높은 경우(500만 원 이상) 문화여가시설(15.3%), 보건의료시설¹(18.3%)이 노후 주거지 선택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표 9-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주거지 선택 시 중요한 조건

(단위: %, 명)

특성	보건의료 시설	문화여가 시설	자연 환경	자녀와의 거리	사회적 소통	기타	계	(명)
전체	15.9	10.5	47.3	10.2	16.0	0.0	100.0	(3,027)
지역								
동부	16.0	11.2	45.2	11.0	16.6	0.0	100.0	(2,491)
읍·면부	15.5	7.1	57.4	6.5	13.6	0.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5.1	8.8	46.8	12.2	17.2	0.0	100.0	(1,632)
1960~1963년생	16.9	12.5	48.1	7.9	14.6	0.1	100.0	(1,394)
성								
남자	14.0	8.2	53.9	6.4	17.4	0.1	100.0	(1,434)
여자	17.6	12.5	41.4	13.7	14.8	0.0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1.9	3.8	56.7	16.0	11.6	0.0	100.0	(319)
중학교	14.5	7.2	51.3	12.9	14.1	0.0	100.0	(626)
고등학교	17.7	9.5	47.9	9.5	15.4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5.6	17.7	39.1	6.8	20.6	0.1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15.8	11.1	47.3	10.3	15.5	0.0	100.0	(2,593)
무배우	16.8	6.9	47.6	9.4	19.3	0.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16.4	3.0	55.8	3.0	21.8	0.0	100.0	(165)
부부가족	13.3	8.0	54.5	10.8	13.3	0.0	100.0	(286)
부/모+미혼자녀	16.3	11.4	45.2	11.1	16.0	0.0	100.0	(2,243)
확대가족	15.1	10.3	51.4	7.9	15.4	0.0	100.0	(331)
기타가족	50.0	0.0	25.0	0.0	25.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0	10.0	50.2	8.9	16.9	0.0	100.0	(2,300)
미취업	22.0	12.1	38.5	14.3	13.2	0.0	100.0	(72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4.4	7.9	52.0	10.4	15.4	0.0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15.0	8.3	51.7	10.5	14.4	0.1	100.0	(1,050)
500만원 이상	18.3	15.3	38.4	9.6	18.4	0.0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노후에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동거자에 대해서,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밖에 ‘아들과 살고 싶다’ 2.9%, ‘형편이 되는 자녀와 살고 싶다’ 2.5%, ‘딸과 살고 싶다’가 0.7% 수준이었다.

제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유배우 1인 가구, 300만 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아들과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에 희망하는 동거자

(단위: %, 명)						
특성	아들	딸	형편되는 자녀	부부/독거	기타	계 (명)
전체	2.9	0.7	2.5	93.2	0.6	100.0 (3,027)
지역						
동부	3.0	0.8	2.6	92.9	0.7	100.0 (2,491)
읍·면부	2.6	0.2	2.1	94.8	0.4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2	0.7	2.7	92.9	0.6	100.0 (1,633)
1960~1963년생	2.7	0.8	2.3	93.5	0.7	100.0 (1,395)
성						
남자	2.6	0.4	2.1	94.3	0.6	100.0 (1,433)
여자	3.3	0.9	2.9	92.2	0.7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	1.3	2.8	91.8	0.9	100.0 (319)
중학교	4.3	1.0	2.2	92.0	0.5	100.0 (626)
고등학교	3.0	0.3	2.6	93.7	0.5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3	1.1	2.5	94.1	0.9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1.9	0.4	2.3	95.3	0.2	100.0 (2,594)
무배우	9.2	2.5	3.9	80.7	3.7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3.6	0.6	1.2	89.8	4.8	100.0 (166)
부부가족	1.8	0.7	1.1	96.5	0.0	100.0 (285)
부/모+미혼자녀	3.0	0.7	2.4	93.4	0.4	100.0 (2,243)
확대가족	3.3	0.6	4.8	90.9	0.3	100.0 (330)
기타가족		20.0	20.0	40.0	20.0	100.0 (5) ¹⁾

〈표 9-6〉 계속

(단위: %, 명)

특성	아들	딸	형편되는 자녀	부부/독거	기타	계 (명)
현 취업상태						
취업중	2.8	0.6	2.3	93.5	0.7	100.0 (2,300)
미취업	3.4	1.1	3.0	92.0	0.4	100.0 (72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5	1.1	2.9	89.9	1.5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1.9	0.7	2.9	94.5	0.1	100.0 (1,049)
500만원 이상	2.3	0.4	1.8	95.2	0.3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결혼할 때까지가 41.5%로 가장 많았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 29.6%, 직장이 생길 때까지 23.9%,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 3.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출생코호트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가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결혼할 때까지’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이 7.0%포인트 높아 연령이 많을수록 분가 전까지를 부모의 부양책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이 33.8%로 여성의 25.7%에 비하여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할 때까지가 남자에 비해 10.6%포인트 높아 자녀에 대해 더욱 보호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교육수준 별로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결혼할 때까지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의 응답률은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결혼할 때까지가 42.7%로 배우자에 없는 경우에 비해 8.8%포인트 많았고, 역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가 37.1%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8.8%포인트 많았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의 경우 결혼할 때까지(28.1%)가 낮은 반

면, 직장이 생길 때까지(27.5%)나 학업을 마칠 때까지(37.1%)가 다소 많은 경향을 나타냈고, 확대가족에서는 결혼할 때까지의 응답률(47.3%)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300만 원 이하로 낮은 경우 결혼할 때까지가 37.3%로 비교적 낮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32.0%), 직장이 생길 때까지(25.0%)가 타 소득군에 비하여 응답률이 높다. 반면,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률(46.8%)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의 경우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률이 44.6%로 취업중인 경우의 40.6%에 비하면 4.0%포인트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9-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의 자녀 부양 책임시기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학업 마칠 때까지	성년인 만20세 까지	직장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 까지	주거 마련 까지	기타	계	(명)
전체	29.6	3.2	23.9	41.5	1.1	0.8	0.1	100.0	(3,027)
지역									
동부	29.9	3.3	23.8	41.3	1.0	0.6	0.1	100.0	(2,491)
읍·면부	28.3	2.6	24.2	42.3	1.1	1.5	0.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6.6	2.7	23.4	44.7	1.3	1.2	0.1	100.0	(1,631)
1960~1963년생	33.1	3.7	24.4	37.7	0.7	0.3	0.1	100.0	(1,396)
성									
남자	33.8	4.4	24.4	35.9	0.6	0.8	0.1	100.0	(1,433)
여자	25.7	2.1	23.4	46.5	1.5	0.8	0.0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5.7	3.1	28.5	41.7	0.6	0.3	0.0	100.0	(319)
중학교	25.8	2.2	22.6	47.5	1.1	0.8	0.0	100.0	(628)
고등학교	29.8	2.9	23.5	41.9	0.9	1.0	0.1	100.0	(1,330)
전문대학 이상	33.9	4.7	23.9	35.6	1.5	0.4	0.1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28.3	2.9	24.3	42.7	1.1	0.7	0.1	100.0	(2,593)
무배우	37.1	4.8	21.7	33.9	1.2	1.4	0.0	100.0	(434)

〈표 9-7〉 계속

(단위: %, 명)

특성	학업 마칠 때까지	성년인 만20세 까지	직장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 까지	주거 미련 까지	기타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37.1	6.0	27.5	28.1	0.0	1.2	0.0	100.0 (167)
부부가족	25.2	4.5	24.8	40.2	2.1	3.1	0.0	100.0 (286)
부/모+미혼자녀	29.6	3.0	24.1	41.7	1.0	0.4	0.1	100.0 (2,242)
확대가족	29.4	1.5	20.0	47.3	1.2	0.6	0.0	100.0 (330)
기타가족	50.0	0.0	0.0	50.0	0.0	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30.0	3.4	24.4	40.6	0.7	0.8	0.1	100.0 (2,298)
미취업	28.2	2.5	22.3	44.6	2.1	0.4	0.0	100.0 (72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2.0	3.3	25.0	37.3	0.8	1.4	0.1	100.0 (968)
300-500만원 미만	28.2	3.6	25.8	40.3	1.4	0.6	0.1	100.0 (1,050)
500만원 이상	28.6	2.6	20.8	46.8	0.9	0.3	0.0	100.0 (1,006)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가 희망하는 노후 생활로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길 희망하는 응답률이 42.3%로 가장 높고,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18.8%,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16.8%, 종교활동을 하면서 9.1%,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7.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동부의 경우 읍·면부에 비해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의 응답률이 4.6%포인트 높고, 읍·면부에서는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동부에 비해 6.6%포인트 높았다. 또한 출생코호트별로는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아 취미·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여자에 비해 17.7%포인트 높은 28.1%로 근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

는 일을 하면서(20.3%), 종교활동을 하면서(12.4%)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고, 대학이상의 고등학력자에서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30.8%로 유배우자의 6.7%에 비해 14.1%포인트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혹은 ‘종교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표 9-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희망하는 노후 생활

(단위: %, 명)									
특성	취미 생활	자기 계발	자원 봉사	종교 활동	소득 창출	손자녀 양육	무위/ 안식	기타	계 (명)
전체	42.3	7.5	16.8	9.1	18.8	2.5	3.0	0.0	100.0 (3,027)
지역									
동부	42.6	8.3	16.7	9.3	17.6	2.5	3.0	0.0	100.0 (2,491)
읍·면부	40.8	3.7	17.3	8.4	24.2	2.2	3.4	0.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9.9	6.9	16.1	10.5	19.7	3.1	3.9	0.0	100.0 (1,633)
1960~1963년생	45.1	8.2	17.6	7.5	17.7	1.7	2.2	0.1	100.0 (1,395)
성									
남자	42.9	7.1	12.8	5.5	28.1	1.0	2.5	0.0	100.0 (1,433)
여자	41.8	7.8	20.3	12.4	10.4	3.8	3.5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6.3	4.4	17.5	5.9	25.9	5.6	4.4	0.0	100.0 (320)
중학교	44.7	4.6	15.3	6.1	19.9	3.3	6.1	0.0	100.0 (627)
고등학교	43.8	5.9	16.0	10.9	19.3	2.0	2.2	0.1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40.3	14.0	19.0	10.0	13.6	1.5	1.6	0.0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43.1	7.9	17.6	9.4	16.7	2.5	2.6	0.0	100.0 (2,592)
무배우	37.5	4.6	12.0	7.4	30.8	2.1	5.7	0.0	100.0 (435)

〈표 9-8〉 계속

(단위: %, 명)

특성	취미 생활	자기 계발	자원 봉사	종교 활동	소득 창출	손자녀 양육	무위/ 안식	기타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34.1	3.6	11.4	8.4	32.9	1.8	7.8	0.0	100.0	(167)
부부가족	48.1	3.2	16.8	7.4	16.5	3.2	4.9	0.0	100.0	(285)
부/모+미혼자녀	41.7	8.5	17.5	9.5	17.6	2.4	2.7	0.0	100.0	(2,242)
확대가족	45.6	6.4	14.3	8.2	21.0	2.7	1.8	0.0	100.0	(329)
기타가족	25.0	0.0	0.0	0.0	75.0	0.0	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44.2	7.2	15.1	7.5	22.0	1.7	2.4	0.0	100.0	(2,299)
미취업	36.3	8.4	22.1	14.1	8.7	5.1	5.2	0.1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40.8	4.2	14.3	8.3	25.0	3.0	4.4	0.0	100.0	(969)
300~500만원미만	41.1	7.9	16.9	8.9	19.5	2.6	3.1	0.1	100.0	(1,049)
500만 원 이상	45.0	10.1	19.0	10.2	11.9	1.9	1.8	0.0	100.0	(1,008)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300만 원 미만) 근로 욕구가 25.0%로 상대적으로 높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자기계발’(10.1%)이나 ‘자원봉사’(19.0%)를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률이 22.0%로 미취업자의 경우에 비해 13.3%포인트 높게 조사되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노후에도 계속 근로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를 조사한 결과, ‘자녀의 취업 및 결혼’이 33.8%, ‘자녀 교육’이 25.6%, ‘본인의 건강’이 18.7%, ‘생계비 마련’이 8.8%, ‘노후 준비’가 6.4%의 순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자녀 부양에 대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9〉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출생년도		성	
		동부	읍·면부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자녀 교육	25.6	27.0	19.0	14.1	39.0	31.2	20.6
자녀의 취업·결혼	33.8	33.5	34.8	40.6	25.8	25.5	41.1
생계비 마련	8.8	9.3	6.9	8.6	9.1	11.7	6.3
주택 구입	3.0	3.2	2.0	2.4	3.6	3.0	2.9
본인 건강	18.7	16.9	26.8	23.1	13.5	16.9	20.3
여가·취미 활동	2.1	2.2	1.5	2.3	1.9	2.9	1.4
노부모 부양	1.4	1.3	1.9	1.1	1.6	1.3	1.4
노후 준비	6.4	6.3	6.9	7.5	5.2	7.0	5.9
기타	0.3	0.2	0.4	0.2	0.3	0.4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1)	(537)	(1,633)	(1,394)	(1,434)	(1,595)

지역별로는 동부에서는 ‘생계비 마련’이 읍·면부에 비해 많았고, 읍·면부에서는 ‘본인의 건강’이 최대 관심사라는 응답이 26.8%로 동부의 16.9%에 비해 9.9%포인트 많았다. 출생코호트별로는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을 가장 큰 관심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39.0%로 전기 베이비 부머의 14.1%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전기 베이비 부머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이라는 응답이 40.6%로 후기 베이비 부머의 25.8%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즉 자녀의 성장과 생애주기에 따라 연령대별로 관심사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응답자의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가족에서는 ‘본인의 건강’이 46.7%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다소 높고,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이 37.2%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확대가족에서는 ‘노부모 부양’이 5.2%로 다른 가구 유형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 가구유형에 따라 응답자의 최근 관심사가 유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최근의 관심사가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9-10〉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가구유형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육수준				가구유형				
		초·중·고 이하	중·고 학	고·대 학	대·이 상	1인 가구	부부 가족	부부 미혼자녀	확대 가족	기타 가족
자녀 교육	25.6	9.7	14.0	24.7	43.7	1.8	2.1	30.1	27.9	20.0
자취·취업·결혼	33.8	35.2	38.9	37.0	23.1	5.4	29.1	37.2	28.5	0.0
생계비 마련	8.8	13.8	7.3	10.0	5.9	33.1	8.4	7.1	8.5	20.0
주택 구입	3.0	3.1	5.3	2.9	1.1	5.4	2.1	3.0	2.1	0.0
본인 건강	18.7	34.6	24.8	15.5	12.3	40.4	46.7	13.5	18.8	40.0
여가·취미 활동	2.1	0.6	1.4	1.7	4.0	2.4	3.2	2.0	1.8	0.0
노부모 부양	1.4	0.3	1.8	1.3	1.6	0.6	0.7	0.9	5.2	0.0
노후 준비	6.4	2.5	6.4	6.6	7.9	10.8	7.4	5.9	7.3	20.0
기타	0.3	0.0	0.2	0.3	0.4	0.0	0.4	0.3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318)	(628)	(1,332)	(748)	(166)	(285)	(2,242)	(330)	(5) ¹⁾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응답자의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의 취업 및 결혼(36.3%), 자녀 교육(27.8%)의 응답률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계비 마련(24.7%), 본인의 건강(26.3%)의 응답률이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미취업에 비해 노후 준비가 최근 관심사라는 응답률이 높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생계비 마련(17.4%)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다소 많은 수준이었다.

〈표 9-11〉 베이비 부머의 결혼상태·취업 상태·가구소득별 최근 가장 큰 관심사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상태		취업상태		가구소득		
		유배우	무배우	취업중	미취업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자녀 교육	25.6	27.8	12.4	26.9	21.6	15.8	27.5	33.0
자녀의 취업·결혼	33.8	36.3	18.5	32.2	38.7	23.1	39.9	37.5
생계비 마련	8.8	6.2	24.7	9.5	6.6	17.4	6.7	2.8
주택 구입	3.0	2.5	5.9	3.1	2.5	5.6	2.1	1.4
본인 건강	18.7	17.4	26.3	17.3	23.1	28.7	14.2	13.7
여가·취미 활동	2.1	2.2	1.6	2.2	1.8	1.1	2.1	3.1
노부모 부양	1.4	1.3	1.8	1.4	1.1	2.0	1.5	0.7
노후 준비	6.4	6.1	8.5	7.1	4.4	6.1	6.0	7.2
기타	0.3	0.3	0.2	0.3	0.3	0.2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592)	(437)	(2,297)	(728)	(968)	(1,049)	(1,007)

한편 본인의 노후와 관련하여, 노후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 및 기능악화’가 54.7%로, 베이비 부머는 노후에 본인의 건강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31.8%로 다음 순위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소외 및 고독감’ 4.3%, ‘무료함’ 4.1% 등으로 나타났으나 응답률은 미미하였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읍·면부에서 ‘건강악화’가 동부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출생코호트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가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더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건강 및 기능악화’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 및 기능 악화’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부/모와 미혼자녀가 사는 경우 ‘건강 및 기능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1인 가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외 및 고독감’의 응답률이 높았다.

〈표 9-12〉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출생년도		성	
		동부	읍·면부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배우자 관계	1.9	2.1	1.1	1.6	2.4	2.3	1.6
자녀 관계	1.9	2.0	1.3	1.6	2.2	1.7	2.1
친구 관계	0.3	0.3	0.2	0.3	0.3	0.3	0.3
건강 악화	54.7	54.3	56.6	54.0	55.6	50.6	58.4
경제난	31.8	31.8	31.8	33.0	30.5	34.0	29.8
주거문제	0.8	0.8	0.7	0.7	0.9	0.7	0.9
소외/고독감	4.3	4.3	4.3	4.8	3.7	5.1	3.6
무료함	4.1	4.2	3.9	4.0	4.2	5.2	3.2
기타	0.1	0.1	0.0	0.0	0.2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1)	(537)	(1,632)	(1,392)	(1,433)	(1,595)

〈표 9-13〉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가구유형별 노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 것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육수준				가구유형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1인 가구	부부 가족	부부+ 미혼자녀	확대 가족	기타 가족
배우자관계	1.9	2.2	1.4	1.4	3.3	1.8	2.1	2.1	0.9	0.0
자녀 관계	1.9	3.1	1.9	1.7	1.9	0.6	1.8	2.1	1.5	0.0
친구 관계	0.3	0.0	0.2	0.5	0.3	0.6	0.0	0.4	0.0	0.0
건강 악화	54.7	45.8	51.0	54.5	61.6	37.1	53.5	54.8	63.6	25.0
경제난	31.8	42.6	36.7	33.7	19.5	44.3	38.0	30.5	28.5	25.0
주거문제	0.8	0.9	1.8	0.7	0.4	1.8	0.0	1.0	0.3	0.0
소외/고독감	4.3	4.4	3.7	3.7	5.9	9.6	2.5	4.5	2.1	25.0
무료함	4.1	0.9	3.3	3.7	7.0	4.2	2.1	4.5	3.0	25.0
기타	0.1	0.0	0.0	0.2	0.1	0.0	0.0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319)	(627)	(1,331)	(752)	(167)	(284)	(224)	(330)	(4) ¹⁾

응답자의 결혼상태에 따른 노후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살펴보면, 유배우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악화’가 57.3%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39.1%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45.7%)이나 ‘소외 및 고독감’(8.3%)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특징을 나타냈다. 반면,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자에 비해 ‘건강 및 기능 악화’를 더욱 우려하고 있었다.

〈표 9-14〉 베이비 부머의 결혼상태·취업상태·가구소득별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상태		취업상태		가구소득		
		유배우	무배우	취업중	미취업	300만원 미만	300~ 500만원	500만원 이상
배우자 관계	1.9	2.2	0.7	1.6	3.0	1.6	1.3	3.0
자녀 관계	1.9	1.8	2.8	2.0	1.5	2.2	1.9	1.6
친구 관계	0.3	0.3	0.2	0.3	0.3	0.2	0.5	0.3
건강 악화	54.7	57.3	39.1	52.6	61.2	41.8	55.8	66.0
경제난	31.8	29.4	45.7	33.6	26.1	47.3	31.0	17.5
주거문제	0.8	0.8	0.7	0.7	1.0	1.5	0.6	0.5
소외/고독감	4.3	3.6	8.3	4.7	3.0	3.6	4.5	4.8
무료함	4.1	4.4	2.5	4.2	4.0	1.8	4.4	6.1
기타	0.1	0.1	0.0	0.1	0.0	0.0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594)	(435)	(2,299)	(729)	(970)	(1,050)	(1,006)

다음으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1순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건강’이 45.1%로 가장 높고,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가 40.6%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자녀의 성공’이 6.3%, ‘가족의 화목과 평안’이 4.6%, ‘소득 활동’이 2.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에 이어 자녀의 성공이 조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자기중심적인 문화보다는 가족이나 자녀 중심적인 문화·가치관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동부의 경우 읍·면부에 비해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가 중요하다는 인식(42.4%)이 강하다. 반면 읍·면부에서는 ‘건강’(48.3%), ‘자녀의 성공’(8.6%)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출생코호트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48.3%로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6.9%포인트 높다. 반면 후기 베이비 부머는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2.1%)나 ‘자녀의 성공’(7.5%)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의 경우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와 ‘소득활동’이 여자에 비해 각각 2.2%포인트, 2.9%포인트 높게 나타

나 경제적인 조건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9-15〉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출생년도		성	
		동부	읍·면부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경제적 안정과 여유	40.6	42.4	32.3	39.3	42.1	41.8	39.6
건강	45.1	44.5	48.3	48.3	41.4	44.1	46.0
가족의 화목·평안	4.6	4.4	5.6	4.8	4.4	4.4	4.8
자녀의 성공	6.3	5.9	8.6	5.4	7.5	4.4	8.1
친구 관계	0.3	0.3	0.2	0.3	0.3	0.3	0.3
소득활동	2.1	1.6	4.1	1.3	3.0	3.6	0.7
자기계발활동	0.3	0.2	0.7	0.1	0.6	0.6	0.1
지속적 사회참여	0.2	0.2	0.0	0.1	0.4	0.1	0.2
사회기여활동	0.1	0.0	0.2	0.0	0.1	0.1	0.1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0.4	0.4	0.0	0.4	0.3	0.5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1)	(537)	(1,633)	(1,394)	(1,432)	(1,594)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조건보다 ‘건강’(50.6%), ‘자녀의 성공’(10.0%), ‘소득활동’(4.7%) 등의 조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가구유형별로는 특징적인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1인 가구 거주자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의 거주자에 비해 ‘건강’이나 ‘소득활동’을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6.3%포인트)하고 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공’이나 ‘소득활동’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자녀의 성공이라는 응답이 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취업상태별로는 특징적인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9-16〉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가구유형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육수준				가구유형				
		초등 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1인 가구	부부 가족	부부 +미혼 자녀	확대 가족	기타 가족
경제적 안정과 여유	40.6	29.4	34.6	43.3	45.7	33.1	36.5	41.4	42.4	25.0
건강	45.1	50.6	47.8	43.4	43.8	53.6	50.2	44.2	43.6	50.0
가족의 화목·평안	4.6	5.0	5.9	4.6	3.5	1.2	4.6	5.0	3.9	0.0
자녀의 성공	6.3	10.0	8.4	6.3	3.1	4.2	7.0	6.4	6.4	0.0
친구 관계	0.3	0.0	0.0	0.4	0.4	0.0	0.0	0.4	0.0	0.0
소득활동	2.1	4.7	2.9	1.6	1.2	6.0	1.1	1.7	3.0	25.0
자기계발활동	0.3	0.0	0.5	0.2	0.8	0.0	0.4	0.4	0.3	0.0
지속적 사회참여	0.2	0.0	0.0	0.1	0.7	0.0	0.0	0.3	0.0	0.0
사회기여활동	0.1	0.0	0.0	0.0	0.1	0.0	0.0	0.0	0.0	0.0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0.4	0.3	0.0	0.3	0.8	1.8	0.4	0.3	0.3	0.0
계 (명)	100 (3,027)	100 (320)	100.1 (628)	100.2 (1,331)	100.1 (751)	99.9 (166)	100.2 (285)	100.1 (2,242)	99.9 (330)	100 (4) ¹⁾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9-17〉 베이비 부머의 결혼상태·취업상태·가구소득별 성공적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결혼상태		취업상태		가구소득		
		유배우	무배우	취업중	미취업	300만원 미만	300~ 500만원	500만원 이상
경제적 안정과 여유	40.6	41.5	35.2	40.5	40.9	36.7	42.3	42.4
건강	45.1	44.9	46.4	44.9	45.9	46.7	44.0	44.9
가족의 화목·평안	4.6	4.9	3.0	4.5	4.8	3.3	5.5	5.0
자녀의 성공	6.3	5.9	9.0	6.4	6.2	8.4	6.1	4.7
친구 관계	0.3	0.3	0.0	0.3	0.3	0.2	0.2	0.5
소득활동	2.1	1.7	4.4	2.4	1.0	3.7	1.1	1.5
자기계발활동	0.3	0.3	0.9	0.4	0.1	0.4	0.2	0.4
지속적 사회참여	0.2	0.2	0.0	0.1	0.3	0.0	0.1	0.5
사회기여활동	0.1	0.0	0.0	0.0	0.1	0.0	0.0	0.1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0.4	0.2	1.1	0.4	0.4	0.5	0.5	0.1
계 (명)	100.0 (3,027)	100.0 (2,593)	100.0 (435)	100.0 (2,300)	100.0 (728)	100.0 (967)	100.0 (1,051)	100.0 (1,007)

제2절 죽음 및 상제례에 대한 가치관

1. 제사의 필요성

명절의 차례를 제외하고도 몇 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음식을 장만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며, 예법이 강조됨으로써 지나치게 의식(儀式)적인 측면이 강하여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이러한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41.8%, 부정적 의견이 42.1%로서 백중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42.1%나 차지함으로써 제사에 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읍면부는 긍정(44.8%)이 부정(40.8%)보다 4%포인트 앞선 반면, 동부는 부정(42.4%)이 긍정(41.2%)보다 1.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별로는 남자는 긍정(50.3%)이 부정(35.4%)보다 14.9%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자는 부정(48.2%)이 긍정(34.3%)보다 13.9%포인트 높게 나타남으로써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는 제수음식 마련 등 제사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수준별로는 긍정의견이 초등학교 이하 48.6%, 중학교 44.2%, 고등학교 41.4%, 전문대학이상 37.9%로 나타남으로써 학력이 높아질수록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긍정(42.5%)이 부정(40.7%)보다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배우자의 경우 부정(51.0%)이 긍정(38.6%)보다 12.4%포인트 높은 월등한 우세를 보여 결혼상태에 따라 완전히 상반된 응답을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로는 긍정적 의견이 부부가족(43.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정적 의견은 1인 가구(53.9%)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긍정

(44.6%)이 부정(40.6%)보다 앞선 반면, 미취업상태인 경우 부정(46.9%)이 긍정(33.2%)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긍정(300만 원 미만 43.2%, 300~500만 원 42.7%, 500만 원 이상 39.9%)이 약간 우세함과 동시에 부정적(300만 원 미만 45.4%, 300~500만 원 40.6%, 500만 원 이상 40.7%)인 면도 앞서고 있어 특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중립적 의견이 감소하고 뚜렷한 주관을 보이고 있다.

〈표 9-1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제사의 필요성

(단위: %, 명)						
특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	필요하지 않다	전혀필요 하지않다	계 (명)
전체	5.7	36.1	16.0	35.0	7.1	100.0 (3,027)
지역						
동부	5.4	35.8	16.3	35.1	7.3	100.0 (2,490)
읍·면부	7.6	37.2	14.3	34.5	6.3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5.8	35.8	16.5	34.7	7.2	100.0 (1,633)
1960~1963년생	5.7	36.5	15.3	35.3	7.1	100.0 (1,395)
성						
남자	8.5	41.8	14.3	29.8	5.6	100.0 (1,432)
여자	3.3	31.0	17.5	39.7	8.5	100.0 (1,5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9.4	39.2	9.4	32.6	9.4	100.0 (319)
중학교	3.7	40.5	13.4	35.9	6.5	100.0 (627)
고등학교	5.5	35.9	16.9	35.3	6.3	100.0 (1,330)
전문대학 이상	6.4	31.5	19.4	34.7	8.0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5.9	36.6	16.9	34.0	6.7	100.0 (2,593)
무배우	5.3	33.3	10.3	41.1	9.9	100.0 (435)

〈표 9-18〉 계속

(단위: %, 명)

특성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	필요하지 않다	전혀필요 하지않다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5.5	33.9	6.7	41.2	12.7	100.0	(165)
부부가족	5.6	37.4	11.9	36.0	9.1	100.0	(286)
부/모+미혼자녀	5.8	36.2	17.1	34.8	6.0	100.0	(2,243)
확대가족	5.5	35.0	16.7	32.5	10.3	100.0	(329)
기타가족	0.0	66.7	0.0	33.3	0.0	100.0	(3)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6.5	38.1	14.8	34.6	6.0	100.0	(2,300)
미취업	3.4	29.8	19.8	36.2	10.7	100.0	(72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7	37.5	11.5	36.2	9.2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6.4	36.3	16.7	33.0	7.6	100.0	(1,049)
500만 원 이상	5.3	34.6	19.5	36.0	4.7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바람직한 장례방법

바람직한 장례방법에 대하여 매장은 14.4%에 그치고 있는 반면, 화장 후 봉안 34.5%, 화장 후 자연장 25.3%, 화장 후 산골 25.7%로 응답함으로써 장례문화가 전통적 매장문화에서 현대적 화장문화로 완전히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지역별로 매장과 화장 후 산골은 읍면부가 동부에 비하여 약간 높게 응답하고 있는 반면, 화장 후 봉안과 화장 후 자연장은 동부가 각각 약간 높게 응답하고 있다. 지역적 특색이 충분히 반영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출생년도별로 비교해보면, 전기 베이비 부머는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하여 매장과 화장 후 산골을 높게 응답하고 있는 반면, 후기 베이비 부머는 화장 후 봉안과 화장후 자연장을 각각 4%포인트, 2.1%포인트 높게 응답함으로써 지역별 구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베이

비 부머 내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매장과 화장 후 봉안을 선호하는 비율이 각각 19.1%와 36.6%로 여자에 비하여 높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화장 후 자연장과 화장 후 산골을 각각 8.8%포인트, 4.3%포인트 높게 선택하고 있다. 매장과 봉안은 유형적 성격이 강함에 반해, 자연장과 산골은 무형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유형적 존재감 선호의 차이가 남녀특성에 반영되어 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에서 매장의 선택률이 가장 높고(17.6%), 화장 후 산골은 학력이 낮아질수록, 화장 후, 봉안과 화장 후 자연장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선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인 경우 무배우자에 비해 매장과 화장후 봉안에 있어 높은 선택률을 보이는 반면, 화장 후 산골은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선택률을 보이고 있다. 사후 가족에 의한 추모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가구유형별로 비교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유형에 비하여 매장과 자연장에 대한 선호가 낮다. 또한, 화장 후 산골은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44.2%)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가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비해 매장과 화장 후 봉안을 각각 4.3%포인트, 3.6%포인트 높게 응답하고 있는 반면, 자연장과 산골은 각각 5.2%포인트, 2.7%포인트 낮게 응답하고 있다.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장례비용이 저렴한 자연장과 산골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계의 경제적 여건이 장례방법 선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소득별로는 매장에 있어서는 300~500만 원 가구가 16.4%로 가장 높고, 화장 후 산골에 있어서는 300만 원 미만 가구가 31.8%로 가장 높다.

〈표 9-1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바람직한 장례 방법

(단위: %, 명)

특성	매장	화장후 봉안	화장후 자연장	화장후 산골	기타	계 (명)
전체	14.4	34.5	25.3	25.7	0.1	100.0 (3,027)
지역						
동부	13.6	35.0	26.2	25.0	0.1	100.0 (2,490)
읍·면부	18.1	32.2	20.9	28.9	0.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5.1	32.7	24.3	27.9	0.0	100.0 (1,632)
1960~1963년생	13.6	36.7	26.4	23.2	0.1	100.0 (1,394)
성						
남자	19.1	36.6	20.7	23.4	0.1	100.0 (1,433)
여자	10.2	32.6	29.5	27.7	0.0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7.6	27.3	16.9	38.2	0.0	100.0 (319)
중학교	13.4	34.1	19.9	32.5	0.0	100.0 (627)
고등학교	14.4	34.0	28.1	23.4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3.9	38.7	28.4	18.7	0.3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14.9	35.7	25.3	24.1	0.1	100.0 (2,593)
무배우	11.3	27.6	25.3	35.7	0.0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7.9	26.1	21.8	44.2	0.0	100.0 (165)
부부가족	14.0	35.4	24.2	26.3	0.0	100.0 (285)
부/모+미혼자녀	14.8	35.5	25.5	24.1	0.1	100.0 (2,243)
확대가족	15.2	31.2	27.3	26.4	0.0	100.0 (330)
기타가족	25.0	25.0	0.0	5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4	35.4	24.1	25.1	0.1	100.0 (2,299)
미취업	11.1	31.8	29.3	27.8	0.0	100.0 (727)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1.7	33.6	22.9	31.8	0.0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16.4	35.8	25.0	22.8	0.0	100.0 (1,049)
500만 원 이상	14.8	34.1	27.9	23.0	0.2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존엄사에 대한 인식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⁷⁾는 단지 생명유지장치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연명할 뿐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가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 허용여부에 관한 태도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 태도가 72.5%로서 부정적 태도 12.8%에 비해 59.7%포인트 높은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부정적 응답률이 약간(2.9%포인트) 높았고,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가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에서 2.3%포인트 높았으며,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 태도가 높게 형성되었다. 가구상태별로는 확대가족이 긍정적 인식이 76.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 가구가 긍정적 응답이 74.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성, 결혼상태, 취업상태 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안락사의 한 부류로서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된다. 즉, 말기암 환자 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독물 등을 투여해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라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의 유형에 따라 허용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다. 소극적 안락사의 하나인 존엄사는 치료가능성이 나 소생가능성이 없어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고 가족과 의사의 치료의무를 해방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모든 가치를 추구하고 높은 정신활동을 향유하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물이나 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존엄성이 있다. 인간에 대한 존엄의 핵심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있고 이것이 존엄사의 윤리적 배경이다.

〈표 9-20〉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존엄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매우 바람직 하다	바람직 하다	보통	바람직 하지않다	매우 바람직 하지 않다	계 (명)
전체	13.9	58.6	14.7	10.9	1.9	100.0 (3,027)
지역						
동부	13.9	58.6	15.2	10.5	1.8	100.0 (2,490)
읍·면부	14.0	58.7	12.1	12.8	2.4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4.2	59.3	13.8	11.3	1.4	100.0 (1,633)
1960~1963년생	13.6	57.6	15.7	10.5	2.5	100.0 (1,395)
성						
남자	16.2	56.5	14.2	11.0	2.1	100.0 (1,433)
여자	11.9	60.4	15.1	10.9	1.8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5.7	56.1	10.3	15.4	2.5	100.0 (319)
중학교	11.8	57.5	15.0	13.7	2.1	100.0 (628)
고등학교	14.2	60.4	14.7	8.9	1.7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14.5	57.1	16.3	10.3	1.9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13.0	59.2	15.0	11.0	1.8	100.0 (2,593)
무배우	19.3	54.7	13.1	10.3	2.5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22.9	53.0	11.4	8.4	4.2	100.0 (166)
부부가족	14.0	60.0	14.0	10.2	1.8	100.0 (285)
부/모+미혼자녀	13.5	57.9	15.4	11.5	1.7	100.0 (2,242)
확대가족	11.8	64.4	12.1	9.1	2.7	100.0 (331)
기타가족	20.0	40.0	20.0	20.0	0.0	100.0 (5)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3	58.3	14.2	11.3	1.9	100.0 (2,299)
미취업	12.8	59.3	16.2	9.8	1.9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5.4	56.2	15.0	11.0	2.4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13.6	58.2	14.7	11.8	1.7	100.0 (1,049)
500만 원 이상	12.8	61.2	14.5	9.8	1.7	100.0 (1,008)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4. 장기기증 의향

생전 또는 사후 장기기증⁸⁾에 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41.3%, 부정적 응답이 39.2%로서 긍정적 태도가 2.1%포인트 높게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낮아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간에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40.3%와 40.5%로서 팽팽한 모양을 띠고 있으나, 후기 베이비 부머는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42.5%, 37.4%로서 5.1%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가 증가하고(초등학교 36.0%, 중학교 38.6%, 고등학교 42.1%, 전문대학 이상 44.3%),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긍정적 응답이 9.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 긍정적 응답에서는 1인가구가 51.5%로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고, 부정적 응답에서는 부부가족이 42.3%로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응답하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긍정적 응답이 300만 원 미만 45.2%, 300~500만 원 40.3%, 500만 원이상 38.5%로 조사됨으로써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성, 취업상태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8)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명기된 바와 같이 장기기증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의 실천이다. ‘장기 등’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체도, 소장 등을 말한다. 이중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하여 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간장, 골수, 신장(정상적인 것 2개중 1개)과 췌장·체도·소장의 일부이며, 나머지는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적출·이식할 수 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표 9-2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생전/생후 장기기증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4.9	36.4	19.6	31.3	7.9	100.0 (3,027)
지역						
동부	5.0	36.0	20.2	31.1	7.7	100.0 (2,490)
읍·면부	4.3	38.2	16.8	32.0	8.8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5	35.8	19.1	31.7	8.8	100.0 (1,632)
1960~1963년생	5.4	37.1	20.1	30.7	6.7	100.0 (1,395)
성						
남자	4.8	36.7	20.7	30.6	7.2	100.0 (1,433)
여자	5.0	36.1	18.6	31.9	8.5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8	32.2	18.1	36.3	9.7	100.0 (320)
중학교	3.8	34.8	16.3	38.0	7.2	100.0 (627)
고등학교	4.3	37.8	18.3	30.1	9.5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7.3	37.0	25.4	25.5	4.8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4.6	35.4	20.6	31.4	8.1	100.0 (2,592)
무배우	7.1	42.0	13.8	30.3	6.9	100.0 (436)
가구유형						
1인 가구	9.6	41.9	12.6	31.1	4.8	100.0 (167)
부부가족	5.9	32.5	19.2	33.2	9.1	100.0 (286)
부/모+미혼자녀	4.8	36.0	20.2	31.1	7.8	100.0 (2,242)
확대가족	2.7	39.2	19.1	29.8	9.1	100.0 (329)
기타가족	0.0	33.3	0.0	66.7	0.0	100.0 (3)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	36.7	19.2	31.3	7.8	100.0 (2,299)
미취업	4.8	35.3	20.7	31.0	8.1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3	39.9	18.4	28.2	8.3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4.7	35.6	17.8	32.0	9.9	100.0 (1,049)
500만 원 이상	4.9	33.6	22.6	33.5	5.5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5. 죽음 준비교육을 받을 의향

죽음을 교육시키는 것은 동시에 삶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식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진정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며, 죽음의 사실을 자각하면 할수록 현실의 삶의 뜻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생명의 존중과 자살예방, 슬픔과 상실에 대한 이해, 임종을 앞둔 사람들 대하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음준비교육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진정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죽음준비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 36.9%, 부정 50.5%로서 아직은 절반정도가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은 모두가 생각하기조차 기피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나, 긍정적 응답률도 높다는 것은 국민의 죽음준비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미련도 필요함을 표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37.8%로 읍·면부에 비해 4.9%포인트 높게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출생년도별로는 후기 베이비 부머가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5.9%포인트 높게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도시화될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죽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41.1%의 긍정적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남자에 비해 8.8%포인트 높은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교육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긍정적 응답율이 초등학교 27.3%, 중학교 31.4%, 고등학교 38.6%, 전문대학이상 42.7%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태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부정적 태도에서 3.4%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유형별로는 부/모+미혼자녀가 38.4%로 가장 높게 긍정하고 있고, 그 다음 순으로 1인 가구(37.4%), 확대가족(33.0%), 부부가족(29.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상태별로는 긍정적 응답이 미취업

41.8%, 취업중 35.5%로서 미취업중인 경우가 6.3%포인트 높게 죽음준비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구소득별로는 긍정적인 응답이 300만 원 미만 32.3%, 300~500만 원 35.4%, 500만 원 이상 43.2%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을 받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죽음 준비교육을 받을 의향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5.1	31.8	12.5	39.3	11.2	100.0	(3,027)
지역							
동부	5.2	32.6	12.7	38.7	10.8	100.0	(2,490)
읍·면부	4.8	28.1	11.7	42.5	12.8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1	30.1	12.7	42.1	11.0	100.0	(1,632)
1960~1963년생	6.2	33.9	12.3	36.2	11.3	100.0	(1,394)
성							
남자	5.2	27.1	14.0	41.2	12.5	100.0	(1,433)
여자	5.0	36.1	11.2	37.7	9.9	100.0	(1,593)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9	25.4	11.3	48.3	13.2	100.0	(319)
중학교	3.3	28.1	12.0	44.8	11.8	100.0	(627)
고등학교	5.3	33.3	10.5	39.1	11.8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7.5	35.2	17.1	31.5	8.8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4.6	32.2	13.2	39.0	11.0	100.0	(2,593)
무배우	8.0	29.7	9.0	41.4	12.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13.9	23.5	10.2	41.6	10.8	100.0	(166)
부부가족	4.2	25.6	10.9	42.1	17.2	100.0	(285)
부/모+미혼자녀	4.9	33.5	12.8	39.0	9.8	100.0	(2,243)
확대가족	3.0	30.0	13.0	38.8	15.2	100.0	(330)
기타가족	0.0	25.0	0.0	25.0	5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5.4	30.1	12.9	40.1	11.6	100.0	(2,299)
미취업	4.4	37.4	11.4	36.9	9.9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4.5	27.8	9.3	44.0	14.4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4.4	31.0	12.0	40.9	11.7	100.0	(1,050)
500만 원 이상	6.5	36.7	16.2	33.4	7.2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3절 정책 인지도 및 욕구

1. 주택연금 인지도 및 향후 활용 의사

베이비 부머의 노후 주요 소득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소득보장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 노인층의 주요 소득원이 자녀 등에 의한 사적 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노인 스스로, 그리고 본인의 기여가 포함된 연금 등이 주요 소득원이 될 것이다.

주택연금제도(역모기지 제도)는 노후에 주택과 같이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고 실수입은 적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방안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연금은 노후에 유용한 소득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에 대한 베이비 부머의 인지수준은 전체 대상자의 85.2%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에서는 동부 거주자가 읍면부에 비해서 인지율이 약 6%포인트 높으며,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율이 높는데 전문대학 이상은 92.8%, 고등학교는 88.5%, 중학교 77.5%, 초등학교 이하는 68.7%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에 활용할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많을 것이며, 또한 노후 자산 관리 등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인 경우가 87.2%이며, 무배우자가 73.1%의 주택연금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유배우자일수록 비교적 젊고,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가구소득에서도 나타난다. 가구소득이 월 500만 원 이상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율이 92.6%로 높으며,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76.2%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서는 1인 가구 보다는 부부가구, 부모+미혼자녀가구, 확대가족에서 주택연금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상태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9-2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택연금 인지도

(단위: %, 명)				
특성	알고 있다	모른다	계	(명)
전체	85.2	14.8	100.0	(3,027)
지역				
동부	86.2	13.8	100.0	(2,491)
읍·면부	80.6	19.4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4.6	15.4	100.0	(1,633)
1960~1963년생	85.8	14.2	100.0	(1,395)
성별				
남자	86.5	13.5	100.0	(1,433)
여자	83.9	16.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8.7	31.3	100.0	(319)
중학교	77.5	22.5	100.0	(627)
고등학교	88.5	11.5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92.8	7.2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87.2	12.8	100.0	(2,592)
무배우	73.1	26.9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67.5	32.5	100.0	(166)
부부가족	82.9	17.1	100.0	(286)
부/모+미혼자녀	87.0	13.0	100.0	(2,242)
확대가족	83.9	16.1	100.0	(330)
기타가족	75.0	2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85.1	14.9	100.0	(2,299)
미취업	85.3	14.7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6.2	23.8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86.5	13.5	100.0	(1,050)
500만 원 이상	92.6	7.4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노후에 주택연금 활용에 대한 의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19.4%는 주택이 없어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없으며, 29.5%는 생각해 본적 없다고 응답하였다.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가 23.0%,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가 28.1%로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활용할 의사는 베이비 부머의 1/4로 나타났다.

특성별 주택연금 활용의사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가 활용의사가 24.2%인 반면, 읍면부는 17.7%로 동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의 경우 동부에 비해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 집에 대한 가치를 더욱 두고, 상속이나 유산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활용의사가 없는 경우가 남자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활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 이상과 고등학교에서는 26.0%가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활용의사가 없음의 비율이다. 초등학교이하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활용의사가 없는 비율이 25%내외인 반면, 초대졸 이상은 35.5%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주택소유율이 낮고, 초대졸 이상인 경우 9.7%만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주택소유율이 높으며 즉, 자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들은 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높지만 노후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이 가능한 집단도 상당수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특성은 결혼상태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무배우자의 경우 주택무소유율이 56.3%로 매우 높게 나타나며, 유배우자에서는 13.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유배우자에서는 주택 이외의 재력이 있을 경우 주택을 활용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므로 주택연금에 대한 이용의사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가구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무소유 비율이 낮고, 정책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반반으로 나타났다.

〈표 9-2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주택연금 활용 의사

(단위: %, 명)

특성	활용의사 있음	활용의사 없음	생각해본 적 없음	현재 주택없음	계 (명)
전체	23.0	28.1	29.5	19.4	100.0 (3,027)
지역					
동부	24.2	27.3	28.3	20.2	100.0 (2,491)
읍·면부	17.7	31.8	34.9	15.6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23.5	28.8	29.5	18.2	100.0 (1,633)
1960~1963년생	22.5	27.2	29.5	20.8	100.0 (1,395)
성별					
남자	23.1	29.1	28.7	19.1	100.0 (1,433)
여자	23.0	27.1	30.2	19.7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5.4	24.1	32.6	27.9	100.0 (319)
중학교	17.1	27.8	31.3	23.9	100.0 (627)
고등학교	26.0	25.0	28.3	20.7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26.0	35.5	28.7	9.7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25.1	30.5	31.2	13.2	100.0 (2,593)
무배우	10.8	13.8	19.1	56.3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9.6	12.6	18.0	59.9	100.0 (167)
부부가족	23.8	31.1	30.8	14.3	100.0 (285)
부/모+미혼자녀	24.3	28.9	29.6	17.2	100.0 (2,243)
확대가족	21.3	27.7	33.4	17.6	100.0 (329)
기타가족	0.0	20.0	20.0	6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22.6	29.0	28.9	19.6	100.0 (2,299)
미취업	24.6	25.2	31.4	18.8	100.0 (72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0	19.0	23.2	41.8	100.0 (969)
300~500만원 미만	22.8	30.7	34.1	12.4	100.0 (1,050)
500만원 이상	30.2	34.0	30.7	5.2	100.0 (1,008)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및 이용실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 사회가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하에 2008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베이비 부머의 인지도는 85.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층에서는 대부분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자의 피보험자로서 보험금 납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특성별 인지도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가 읍면부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생년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발’의 업무가 기존에 가족 내의 여자의 주요 담당 역할이었으므로 여자들이 더욱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학력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결혼상태에서는 유배우자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유형에서는 부부가구나 확대가족이 1인 가구에 비해 인지도가 높으며, 가구소득에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단위: %, 명)

특성	알고 있다	모른다	계 (명)
전체	85.9	14.1	100.0 (3,027)
지역			
동부	86.2	13.8	100.0 (2,491)
읍·면부	84.4	15.6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6.0	14.0	100.0 (1,633)
1960~1963년생	85.7	14.3	100.0 (1,395)
성별			
남자	84.1	15.9	100.0 (1,433)
여자	87.5	12.5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9.0	21.0	100.0 (319)
중학교	83.6	16.4	100.0 (627)
고등학교	87.8	12.2	100.0 (1,332)
전문대학 이상	87.5	12.5	100.0 (749)
결혼상태			
유배우	87.0	13.0	100.0 (2,593)
무배우	79.1	20.9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74.1	25.9	100.0 (167)
부부가족	83.2	16.8	100.0 (285)
부/모+미혼자녀	87.1	12.9	100.0 (2,243)
확대가족	86.7	13.3	100.0 (329)
기타가족	75.0	2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85.6	14.4	100.0 (2,299)
미취업	87.0	13.0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82.7	17.3	100.0 (969)
300~500만 원 미만	87.0	13.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87.8	12.2	100.0 (1,008)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연령은 2010년 현재 46~54세로 부모의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할 연령대이다. 특히 아직까지 노인을 가족 내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 노인층의 보호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본인의 부(父)는 3.7%, 본인의 모(母)는 6.0%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부는 3.8%, 배우자의 모는 5.5%로 나타났다. 부(父)에 비해 모(母)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해 여자가 수명이 길어, 남자의 수발은 배우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에 비해 동부 거주자의 부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은 높게 나타난다. 본인의 부모의 경우 동부는 4.2%와 6.6%인 것에 비해 읍면부는 1.8%와 3.2%로 나타났다.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전기 베이비 부머가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서 본인 부모의 서비스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모의 연령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본인의 부모는 모의 서비스 이용률이 6.0%로 높으며, 이는 배우자의 부모의 서비스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대부분의 부부가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이 높음으로 인해 배우자의 부모 서비스 이용률보다 본인의 부모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학력수준에서도 나타난다. 베이비 부머는 9세 연령구간을 갖고 있으나 전후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학력수준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학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의 부모세대의 연령은 높음으로 인해 학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서비스 이용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단위: %, 명)

특성	본인 부	본인 모	배우자 부	배우자 모
전체 (대상자수)	3.7 (642)	6.0 (1,747)	3.8 (571)	5.5 (1,476)
지역				
동부	4.2	6.6	3.9	5.9
읍·면부	1.8	3.2	3.7	3.5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3	8.0	5.5	7.3
1960~1963년생	3.4	4.1	2.5	3.8
성별				
남자	2.6	6.0	3.7	3.7
여자	4.7	6.0	4.2	7.7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0.0	9.4	3.6	7.8
중학교	3.4	8.4	1.4	7.8
고등학교	3.9	4.6	4.5	5.5
전문대학 이상	4.2	5.9	4.1	4.0
결혼상태				
유배우	3.8	5.8	3.9	5.5
무배우	1.5	7.2	-	-
가구유형				
1인 가구	0.0	4.8	-	-
부부가족	8.7	4.5	9.1	6.3
부/모+미혼자녀	3.4	5.5	3.6	5.2
확대가족	3.7	10.3	1.6	6.5
기타가족 ¹⁾	3.7	0.0	-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3.7	5.9	3.5	4.9
미취업	3.8	6.0	5.4	7.6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2	7.1	5.8	7.6
300~500만 원 미만	3.0	5.8	2.4	4.9
500만 원 이상	4.3	5.4	4.2	5.1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베이비 부머의 부모를 둔 경우 이용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본인의 부(父)의 경우 시설이 63.1%, 재가가 36.9%이며, 본인의 모(母)는 시설이 46.5%, 재가가 53.5%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모(母)의 비율이 더 높지만, 이용하는 서비스에서는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배우자나 가족의 수발이 어려울 경우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종종 이상임으로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어머니의 경우는 배우자라는 가족 내 중요한 수발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기능상태가 고르게 분포되고 그에 따라 재가와 시설 서비스를 고르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 출생년도에 따라서는 서비스 유형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본인의 부(父)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재가보다는 시설이 비율이 높지만, 여자의 경우의 본인 부(父)에 비해서 그 차이는 적다.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본인의 부모에게 있어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보여진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재가 서비스 보다는 시설서비스가 더욱 편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혼상태에서는 유배우자의 경우에 비해 무배우자일 때 본인의 어머니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에서는 부부가족, 부/모+미혼자녀의 경우 재가보다는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확대가족에서는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확대가족으로 인해 부모님을 모시면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에서는 본인의 어머니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의 이용비율이 높는데 이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모의 연령이 높지 않음으로 기능상태가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베이비 부머의 배우자 부모가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종류는 본인 부모의 서비스 이용행태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표 9-2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부모가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단위: %, 명)

특성	본인의 부		계(명)	본인의 모		계	(명)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전체	63.1	36.9	100.0 (24) ¹⁾	46.5	53.5	100.0	(105) ²⁾
지역							
동부	63.6	36.4	100.0 (22)	46.9	53.1	100.0	(96)
읍·면부	50.0	50.0	100.0 (2) ³⁾	44.4	55.6	100.0	(9) ³⁾
출생년도							
1955~1959년생	60.0	40.0	100.0 (10)	43.9	56.1	100.0	(66)
1960~1963년생	69.2	30.8	100.0 (13)	50.0	50.0	100.0	(38)
성별							
남자	57.1	42.9	100.0 (7) ³⁾	48.0	52.0	100.0	(50)
여자	64.7	35.3	100.0 (17)	45.5	54.5	100.0	(5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	-	-	69.2	30.8	100.0	(13)
중학교	66.7	33.3	100.0 (3) ³⁾	57.7	42.3	100.0	(26)
고등학교	66.7	33.3	100.0 (12)	36.1	63.9	100.0	(36)
전문대학 이상	55.6	44.4	100.0 (9) ³⁾	40.0	60.0	100.0	(30)
결혼상태							
유배우	60.9	39.1	100.0 (23)	45.6	54.4	100.0	(90)
무배우	100.0	0.0	100.0 (1) ³⁾	53.3	46.7	100.0	(15) ³⁾
가구유형							
1인 가구	-	-	-	100.0	0.0	100.0	(3) ³⁾
부부가족	75.0	25.0	100.0 (4) ³⁾	66.7	33.3	100.0	(6) ³⁾
부/모+미혼자녀	61.1	38.9	100.0 (18)	52.8	47.2	100.0	(72)
확대가족	50.0	50.0	100.0 (4) ³⁾	20.0	80.0	100.0	(25)
기타가족	-	-	-	-	-	-	-
현 취업상태							
취업중	72.2	27.8	100.0 (18)	48.8	51.3	100.0	(80)
미취업	40.0	60.0	100.0 (5) ³⁾	40.0	60.0	100.0	(2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0.0	40.0	100.0 (5) ³⁾	62.9	37.1	100.0	(35)
300~500만 원 미만	50.0	50.0	100.0 (6) ³⁾	34.3	65.7	100.0	(35)
500만 원 이상	72.7	27.3	100.0 (11)	42.9	57.1	100.0	(35)

주: 1) 본인의 부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2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본인의 모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105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9-28〉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배우자 부모의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단위: %, 명)

특성	배우자의 부		계(명)	배우자의 모		계 (명)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전체	63.3	36.7	100.0 (22) ¹⁾	52.3	47.7	100.0 (81) ²⁾
지역						
동부	63.2	36.8	100.0 (19)	52.8	47.2	100.0 (72)
읍·면부	66.7	33.3	100.0 (3) ³⁾	50.0	50.0	100.0 (8) ³⁾
출생년도						
1955~1959년생	71.4	28.6	100.0 (14)	55.8	44.2	100.0 (52)
1960~1963년생	50.0	50.0	100.0 (8) ³⁾	46.4	53.6	100.0 (28)
성별						
남자	61.5	38.5	100.0 (13)	54.8	45.2	100.0 (31)
여자	66.7	33.3	100.0 (9) ³⁾	50.0	50.0	100.0 (5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00.0	0.0	100.0 (1) ³⁾	66.7	33.3	100.0 (9) ³⁾
중학교	0.0	100.0	100.0 (1) ³⁾	44.4	55.6	100.0 (18)
고등학교	54.5	45.5	100.0 (11)	54.1	45.9	100.0 (37)
전문대학 이상	70.0	30.0	100.0 (10)	52.6	47.4	100.0 (19)
결혼상태						
유배우	63.6	36.4	100.0 (22)	51.9	48.1	100.0 (81)
무배우	-	-	-	-	-	-
가구유형						
1인 가구	-	-	-	-	-	-
부부가족	75.0	25.0	100.0 (4) ³⁾	57.1	42.9	100.0 (7) ³⁾
부/모+미혼자녀	61.1	38.9	100.0 (18)	58.1	41.9	100.0 (62)
확대가족	0.0	100.0	100.0 (1) ³⁾	23.1	76.9	100.0 (13)
기타가족	-	-	-	-	-	-
현 취업상태						
취업중	56.3	43.8	100.0 (16)	48.2	51.8	100.0 (56)
미취업	83.3	16.7	100.0 (6) ³⁾	60.0	40.0	100.0 (25)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66.7	33.3	100.0 (6) ³⁾	73.9	26.1	100.0 (23)
300~500만 원 미만	40.0	60.0	100.0 (5)	48.1	51.9	100.0 (27)
500만 원 이상	72.7	27.3	100.0 (11)	38.7	61.3	100.0 (31)

주: 1) 배우자의 부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2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배우자의 모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8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향후 (배우자)부모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은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6.2%이며, 시설서비스는 49.2%, 재가서비스는 22.4%, 요양병원은 22.2%로 나타났다. 시설서비스가 과반수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요양병원도 재가서비스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서비스보다는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당수 나타났으며, 이는 아직까지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성별로 부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읍면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8.3%로 동부에 비해서 다소 높다. 이는 읍면부 지역이 부모 부양에 대한 전통적 의식이 높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출생년도에서는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요양병원에 대한 의향이 높으며,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재가서비스에 대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이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10.4%로 다른 학력수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요양병원에 대한 이용의사가 높게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은 집단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병원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별 서비스 이용 의향의 차이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가서비스 이용의향이 높는데 이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서비스 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구소득별로는 낮은 소득계층에서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상반되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병원보다는 요양병원 이용에 대한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표 9-29〉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배우자)부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명)

특성	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	미이용	계	(명)
전체	49.2	22.4	22.2	6.2	100.0	(2,416) ¹⁾
지역						
동부	48.8	22.1	23.3	5.7	100.0	(2,020)
읍·면부	51.3	23.7	16.7	8.3	100.0	(39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9.8	24.0	19.9	6.3	100.0	(1,226)
1960~1963년생	48.6	20.7	24.6	6.1	100.0	(1,189)
성별						
남자	49.0	21.8	22.5	6.7	100.0	(1,193)
여자	49.4	22.9	21.9	5.7	100.0	(1,222)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8.3	19.3	12.0	10.4	100.0	(192)
중학교	55.5	20.8	18.3	5.4	100.0	(447)
고등학교	50.4	24.1	20.0	5.4	100.0	(1,103)
전문대학 이상	40.7	21.4	31.3	6.7	100.0	(674)
결혼상태						
유배우	49.1	21.9	22.9	6.2	100.0	(2,188)
무배우	50.9	27.0	15.9	6.2	100.0	(226)
가구유형						
1인 가구	44.1	25.0	23.5	7.4	100.0	(68)
부부가족	53.7	26.6	8.9	10.8	100.0	(203)
부/모+미혼자녀	49.8	20.3	24.1	5.8	100.0	(1,839)
확대가족	43.9	30.8	19.7	5.6	100.0	(305)
기타가족	0.0	100.0	0.0	0.0	100.0	(1) ²⁾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1	22.1	21.7	6.2	100.0	(1,844)
미취업	46.4	23.3	24.0	6.3	100.0	(571)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6.0	23.9	14.7	5.4	100.0	(653)
300~500만 원 미만	49.1	24.5	19.7	6.7	100.0	(875)
500만 원 이상	44.3	19.1	30.3	6.3	100.0	(885)

주: 1)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2,41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모의 본인의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 형태는 배우자가 28.9%, 아들·며느리 2.7%, 딸·사위 1.1%로 가족에 의한 수발을 희망하는 비율이 32.7%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가서비스는 10.0%, 요양시설은 36.1%, 요양병원은 21.1%이다. 즉, 베이비 부모의 경우 본인의 노후는 가족보다는 외부 서비스에 의해서 수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큰 특성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출생년도 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모가 아들·며느리로부터 수발을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3.6%로 후기의 1.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수발을 희망하는 비율이 43.9%인 것에 비해 여자는 15.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수명이 길기 때문에 남자들은 배우자에 의한 수발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비해 여자의 경우 가족에 의한 수발보다는 요양시설 41.4%, 요양병원 26.4%와 같이 외부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0〉 베이비 부모의 지역·출생년도·성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구분	전체	지역		출생년도		성	
		동부	읍·면부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배우자	28.9	29.0	28.4	29.4	28.3	43.9	15.4
아들·며느리	2.7	2.3	4.7	3.6	1.6	3.2	2.3
딸·사위	1.1	1.0	1.3	0.8	1.4	0.8	1.4
재가서비스	10.0	10.3	9.0	10.7	9.3	6.6	13.1
요양시설	36.1	35.7	38.1	35.5	36.9	30.2	41.4
요양병원	21.1	21.6	18.7	20.0	22.4	15.2	26.4
기타	0.0	0.0	0.0	0.0	0.1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0)	(536)	(1,631)	(1,395)	(1,432)	(1,595)

베이비 부모의 교육수준별 수발 희망형태는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로부터 수발을 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 전문대졸의 경우 33.4%이며, 초졸이나 중졸의 경우 20% 초반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며느리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으며, 요양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을 희망하는 반면, 무배우자는 아들·며느리에 의한 수발을 희망하는 비율이 6.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배우자의 경우 요양시설을 희망하는 비율이 54.5%로 나타났고, 유배우자는 33.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무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로 부터의 수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가족 내에서의 수발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으로 인해 가족에 의한 수발을 기대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이용희망이 높게 나타났다.

〈표 9-31〉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결혼상태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구분	전체	교육수준				결혼상태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유배우	무배우
배우자	28.9	20.3	23.7	30.8	33.4	33.4	1.6
아들·며느리	2.7	4.4	4.1	2.5	1.3	2.0	6.7
딸·사위	1.1	3.1	0.3	1.0	0.9	0.8	2.8
재가서비스	10.0	11.3	10.5	9.9	9.5	9.6	12.9
요양시설	36.1	48.8	42.0	36.1	26.0	33.1	54.5
요양병원	21.1	12.2	19.1	19.8	28.9	21.0	21.6
기타	0.0	0.0	0.2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320)	(628)	(1,330)	(751)	(2,592)	(435)

(단위: %, 명)

가구유형별로는 부부가구, 부/모+미혼, 확대가구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아들·며느리에 의한 수발을 희망하는 비율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시설에 대한 희망률은 1인 가구일 때 가장 높았으며, 부부가구, 부/모+미혼가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에서는 베이비 부머가 현재 취업중인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 희망률이 높으며, 다음으로는 요양시설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취업의 경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희망률이 높았다. 그 이유는 취업중일 경우 연령이 젊은 초기 베이비 부머 또는 주부인 여자의 경우가 많음으로 이들은 배우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희망하는 수발 형태는 위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일단 가족 특히 배우자가 수발이 가능할 경우 배우자에 의한 수발을 희망하며, 그 다음은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에서의 수발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수발에서 자녀세대의 수발 능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베이비 부머 세대는 자녀세대에 대한 수발을 기대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츰 자녀에 의한 수발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9-32〉 베이비 부머의 가구유형·취업상태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구분	전체	가구유형					취업상태	
		1인 가구	부부	부부+미 혼	확대	기타	취업중	미취업
배우자	28.9	2.4	34.2	30.4	27.6	0.0	31.8	19.8
아들·며느리	2.7	7.2	2.1	2.5	2.7	0.0	2.8	2.5
딸·사위	1.1	2.4	1.1	1.1	0.0	0.0	1.3	0.3
재가서비스	10.0	13.2	9.9	9.9	9.7	20.0	9.2	12.6
요양시설	36.1	62.9	37.7	33.2	40.9	40.0	35.8	37.2
요양병원	21.1	12.0	15.1	22.8	19.1	40.0	19.1	27.6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167)	(284)	(2,242)	(330)	(5)	(2,297)	(729)

소득수준별 본인의 향후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형태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요양시설에 대한 희망률이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수발형태를 희망하고, 요양시설보다는 요양병원에 대한 희망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9-33〉 베이비 부머의 소득수준별 본인의 수발 희망 형태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500만 원 이상
배우자	28.9	22.2	32.4	31.7
아들·며느리	2.7	4.6	1.9	1.8
딸·사위	1.1	1.3	1.2	0.7
재가서비스	10.0	9.7	11.4	8.8
요양시설	36.1	46.7	36.1	26.1
요양병원	21.1	15.4	16.9	30.9
기타	0.0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968)	(1,050)	(1,007)

3. 베이비 부머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충분성

노후의 건강보장은 소득보장 등과 함께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강보장은 건강보험에 의해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의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지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는 건강보험이 노후 건강보장을 위해 충분한 보장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46.8%는 충분하지 않다. 3.2%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출생년도, 성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충분성에 대한 만족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에 반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충분성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기대수준의 차이에 따라 충분성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소득에서도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충분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9-3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건강보험 보장성의 노후 충분성에 대한 기대

(단위: %, 명)

특성	매우 충분함	충분함	보통	충분하지 않음	전혀 충분하지 않음	계	(명)
전체	1.1	17.7	31.2	46.8	3.2	100.0	(3,027)
지역							
동부	1.0	17.7	31.0	46.7	3.6	100.0	(2,490)
읍·면부	1.1	17.9	32.5	47.2	1.3	100.0	(5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0.6	18.7	32.2	46.0	2.5	100.0	(1,633)
1960~1963년생	1.6	16.6	30.0	47.8	4.0	100.0	(1,395)
성별							
남자	1.7	17.4	31.2	45.3	4.3	100.0	(1,434)
여자	0.5	17.9	31.2	48.1	2.3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3	21.9	28.8	44.4	3.8	100.0	(320)
중학교	0.2	19.6	33.0	45.6	1.6	100.0	(627)
고등학교	1.1	17.3	31.6	46.4	3.7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6	15.2	30.0	49.6	3.6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1.1	17.5	31.0	46.9	3.5	100.0	(2,593)
무배우	0.9	19.1	32.3	46.1	1.6	100.0	(434)
가구유형							
1인 가구	2.4	17.4	31.7	47.3	1.2	100.0	(167)
부부가족	0.4	19.7	35.9	40.5	3.5	100.0	(284)
부/모+미혼자녀	1.1	17.5	30.8	47.3	3.4	100.0	(2,243)
확대가족	0.9	17.9	29.7	49.1	2.4	100.0	(330)
기타가족	20.0	20.0	40.0	20.0	0.0	100.0	(5)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	17.8	31.3	46.3	3.5	100.0	(2,299)
미취업	0.7	17.6	31.0	48.4	2.3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1	19.8	33.5	43.3	2.3	100.0	(967)
300~500만 원 미만	0.7	17.8	32.1	45.8	3.6	100.0	(1,050)
500만 원 이상	1.4	15.7	28.1	51.1	3.7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4. 베이비 부머의 공적 연금 가입여부

베이비 부머의 51.5%는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입중이지만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12.3%, 미가입이 35.8%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은 베이비 부머가 향후 노령층이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상의 결과와 같이 미가입자, 가입중이지만 미불입자의 경우 완전고령연금 수령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민 공적연금 체계는 갖추어져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사각지대의 비율이 높음이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가입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출생년도에서는 후기 베이비 부머의 가입비율이 높으며, 미가입비율은 전기 베이비 부머가 37.6%이며, 미불입비율도 13.0%로 높아 가까운 시일 내에 노령기에 접어들 베이비 부머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가입률은 절반수준으로 남자는 72.6%, 여자는 32.4%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1인 1연금 체계가 아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자의 경우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유가입자이기 때문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높고 일정수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중인 경우 64.2%가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중임에도 불구하고 23.9%는 미가입중이며, 11.6%는 미불입중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으나 노후 소득을 위한 준비는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소득수준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가구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가입중이지만 미불입하고 있는 비율이 6.3%로 나타났다.

〈표 9-35〉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공적연금 가입여부

(단위: %, 명)

특성	가입중	가입중 (미불입)	미가입	연금수령중	계 (명)
전체	51.5	12.3	35.8	0.4	100.0 (3,027)
지역					
동부	51.9	12.1	35.5	0.5	100.0 (2,491)
읍·면부	49.2	13.4	37.2	0.2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8.8	13.0	37.6	0.6	100.0 (1,634)
1960~1963년생	54.5	11.5	33.6	0.3	100.0 (1,394)
성별					
남자	72.6	14.9	11.9	0.6	100.0 (1,434)
여자	32.4	10.0	57.3	0.3	100.0 (1,595)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2.5	13.8	53.4	0.3	100.0 (320)
중학교	40.0	13.9	45.8	0.3	100.0 (627)
고등학교	50.2	13.8	35.6	0.4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71.2	7.7	20.2	0.8	100.0 (751)
결혼상태					
유배우	53.6	10.2	35.6	0.5	100.0 (2,593)
무배우	38.4	25.1	36.6	0.0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34.3	29.5	36.1	0.0	100.0 (166)
부부가족	37.5	13.0	48.8	0.7	100.0 (285)
부/모+미혼자녀	53.5	11.1	34.9	0.4	100.0 (2,243)
확대가족	58.6	10.6	30.2	0.6	100.0 (331)
기타가족	20.0	40.0	40.0	0.0	100.0 (5)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64.2	11.6	23.9	0.3	100.0 (2,299)
미취업	11.2	14.5	73.3	1.0	100.0 (72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5.1	21.1	43.7	0.1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55.3	9.9	34.1	0.7	100.0 (1,050)
500만 원 이상	63.1	6.3	30.0	0.6	100.0 (1,008)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머의 노후 연금 수령액에 대한 인지수준은 12.1%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54.4%는 대략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33.5%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자의 불인지율이 높으며, 출생년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알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여자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의 경우 본인의 명의로 가입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대략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교 이상인 경우 76.7%는 정확히 또는 대략이라도 받을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소득수준 등에서도 나타났다.

〈표 9-3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노후 연금수령액에 대한 인지도

특성	(단위: %, 명)			
	정확히 인지	대략 인지	불인지	계 (명)
전체	12.1	54.4	33.5	100.0 (3,027)
지역				
동부	12.5	55.0	32.4	100.0 (1,595)
읍·면부	10.1	51.2	38.7	100.0 (336)
출생년도				
1955~1959년생	11.6	55.3	33.1	100.0 (1,009)
1960~1963년생	12.7	53.4	33.9	100.0 (921)
성별				
남자	14.1	56.0	29.9	100.0 (1,254)
여자	8.4	51.5	40.1	100.0 (676)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7	40.5	56.8	100.0 (148)
중학교	6.8	53.1	40.1	100.0 (339)
고등학교	12.8	53.2	34.0	100.0 (852)
전문대학 이상	16.5	60.2	23.3	100.0 (593)
결혼상태				
유배우	13.4	56.0	30.5	100.0 (1,654)
무배우	4.3	44.6	51.1	100.0 (276)

〈표 9-36〉 계속

(단위: %, 명)

특성	정확히 인지	대략 인지	불인지	계 (명)
가구유형				
1인 가구	1.9	41.5	56.6	100.0 (106)
부부가족	6.9	48.3	44.8	100.0 (145)
부/모+미혼자녀	13.3	55.4	31.2	100.0 (1,450)
확대가족	12.7	58.1	29.3	100.0 (229)
기타가족	0.0	33.3	66.7	100.0 (3)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12.5	55.5	32.0	100.0 (1,743)
미취업	8.5	44.1	47.3	100.0 (18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0	43.6	51.5	100.0 (544)
300~500만 원 미만	12.7	56.9	30.4	100.0 (685)
500만 원 이상	17.1	60.3	22.6	100.0 (700)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5. 베이비 부머의 미래 노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베이비 부머가 노후에 노후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건강보호와 장기요양보장이 43.5%로 가장 높으며, 소득보장이 32.9%, 노년기 고용연장 및 기회확대가 17.3%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동부지역은 여가문화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의 비율이 5.4%로 읍면부의 3.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출생년도별로는 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건강보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는 건강보장의 비율이 47.5%인 것에 비해 남자의 경우 노년기 고용연장 및 기회확대가 22.6%로 여자의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는 사회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9-37〉 베이비 부머의 지역·출생년도·성별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지역		출생년도		성	
		동부	읍·면부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노후 소득보장	32.9	32.9	32.8	32.6	33.2	31.9	33.8
노년기고용연장 및 기회확대	17.3	17.4	17.0	17.1	17.6	22.6	12.5
건강보호/장기요양	43.5	43.0	45.7	44.9	41.9	39.1	47.5
여가문화지원	5.1	5.4	3.4	4.7	5.6	5.3	4.9
평생교육	1.2	1.2	1.1	0.7	1.7	1.1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2,490)	(536)	(1,633)	(1,395)	(1,434)	(1,594)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노후 소득보장의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장과 여가문화지원, 노년기 고용연장 및 기회확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유배우자의 경우 건강보장/장기요양, 소득보장, 고용연장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무배우자는 소득보장, 건강보장, 고용연장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표 9-38〉 베이비 부머의 교육수준·결혼상태별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육수준				결혼상태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유배우	무배우
노후 소득보장	32.9	44.8	39.2	32.8	22.7	30.5	47.1
노년기고용연장 및 기회확대	17.3	9.4	15.5	17.9	21.1	18.1	13.1
건강보호/장기요양	43.5	42.6	41.0	43.3	46.3	44.7	36.3
여가문화지원	5.1	2.8	2.7	4.7	8.7	5.6	2.3
평생교육	1.2	0.3	1.6	1.2	1.3	1.2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319)	(627)	(1,332)	(750)	(2,591)	(435)

베이비 부모의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의 경우 무배우자에서와 같이 소득보장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부부와 부/모+미혼자녀 가구의 경우는 건강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중인 베이비 부모들의 경우 노년기 고용연장과 기회확대 정책의 우선순위의 비율이 19.0%로 미취업의 12.1%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표 9-39〉 베이비 부모의 가구유형·취업상태별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가구유형					취업상태	
		1인가구	부부	부부+미혼	확대	기타	취업중	미취업
노후 소득보장	32.9	41.0	35.8	31.4	36.5	50.0	33.8	30.1
노년기 고용연장 및 기회확대	17.3	14.5	15.1	18.2	14.9	25.0	19.0	12.1
건강보호/장기요양	43.5	39.8	44.2	43.6	44.4	25.0	40.9	51.5
여가문화지원	5.1	2.4	4.2	5.7	3.0	0.0	5.1	4.9
평생교육	1.2	2.4	0.7	1.2	1.2	0.0	1.1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166)	(285)	(2,243)	(329)	(4) ¹⁾	(2,299)	(728)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베이비 부모의 소득수준별 노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장/장기요양보장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51.5%로 높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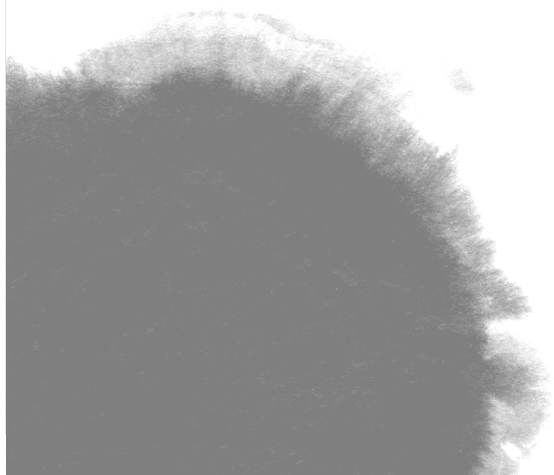
〈표 9-40〉 베이비 부모의 소득수준별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소득수준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노후 소득보장	32.9	45.0	33.6	20.4
노년기 고용연장 및 기회확대	17.3	14.0	18.6	19.2
건강보호/장기요양	43.5	37.2	41.7	51.5
여가문화지원	5.1	2.5	5.2	7.4
평생교육	1.2	1.3	1.0	1.4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027)	(969)	(1,051)	(1,008)

10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제10장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베이비 부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그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는 베이비 부머 3,027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특징을 요약해보고, 그에 기초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1 절 주요 조사결과

베이비 부머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도시화의 결과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초등학교 이하 10.5%, 중학교 20.7%, 고등학교 44.0%, 전문대학교 이상 24.8%). 이는 노인의 65.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28.9%만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매우 큰 변화이다. 이러한 제특성의 변화는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할 때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수준의 상승과 도시화에 따라 욕구의 다양화와 높아진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가족관계에 있어 핵가족의 보편화, 방위가족과 생식가족의 규모에 있어서의 큰 차이, 콩깍지 가족으로의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총 자녀수는 1.9명이나 자신의 형제·자매 수는 5.1명이고, 약 61.2%는 부모가 생존해있고, 11.8%가 손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변화의 와중에 있는 가족관계 변화

도 있는데, 바로 양계제로의 변화이다. 양계제로의 변화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아직 남자 부모 중심의 세대관계와 부양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예상되었던 것처럼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녀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가 상당수 있다. 베이비 부머의 대다수가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주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약 절반 정도가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으로부터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

넷째,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 부부관계 중심으로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베이비 부머의 건강 상태 및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첫째, 베이비 부머 중에서 고학력 및 취업중인 세대에서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직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68.5%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운동시설의 유형으로 일단 집주변의 운동시설환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민간/상업스포츠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주 2~3회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셋째,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식을 통한 건강 유지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강검진 수검률도 전체의 80.8%로 매우 높은 편이고, 일부계층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계층은 비경제적인 이유로 건강검진을 포기하거나, 건강검진을 통하여 증상이나 질병이 발견되었으나 의료기관의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한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렇게 베이비 부머는 대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들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대체적인 건강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첫째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둘째 객관적인 건강상태로는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27.1%, 우울증상의 유병률은 10.2%로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약 1/3이 갱년기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베이비 부머 내에서 발견되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이다. 즉, 취약계층에게서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계층의 신체·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첫째 소득과 자산에 있어 지역별, 교육수준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4원,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규모는 평균 3.3억 원이며, 도시지역 가구의 평균소득은 444.9만 원으로 읍·면부의 320.7만 원보다 월등히 높으며 자산의 경우도 도시지역이 3.6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크다.

둘째, 베이비 부머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가구의 79.8%가 저축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전가구 평균 월 74.9만 원이다. 건강이나 요양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률이 80%수준이며, 사망위험에 대한 보험가입률은 30% 수준, 노후소득보장 가입률은 20% 수준, 목돈마련을 하고 있는 경우는 40% 수준으로 그 내용별로 준비율의 차이가 크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준비율에 비하여 노후소득과 관련한 가입률이 낮다는 점은 아직도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측면이다.

셋째, 베이비 부머의 소비행태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민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물건 구입 시 이동거리에 대한 부분은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에게 있어 소비를 할 때 필요한 물건을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구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적합한 가격에 구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활동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비에 있어서는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소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있어 교육수준별, 가구유형별,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다양한 활동실태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남녀 모두 대부분이 경제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으나 남녀 간에, 세대 간에 종사 직종에 차이가 있다. 전기 베이비 부머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부머의 경우 전문가 및 관리자 등 고위전문직 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 숙련기능직과 단순노무직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 그들이 종사하는 직종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의 비율과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둘째 베이비 부머 10명중 3명 정도는 현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고 혼자 사는 가구인 경우에 현업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은 현업이 중단 된 이후에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

셋째, 베이비 부머의 10명중 3명 정도는 이미 40대 이후 퇴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3 정도가 이미 직업 이동의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퇴직 및 직업이동의 경험은 소득수준이 높고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에 더욱 빈번하게 경험된 것으로 보이며, 약 절반 정도는 퇴직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악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학력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악화된 경우가 빈번하였다.

넷째, 베이비 부머의 노후생활에 있어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63.9%는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 지향성은 특히 남자(81.4%)이 여자(48.1%)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노후 일자리를 더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베이비 부머의 약 40%는 현재 삶과 노후의 삶에 있어 모두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단체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여섯째,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유료화 된 노후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인식수준이 높지는 않다. 43.9%가 향후 노후에 대비해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의 다차원적인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의 이용의향을 갖고 있고,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설계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일곱째, 현재 베이비 부머의 13.6%만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매우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며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25.3%에 달하고 있어 이들 세대에게 있어서도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가치관과 정책관련 인지도 및 욕구와 관련하여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부양과 관련한 가치관에 있어 샌드위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관련하여 ‘자녀나 가족에게 부양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아직까지 전통적인 유교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지만 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연금 등 사회보험(28.7%)으로 나타나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또한 노후 함께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형태에서도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률이 93.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베이비 부머의 자녀에게 의존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 부머의 본인의 노후에 희망하는 수발 형태는 외부 서비스 이용이 67.2%로 압도적이며 자녀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하였다. 모든 측면에서 부모는 부양하지만 자녀로부터는 나의 노후보장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양제공’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둘째, 아직도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을 당연시 하고 있어, 결혼할 때까지(41.5%)가 가장 많았고, 학업을 마칠 때까지(29.6%), 직장이 생길 때까지(23.9%)의 순으로 나타나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현세대 노인과 마찬가지로 베이비 부머의 노후생활과 관련된 주관 심사는 건강과 소득보장이다. 노후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건강 및 기능악화(54.7%)와 경제적 어려움(31.8%)을 언급하고 있으며, 건강(45.1%),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40.6%)를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한 항목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노후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후 건강보호와 장기요양보장이 43.5%로 가장 높으며, 소득보장 32.9%가 그 다음이었다.

넷째, 주택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후관련 정책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나 제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약 절반이 건강보험이 노후 건강보장을 위해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51.5%는 현재 공적연금에 가입되어있으나,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12.3%, 미가입률이 35.8%이다.

마지막으로 죽음 및 상제례와 관련해서는 화장의 보편화, 존엄사(72.5%)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제사, 장기기증과 죽음준비교육에 대한 혼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2절 정책제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정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노후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때 이용할 수 있는 소득원은 일차적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주택연금, 개인연

금과 그 외의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등이 있다. 이 중 공적연금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원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로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을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에 그치며, 가입중이나 미불입, 미가입한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난다. 즉,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에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비율은 절반에 그친다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적 소득보장체계이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가입자의 가입확대와 미불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등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체계가 기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베이비 부머는 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의료보장에 대한 보장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추가적인 건강보장을 위한 민간 건강보장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건강보험은 보장성과 재정의 지속안정성의 균형을 필요로 하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험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금 인상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국민적 논의가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경우 미래 노후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건강보호와 장기요양보장을 제1순위로 두고 있으며 그 비율은 43.5%에 달하고 있다. 즉, 건강보호와 장기요양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할 때 공공제도를 통한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3. 장기요양 비용증가의 억제를 위한 체계 구축

베이비 부머의 부모가 건강악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게 될 경우, 가족 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90%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본인의 희망수발형태는 배우자가 28.9%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이 32.7%로 나타나고, 그 외의 약 68%가량이 외부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 부머의 경우 본인 세대의 부모에 대한 외부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비율이 높으며, 본인 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외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현 노인세대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용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가 되었을때 수발을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고비용의 시설 입소를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 개발 및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지역사회서비스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4. 특성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베이비 부머의 건강실천행위를 보면, 흡연율은 높지 않지만 음주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운동 등 개인적인 건강관리에도 높은 실천을 보이고 있어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건강증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나 운동실천율이 높은 이유는 근로에 따른 생활상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그러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직장내에서의 사전적인 스트레스예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사후적으로는 음주보다는 스포츠활동이나 문화강좌의 수강을 통한 스트레스해소를 위해서

지역내 스포츠클럽 및 문화강좌의 수강비용을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5.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주요 만성질환의 관리 소홀은 일상생활기능의 발생과 깊은 관련성이 있고, 장기요양비용의 증가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질환이환율의 현상은 반드시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즉, 만성질환에 따른 일상생활기능의 저하 위험인자의 보유정도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검진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사전적인 발생의 예방 및 지연을 유도할 수 있는 보건교육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v특히, 취약계층에게서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상의 유병률이 높아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관리 대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노인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의 증가요인은 만성질환의 이환정도, 중증화정도, 치료비용규모 등이 일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비용의 폭 증을 사전적으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베이비 부머와 같은 중년층을 대상으로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6. 효과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

베이비 부머의 은퇴에 대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정호성 외, 2010), 베이비 부머는 은퇴 후에도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할 것이므로 베이비 부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노후에 희망하는 일자리로서 이전에 해왔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30%로 나타났다. 한편 전혀 다른 일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하므로 이

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직업 및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7. 맞춤형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

은퇴 후 일하기를 원하는 베이비 부머를 위한 일자리의 적극적인 창출 또한 요구된다. 일자리 개발은 베이비 부머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노후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단지 소득보전과 같은 경제적인 사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여가의 선용, 자아실현 등과 같은 비경제적 사유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টে를 개발할 때 다양하고 질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를 개발해 이같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베이비 부머의 은퇴 이후 제2의 커리어에 대한 정책 개발시 계층적 특성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희망하는 노후 일자리 유형, 노후 일자리에 대한 인식(중요도) 등에 있어 저학력·저소득 계층과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욕구는 수렴되는 반면 중간학력·중간소득 계층이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책적 초점이 저소득·저학력층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던 것으로부터 향후 이들과 이질적인 노후 경제활동관을 가지고 있는 중간학력·중간소득층의 욕구 분석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8.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베이비 부머들의 고령화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가 요구되며, 이러한 사회적 기여는 노동시장 참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자원봉사경험

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금부터 베이비 부머들을 자원봉사의 장으로 이끄는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즉,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7.3%만이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다수(51.8%)는 5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의 사회공헌 및 사회적 활용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처럼 현 베이비 부머 가운데 일단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장기간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들의 행위패턴이 노후로도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따라서 노년기 이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는 사회적 시스템 및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9. 여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의 다양화

현재의 노인들은 여가활용이 매우 소극적인 활동에 초점이 두어져왔음이 사실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의 여가활용방법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휴식·수면, 가사잡일 비율이 높고, 협회의 문화활동인 스포츠, 취미오락, 감상관람 비율이 낮은 편이며 한편 본원적 의미의 문화활동이라고 할 만한 공연장(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입장률은 노인의 경우 10%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베이비 부머들의 다수는 노후에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교육수준의 향상, 청장년기에 누린 다양한 활동참여 경험,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선호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기대수준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내용의 고급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여가프로그램 제공의 중심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도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는 소집단별 전문프로그램 및 심층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노인클럽활동의 활성화

화 등을 지행해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관 외에도 각 지역의 대학 및 백화점의 문화교실 등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영역의 무한한 확대가 가능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베이비 부머의 선택권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10. 노후설계서비스의 제공

베이비 부머의 욕구에 맞는 체계적인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노후준비라고 하면 주로 경제적인 측면의 노후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종합해 보면 베이비 부머는 노후에 대한 관심 영역이 노후 경제준비에 대한 관심을 넘어 건강 및 여가와 취미와 같은 보다 광범한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노후설계에 대한 관심은 확장되는 반면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화된 노후설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접적으로 노후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이용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노후설계에 대해 아직 사회적 화두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노후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와 사회적 공론 형성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맞춤형 정보화 교육의 실시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 현 노인과 달리 베이비부머의 경우 정보화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 달리 현 베이비 부머 가운데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일상생활에서 매우 능숙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한 노인 대상 정보 제공과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농어촌지역 거주자들과 저학력, 저소득자의 경우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이들에 대한 표적화된 정보화 교육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12.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시장 활성화

베이비 부머들은 대다수가 자녀와의 동거가 아닌 단독가구 형성을 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두 명,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명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등 가구크기가 적기 때문에 각 가구가 식사준비, 청소 및 빨래 등의 가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관련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베이비 부머의 주거형태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한편, 전통적 유교사회에서 조상에 대한 봉제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것이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대가족제의 붕괴와 가족관계 약화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이 실태조사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별, 가구유형별, 결혼상태별 제사에 대한 태도가 극명하게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제사에 부정적인 태도형성은 주로 제수음식 마련 등 노동부담에 기인한다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가친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사가 친족의 유대강화의 기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사준비로 인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차례-제사의 상차림을 간소화하려는 가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산업차원에서는 제수음식 배달 서비스의 활성화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3. 장례 서비스의 다양화

베이비부머 세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장례방법은 화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화장율이 65.0%에 불과하나, 베이비부머의 인식조사 결과(85.6%)를 반영하면, 80%를 상회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대는 인구계층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어 화장을 뿐만 아니라 연간 총 화장자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한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해당지자체가 화장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피·혐오감을 완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첨단화장시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지역주민의 경우에도 스스로의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없다면, 현대식 첨단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장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위해 해당지자체의 노력과 주민의 수용성이 또한 증진되어야 한다.

14.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존엄사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기반 마련과 장기기증의사가 구현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마련이 요구된다. 존엄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베이비 부머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재 뇌사상태의 환자에 대해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존엄사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외의 치료가가능성이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환자 뿐만 아니라 환자가족이 처하게 될 삶을 감안하여 뇌사외의 경우에도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대 9명 환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몇 배의 가족구성원, 친족구성원의 피폐된 삶까지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장기기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한국장기기증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기기증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확연한 변화는 엿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확충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웰빙(Well-being) 뿐만 아니라, 삶의 마무리를 잘하는 웰다잉(Well-dyeing)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죽음교육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은 웰빙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 노년층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외면받는 경향이 있다.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베이비 부머의 36.9%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당장 교육이 필요한 이들로부터 죽음준비교육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베이비 부머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사회의 발전동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과제 외에도 자녀부양 시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양계제 및 양성평등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연령차별성의 저하 등 문화적인 변화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민연금연구원(각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
(http://www.nps.or.kr/jsppage/research/panel/panel_main.jsp)
- 국토개발연구원(2009).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 권현정·박화옥(2008).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28(3), pp.535~553.
- 김경아·김혜주(2009). 라이프사이클 하에서의 자산과 소득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 김명중(2006). 일본의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3(9).
- 김부성(2009). 인구감소 및 베이비 붐 세대 은퇴와 부동산시장. **한국금융신문**.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민(2006). **베이비붐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나일주·임찬영·박소화(200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국가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 **노동복지연구**, 42, pp.151~174.
- 로버트 J. 사피로(2010). **퓨처캐스트**(김하락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원서 2008년 발행)
-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삼성경제연구소(2007).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과 시사점. **SERI 경제 포커스.**

손양민(2010). **밥·돈·자유: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북스

신연희·한경혜·김호기·김병후·김혜영·박경숙(2010).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해결책은 있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경숙(2006.5.1). 향후 5년, 자산시장 대격변기를 준비하라. **신동아 머니투데이.**

이여봉(2010). 부부역할과 여자의 결혼만족도: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이철선(200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용·윤상하(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창비.

장지연·신동균·신경아·이혜정(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부가청·이혜정·신현구·이철희(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호정화(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2(2), 1~21.**

정호성·강성원·문외술·박준·손민중·이찬영·이은미·이민훈·박변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김경원(2007).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제인 버킹엄, 티파니 워드(2009). **What's next**(김민주, 송희령 역). 서울.

- 웅진윙스(원서 2008년 발행)
- 최성철(2007).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통계청.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경혜·이현송·김수영·윤성은·장미나(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생애주기 예측 및 대응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한경혜(2000). 신 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인구학회(2006). **인구대사전**. 통계청.
- 함인희(2002). 제8장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한국의 문화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 한국노동연구원(각 년도). **고령화연구패널** (<http://www.kli.re.kr/klosa/ko>).

鶴崎靖夫(2006). **新たなる日本の挑戦** 東京: IN通信士

- AARP. (1998). *Boomers Approaching Midlife - How Secure a Future*. AARP.
- Bengston, V. L.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 Changing?" Effects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 in Vern L. Bengstone and W. Achenbaum ed.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N. Y: Aldine De Gruyter. 3~23.
- Berger, Mack C. (1981). "The Effect of the Baby Boom on the Earnings Growth of Young Males". Conference Paper No. 9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iemer, P. P., Lyberg, L. E. (2003).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John & Wiley Sons Inc.

- Bourne, Bea B. (2009). *"Phenomenological study of Response to Organizational Change: Baby Boomers, Generation X, and Generation Y"*. University of Phoenix.
- Brewer, K. (2002). *Combined Survey Sampling Inference*. Arnold.
- Butrica, Barbara A., Iams, Howard M. (2003). "The Impact of Minority Group Status on the Projected Retirement Income of Divorced Women in the Baby Boom Cohort". *Widows and Divorcees in Later life On Their Own Again*. The Howorth Press, inc.
- Chambers, P. L, Skinner, C. J. (2003). *Analysis Of Survey Data*, London, John & Wiley Sons Inc.
- Cochran. W. G. (1977). *Sampling Techniques*. John & Wiley Sons Inc.
- Easterlin, Richard A. (1961). "The American Baby-Boom in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51, 869~911.
- Easterlin, Richard A. (1993).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 GAO. (2006). *"Baby Boom Generations"*.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 Goldsmith, Jeff C. (2008). *"The Long Baby Boom"*.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orin, Stephen H. (2007). The United States Can Afford the Boomers. *Th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Work*, 32(3), pp.165~168.
- Groves, R. M., et al. (1992). *Nonsampling Error in Surveys*. John & Wiley Sons Inc.
- Groves, R. M., et al. (2002). *Survey Nonresponse*. John & Wiley

Sons Inc.

- Haas, William H., Serow William J. (2002). "The Baby Boom, Amenity Retirement Migration, and Retirement Communities: Will the Golden Age of Retirement Continue?". *Research on Aging*, 24(1), pp.150~164.
- Hagestad, O. G., Uhlenberg, P. (2010). Should We Be Concerned About Age Segregation?. *Research on Aging*, 28(6), pp.638-653.
- Hussain, Aftab., Rivers, Patrick A. (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long Term Health Care Crisi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Health Care Finance*, 36(2), pp.71~82.
- Jackson, R., Howe, N., Nakashima, K. (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Jackson.
- Kahlert, Maureen B. (2001). "The Baby Boomer Generation - Impact on Public Libraries". 66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 Kasprzyk, D., et al. (1989). *Panel surveys*. John & Wiley Sons Inc.
- Light, Paul C. (1990). *"Baby Boomers"*. NY: Norton & company.
- Lohr, S. L. (1999).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Duxbury Press.
- Mannheim, K. (1997). "The Problem of Generation." Studying Aging and Social Chang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Hardy, M. A. ed. London
- Martin, Linda G., Freedman Vicki A., Schoeni, Robert F., Andreski & Patricia M., (2009). "Health and Functioning Among Baby Boomers Approaching 60". *The Journal of Gerontology*, 64B(3), pp.369~377.
- METLIFE. (2010). *Boomers in the Middle - an in-depth look at americans born 1952~1958*.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 Mentel Jan. (2001). "The Impact of Ageing Populations on the Economy, a European perspective: From Baby Boom to Baby Bust". *The Geneva Paper on risk and Insurance*, 26(4),

pp.529~546.

Mitra Toossi, (2002). "A Century of Change: The U.S. Labor Force, 1950~2050". *Monthly Labor Review*, 125(5), pp.15~28.

Murphy, James F. (1997). *"Baby Boom Memories"*. Tresanton Publishing.

Pampel, Fred C. (1994). *"Population Aging, Class Context, and Age Inequality in Public Spend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oulos, Stacy. (1997). *"The Aging Baby Boom: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U. S. Department of Labor

Rowe M., Neff D., Weber B., Robert B. & Sutton L. (2004). "Reconceptualizing informal Caregiving for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Gerontology*, 44(1), 314~

Russel, L. B. (1982).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Economy"*. Washington. D.C.: The Brooking, Ins.

Ryder, Norman B. (1965). "The Cohort in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pp.843~861.

SasInst (2007). *SAS/STAT User's Guide. Version 8*. SAS Publishing.

Schai, K. W., Uhlenberg, P. (2007). *Social Structures: Demographic Changes and the Well-being of Older people*.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Scheaffer, R. L., Mendenhall, W. & Ott, R.L. (2004). *Elementary Survey Sampling*, 6th Ed. Duxbury Press.

Shulz, James H., Binstock, Rober H. (2008). *"Aging Nation"*.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iems, Thomas F. (2001). "Reengineering Social Security in the new Economy".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22, pp.1~18.

Stacy Poulous, Dementra S. Nightingale. (1997). *"Employment and Training policy Implications of the Aging Baby Boom*

- Generation". Urban Institute.*
- Spitzer, Alan. B. (1973). "The Historical Problem of Generation"
American Historical Review. 78, pp.1353~1385.
- Takamura, James C. (1999). "Getting Ready For the 21st Century:
The Aging of America and Older Americans Act". *th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Work*. 24(3), pp.232~283.
- Texas Department on Aging(2000). *The Texas Baby Boomer Survey*.
Texas Department on Aging.
- The Congressional Budge Office (2003). *"Baby Boomers' Retirement
prospects: An Overview"*. The Congressional Budge Office
- Thompson, S. K. (2002). *Sampling* 2nd Ed. John & Wiley Inc..
- Tourangean, R. (2004). *Survey Methodology*. John & Wiley Sons
Inc.
- Uhlenberg, P., Cheuk, M. (2009). Demography of informal
caregiving. in Maximiliane E. Szinovacz and Adam
Davey(eds.), *CAREGIV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Uhlenberg, Peter. (2009). "Children in an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Gerontology*, 64B(4), pp.489~496.
- Uhlenberg, P. (2005) Historical forces shaping grandparent-grandchild
relationship: Demographu and beyond.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24, pp.77-97.
- Uhlenb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gist*, 40(3), pp.361~308.
- United Nations (2009). *"How Generations and Gender Shape
Demographic Change"*. United Nations.
- U.S. Department of labor (1997). *"The Aging Baby Boom Implication
for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07). *"Olders Ba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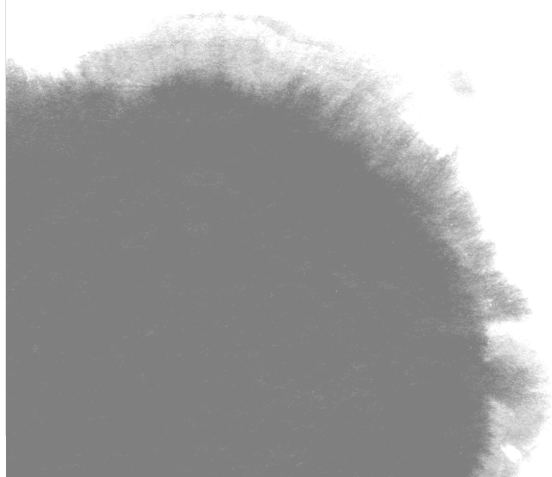
Boomers Turn 60".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Utah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enter (2004). *"The Utah Aging Initiative"*. Utah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Center for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Utah.

Walker, David M. (2002). *"Long Term Care - Aging Baby Boom Generation Will Increase Demand and Burden on Federal and State Budgets"*.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2005). *"The Booming Dynamics of Aging: From Awareness to Action"*. Report of 2005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부록



부 록

[부록 1]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설문지

[부록 2] 실태조사 조사지역

[부록 3] 실태조사 결과표

부록 1. 중년층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설문지



승인(협의)번호
10005

주관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 공표	2010년 12월

답변 내용은 통계자료 작성에만 이용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내 응답자 번호	조사구내 원련번호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중년층의 성공적인 노년기 진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뽑은 약 4,000명의 46~59세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사로, 귀하가 조사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귀하가 답변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정책 수립과 예비고령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비쁘시더라도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가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 조사 주관 및 수행 기관(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관리팀(☎ 02-380-8362),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02-380-8341, 8153)

방문 횟수	방문 일시	방문 결과	지도원 검토 결과
1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 ____ 시 ____ 분	☐ ① 완료 ☐ ② 외출 ☐ ③ 장기 출타 ☐ ④ 응답 거절 ☐ ⑤ 기타(____)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2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 ____ 시 ____ 분	☐ ① 완료 ☐ ② 외출 ☐ ③ 장기 출타 ☐ ④ 응답 거절 ☐ ⑤ 기타(____)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3	____ 월 ____ 일 ____ 시 ____ 분 ~ ____ 시 ____ 분	☐ ① 완료 ☐ ② 외출 ☐ ③ 장기 출타 ☐ ④ 응답 거절 ☐ ⑤ 기타(____)	☐ 양호 ☐ 약간 수정 ☐ 재방문 지시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 - _____
주 소	____ 시 ____ 구 ____ 동 ____ 도 ____ 시 ____ 군 ____ 읍면	아파트 동 호 ____ 리 ____ 번지 호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원 및 일반사항

I. 가구원 사항

총 가구원 수 조사 대상수 조사 원료 수 가구 형태 조사 대상자의 가구원 번호

↳ (※ 조사원은 별첨4 참조)

번호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	3. 생년 월 및 만 연령	4. 결혼 상태	5. 교육 수준	6. 경제활동 참여여부	7. 동거 여부	8. 조사대상 확인사항
일련번호	이 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별첨1 참조)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도 가구원으로 추가하십시오)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 분의 주민등록상의 생년 월은 언제입니까? 또한 이 분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조사원 등작성 경우 양적으로 작성하여 생년월을 부호화 할때 기록하여 주십시오. 만연령은 201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만 연령을 00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별첨2, 별첨3 참조]	이 분의 사실상 결혼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비혼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⑥ 알 수 없음 ⑦ 비혼 (14세 이상)	이 분은 학업을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 ⑧ 대학원(이상)	이 분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 아-무-런 ③ 학생 ④ 비학업 (14세 이상)	이 분은 직업이나 학업 때문에 타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① 예(비동거) ② 아니오 (동거)	① 대상자로 조사원료 조사(가)나 조사(가)원료 ② 대상자(가)나 조사(가)원료 ③ 비대상
1	가구주 0 1		년 월 만 세					
2			년 월 만 세					
3			년 월 만 세					
4			년 월 만 세					
5			년 월 만 세					
6			년 월 만 세					
7			년 월 만 세					
8			년 월 만 세					

II. 일반사항

1. 가구원 외의 생존자녀가 있습니까?(결혼한 자녀와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주십시오.)

- ① 있다 → (남자: _____명, 여자: _____명, 계: _____명)
(미혼: _____명, 기혼: _____명, 계: _____명)

② 없다 (→ 없으면 모두 '0'으로 기록하고, '질문 2'로 가시오)

남자 여자 계
1

미혼 기혼 계
1

※ 조사원: 가구조사표의 가구원 사항과 비가구원 자녀 사항을 참조하여 총자녀수를 기록하십시오.

자녀수	남자	여자	소계
(1) 가구원인 자녀수			(1)•1. 미혼 (1)•2. 기혼
(2) 비가구원 자녀수			(2)•1. 미혼 (2)•2. 기혼
(3) 총자녀수			(3)•1. 미혼 (3)•2. 기혼

2. 귀하는 (외)손자녀를 몇 명 두셨습니까? 가구내 손자녀수: 명 비가구원 손자녀수: 명 총 명
(※ 조사원 '없음'을 '0'으로 기록하십시오.)

3. 귀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교입니까?
 ① 불교 ② 개신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원불교 ⑥ 기타 () 3.
 ⑦ 종교 없음(→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에 관한 질문으로 가시오)

3-1. 종교활동은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 1회 ⑤ 월 1회 ⑥ 월1회 미만 3-1.

가족·사회관계 및 부양의 교환

1. 귀하의 형제·자매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형제·자매 _____명중 _____째
 ① 장남 ② 의아들 ③ 차남 이하 ④ 장녀 ⑤ 외동딸 ⑥ 차녀 이하 1. 명 째 순위

2. 귀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형제·자매 _____명중 _____째
 (※조사원: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 ⑤비해당 처리 하시오.)
 ① 장남 ② 의아들 ③ 차남 이하 ④ 장녀 ⑤ 외동딸 ⑥ 차녀 이하 2. 명 째 순위

※조사원: 귀하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가 사별, 이혼·별거, 미혼인 경우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⑤비해당 처리 하시오.

질 문 내 용	(1) 자신의 부모	(2) 배우자의 부모
3.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부모님의 연세는 몇이십니까? ① 부모 모두 생존 ② 아버지만 생존 ③ 어머니만 생존 ④ 두분 모두 사망 ⑤ 기타() (※ 본인의 부모에 대한 질문 후,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양가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 p.3의 '질문2'으로 가시오.)	생존여부 부: 만나이 모: 만나이	생존여부 부: 만나이 모: 만나이
4. 현재 부모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모두) 건강 ② 아버지(만)가 건강하지 않음 ③ 어머니(만) 건강하지 않음 ④ 두분 모두 건강하지 않음		
(※조사원: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질문12'로 가시오.)		
5.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은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①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혼자 살고 계심 ② 배우자하고만 살고 계심 ③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 ④ 기타()		
6.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p.3의 【보기1】 참조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7.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에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p.3의 【보기1】 참조		
7-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서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p.3의 【보기1】 참조		

질 문 내 용	(1) 자신의 부모	(2) 배우자의 부모
8.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게 <u>간병이나 수발</u> 등의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보기1】 참조	☐	☐
8-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u>간병이나 수발</u> 등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기1】 참조	☐	☐
9.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모님에게 어떤 <u>경제적인 도움</u> 을 주셨습니까? 【보기2】 참조 (응답이 ㉔이면 '질문10'으로 가시오)	☐	☐
9-1.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	☐
10.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모님에게서 어떤 <u>경제적인 도움</u> 을 받으셨습니까? 【보기2】 참조	☐	☐
11. 귀하는 부모님에게 <u>경제적인 도움</u> 을 주는 편입니까? 도움을 받는 편입니까? ①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받지 않음 ② 부모님에게 도움을 주는 편 ③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편 ④ 비슷한 정도로 도움을 주고 받는 편	☐	☐
12. 귀하는 부모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기1】 연락 및 도움을 주고 받는 빈도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연 1회 이하 ⑨ 전혀 연락이나 접촉이 없음(도움을 준적/받은적 없음) ⑩ 기타()

【보기2】 경제적인 도움 구분

- ①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주지) 않음 ② 비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①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③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은 아니지만 주택 등 부동산 구매시 지원
④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 부동산 구매시 지원 등은 아니지만 냉장고, TV 등의 생활용품 구매 지원

주요사원: 응답자가 사별, 이혼, 병역, 미혼인 경우, '질문 13' - '질문 15'는 ③(비해당) 처리하고, '질문 16'으로 가시오.

13. 본인의 가족(친가)과 배우자의 가족과의 접촉 빈도를 비교하면 어떤 편입니까?
① 친가와 더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② 배우자의 가족과 더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③ 비슷하다 13 ☐
14. 본인의 가족(친가)과 배우자의 가족과의 친밀감을 비교하면 어떤 편입니까?
① 친가와 더 친밀감을 느끼는 편이다 ② 배우자의 가족과 더 친밀감을 느끼는 편이다 ③ 비슷하다 14 ☐
15. 귀하는 부부관계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15 ☐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조사될 '직문 16 ~ 직문 17'은 귀하의 가구월의 아님으로 살고 있는 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도 포함하여 직문하시오(해당 응답은 제외) 가구월이 아님으로 살고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직문 16'로 가고, 자녀가 전혀 없는 경우는 '직문 17'으로 가시오

16. 지난 1년 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와는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 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보기1】 참조 16

16-1.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중 어떤 자녀와 가장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보기3】 참조 16-1

17.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은 도움을 주거나 받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보기1】 ~ 【보기3】을 참조하여 해당 번호를 기입하시오.

도움의 제 측면	(1) 도움빈도 p3의 【보기1】과 【보기2】 참조	(2) 주제공자/ 수혜자 【보기3】 참조	(3) 주제공자/ 수혜자의 결혼상태 ① 기혼 ② 미혼
17-1.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의 도움을 자녀에게 제공			
17-2. 청소, 식사 준비(장보기, 반찬 제공 등), 세탁 등의 집안일의 도움을 자녀에게 받음			
17-3. 손자녀 돌보기 도움 제공			
17-4. 경제적 도움 받음			

【보기3】 형제·자매 순위

① 장남 ② 차남 ③ 삼남 ④ 사남 ⑤ 오남 이상 ⑥ 장녀 ⑦ 차녀 ⑧ 삼녀 ⑨ 사녀 ⑩ 오녀 이상

18. 현재 귀하는 학비 외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20세 이상의 성인자녀가 있습니까?

▷ 있다 → _____명 (※ 조사될: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직문하여 기록하시오.
가구월일 경우: (1)-(4)은 가구조사표의 가구월 사항에서 이거하시오.)

18 명

③ 없다 (→ 없으면 '0'으로 기록하고, '질문 19'로 가시오)

번호	(1) 성	(2) 연령	(3) 결혼 상태	(4) 교육수준	(5) 경제활동 참여여부	(6) 가구원 및 동거 여부	(7) 형제자매 순위	(8) 경제적 도움의 내용
일련 번호	이 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 자녀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자 ② 여자	이 자녀의 사실상 결혼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③ 미혼 ④ 별거 ⑤ 미혼	이 자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 ⑥ 대학교 ⑦ 대학원 이상	이 자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만약 비취업이면 ② 학생 ③ 비취업	이 자녀는 현재 가구원 이십니까? ① 동거 가구원 ② 비동거 가구원 ③ 비가구원	이 자녀의 형제자매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3】 참조	이 자녀에게 어떠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p3의 【보기 2】 참조
1		만 세						
2		만 세						
3		만 세						

18-1.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인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부담스럽다 ② 부담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스럽지 않다 ⑤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18-1

19. 귀하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않는다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9

19-1. 자녀 중 어떤 자녀와 가장 큰 친밀감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보기3】 참조

19-1

※ 다음은 친구 등 사회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귀하는 본인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다 (→'0'으로 기록하고 '질문 21'로 가시오) ▷ 있다 (→ 명)

20 명

20-1. 귀하는 지난 1년간 자신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셨습니까? (방문한 경우, 방문 오는 경우, 전화 편지 등에 의한 상호 연락 모두 포함)

-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에 1회 ⑤ 월 1회 정도 ⑥ 3개월에 1회
⑦ 6개월에 1회 ⑧ 연 1회 이하 ⑨ 기타()

20-1

21.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 지인 중 사적으로 누구와 가장 자주 만나셨습니까?

- ① 동창 ② 직장동료 ③ 자녀관련 학부형 ④ 종교관련 교우
⑤ 지역주민 ⑥ 동호회관련 지인 ⑦ 기타()

21

22. 귀하는 본인의 노후생활(65세 이후)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형제·자매
④ 친구와의 관계 ⑤ 부모와의 관계 ⑥ 기타()

22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1. 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또는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습니까?

- 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③ 피운다

1

2. 귀하는 술을 드십니까? 또는 과거에 술을 드셨습니까?

- ① 술을 마신 적이 없다 ② 과거에는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③ 마신다

2

3. 귀하는 평소 운동을 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3-3'으로 가시오)

3

3-1. 운동을 한다면, 1주에 몇 회 하십니까?(1회 20분 이상)

- ① 1주 1회 미만 ▷ 1주: 회

주 회

3-2.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운동시설은 무엇입니까? (응답 후 '질문4'로 가시오)

- ① 공공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간이야외운동시설 등)
②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③ 민간/상업 스포츠시설(헬스클럽, 사설체육관, 사설스포츠센터, 골프장, 테니스장, 태권도장 등)
④ 민간 비영리/복지시설(YMCA, YWCA, 사회복지관, 교회 등)
⑤ 집주변(공원, 공터, 악수터, 등산로, 골목 등)
⑥ 집안
⑦ 기타()

3-2

3-3. 귀하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②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③ 주위에 운동할 장소, 도구, 시설이 없어서 ④ 정보(방법, 장소, 효과 등)가 부족해서
 ⑤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⑥ 몸이 약해서
 ⑦ 관심이 없어서 ⑧ 게을러서
 ⑨ 기타()

3-3

4. 귀하는 곡류, 과일, 채소, 생선, 고기 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편입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5. 귀하는 최근 3개월간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종합비타민, 칼슘제, 보약 등)을 드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

6. 귀하는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6-4'로 가시오)

6

6-1. 그 건강검진을 통해 어떤 증상(질병)을 발견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7'로 가시오)

6-1

6-2. 그 증상(질병)을 치료 또는 관리하였습니까?

- ① 예 (→ '질문 7'로 가시오) ② 아니오

6-2

6-3. 그 증상(질병)을 치료 또는 관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후 '질문 7'로 가시오)

- 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② 관심이 없어서, 귀찮아서
 ③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건강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여
 ⑤ 근처에 병의원 등 의료시설이 없어서 ⑥ 정보(방법, 장소, 효과 등)가 부족해서
 ⑦ 기타()

6-3

6-4.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가사, 직장 등)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② 건강에 관심이 없어서
 ③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건강하기 때문에
 ⑤ 근처에 병의원 등 검진시설이 없어서 ⑥ 정보(방법, 장소, 효과 등)가 부족해서
 ⑦ 질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⑧ 기타()

6-4

7. 귀하는 동년배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7

8. 귀하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으면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질병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9.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10. 귀하는 지금까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불편을 겪은 적이 없다 ② 과거 불편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불편하지 않다
 ③ 가끔 불편함을 느낀다 ④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

10

11. 귀하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없음 ① 건강 및 질병 상담 ② 건강교육
 ③ 식이 또는 운동 처방 ④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 ⑤ 약물오용관련 교육 상담
 ⑥ 정기적 건강검진 ⑦ 질병 관리서비스 ⑧ u헬스(온라인 건강관리서비스)
 ⑨ 방문간호서비스 ⑩ 기타()

11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1. 귀댁의 지난 한 해(2009.1.1~2009.12.31)의 월평균 총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소득 포함 항목: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개인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월평균 총가구 소득: _____만원

1	천	백	십	만
---	---	---	---	---

2. 현재 귀댁이 소유한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자산 포함 항목: 주택,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준 것, 현금, 적금, 주식, 펀드, 자동차, 희원권 등)

자산: _____백만원

2	십	백	천	백	만
---	---	---	---	---	---

3. 현재 귀댁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채 포함 항목: 주택용자금, 전세보증금 받은 것, 그 밖의 빌린 돈 등)

부채: _____백만원

3	십	백	천	백	만
---	---	---	---	---	---

4. 귀댁의 지난 한 해(2009.1.1~2009.12.31)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세금,

사회보험료 및 저축, 이자 등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월평균 지출액: _____만원

4	천	백	십	만
---	---	---	---	---

5. 다음 소비항목에 대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1) 여행비(숙박비 포함): _____만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학원 및 기타 교육비: _____만원

(3) 가족 외식비: _____만원

(4) 저축 및 적금, 저축성 보험료: _____만원

(1)	천	백	십	만
(2)	천	백	십	만
(3)	천	백	십	만
(4)	천	백	십	만

6. 귀댁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축, 민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구분	내용	본인		배우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건강, 오양위험	질병(암), 실손보험(진료비 본인부담), 교통상해 사고대비, 장기요양, 실버보험 등	①	②	①	②
(2) 사망위험	종신보험, 상호회사 등	①	②	①	②
(3) 노후소득보장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	①	②	①	②
(4) 목돈마련 등	적금, 계돈 등	①	②	①	②

	본인	배우자
(1)		
(2)		
(3)		
(4)		

7.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③ 중의 상 ④ 중의 하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7	
---	--

8. 귀하의 청소년시절(중고등학교시절) 경제생활 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① 아주 좋았다 ② 조금 좋았다 ③ 평균 수준이었다 ④ 조금 나빴다 ⑤ 아주 나빴다

8	
---	--

9. 귀하는 10년 후 귀댁의 경제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③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⑤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9	
---	--

소비행태	동의를지도			
(1) 가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실패 서비스를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 시간을 투자하여 좋은 물건을 찾기 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3) 가격이 비싸도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들면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4)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소비트렌드	동의정도			
(1) 핸드폰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 자신보다는 가족이나 자식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3)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제품을 구매한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4)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활동 등을 통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5) 40대 이후에 새로 시작한 취미·문화활동이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6) 다른 나라의 음식, 예술 문화상품, 여행상품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6)	

1

1-1		
-----	--	--

1-2 ☐

	년		개월	
1-3				

2. 귀하는 현재(조사시점 기준)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 '질문 2-1'로 가시오)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유사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 (→ '질문 2-1'로 가시오)
 ③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 '질문 2-4'로 가시오)
 ④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 '질문 3'으로 가시오)

2

※ 조사될 가장 오래 했던 일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동일한 경우, '질문 1-1' ~ '질문 1-3'의 사항을 '질문 2-1' ~ '질문 2-3'에 이기하십시오.

2-1. 현재 하시는 일의 일자리 유형을 적어주십시오. p.8의 【보기4】 참조

현재 하는 일: ()

2-1

2-2. 현재 하시는 일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고용주
 ⑤ 단독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2-2

2-3. 현재 하시는 일의 종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2-3 년 개월

2-4.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내용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하고 싶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1)
 (2)
 (3)

2-5.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 둘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 ① 창업 준비(아이템, 자금 등) ② 직업교육 참여
 ③ 구직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④ 취미·여가 개발
 ⑤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다 ⑥ 기타()

2-5

3. 귀하는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40대 이후에 그만 둔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4'로 가시오)

3

3-1.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일을 그만두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조사될 (1)-(3)의 경우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으면 ⑤ 비 해당 처리하십시오.)

질문내용	매우 좋아졌다 ①	좋아졌다 ②	변화없다 ③	나빠졌다 ④	매우 나빠졌다 ⑤
(1) 배우자와의 관계					
(2) 자녀와의 관계					
(3) 부모와의 관계					
(4) 전반적인 생활만족					

(1)
 (2)
 (3)
 (4)

- ## 사회 참여

3. 귀하의 현재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3

4. 귀하의 노후 삶에 있어서 여가활동은 얼마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4

※ 다음은 단체활동에 대한 참여여부, 기간, 빈도, 만족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 문 내 용	자원봉사단체	정치사회단체
5. 귀하는 자원봉사단체나 정치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만) ① 참여 ② 비참여(→ ‘질문 6’으로 가시오)		
※ 조사항: ‘질문 5-1번’ ~ ‘질문 5-4번’까지는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활동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오.		
5-1. 이 단체활동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다? ____ 년 ____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5-2. 이 단체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① 주 4회 이상 ② 주 2-3회 ③ 주 1회 ④ 2주 1회 ⑤ 월 1회 ⑥ 월 1회 미만		
5-3. 이 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스스로 ② 주변인의 권유 ③ 대중매체 및 홍보 ④ 기타(_____)		
5-4. 이 단체활동에 참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하여 ② 건강을 위하여 ③ 사회적인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④ 나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⑤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하여 ⑥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⑦ 나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⑧ 기타 (_____)		
6. 귀하는 <u>노후</u> 에 자원봉사단체나 정치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의 현재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8. 귀하의 노후 삶에 있어서 사회참여 활동은 얼마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8

※ 다음은 노후교육 및 노후설계 컨설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9. 다음 중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건강관리교육 ② 여가와 취미 관련 교육 ③ 일반교양교육 ④ 정보화교육
⑤ 자원봉사교육 ⑥ 취업 및 직업교육 ⑦ 노후준비교육 ⑧ 노후경제교육
⑨ 대학교육 이상의 고등 교육 ⑩ 기타 (_____)

1순위		
2순위		
3순위		

10. 노후에 대비해 재무, 여가, 사회참여, 경력관리 등의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질문 11’로 가시오)

10

10-1. 노후설계 컨설팅을 위해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② 5만원 미만 ③ 5~10만원 미만
④ 10~15만원 미만 ⑤ 15~20만원 미만 ⑥ 20만원 이상

10-1

11. 노후에 평생교육 실시기관을 선택할 때, 다음 각 조건이 얼마나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중요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내용	① 매우 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	④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접근성(거리 등)					
(2) 비용					
(3) 감사의 질					
(4) 교육기관의 수준·질					
(5) 기타 ()					

(1)

(2)

(3)

(4)

(5)

12. 귀하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십니까?

- ① 매우 능숙하게 사용 한다
②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며,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
③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④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12

노후 가치관 및 정책 인지도

1. 일반적으로, 노후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 부양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및 가족 ④연금 등 사회 보험 ⑤ 국가

1

2. 귀하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및 가족 ④연금 등 사회 보험 ⑤ 국가

2

3. 귀하는 노후에 어느 지역에 살고 싶으십니까?

- ① 대도시(7대 특별·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군지역)
④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⑤ 실버타운 등 노인전용 거주지

3

- 3-1. 귀하는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건의료시설 ② 문화여가시설 ③ 자연환경(강, 호수 등)
④ 자녀와의 거리 ⑤ 사회적 소통(친구집단, 사회참여기반) ⑥ 기타()

3-1

4. 귀하는 노후에 누구와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 ① 아들과 살고 싶다 ② 딸과 살고 싶다 ③ 형편이 되는 자녀와 살고 싶다
④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고 싶다 ⑤ 기타()

4

5. 부모가 자녀를 언제까지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업을 마칠 때까지 ②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 ③ 직장이 생길 때까지
④ 결혼할 때까지 ⑤ 손자녀 양육시까지 ⑥ 주거가 마련될 때까지
⑦ 기타()

5

6. 귀하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② 학습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③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④ 종교활동을 하면서
 ⑤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⑥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⑦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싶다 ⑧ 기타()

6

--	--

7. 귀하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교육 ② 자녀의 취업 및 결혼 ③ 생계비(가계) 마련
 ④ 주택 구입 ⑤ 본인의 건강 ⑥ 여가 및 취미활동
 ⑦ 노후모 부양 ⑧ 노후 준비 ⑨ 기타()

7

--	--

8. 귀하가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배우자와의 관계 ② 자녀와의 관계 ③ 친구와의 관계
 ④ 건강 및 기능 악화 ⑤ 경제적 어려움 ⑥ 주거 문제
 ⑦ 소외 및 고독감 ⑧ 무료함(소일거리 없음) ⑨ 기타()

8

--	--

9. 다음 중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경제적인 안정과 여유 ② 건강 ③ 가족의 화목과 평안
 ④ 자녀의 성공 ⑤ 친구관계 ⑥ 소득활동
 ⑦ 자기 계발 활동 ⑧ 지속적 사회참여 ⑨ 사회 기여 활동
 ⑩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⑪ 기타()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다음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은 노후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0

--

10-1. 노후에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생각해 본 적 없다 ④ 현재 주택이 없다

10-1

--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발을 필요로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1

--

11-1. 귀하나 배우자의 부모님 중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대상 가족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는 서비스
(1) 본인의 부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시설서비스 ② 재가서비스
(2) 본인의 모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시설서비스 ② 재가서비스
(3) 배우자의 부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시설서비스 ② 재가서비스
(4) 배우자의 모	① 이용 ② 비이용	① 시설서비스 ② 재가서비스

이용 서비스
여부 유형

(주조사원: 모든 대상 가족의 서비스 이용 여부가 '비이용'인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는 모두
 ⑤ 비배달 처리하고, '질문 H-2'로 가시오.)

11-2. 귀하의 (배우자) 부모님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요양원과 같은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겠다
 ②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겠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보다는 요양병원 등의 병원시설을 이용하겠다
 ④ 이용하지 않겠다

11-2 ☐

12. 귀하는 노후에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이나 수발이 필요하다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 ① 배우자
 ② 아들·며느리
 ③ 딸·사위
 ④ 서비스 이용(재가)
 ⑤ 노인요양원 등 복지시설이용
 ⑥ 노인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
 ⑦ 기타 ()

12 ☐

13. 귀하는 노후에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지 않다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13 ☐

14. 귀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에 가입해 있습니까?

- ① 가입했으며, 돈을 내고 있다
 ② 가입했으나 돈을 내지 못하고 있다
 ③ 가입하지 않았다 (→ '질문 15'로 가시오)
 ④ 현재 연금(조기연금)을 받고 있다 (→ '질문 15'로 가시오)

14 ☐

14-1. 지금과 같이 계속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을 불입했을 경우,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연금금액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다
 ② 대강의 액수를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르고 있다

14-1 ☐

15. 귀하는 향후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와 사회가 노인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노후 소득보장
 ② 노년기 고용연장 및 고용기회 확대
 ③ 노년기 건강보호/장기요양 서비스
 ④ 노년기 여가문화 지원
 ⑤ 노년기 평생 교육
 ⑥ 기타()

15 ☐

※ 다음은 장래와 죽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제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 ☐

17. 귀하는 바람직한 장례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장
 ② 화장 후 봉안시설에 봉안
 ③ 화장 후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밑에 골분매장)
 ④ 화장 후 산골(산, 강, 바다 등에 골분을 뿌림)
 ⑤ 기타()

17 ☐

18. 귀하는 존엄사(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하지 않다
 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8 ☐

19. 귀하는 생전 또는 사후에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

20. 귀하는 죽음준비에 관한 교육이 있다면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

삶의 만족도

1.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시오.

질문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 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다					
2)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말 행복하다					
3) 가능한 일이라면 내 과거를 바꿨으면 좋겠다					
4) 요즘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 들이다					
5) 대부분의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					
6)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흥미를 느낀다					
7) 미래에 대해 무언가 기쁘고 흥미있는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된다					
8) 지치고 늙었다고 생각된다					
9) 남은 인생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10) 지금도 바쁘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11) 요즘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을 느낀다					
12) 조금만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실태조사 조사지역

시	군구	읍면동	code	ed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4가동	1104062	01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2동	1106053	00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1106070	066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동	1111055	09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112068	05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114063	10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	1115059	076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2동	1116068	081A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118051	024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1동	1120051	118A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123070	046A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2동	1123074	019A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1동	1125057	0151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2102068	12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1동	2105064	0341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민동	2106051	086A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2109070	151A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	2111051	041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2동	2111070	075A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2115062	0141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2201069	0301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2204055	094A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2205071	066A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2205079	156A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	2206069	047A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1동	2206071	056A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2동	2304058	082A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1동	2305059	029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2305064	059A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2동	2306064	070A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2306069	038A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2307056	127A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원창동	2308057	001A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2401071	059A

시	군구	읍면동	code	ed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2동	2403063	0351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2403069	128A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2동	2404066	096A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2501065	133A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2502057	0391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1동	2502065	0261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2503052	0521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3동	2503068	102A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2601064	027A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2602059	040A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2동	2603056	014A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2631012	118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102159	014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3102357	195A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2동	3103058	057A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1동	3104163	102A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3105353	087A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3109155	005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3109260	03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110352	068A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113056	0011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3116060	027A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3119351	162A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3121037	023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3127034	046A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3201060	036A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3202068	0091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203056	014A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207051	048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3239011	027A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301164	105A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개산·죽림동	3301259	045A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3302063	059A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3337036	0151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3339014	023A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3401058	0431
충청남도	공주시	옥룡동	3402056	0011

시	군구	읍면동	code	ed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3404039	0181
충청남도	계룡시	남천면	3407032	024A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3437011	144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2동	3501163	090A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3501254	009A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3502071	070A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3503032	0161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3536036	003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602011	0522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3603060	022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3635011	0111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3635036	016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3645011	07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3701112	077A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2동	3701152	0101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3702055	0971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3705055	1241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3707031	0251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3710036	0141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3739012	061A
경상남도	창원시	반송동	3801055	169A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3802033	0171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동	3803071	1261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1동	3805058	0231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3807060	0061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3810033	0931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3833042	0111
제주도	제주시	용담1동	3901057	0411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3901060	098A
제주도	서귀포시	대륜동	3902059	0101

부록 3. 실태조사 결과표

〈부표 1〉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손자녀 수

(단위: %, 명)		
손자녀 수	명	유효 퍼센트
전체	3,027	100.0
총 손자녀 수		
0명	2,663	88.0
1명	158	5.2
2명	105	3.5
3명 이상	93	3.1
무응답	9	0.3
가구원내 손자녀수		
0명	2,992	98.8
1명	20	0.7
2명	8	0.3
3명 이상	7	0.2
비가구원 손자녀수		
0명	2,683	88.6
1명	153	5.1
2명	99	3.3
3명 이상	84	2.8
무응답	9	0.3

〈부표 2〉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가구원 손자녀 수

(단위: %, 명)

특성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	(명)
전체	98.8	0.7	0.3	0.2	100.0	(3,027)
지역						
동부	99.1	0.5	0.3	0.1	100.0	(2,491)
읍·면부	97.6	1.5	0.0	0.9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98.2	1.0	0.4	0.4	100.0	(1,633)
1960~1963년생	99.7	0.2	0.1	0.0	100.0	(1,394)
성						
남자	99.0	0.6	0.1	0.3	100.0	(1,433)
여자	98.7	0.8	0.4	0.1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97.8	0.9	0.6	0.6	100.0	(319)
중학교	96.7	1.9	0.6	0.8	100.0	(627)
고등학교	99.5	0.4	0.1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100.0	0.0	0.0	0.0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99.0	0.7	0.2	0.1	100.0	(2,592)
무배우	97.7	0.5	0.5	1.4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100.0	0.0	0.0	0.0	100.0	(166)
부부가족	100.0	0.0	0.0	0.0	100.0	(285)
부/모+미혼자녀	99.8	0.1	0.0	0.0	100.0	(2,243)
확대가족	90.3	5.5	2.1	2.1	100.0	(329)
기타가족	100.0	0.0	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99.0	0.6	0.2	0.2	100.0	(2,300)
미취업	98.4	1.0	0.4	0.3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98.2	0.9	0.2	0.6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99.0	0.6	0.5	0.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99.2	0.5	0.1	0.2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3〉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비가구원 손자녀 수

(단위: %, 명)

특성	0명	1명	2명	3명이상	무응답	계	(명)
전체	88.6	5.1	3.3	2.7	0.3	100.0	(3,027)
지역							
동부	90.1	4.7	2.8	2.1	0.4	100.0	(2,491)
읍·면부	81.8	6.9	5.6	5.8	0.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1.7	8.1	5.5	4.4	0.3	100.0	(1,633)
1960~1963년생	96.7	1.4	0.7	0.9	0.3	100.0	(1,394)
성							
남자	92.5	3.8	1.6	1.8	0.3	100.0	(1,433)
여자	85.1	6.1	4.8	3.6	0.3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71.6	9.1	7.2	10.9	1.3	100.0	(319)
중학교	76.1	9.6	7.2	6.4	0.8	100.0	(627)
고등학교	93.2	4.3	2.0	0.5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98.3	1.1	0.4	0.3	0.0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89.2	4.5	3.3	3.0	0.0	100.0	(2,592)
무배우	85.3	8.3	3.2	1.1	2.1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79.5	9.0	3.6	2.4	5.4	100.0	(166)
부부가족	63.2	10.9	13.0	13.0	0.0	100.0	(285)
부/모+미혼자녀	92.6	3.9	2.1	1.4	0.0	100.0	(2,243)
확대가족	88.1	6.1	2.4	3.3	0.0	100.0	(329)
기타가족	75.0	0.0	25.0	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89.3	5.3	2.8	2.4	0.3	100.0	(2,300)
미취업	86.7	4.3	4.7	4.0	0.4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8.9	8.2	5.7	6.3	0.9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89.5	5.5	3.0	1.9	0.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96.9	1.6	1.2	0.3	0.0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4〉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비가구원 총 손자녀 수

(단위: %, 명)

특성	0명	1명	2명	3명이상	무응답	계	(명)
전체	88.0	5.2	3.5	3.0	0.3	100.0	(3,027)
지역							
동부	89.6	4.7	3.0	2.2	0.4	100.0	(2,491)
읍·면부	80.3	7.4	5.6	6.7	0.0	100.0	(537)
출생년도							
1955~1959년생	80.7	8.3	5.8	5.0	0.3	100.0	(1,633)
1960~1963년생	96.5	1.6	0.7	0.9	0.3	100.0	(1,394)
성							
남자	92.1	3.8	1.6	2.2	0.3	100.0	(1,433)
여자	84.3	6.4	5.1	3.9	0.3	100.0	(1,594)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69.7	8.8	8.1	12.2	1.3	100.0	(319)
중학교	74.8	9.4	7.8	7.2	0.8	100.0	(627)
고등학교	92.8	4.7	2.0	0.5	0.0	100.0	(1,331)
전문대학 이상	98.3	1.1	0.4	0.3	0.0	100.0	(750)
결혼상태							
유배우	88.5	4.9	3.4	3.2	0.0	100.0	(2,592)
무배우	84.8	6.9	3.9	2.3	2.1	100.0	(435)
가구유형							
1인 가구	79.5	9.0	3.6	2.4	5.4	100.0	(166)
부부가족	63.2	10.9	13.0	13.0	0.0	100.0	(285)
부/모+미혼자녀	92.6	3.9	2.1	1.4	0.0	100.0	(2,243)
확대가족	82.1	7.6	4.2	6.1	0.0	100.0	(329)
기타가족	75.0	0.0	25.0	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88.8	5.4	2.9	2.7	0.3	100.0	(2,300)
미취업	85.4	4.7	5.2	4.3	0.4	100.0	(728)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78.1	8.1	6.1	6.8	0.9	100.0	(968)
300~500만 원 미만	89.2	5.5	3.1	2.1	0.0	100.0	(1,050)
500만 원 이상	96.2	2.1	1.3	0.4	0.0	100.0	(1,007)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5〉 베이비 부머가 친밀감을 느끼는 자녀의 특성

(단위: %, 명)

특성	없음	장남	기타 아들	장녀	기타 딸	동일	계	(명)
전체	0.6	38.6	7.9	35.3	7.3	10.3	100.0	(2,871)
지역								
동부	0.7	38.1	8.6	35.5	7.2	10.0	100.0	(2,389)
읍·면부	0.0	41.3	4.7	34.2	8.0	11.8	100.0	(482)
출생년도								
1955~1959년생	0.8	39.3	8.4	35.2	7.1	9.3	100.0	(1,552)
1960~1963년생	0.4	37.9	7.3	35.4	7.5	11.5	100.0	(1,319)
성								
남자	1.0	39.6	8.0	32.7	7.3	11.4	100.0	(1,331)
여자	0.2	37.8	7.8	37.5	7.3	9.3	100.0	(1,540)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1.8	32.3	6.6	41.3	8.4	9.6	100.0	(284)
중학교	1.1	44.6	7.4	33.3	6.2	7.5	100.0	(593)
고등학교	0.2	38.4	6.7	36.4	8.1	10.3	100.0	(1,259)
전문대학 이상	0.5	36.6	10.9	32.7	6.5	12.8	100.0	(7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4	35.4	2.4	35.0	8.3	1.6	100.0	(93)
미취업	0.0	39.2	4.0	46.1	6.9	3.9	100.0	(243)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0.0	38.4	8.4	34.5	7.4	11.3	100.0	(2,221)
300~500만 원 미만	0.0	41.2	9.0	32.5	6.6	10.7	100.0	(311)
500만 원 이상	20.8	19.7	0.0	42.2	17.3	0.0	100.0	(3) ¹⁾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6〉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여가활동 빈도(1순위)

(단위: %, 명)

특성	주4회 이상	주2~3회	주1회	2주1회	월 1회	월1회 미만	계	(명)
전체	34.2	27.5	16.2	6.6	12.1	3.4	100.0	(3,027)
지역								
동부	33.4	27.5	17.2	6.8	12.1	3.0	100.0	(2,420)
읍·면부	37.9	27.4	11.4	5.5	12.4	5.5	100.0	(493)
출생년도								
1955~1959년생	35.8	27.8	15.1	5.6	12.3	3.5	100.0	(1,563)
1960~1963년생	32.3	27.1	17.5	7.8	12.0	3.3	100.0	(1,352)
성								
남자	30.3	25.7	18.7	7.6	13.5	4.1	100.0	(1,376)
여자	37.6	29.0	14.0	5.7	10.9	2.7	100.0	(1,53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1.5	29.9	11.7	4.4	18.8	3.7	100.0	(298)
중학교	33.5	30.6	13.5	5.9	11.3	5.2	100.0	(594)
고등학교	34.8	25.7	16.4	6.8	13.1	3.1	100.0	(1,278)
전문대학 이상	34.5	27.0	19.9	7.8	8.5	2.3	100.0	(744)
결혼상태								
유배우	34.2	27.5	16.2	6.7	12.1	3.3	100.0	(2,511)
무배우	34.2	27.3	16.1	6.2	12.2	4.0	100.0	(403)
가구유형								
1인 가구	40.1	26.1	15.3	5.7	12.1	0.6	100.0	(157)
부부가족	36.2	31.9	13.0	5.5	11.8	1.6	100.0	(254)
부/모+미혼자녀	33.7	27.5	16.7	6.4	12.6	3.2	100.0	(2,178)
확대가족	32.7	24.8	16.0	9.4	9.1	7.9	100.0	(318)
기타가족	25.0	50.0	0.0	0.0	0.0	25.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31.3	27.0	17.3	7.1	13.5	3.9	100.0	(2,205)
미취업	43.0	28.9	13.0	5.1	8.0	2.0	100.0	(70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34.8	28.6	15.4	5.0	12.5	3.7	100.0	(896)
300~500만원만	33.2	27.2	15.9	7.9	13.9	2.0	100.0	(1,025)
500만 원 이상	34.7	26.6	17.4	6.8	9.9	4.6	100.0	(991)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7〉 베이비 부머의 제특성별 여가활동 동행인(1순위)

(단위: %, 명)

특성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활동	기타	계	(명)
전체	46.8	15.6	30.8	6.5	0.3	100.0	(3,027)
지역							
동부	45.7	15.9	31.0	7.0	0.4	100.0	(2,420)
읍·면부	51.9	13.8	30.0	4.3	0.0	100.0	(493)
출생년도							
1955~1959년생	49.5	14.8	29.0	6.4	0.3	100.0	(1,563)
1960~1963년생	43.6	16.4	33.0	6.7	0.3	100.0	(1,352)
성							
남자	44.1	15.6	30.5	9.3	0.4	100.0	(1,376)
여자	49.1	15.5	31.1	4.0	0.2	100.0	(1,53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52.2	10.4	34.7	2.7	0.0	100.0	(298)
중학교	49.3	16.2	30.6	3.9	0.0	100.0	(594)
고등학교	46.2	14.4	32.9	6.3	0.2	100.0	(1,278)
전문대학 이상	43.4	19.2	25.9	10.5	0.9	100.0	(744)
결혼상태							
유배우	43.9	17.4	31.4	6.9	0.4	100.0	(2,511)
무배우	64.4	4.0	27.4	4.2	0.0	100.0	(403)
가구유형							
1인 가구	70.3	0.6	24.1	5.1	0.0	100.0	(157)
부부가족	51.4	17.3	25.1	6.3	0.0	100.0	(254)
부/모+미혼자녀	44.4	16.3	32.2	6.7	0.4	100.0	(2,178)
확대가족	47.5	17.0	29.2	6.0	0.3	100.0	(318)
기타가족	66.7	0.0	33.3	0.0	0.0	100.0	(4) ¹⁾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5	16.4	30.5	7.2	0.4	100.0	(2,205)
미취업	50.7	13.0	31.7	4.5	0.1	100.0	(709)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56.7	11.9	27.0	4.4	0.0	100.0	(896)
300~500만원미만	45.1	15.9	32.0	6.8	0.1	100.0	(1,025)
500만 원 이상	39.6	18.5	33.0	8.2	0.8	100.0	(991)

주: 1)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8〉 베이비 부머의 출생년도·성별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활동(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출생년도		성	
		1955~ 1959년생	1960~ 1963년생	남자	여자
책읽기	3.3	2.8	3.9	2.8	3.7
글쓰기	0.7	0.5	0.9	0.2	1.1
영화감상	1.4	1.3	1.4	1.0	1.8
전시회관람	0.7	0.8	0.5	0.3	1.0
뮤지컬 및 연극감상	1.6	1.3	1.9	0.6	2.6
노래부르기	3.0	3.1	2.9	1.0	4.7
악기 연주	1.9	1.3	2.6	2.1	1.7
음악듣기	0.9	1.1	0.6	0.7	1.1
춤추기	1.1	1.2	1.0	0.4	1.7
바둑, 장기, 체스	1.3	1.3	1.2	2.6	0.1
화투, 카드	0.6	0.7	0.4	0.4	0.7
여행	37.0	36.8	37.3	32.9	40.8
낚시	6.0	5.9	6.0	11.7	0.8
운동(스포츠)	10.8	10.2	11.5	12.9	9.0
스포츠관람	0.5	0.4	0.5	0.8	0.2
등산	13.0	13.9	12.0	18.1	8.5
공예	0.5	0.4	0.7	0.2	0.8
다도	0.2	0.2	0.1	0.1	0.2
사진찍기	1.1	1.1	1.0	1.4	0.8
교양강좌수강	1.3	1.2	1.5	0.2	2.3
그림그리기	0.7	0.5	0.9	0.3	1.0
서예	1.0	1.1	0.8	0.8	1.2
라디오듣기	0.3	0.4	0.1	0.2	0.3
컴퓨터 및 인터넷	1.0	1.1	0.9	0.9	1.1
게임	0.1	0.1	0.1	0.1	0.1
친목모임	3.2	3.7	2.7	2.8	3.6
화초가꾸기	3.4	3.9	2.9	1.9	4.8
산책	3.5	3.5	3.5	2.5	4.3
기타	0.2	0.2	0.1	0.1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1)	(1,630)	(1,391)	(1,429)	(1,595)

〈부표 9〉 베이비 부머의 지역·교육수준별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활동(1순위)

(단위: %, 명)

	전체	지역		교육수준			전문대이상
		동부	읍·면부	초졸	중졸	고졸	
책읽기	3.3	3.6	1.7	2.2	3.2	2.6	4.8
글쓰기	0.7	0.8	0.2	0.3	1.4	0.6	0.4
영화감상	1.4	1.4	1.1	0.0	1.1	1.7	1.6
전시회관람	0.7	0.8	0.4	0.3	0.3	0.6	1.2
뮤지컬 및 연극감상	1.6	1.8	0.9	1.3	0.5	1.7	2.7
노래부르기	3.0	3.2	2.1	4.7	5.3	3.0	0.4
악기 연주	1.9	2.0	1.5	0.9	0.8	2.2	2.7
음악듣기	0.9	0.8	1.5	0.6	0.3	1.4	0.7
춤추기	1.1	1.2	0.4	0.9	1.8	1.3	0.4
바둑, 장기, 체스	1.3	1.4	0.7	0.6	0.5	1.7	1.6
화투, 카드	0.6	0.4	1.5	0.9	0.6	0.7	0.1
여행	37.0	36.2	41.0	39.6	35.6	36.6	37.8
낚시	6.0	5.9	6.0	4.7	7.5	6.5	4.1
운동(스포츠)	10.8	10.9	10.7	6.9	8.0	10.7	15.2
스포츠관람	0.5	0.5	0.2	0.9	0.2	0.2	1.1
등산	13.0	12.5	15.4	14.5	13.6	13.5	10.9
공예	0.5	0.6	0.2	0.3	0.5	0.5	0.8
다도	0.2	0.2	0.0	0.0	0.0	0.2	0.4
사진찍기	1.1	1.2	0.4	0.3	0.8	1.4	0.9
교양강좌수강	1.3	1.5	0.6	0.3	1.3	1.7	1.3
그림그리기	0.7	0.8	0.4	0.3	0.3	0.2	2.1
서예	1.0	0.9	1.3	0.0	0.5	1.5	0.8
라디오듣기	0.3	0.2	0.6	1.3	0.5	0.1	0.0
컴퓨터 및 인터넷	1.0	0.7	2.2	1.6	1.9	0.5	1.1
게임	0.1	0.0	0.0	0.0	0.0	0.1	0.0
친목모임	3.2	3.1	3.9	6.0	3.8	2.7	2.5
화초가꾸기	3.4	3.8	1.9	4.4	6.1	2.7	2.3
산책	3.5	3.5	3.4	6.0	3.7	3.7	1.7
기타	0.2	0.2	0.0	0.0	0.0	0.2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021)	(2,487)	(534)	(318)	(626)	(1,332)	(749)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Research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
연구 2010-02	화귀난치성질환자의 약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키아	5,000
연구 2010-03	해외의료시장 개혁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미정
연구 20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가혜	6,000
연구 20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
연구 20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
연구 20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
연구 2010-08	간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
연구 20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미정
연구 20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
연구 20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
연구 20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
연구 20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
연구 20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
연구 20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
연구 20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2010-19	이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
연구 20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자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
연구 20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미정
연구 2010-22	장애인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
연구 20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
연구 20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
연구 20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
연구 20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
연구 20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
연구 20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
연구 20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미정
연구 20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
연구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
연구 20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
연구 20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기차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
연구 20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
연구 20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외부)	6,000
연구 2010-30-8	차별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
연구 20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
연구 20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
연구 20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
연구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
연구 20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
연구 20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
연구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30-17	산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
연구 2010-30-19	예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 2010-30-20	산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
연구 2010-30-21	산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미정
연구 20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
연구 2010-31-2	2010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
연구 20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
연구 20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
연구 20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
연구 20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
연구 20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
연구 20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가설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
연구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가설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
연구 20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
연구 20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
연구 2010-33	보건의료지원태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
연구 20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
연구 2010-35	취약위험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미정
연구 20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
연구 20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
연구 20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
연구 20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
연구 20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
연구 20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권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제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I)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의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과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